

2024년 조선후기 한일관계 국제학술회의

# ‘조선후기 한일교류 연구의 현재, 미래’

| 일시: 2024. 9. 6 (금) 09:00 ~ 18:00

|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 주최: 동북아역사재단·한일관계사학회

## Program

### ‘조선후기 한일교류 연구의 현재, 미래’

□ 주최 :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사학회

□ 일시·장소 : 2024. 9. 6(금) 9:00~18:00,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

시간	발표 및 내용
<b>개회식</b> 남상구 연구정책실장(동북아역사재단)	
9:00~9:30	등록
9:30~9:40	· 개회사: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9:40~9:50	· 환영사: 나행주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9:50~10:00	기념 촬영 및 휴식
<b>제1부 대마도 종가문서와 한일관계 연구의 궤적</b> 사회: 남상구	
10:00~10:45	· 기조 강연 : 종가기록에서 배우다 다시로 카즈이(田代和生, 게이오 대학 명예교수, 일본학사원 회원)
10:45~11:25	· 기조강연 : 대마도 종가문서와 한국의 한일관계사 연구 ‘30년’ 이훈(한림대)
11:25~12:00	· '통역'으로 본 근세 한일관계사 발표- 사카이 마사요(酒井雅代, 오쓰마 여자대학) 토론- 이재훈(동의대)
12:00~13:20	오찬
<b>제2부 다시 읽는 통신사와 문위행</b> 사회: 나행주(건국대)	
13:20~14:00	· 『역관입료어원(詔官入料御願)』 프로세스와 지원요청 논리 발표- 이시다 도오루(石田徹, 시마네 현립대학) 토론- 이형주(국민대)

14:00~14:40	· 일본의 조선통신사 기록에 보이는 삽화 발표- 윤유숙(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장순순(전주대)
14:40~15:20	· 근세 후기 통신사와 일본인과의 학술 교류-'간세이 이학 금지'를 매개로 발표- 마츠모토 도모야(松本智也, 시코쿠가쿠인 대학) 토론- 이상규(국사편찬위원회)
15:20~15:25	휴식
<b>제3부 근대 전환기의 한일관계</b> 사회: 박한민(동북아역사재단)	
15:25~16:05	· 막말· 메이지 초기 왜관과 '관수일기' 발표- 현명철(한일관계사학회) 토론- 유채연(전북대)
16:05~16:45	· 조선국왕과 대마도주의 외교 선물 교환: 1864년 일본의 조문 사절과 축하 사절 사례 발표- 정성일(광주여대) 토론- 허지은(서강대)
16:45~16:50	휴식 및 장내 정리
16:50~18:00	종합토론 좌장 : 하우봉(전북대 명예교수)
18:00	폐회

時間	発表及び内容
<b>開会式</b> ナム・サング 研究政策室長(東北亜歴史財団)	
9:00~9:30	登録
9:30~9:40 9:40~9:50	・開会の辞: パク・ジヒャン 東北亜歴史財団理事長 ・歓迎の辞: ナ・ヘンジ 韓日関係史学会会長
9:50~10:00	記念撮影・休憩
<b>第一部 対馬宗家文書と韓日関係研究の軌跡</b> 司会: ナム・サング	
10:00~10:45	・基調講演: 宗家文書に学ぶ 田代和生(慶応大学名誉教授, 日本学士院会員)
10:45~11:25	・基調講演: 対馬島宗家文書と韓国の韓日関係史研究‘30年’ イ・フン(翰林大学)
11:25~12:00	・‘通訳’からみた近世日朝関係史 発表- 酒井雅代(大妻女子大学) 討論- イ・ジェフン(東義大学)
12:00~13:20	昼食
<b>第二部 通信使と問慰行を読み直す</b> 司会: ナ・ヘンジュ(建國大学)	
13:20~14:00	・『訳官入料御願』プロセスと援助要請の論理 発表- 石田徹(島根県立大学) 討論- イ・ヒョンジュ(国民大学)

14:00~14: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日本の朝鮮通信使記録に見られる挿絵</li> </ul> 発表- ユン・ユスク(東北亜歴史財団) 討論- ジャン・スンスン(全州大学)
14:40~1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近世後期の通信使と日本人との学術交流-「寛政異学の禁」を媒介に</li> </ul> 発表- 松本智也(四国学院大学) 討論- イ・サンギョ(国史編纂委員会)
15:20~15:25	休憩
<b>第三部 転換期の韓日関係</b> 司会: パク・ハンミン(東北亜歴史財団)	
15:25~16: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幕末・明治初期の倭館と&lt;館守日記&gt;</li> </ul> 発表- ヒョン・ミョンチョル(韓日関係史学会) 討論- ユ・チェヨン(全北大学)
16:05~16: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朝鮮国王と対馬島主の外交礼物交換-1864年における日本の甲問使節と祝賀使節の事例</li> </ul> 発表- ジョン・ソンイル(光州女子大学) 討論- ホ・ジウン(西江大学)
16:45~16:50	休憩
16:50~18:00	総合討論 座長: ハ・ウボン(全北大学 名誉教授)
18:00	閉会

# 목 차

1. 기조 강연 : 종가기록에서 배우다	
- 다시로 카즈이(田代和生, 게이오 대학 명예교수, 일본학사원 회원) .....	31
2. 기조강연 : 대마도 종가문서와 한국의 한일관계사 연구 '30년'	
- 이훈(한림대) .....	45
3. '통역'으로 본 근세 한일관계사	
- 발표-사카이 마사요(酒井雅代, 오쓰마 여자대학) .....	71
토론- 이재훈(동의대) .....	81
4. 『역관입료어원(訳官入料御願)』 프로세스와 지원요청 논리	
- 발표-이시다 도오루(石田徹, 시마네 현립대학) .....	101
토론- 이형주(국민대) .....	114
5. 일본의 조선통신사 기록에 보이는 삽화	
- 발표-윤유숙(동북아역사재단) .....	119
토론- 장순순(전주대) .....	137
6. 근세 후기 통신사와 일본인과의 학술 교류-'간세이 이학 금지'를 매개로	
- 발표-마츠모토 도모야(松本智也, 시코쿠가쿠인 대학) .....	154
토론- 이상규(국사편찬위원회) .....	166
7. 막말· 메이지 초기 왜관과 '관수일기'	
- 발표-현명철(한일관계사학회) .....	173
토론- 유채연(전북대) .....	
8. 조선국왕과 대마도주의 외교 선물 교환: 1864년 일본의 조문 사절과 축하 사절 사례	
- 발표-정성일(광주여대) .....	201
토론- 허지은(서강대) .....	236

# 目次

1. 基調講演：宗家文書に学ぶ  
- 田代和生(慶応大学名誉教授, 日本学士院会員) / 21
2. 基調講演：対馬島宗家文書と韓国の韓日関係史研究‘30年’  
- イ・フン(翰林大学) / 66
3. 通訳‘からみた近世日朝関係史  
- 発表- 酒井雅代(大妻女子大学) / 71  
- 討論- イ・ジェフン(東義大学)
4. 『訳官入料御願』プロセスと援助要請の論理  
- 発表- 石田徹(島根県立大学) / 85  
- 討論- イ・ヒョンジュ(国民大学)
5. 日本の朝鮮通信使記録に見られる挿絵  
- 発表- ユン・ユスク(東北亜歴史財団) / 133  
- 討論- ジャン・スンスン(全州大学)
6. 近世後期の通信使と日本人との学術交流—「寛政異学の禁」を媒介に  
- 発表- 松本智也(四国学院大学) / 141  
- 討論- イ・サンギョ(国史編纂委員会)
7. 幕末・明治初期の倭館と〈館守日記〉  
- 発表- ヒョン・ミョンチョル(韓日関係史学会) / 196  
- 討論- ユ・チェヨン(全北大学)
8. 朝鮮国王と対馬島主の外交礼物交換—1864年における日本の弔問使節と  
祝賀使節の事例  
- 発表- ジョン・ソンイル(光州女子大学) / 234  
- 討論- ホ・ジウン(西江大学)

##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입니다.

맹렬했던 무더위가 한풀 꺾인 듯한 이 때, 동북아역사재단과 한일관계사학회가 주최하는 ‘조선후기 한일교류’ 학술회의를 찾아주신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일관계사학회 나행주 회장님, 기조강연을 맡아주신 게이오대학의 다시로 카즈이 명예교수님, 한림대 이훈 교수님, 멀리 일본과 한국에서 모여 주신 발표자,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유구한 한일관계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었던 시기는 없지만, 과거 조선과 일본은 무려 7년에 걸친 임진왜란을 겪은 후, 놀랍게도 약 10년 만에 다시 국교를 맺었습니다. 전쟁이라는 비극으로 인해 두 나라가 제각기 무겁고 깊은 상처를 품게 되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빠르고 과감하게 국교를 다시 맺고 조선통신사를 파견한 사실에서, 옛 선조들이 외교관계의 유지와 양국 교류를 얼마나 중요시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학술회의는 그러한 ‘선조들의 혜안’을 통해 지속될 수 있었던 조선후기 한일관계를 다양한 측면에서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선시대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마도가 이른바 ‘대마도 종가문서’라 불리는 방대한 분량의 사료를 남긴 덕택에 이 분야의 연구는 학문적인 정치함을 거듭해 왔습니다.

저도 대마도에 갔을 때 종가문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한국 학계에서 종가문서를 활용한 연구가 어언 30여 년을 맞이한 이제, 오늘의 학술회의가 교류사 연구의 미래를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사는 오늘을 이해하는 거울이고 내일을 준비하는 바탕이 됩니다. 지나온 한일관계의 역사를 이해해야 오늘을 살아가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를 바라보는 감각이 생기리라 믿습니다.

양국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만큼 아무쪼록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학문 후속 세대 간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술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북아역사재단과 한일관계사학회 실무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24년 9월 6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

## 開会の辞

おはようございます。 東北亞歴史財団理事長のパク・ジヒョンです。

猛烈な暑さが和らぐようなこの頃、東北亞歴史財団と韓日関係史学会が主催する「朝鮮後期の韓日交流」学術会議にお越しくくださった皆様、お会いできて嬉しいです。

韓日関係史学会のナ・ヘンジュ会長、基調講演を担当してくださった慶応大学の田代和生名誉教授、翰林大学のイ・フン教授、遠く日本と韓国からお集まりくださった発表者、討論者の皆様にも感謝の気持ちをお伝えします。

悠久の韓日関係で特別な意味がなかった時期はありませんが、かつて朝鮮と日本は、7年にもわたる文禄・慶長の役を経験した後、驚くべきことに約10年ぶりに再び国交を結びました。戦争という悲劇から両国がそれぞれ深い傷を抱くようになったことはいうまでもないでしょう。しかし、にもかかわらず、迅速かつ果敢に国交を再開し、朝鮮通信使を派遣した事実から、昔の祖先が外交関係の維持と交流をどれほど重視していたかが分かります。

今日の学術会議は、その「先祖の慧眼」を通じて持続することができた朝鮮後期の韓日関係を、様々な側面から探ってみるために設けられました。朝鮮時代の韓日関係においてもっとも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対馬が、いわゆる「対馬宗家文書」と称される膨大な史料を残してくれたおかげで、この分野の研究は、学問的な精緻さを重ねて来ることができました。私も以前対馬へ行った際、宗家文書を目にしたことがあります。韓国の学界で宗家文書を活用した研究が、およそ30年を迎えた今、今日の学術会議が交流史研究の未来を省察する機会になることを期待します。

歴史は今日を理解する鏡であり、明日を準備する土台であります。韓日関係の歴史を理解してこそ、今日を生きていく韓国と日本がお互いを見つめる感覚が生まれると信じています。両国を代表する専門家が久しぶりに顔を合わせたた

けに、豊かな議論が行われるとともに、今後両国の次世代研究者どうしの共同研究や学術交流がさらに活発になることを願います。

また、学術行事の準備のためにご尽力くださった東北亞歴史財団と韓日関係史学会の実務者の方々に感謝の気持ちをお伝え致します。

2024年9月6日

東北亞歴史財団理事長 朴枝香

## 환영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학회 ‘한일관계사학회’ 제17대 회장을 맡고 있는 건국대 나행주입니다.

우선 이번 「조선후기 한일교류사 연구의 현재, 미래」라는 주제로, 동북아 역사재단 주최의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고, 아울러 근세한일관계사 및 한국근세사 이해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종가문서의 사료적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이러한 성대한 학술회의 개최를 허락해 주신 박지향 이사장님께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영사이니만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특히 멀리 일본에서 오신 선생님들, 기조강연을 맡아주실 종가문서 연구의 개척자·산증인이자 최고 권위자이신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 선생님을 비롯해 귀중한 발표를 해주실 세 분[사카이 마사요(酒井雅代), 이시다 도오루(石田徹), 마쓰모토 도모야(松本智也)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환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일관계사학회 회장으로서 이번 학술대회 개최에 남다른 감회를 느낍니다. 우리 학회가 1992년에 창립되어 33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학술회의에서는 <대마도 종가문서와 한국의 한일관계사 연구 30년>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지난 30년에 걸친 한일관계사 연구와 종가문서 연구를 회고하는 기조강연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기조강연과 발표를 맡으신 네 분의 한국 연구자는 모두 우리 학회의 회원이시고, 특히 기조 강연을 맡으신 이훈 선생님, 주제발표를 해주실 정성일 선생님, 현명철 선생님은 각각 우리 학회의 제10대, 제12대, 제15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결국 우리 학회가 한국에서의 종가문서 연구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왔으며, 더욱이 조선후기 한일관계 연구를 견인해 왔다고 생각하면 그 감개무량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한국 측의 기조강연과 발표를 맡아주신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학회의 중심적 위치에서 활동하고[장순순·이상규 부회장. 허지은·유채연·이재훈·이형주 이사] 직접 자신의 연구주제를 종가문서를 이용하여 연구하고 계신 6분의 토론자 선생님들의 정성이 담긴 그러면서도 날카로운 토론을 준비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합니다. 토론자 선생님들 덕분에 학술행사가 더욱 알차고 풍성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망하신 중에도 종합토론 좌장을 맡아주신 우리 학회의 초대 회장이신 하우봉 교수님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술회의 자리가 한일 학계의 조선후기 한일관계 연구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리라 확신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이번 학술회의가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 간의 학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양국의 일반 시민들에게도 그 성과가 공유되기를 염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되는 무더위 속에서 이번 학술대회 준비를 위해 많은 땀을 흘리신 윤유숙 선생님(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연구소 소장)을 비롯한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환영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9월 6일

한일관계사학회 회장 나행주

## 歓迎の辞

羅幸柱（ナ・ヘンジュ）韓日関係史学会会長

みなさん、こんにちは。韓国を代表する名品学会である韓日関係史学会第17代会長を務めている建国大学のナ・ヘンジュです。

今回、「朝鮮後期における韓日交流研究の現在と未来」という国際学術会議の開催に至ったことをお祝いします。なお、近世朝日関係史および韓国近世史の理解に欠かせない対馬宗家文書の史料的重要性を認識し、盛大な学術会議を開催できるようご協力くださった朴枝香（パク・ジヒャン）理事長に敬意と感謝の言葉を申し上げます。

今日、この場に参加された皆さま、心から歓迎します。特に、遠くからお越しくださった日本の先生方、基調講演をお引き受けくださった宗家文書研究の最高権威でいらっしゃる田代和生先生をはじめ、ご報告をお引き受けくださった酒井雅代・石田徹・松本智也先生にも心から感謝し、歓迎します。

韓日関係史学会の会長として、私は今回の学術会議の開催に特別な感慨を感じます。実は、うちの学会は1992年に創立され、今年で33年目を迎えますが、今日の会議で「対馬島宗家文書と韓国の韓日関係史研究30年」と題して、韓国において30年にわたる韓日関係史研究を回顧する基調講演を用意しているからです。

基調講演と発表を担当された4人の韓国の研究者の方は、全員当学会の会員であり、特に基調講演を担当されたイ・ファン先生、発表をしてくださるチョン・ソンイル先生、ヒョン・ミョンチョル先生は、当学会の会長を歴任された方たちです。当学会が韓国における宗家文書研究の歴史とともに成長してきたこと、朝鮮後期の韓日関係史研究を牽引してきたことを思い起こせば、実に感無量です。

なお、討論を務めてくださる六人は、現在学会で中心的な存在として活躍していて、ご自分でも宗家文書を活用して研究成果を出されている方たちです。皆さん鋭い討論を用意されているであろうと期待しております。討論者の方にも感謝申し上げます。多忙な中で総合討論の座長をお引き受けくださった、学会の初代会長のハ・ウボン教授にも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

今日の学術会議をもって、韓国と日本、両国学界の近世日朝関係史研究の現状を確認し、今後の研究の方向性を提示できるような有意義な機会になれ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さらに、今回の学術会議が韓日の研究者間の学問的交流にとどまらず、両国の一般市民にまでその成果が広がっていくことをも期待しています。

最後に、猛暑が続く中、学術大会の準備のために汗を流してくださった東北亞歴史財団のユン・ユスク先生(韓日研究所所長)をはじめ、東北亞歴史財団関係者の皆様にも感謝の言葉を申し上げます。皆様のご健勝とご多幸を願いながら歓迎の辞を終らせて頂き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2024年9月6日

韓日関係史学会会長 ナ・ヘンジュ



## 대마도 종가문서와 한일관계 연구의 궤적

- 기조 강연 : 종가기록에서 배우다  
다시로 카즈이(田代和生, 게이오 대학 명예교수, 일본학사원 회원)
- 기조강연 : 대마도 종가문서와 한국의 한일관계사 연구 '30년'  
이훈(한림대)
- '통역'으로 본 근세 한일관계사  
발표- 사카이 마사요(酒井雅代, 오쓰마 여자대학)  
토론- 이재훈(동의대)



# 宗家文書に学ぶ

田代和生(慶應義塾大学名誉教授)

---



# 宗家文書に学ぶ

田代和生(慶應義塾大学名誉教授)

## はじめに

1965年。当時中央大学の学部2年生だった私は、授業で読んだ新井白石著『折たく柴の記』の影響で、江戸時代の貨幣史に興味を抱いた。詳しく調べるため田谷博吉先生の『近世銀座の研究』(1963年、吉川弘文館)を読み進めると、宝永期(1704-1710)の貨幣改悪期に、朝鮮人参の輸入を促進するという名目で、対馬藩宗家へ良質な貿易銀貨「人参代往古銀」を特別に鑄造して交付していたという史実を初めて知った。この時期、幕府は海外への銀流出抑制策をとっており、一方で国内通用銀の質を最低20%(宝永四ツ宝銀)まで下落させていた。つまり「人参代往古銀」は、当時の貿易政策からも、また貨幣政策からも、まったく逸脱した貨幣であったことになる。偶然にも1966年田谷先生が東京へ来られ、日本銀行貨幣標本室(現在の日本銀行貨幣博物館)で史料調査をすることになり、私は先生の助手をつとめることになった。その折、日本国内に一枚だけ完全な形で現存していた「人参代往古銀」に偶然にも触れることができ、関心が貨幣史から近世日朝貿易史へと一転することになる。この貿易銀について色々と田谷先生にお尋ねするも、「分かっていることは総て本に書いた。あとは自分で調べなさい」という御返事である。その結果、対馬藩宗家が記録した膨大な宗家文書と遭遇することになり、新たな史実を解明することができた。

宗家文書は、別紙1【宗家文書保管所の変遷】に示したように、日本国内に6箇所、韓国に1箇所の合計7箇所に分割保管されている。各保管所の左上の数字は、収蔵された年である。本報告では、これら宗家文書のうち国立国会図書館、宗家文庫、韓国国史編纂委員会の3箇所に保管されるものに焦点を絞り、そこから何を学ぶことができたのか、私自身の研究履歴と重ねあわせて触れていきたい。

## 一、国立国会図書館の宗家文書

1966年。学部3年生の私は、東京永田町にある国立国会図書館を訪れた。これが宗家文書との初めての出会いである。ここの宗家文書は、①倭館⇒外務省⇒帝国図書館⇒国立国会図書館、②対馬江戸藩邸⇒養玉院（菩提寺）⇒国立国会図書館の二ルートから移管されたものである。その頃は古文書類も普通の書籍と同じ扱いで、一般閲覧室で読むことができたが、写真撮影、コピーなどによる複写は禁じられており、原稿用紙やノートなどへ一文字ずつ書き写すだけであった。

閲覧請求して初めて手にとったのが、①のルートで図書館へ入った『御商売御利潤并御銀鉄物渡并御代物朝鮮ち出高積立之覚書』である。これは私貿易を担当する元方役（後述）が記録した貿易帳簿で、内容のほとんどが数字と品目名の列記だけである。幸いなことに、数字は30分も眺めていれば次第に目が慣れてくる。難解に見えた品目名も毎年繰り返し出てくるため、そのうちに読めるようになる。まだ古文書の勉強を始めたばかりの私にとって、帳簿は大変有り難い史料だった。しかもこの帳簿は、当時隆盛期にあった私貿易の全体像を明らかにし、当時の学界の通説を覆す内容だったことが後年になって分かった。帳簿を総計すると、輸出の7割を通用貨幣の慶長銀で占め、長崎貿易における銀輸出量の数十倍に相当していたことが判明する。また輸入品のほとんどは中国産品で、生糸・絹織物が全体の8割、朝鮮人参の輸入は2割弱程度に過ぎなかったのである。

同じ帳簿ではあるが、②のルートによる『日本より差渡諸色朝鮮より差越候品々覚書』は、老中への貿易申告記録である。先の私貿易帳簿と時代が重なるため、数字の比較ができて興味深い。幕府へ申告した数字は、銀の輸出量はもとより、人参・中国産生糸の輸入量が実際よりも過小に申告されており、特に大きく減額されたのが中国産生糸である。これによって日本からの輸出銀は、あたかも人参の輸入に多く充てられているかのように見え、「銀輸出は人参輸入のために」を看板に掲げ、「人参代往古銀」の特許を願った対馬藩の政治的思惑が透けてくる。この激しい偽装工作は、貞享2年(1685)発令された御定高仕法（通称、貞享令）を意識してのこと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

次に閲覧したのが、②のルートで国立国会図書館へ入った『朝鮮渡銀位御願之通往古銀被蒙仰候記録』（三冊）と『朝鮮渡銀位御願之通往古銀御免被蒙仰御引替記録』（三冊）である。いずれも対馬藩江戸藩邸に伝わった記録類である。このうち前者は、「人参代往古銀」交付の決定権を握っていた勘定奉行萩原重秀との交渉記録で、後者は交付された往古銀の引替に関する記録である。ただし先の帳簿類と異なり、文章がみっちり書かれたこの記録は、藩の祐筆（書記）が丁寧に清書した読み易い字体ではあるものの、初級レベルの自分にとって解読にかなりの時間を必要とした。その頃はまだ古文書関係の辞書は無く、書道家が利用する字体の

変化の凡例集とでもいふべき高田竹山監修『五體字類』(西東書房、初版1916年)だけが頼りである。ところが史料を書き写してゆくうちに、繰り返して出てくる文章や常套語に気づいた。しかも筆写することで文章が自然と頭の中に入り、いつしか内容が理解できるようになった。私が古文書を読めるようになったのは、ひとえに宗家文書のお陰という外ない。

倭館記録の柱ともいふべき『(館守)毎日記』を閲覧したのは、大学院進学後のことである。初めに記事の豊富な渡航船に注目し、己酉約条に規定された特送船、歳遣船、受図書船、飛船(小船)などの航行実態を調べた。そこから銀専用の運搬船「御銀船」の入港時期が7月~8月、10月~11月に集中していることを知り、前者で運搬する銀を「皇曆銀」、後者を「冬至銀」と称していたことから、朝鮮が中国へ派遣する朝貢使節団がからんでいることが分かった。帳簿類には年額しか記録されないが、逐次的に記載される日記だからこそうした季節変動の謎を突き止めることができ、日朝貿易が東アジア通商圏の一環であることをあらためて認識させられた次第である。私貿易担当官の元方役は正徳元年(1711)に廃止されたことから、それ以降の銀輸出高は日記によって概数を把握できたことも大きな収穫である。各所の宗家文書には役職別に執筆された大量の日記類が現存するが、ただ漫然と記事を追っていたのでは相当な時間がかかり、かつ膨大な古文書の海の中に埋没してしまう恐れがある。知りたい項目だけに絞って記事を書き留めてゆくと、記録や覚書には出てこない、案外基本的なことだが、これまで知られていない貴重な情報を長期にわたって得られる可能性がある。

逆に倭館での出来事・調べたい項目を史料に近づけてくれるのが『分類紀事大綱』である。対馬藩の朝鮮方が編纂したこの史料集は、後年「御内所御考用之御書物」と位置づけられたように、公儀へ知られることのない対馬藩が秘匿する内部史料である。本書は全部で7期にわたって編纂されており、そのうち国史編纂委員会に2期以降のものが現存して、最近翻刻が進められていることは周知のことである。ただし国立国会図書館本はより時代の古い第1期分で、私も学生時代には、近世初期から中期にかけての銀貨・人参・公木・公作米・看品・商売などといった貿易に関係する記事に注目して多に利用した記憶がある。最近本書で注目しているのは、以酌庵二世規伯玄方による「方長老覚書」(『分類紀事大綱』34)である。ここに玄方が約条に規定された渡航船の大小について「一尺ハ一尋ノユト也。綱ヲ持来テ船ノ中通ニワタシテ定也」と記述しており、船の中央に綱を持った者を配置して実際に長さを計測していた様子が伝えられている。『(館守)毎日記』には船の尺量検査のことはまったく記録されておらず、己酉約条の規定が空文化された感が否めないが、近世初期の玄方の時代にはまだ遵守されていたようだ。さらに国会本『分類紀事大綱』で貴重なのが、四冊の附録である。ここには告身・書契・短書等の写しが22通収録されており、その最古のものは成化18年(1482)の告身である。これは編者の越常右衛門が対馬の旧家を探訪して収集したもので、中世の日朝交流史研究者も多くのことを学ぶことが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 二、宗家御文庫の宗家文書

1968年。大学院修士課程に進学した年の夏、初めて対馬へ渡った。ここの宗家文書は、宗家の菩提寺萬松院の境内に建てられた「御文庫」と呼ばれる収蔵庫に集められていた。管理する者もなく、宗家家臣の子孫である津江篤郎氏に雨戸の鍵を開けて頂き、大きな踏み石に乗って初めて中に入った。

そこで見た光景は、56年たった今でも忘れることができない。入り口の左右に三段からなる大棚が設えられ、冊子が平積みにして天井までピッシリ積み上げられていた。右端の突き当たりには、倭館図・船絵図・古地図などを丸めたり、あるいは折り畳むなどして雑然と積み上げられていた。左側の突き当たりには、和本や朝鮮本を含む漢籍などが書棚に整然と置かれていた。一紙物は、何十点か紐で縛った束を、いくつもまとめて大束にして縄で縛り、それらをまるで山のように積み上げられていた。後年、御文庫の調査が実施され、総点数83,800点余という古文書や絵図類等の数が判明するが、その頃はこれ程膨大なものとは知らず、ただ漠然と多いなという感触だけだった。

1960年代の古文書調査は、ひたすら手書きで筆写することが主流であった。先述した国立国会図書館の宗家文書も、何度も通って筆写を繰り返していた。しかしそれが通える距離であれば良いが、対馬のように遙か彼方での史料調査では、予定した期間内に膨大な点数の筆写を済ませることは不可能である。そこでたどり着いたのが、写真撮影である。その当時、古文書調査にカメラを使用する研究者はあまりいなかったが、日本銀行で田谷先生が行った方法はまさにこれであった。京都住まいの先生は、短期間の東京調査で収集能力を高めるため、日銀にカメラを持ち込む許可を得ていた。幸いにも助手役を務めた私は、古文書複写のための基本的な撮影技術、例えばライトや三脚の使用、フィルムの種類、絞りとシャッタースピード、手ぶれ防止索など、デジカメの普及した現代では考えられない写真撮影のイロハを教えて頂いた。そしてあの膨大な史料群と対峙するには、写真技術の習得が必須だと痛感した。

1969年。二度目の対馬調査に備え、その頃発売された一眼レフカメラを買い込み、自宅で撮影の予行練習を繰り返した。夏に再度対馬を訪れた時、津江氏の紹介で御文庫の所有者宗武志氏にお会いし、写真による古文書調査の許可を直接得ることができた。幸いにも九州の夏は、夜8時頃まで明るい。制限時間の無い御文庫内の調査は、外が暗くなるまでひたすら写真のシャッターを押し続ける毎日であった。1970年代になると写真の技術革新はめざましく、資料複写の専用カメラ（ヒラカワ35）が開発された。これはフィルム1本で700枚撮りできるタフなカメラである。大学に就職できた1979年以降、研究費をとって学生を同行しての史料収集に切り換え、あの膨大な史料群の一部を身近に置いて研究に取り組むことが可能になった。

ここで収集した史料について、一点一点紹介する時間はないが、特に注目したのが、対馬の商人の活動にかかわることである。江戸時代対馬の城下町府中（現、厳原）には、全島の人

口の半分以上を占める人々が居住しており、一藩の都市人口比率が5割を超えるのは日本では対馬藩だけだと、歴史人口学者の速水融氏が驚いていた。それは朝鮮貿易で藩経済を維持してきた対馬藩ならではの特殊性であり、貿易による経済活動が島の内外から多くの人々を府中に引き寄せていた結果である。すなわち府中は商人の町で、その中枢にいたのが中世以来の対馬の貿易特権商人「六十人」である。近世の六十人商人は、町奉行の支配下に置かれていた。その町奉行による有力六十人商人家を対象とする御判物調査記録『六拾人御判物控』には、古いもので平山新四郎が所持する永享4年(1432)、嘉吉2年(1442)、文安4年(1447)宗貞盛が発給した三通の御判物など、中世文書の写しが多数収録されている。『六拾人現人帳』『六拾人帳』は、藩主の代替わり毎に新規に取り立てられた六十人商人の名簿であり、その由緒と特権が江戸時代に形を変えながらも脈々と受け継がれ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定役』『町二属』『大小姓』『大小姓奉公帳』『隠居・家督・跡式・御奉公出入』『御商売筋并御商売掛』などの記録からは、彼等が町政の有力者、年行司、町代官、町乙名に登用され、さらに朝鮮貿易においても極めて重要な役割を担っ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る。例えば先述した貿易帳簿を残した元方役は、天和3年(1683)創設され、正徳元年(1711)までの28年間、私貿易(開市)業務を担当する役人として倭館へ派遣された。この間、官営貿易(封進・公貿易)と私貿易の業務は分掌され、各々専門部局で経営にあたる新しい貿易運営が展開されていた。創設時元方役は10人の商人で構成され、廃止されるまでに30人の商人名が確認されるが、その総てが六十人商人とその一族で構成されていたことが判明する。藩の公的記録によって商人の具体的な活動を詳細に知ることができるのも、士分と商人が共に朝鮮貿易経営に取り組んできた対馬藩ならではのことで、御文庫に残された豊富な史料群によって彼等の実績を辿ることができる。

御文庫に収蔵された膨大な宗家文書の山は、対馬藩が記録の作成を重視し、その保存と活用によって朝鮮関係の実務に従事してきた証しでもある。しかし御文庫が幾度かの移転を繰り返すうちに、役職別に保管されていた筈の文書はただ雑然と棚に積み上げられるままになってしまった。御文庫に出入りするうち、これをこのまま放置してはいけぬ、という思いがこみ上げてきたのは私だけではない。貴重な文化財を将来にわたって保存・活用するために、まずは古文書の目録を作成し、さらに収蔵庫の防火対策、管理者の常駐、文書の修理等をはからねばならない。島の内外の多くの方々の協力によって、1975年から御文庫の調査が開始され、その2年後に完成した長崎県立歴史民俗資料館へ資料を順次移動させていった。以後断続はあるが、開始から36年目の2011年、ついに冊子類(日記・諸記録・和書・漢籍)、一紙物、絵図類等、8万点余りの目録が完成する(別紙2【宗家文庫の調査】参照)。御文庫の宗家文書が、史料保存の重要性を教えてくれた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2022年、資料館は新築された対馬博物館内の長崎県対馬歴史研究センターに受け継がれ、対馬全体の歴史学研究と資料保存が精力的に推進されている。

### 三、国史編纂委員会の宗家文書

1977年。観光旅行の一員に混じって、初めて韓国を訪れた。その時は国史編纂委員会の場所を確認しただけで、実際にここの宗家文書を見ることができたのは翌年の1978年の夏だった。その頃、国史編纂委員会はソウル市内の南山の麓にあった。初めのうちは市内のホテルに泊まり、後に梨花女子大学校や延世大学校などの宿舎に滞在して通うことができた。

南山時代の国史編纂委員会は、正面の事務棟からみて左側に「史料館」という建物があり、その2階に宗家文書が収蔵されていた。そこは古文書の収蔵庫というより、事務室風の普通の部屋で、書棚ケースをいくつか並べ、冊子と一紙物・書契などが収納されていた。冊子には茶色の表紙が新しくつけられ、年紀やタイトル、役職名や人名が墨書され、通し番号順に本を立てて架蔵されていた。書契はサイズが結構大きいため、書棚の奥行きが短い分だけ前にはみ出し、こちらは平積みにして置かれていた。閲覧室は、史料館から少し離れた事務棟にあった。目録は無く、廊下に置かれたレファレンスカードから、書名・年紀・役職名・人名などで当たりをつけ、1回に5冊くらいを限度に閲覧請求できた。史料館から事務棟まで少し距離があるため、雨の日は古文書が濡れないかと心配だった。

一度だけだが、史料館でおもしろい箱の山を見せて頂いたことがある。案内して頂いた職員の方の説明によると、これらは中村栄孝先生が総督府の朝鮮史編修会で修史官を務めていたとき、忠清道で行った史料調査での収集資料が入っているという。後で調べてみたら、中村先生は1929年6月に忠清道管区の鎮川・清州・陰城・丹陽・報恩・永同の六郡で史料探訪を行い、そのことを著書『朝鮮—風土・民族・伝統』（1971年、吉川弘文館）で詳しく記述されていた。拝見したときは宗家文書のことで頭が一杯だったため、中身を見ること無く終わったが、朝鮮史の専門家の方からみればそれこそ宝箱だったに違いない。惜しいことをしたと今になって後悔しているが、その後この資料がどのように整理され、活用されているのか、もし御存知の方がおられれば是非教えていただきたい。

国史編纂委員会での調査は、時間をかけてノートに写し取る筆写作业が中心だった。全文を写すため収集点数こそ少ないが、かわりに多くのことを宗家文書から学ぶことができた。ここで特に印象に残った記録を2点ほど、紹介しておきたい。

一つは、『詞稽古之者仕立記録』（享保21年・1736）である。これは享保12年（1727）対馬藩の儒者雨森芳洲（1668-1755）が藩へ具申して、官費をもって設置した日本初の語学学校に関する記録である。この6年前の享保6年（1721）、芳洲は渡海訳官使による密貿易事件のもみ消しを謀る家老たちと対立し、総ての役職から退いていた時期にあたる。やがてたどり着いたのが、若者への教育、特に朝鮮語通詞の養成であった。朝鮮の倭学訳官は雑科試験によって選抜された優秀な官僚であるのに対し、対馬藩の通詞は商人で構成されている。彼等は幼少期から親に連れられて倭館へ赴き、商業会話を中心に朝鮮語に親しみながら成長し、そのうち特に「言葉

上手」の者が通詞として藩に雇われていたに過ぎない。だが芳洲は、通詞職は「館守・裁判・代官と並ぶ切要な役人」（『交隣提醒』）と考えており、国や藩の重大事に従事する要職が、商人の家庭教育頼みだったことに強い危機感を抱いていた。芳洲は通詞職の組織強化と増員をはかるいっぽう、単に「言葉上手」ではない「才智」「篤学」「学問」を共に備えた知識人の育成をはかるため、新設した通詞養成所に次のような方針と課題をもって臨んだと記録にある。

#### ①募集対象

芳洲自身の朝鮮語学習の経験から、母国語以外の語学学習開始の適齢期を12歳から15歳と定め、これを募集条件とする。

#### ②教師に密貿易事件に関与して謹慎中だった元稽古通詞を起用

通詞がいかに危険な罠に陥りやすい職業であるか、処罰された元通詞を教師役に就任させ、言語だけではなく、失敗に学ぶ授業を実践させる。同時に元稽古通詞へも再雇用の機会を与える。

#### ③討論主体の対面授業を重視

成績を試験による点数だけでなく、「相考日」と称する対面授業を芳洲自ら担当し、ここへの出席日数を重視する。

『詞稽古之者仕立記録』には現代の教育学にも通じる芳洲独自の教育理念が貫かれている。長年教師を務めることになった私自身、本記録を筆写しながら実に多くのことを学ばせて頂いた。

もう一つは、対馬藩の朝鮮語通詞小田幾五郎（1755-1831）が書いた『通訳酬酢』（三冊12巻）である。幾五郎は、雨森芳洲が創設した通詞養成所の出身で、41歳にして通詞の最高位「大通詞」に抜擢された対馬随一の名通詞である。幾五郎は、多くの著書を残した。そのうちのひとつ『象胥紀聞』は、交誼を深めた訳官たちから得た様々な朝鮮事情を収録し、歴史、文化、慣習など朝鮮社会の実態を詳しく記述したものである。しかし『通訳酬酢』はこれと全く異なる。「通」（通詞）と「訳」（訳官）とのテンポ良い会話の応酬で全文が構成され、録音機など無いこの時代、読者はあたかも両者の生の声を聞いているがごとき錯覚を抱く。触れられているのは、歴史や文学、政治、軍事から自然、信仰、怪奇現象、女性、飲食、産業等々、多種多様な分野にまたがる。例えば歴史に関する会話は、「浮説の部」（巻6）に登場する。タイトルが暗示するように、ここでは確たる根拠を明示せず、あくまでも噂話の形で会話が続く。神功皇后伝説、三韓時代、三国時代のこと、やがてモンゴル・高麗連合軍の日本襲来、倭寇、文祿・慶長の役についても、まるで史実を避けるがごとく会話が外へ外へと逃れていく。壬辰倭乱は「壬辰年乱」と呼び変えられ、被虜人李文長の子孫李田氏などは、三韓時代に対馬へ逃れた者として会話に登場する。過去に衝突の歴史を重ねた者同士が、さきわい話題を曖昧にしながら、どのようにして別な話題に切り換えれば良いか、触れて欲しくない会話に至ったとき、それをどのように回避するのか、双方の心を読み取りながら通詞としての術が暗示されているのである。会話の相手である訳官を見る幾五郎の視線は、常に冷静である。横柄な態度の

両班を相手に、一步もひかない訳官の矜持は、倭館へ武器を持ち込もうとする両班をたしなめる言葉に象徴的に示されている。幾五郎は両班に「レキレキ」(歴々=お偉方)と振り仮名をつけ、階層社会の矛盾の中で生きる訳官の姿を余すこと無く書き留めている。『通訳酬酢』を通して、「通詞は倭館の要職」とした雨森芳洲の深慮を窺い知ることができ、さらに朝鮮の階層社会が抱える厳しい実相をあらためて学ぶことができた。

## 結び

宗家文書は、日朝外交・貿易の現場で生きた人々の記録であり、江戸幕府や朝鮮王朝側の記録にはない、貴重な史実を現代に蘇らせてくれる。当初は日本の研究者の間だけで注目されていたが、近年は日本以外の研究者、特に韓国の若手研究者が難解な古文書解読に挑み、ここから東アジア外交史・経済史・文化史を再考察して多くの新たな研究成果が生まれている。

様々な事情により7箇所に分割保管されてはいるが、各保管所ごとに着実に整理作業や修理保存が進められ、私がこの世界に入った頃とは比較にならない便宜が研究者に提供されるようになった。保管所の一つである慶應義塾大学図書館では、最近「メディアセンター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の中に宗家文書の一部が入れられ、ウェブサイト内での閲覧・プリントアウトが可能になった。また国立国会図書館でも「デジタルコレクション」が進められており、現在約30冊の「宗家文書」が公開されている。解説を附した「宗家文書目録」も新たに公開され、請求記号もこれに従って順次整理がなされている。例えば、

- ① 『毎日記』【請求記号：WA1-6-34】  
<https://dl.ndl.go.jp/pid/2610801>
- ② 『別記録』【請求記号：WA1-6-33】  
<https://dl.ndl.go.jp/pid/12865421>
- ③ 『御代替記』【請求記号：WA1-6-39】  
<https://dl.ndl.go.jp/pid/12865345>

などである。最新の技術革新によって、この第一級史料が世界にはばたき、その果たす役割はさらに重要なものになっていくと確信している。



## 宗家文庫の調査

別紙 2

1975年～1977年	冊子類(日記)調査	『宗家文庫史料目録』(日記類)
1978年～1989年	冊子類(諸記録)調査	『宗家文庫史料目録』 (記録類Ⅰ・Ⅱ・Ⅲ・Ⅳ 和書・漢籍)
1998年～2008年	一紙物調査	『対馬宗家文庫史料一紙物目録』 (1・2・3)
2007年～2011年	冊子類補充調査	『対馬宗家文庫史料冊子物目録』 (第一巻・第二巻・第三巻)
2009年～2011年	絵図類等調査	『対馬宗家文庫史料絵図類等目録』

# 종가문서에서 배우다

다시로 가즈이(게이오대학교 명예교수)

## 시작하며

1965년. 당시 주오(中央)대학의 학부 2학년이었던 나는 수업에서 읽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오리타쿠시바노키(折たく柴の記)』의 영향으로 에도시대의 화폐사에 흥미를 느꼈다.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다야 히로키치(田谷博吉) 선생님의 『근세 은좌의 연구(近世銀座の研究)』(1963년, 吉川弘文館)를 읽으면서, 호에이(寶永, 1704-1710)의 화폐 개악기에 조선 인삼 수입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쓰시마 번의 소씨 가문(宗家)에 양질의 무역 은화인 '인삼대왕고은(人參代往古銀)'을 특별히 주조해 교부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이 시기, 막부는 해외 은 유출 억제책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한편으로 국내 통용 은의 질을 최저 20%(寶永四ツ寶銀)까지 하락시키고 있었다. 즉 '인삼대왕고은'은 당시의 무역정책에서든 화폐 정책에서든 완전히 일탈한 화폐였다는 이야기이다. 마침 1966년 다야 선생님이 도쿄에 오셔서 일본은행 화폐표본실(日本銀行貨幣標本室, 현재의 일본은행 화폐박물관)에서 사료 조사를 하게 되었고, 나는 선생님의 조수로 일하게 되었다. 이때 일본 국내에 한 장만 온전한 형태로 현존하던 '인삼대왕고은'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관심이 화폐사에서 근세 조일무역사로 급변하게 된다. 이 무역은(貿易銀)에 대해 이것저것 다야 선생님에게 질문해도 '알고 있는 것은 모두 책에 썼습니다. 나머지는 스스로 조사하세요'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 결과 쓰시마 번 소씨 가문에서 기록한 방대한 종가문서(宗家文書)와 조우하게 되어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종가문서는 별지1【종가문서보관소의 변천】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본 국내에 여섯 곳, 한국에 한 곳, 모두 일곱 곳에 분할 보관되어 있다. 각 보관소의 좌측 상단 숫자는 그곳에 수장된 해이다. 본 보고에서는 이들 종가문서 중에서 국립국회도서관, 종가문고, 한국국사편찬위원회의 세 곳에 보관된 종가문서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사료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었는지, 나 자신의 연구 이력과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 1. 국립국회도서관의 종가문서

1966년. 학부 3학년인 나는 도쿄 나가타초(永田町)에 있는 국립국회도서관을 방문했다. 이것이 종가문서와의 첫 만남이다. 이곳의 종가문서는 ①왜관⇒외무성⇒제국도서관⇒국립국회도서관, ②쓰시마 에도번저⇒양옥원(養玉院, 소씨 가문의 보리사)⇒국립국회도서관이라는 두 경로를 통해 이관된 것이다. 그 무렵에는 고문서류도 일반 서적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일반 열람실에서 읽을 수 있었지만, 사진 촬영, 복사 등에 의한 복사는 금지되어 있었고, 원고지나 노트 등에 한 글자씩 옮겨 적을 수밖에 없었다.

열람청구를 하고 처음 손에 쥘 것이 ①의 경로로 국회도서관에 들어온 『사무역이윤 및 은·철물 수출 및 대물을 조선에서 지급한 수량 적립에 관한 각서(御商賣御利潤并御銀鐵物渡并御代物朝鮮より出高積立之覺書)』이다. 이것은 사무역을 담당하는 모토카타야쿠(元方役, 후술)이 기록한 무역 장부로, 내용의 대부분은 숫자와 품목명이 열거되어 있을 뿐이다. 다행히 숫자는 30분 이상 바라보면 점점 눈에 익숙해진다. 난해해 보였던 품목명도 매년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곧 읽을 수 있게 된다. 이제 막 고문서 공부를 시작한 나에게 장부는 매우 고마운 사료였다. 더구나 이 장부는 당시 융성기에 있었던 사무역의 전체상을 밝히고 당시 학계의 통설을 뒤엎는 내용이었음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었다. 장부를 총계하면, 수출의 70%를 통용 화폐인 게이초은(慶長銀)이 차지하며 나가사키 무역에서 교역되는 은 수출량의 수십 배에 상당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입품 대부분은 중국산 물품으로 생사·견직물이 전체의 80%, 조선 인삼의 수입은 20% 미만 정도에 불과했다.

같은 장부이긴 하지만, ②의 경로로 들어온 『일본이 수출한 각종 품목과 조선이 수출한 각종 품목에 관한 각서(日本より差渡諸色朝鮮より差越候品々覺書)』는 로주(老中)에게 보낸 무역 신고 기록이다. 앞서 본 사무역 장부와 시대가 겹치기 때문에 숫자 비교를 할 수 있어 흥미롭다. 막부에 신고한 숫자는 은 수출량은 물론 인삼·중국산 생사의 수입량이 실제보다 과소하게 신고되었으며, 특히 크게 감액된 것이 중국산 생사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은(輸出銀)은 마치 인삼 수입에 많이 쓰이는 것처럼 보이며, '은 수출은 인삼 수입을 위한 것'이라는 명목으로 '인삼대왕고은'의 특주(特鑄)를 바랐던 쓰시마 번의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 이 치열한 위장 공작은 조교(貞享) 2년(1685) 발령된 어정고사법(御定高仕法, 통칭 貞享令)을 의식한 것임이 틀림없다.

다음으로 열람한 것이 ②의 경로로 국립국회도서관에 들어간 『조선에 수출하는 은의 품위에 관한 요청대로 인삼대왕고은을 내려주신 기록(朝鮮渡銀位御願之通往古銀被蒙仰候記錄』(3책)과 『朝鮮渡銀位御願之通往古銀御免被蒙仰御引替記錄』(3책)이다. 모두 쓰시마 번 에도번저에 전해진 기록류이다. 이 중 전자는 '인삼대왕고은' 교부의 결정권을 쥐고 있던 간조부교(勘定奉行) 오기와라 시게히데(荻原重秀)와의 교섭 기록이며, 후자는 교부된 '인삼대왕고은'의 교환에 관한 기록이다. 다만 앞의 장부류와 달리, 문장이 빼곡하게 쓰여있는 이 기록은, 번의 우필(서기)이 정성스럽게 정서한 읽기 쉬운 글자체이기는 하지만, 초급 레벨의 나 자신에게 있어서는 해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 무렵에는 아직 고문서 관련 사전은 없고, 서예가가 이용하는 글자체 변화의 범례집이라고 할 수 있는 다카다 다케야마(高田竹山) 감수 『오체자류(五體字類)』(西東書房, 초판 1916년)에만 의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료를 옮겨 쓰다 보니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장이나 상투어를 알게 되었다. 게다가 필사를 해 봄으로써 문장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왔고, 어느덧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고문서를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오로지 종가문서 덕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왜관 기록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왜관 관수 매일기(館守每日記)』를 열람한 것은 대학원 진학 후의 일이다. 처음에 관련 기사가 풍부한 도항선에 주목하여 기유약조(己酉約條)로 규정된 특송선, 세견선(歲遣船), 수도서선(受圖書船), 비선(飛船, 小船) 등의 출입항 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과정에서 은 전용 운반선 '어은선(御銀船)'의 입항 시기가 7월~8월, 10월~11월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자의 시기에 운반하는 은을 '황력은(皇曆銀)', 후자를 '동지은(冬至銀)'이라고 부르고 있던 것을 통해, 조선이 중국에 파견하는 조공 사절단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장부류에는 연간 총액밖에 기록되지 않지만, 『(館守)每日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하는 일기였으므로 이러한 계절 변동의 수수께끼를 밝혀낼 수 있었고, 조일 무역이 동아시아 통상권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다. 사무역 담당관인 모토카타야쿠(元方役)는 쇼토쿠(正德) 원년(1711)에 폐지되었으므로, 이후의 은 수출량은 일기를 통해 대략적인 수량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도 큰 수확이다. 각처의 종가문서에는 직책별로 집필된 대량의 일기류가 현존하지만, 그저 만연히 기사를 쫓다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한 방대한 고문서의 바닷속에 매몰되어 버릴 우려가 있다. 알고 싶은 항목만 집중해 기사를 메모해 나가면, 기록이나 각서에는 나오지 않는 의외로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귀중한 정보를 장기에 걸쳐서 얻을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왜관에서 일어난 일과 조사하고 싶은 항목을 사료에 접근시켜주는 것이

『분류기사대강(分類紀事大綱)』이다. 쓰시마 번의 조센카타(朝鮮方)에서 편찬한 이 자료집은 훗날 '내부 참고용 서책(御內所御考用之御書物)'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처럼 막부에는 알리지 않았던 쓰시마 번이 감춰온 내부 사료이다. 이 책은 모두 7기에 걸쳐 편찬되었으며, 그중 국사편찬위원회에 2기 이후의 것이 현존하여 최근 번각이 진행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만 국립국회도서관본은 시대가 더 오래된 제1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도 학창 시절에는 근세 초기부터 중기에 걸친 은화·인삼·공목(公木)·공작미(公作米)·간품(看品)·상업 등의 무역에 관련된 기사에 주목하며 많이 이용했던 기억이 있다. 최근 본서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정암(以酏庵) 제2세 기하쿠 겐보(規伯玄方)에 의한 「방장로각서(方長老覺書)」(『분류기사대강』34)이다. 여기에 겐포가 약조로 규정된 도항선의 크기에 대해 '일척은 일십이다. 줄을 가져와서 배의 중간에 걸쳐서 정했다(一尺ハ一尋ノユト也。綱ヲ持來テ船ノ中通ニワタシテ定也)'라고 기술하고 있어서, 배의 가운데에 밧줄을 든 사람을 배치하면서 실제로 길이를 계측하고 있던 모습이 전해진다. 『관수매일기』에는 배의 척량(尺量) 검사에 관한 일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고, 기유약조의 규정이 공문화(空文化)된 느낌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근세 초기 겐포의 시대에는 아직 준수되고 있었던 것 같다. 또한 국회본 『분류기사대강』에서 귀중한 것이 4권의 부록이다. 여기에는 고신(告身)·서계(短書) 등의 사본이 22통 수록되어 있으며, 그중 가장 오래된 것은 성화(成化) 18년(1482)의 고신이다. 이는 편자 고시 쓰네에몽(越常右衛門)이 쓰시마의 구가(舊家)를 탐방하여 수집한 것으로 중세의 조일교류사 연구자들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2. 종가어문고의 종가문서

1968년.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던 해 여름 처음으로 쓰시마로 건너갔다. 이곳의 종가 문서는 종가의 보리사인 만송원(萬松院) 경내에 세워진 '어문고(御文庫)'라고 불리는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관리하는 사람도 없이 종가 가신의 자손인 쓰노에 도쿠로(津江篤郎)씨가 덧문을 열어주어 큰 디딤돌을 딛고 처음으로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본 광경은 56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입구의 좌우에 3단으로 된 큰 선반이 설치되어 책자가 평평하게 쌓아 올려져 천장까지 가득 쌓여 있었다. 오른쪽 끝의 막다른 곳에는 왜관도(倭館館圖)·선회도(船繪圖)·고지도(古地圖) 등을 둥글게 말거나 접어서 대충 쌓아놓고 있었다. 왼쪽 막다른 곳에는 화본(和本)과 조선본

을 포함한 한적(漢籍) 등이 서가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일지물(一紙物)은 수십 점을 끈으로 묶은 다발을 다시 여러 개 모아 큰 다발로 만들어 밧줄로 묶어 그것들을 마치 산더미처럼 쌓아 올려놓았다. 나중에 어문고가 조사되면서, 총 83,800여 점이라는 고문서 및 회도류 등의 수량이 판명되지만, 그 무렵에는 이 정도로 방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단지 막연하게 많다는 느낌뿐이었다.

1960년대의 고문서 조사는 오로지 손으로 필사하는 것이 주류였다. 앞서 말한 국립국회도서관의 종가문서도 수차례에 걸쳐 다니며 필사를 반복했다. 그러나 그것이 다닐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면 좋겠지만, 쓰시마처럼 머나먼 곳에서의 사료 조사에서는 예정된 기간 내에 방대한 수량의 필사를 끝마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달한 것이 사진 촬영이다. 그 당시 고문서 조사에 카메라를 사용하는 연구자는 별로 없었지만, 일본은행에서 다야 선생님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다. 교토에 거주하는 선생님은 단기간의 도쿄 조사에서 수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일본은행에 카메라를 반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다행히도 조수역을 맡은 나는, 고문서 복사를 위한 기본적인 촬영 기술, 예를 들면 라이트나 삼각대의 사용, 필름의 종류, 조리개와 셔터 속도, 손 떨림 방지책 등, 디지털카메라가 보급된 현대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진 촬영의 기본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그 방대한 사료군과 대치하려면 사진 기술의 습득이 필수적이라고 절감했다.

1969년, 두 번째 쓰시마 조사에 대비해, 그 무렵 발매된 싱글 렌즈 반사식 카메라를 사서 집에서 촬영의 예행연습을 반복했다. 여름에 다시 쓰시마를 방문했을 때 쓰노에(津江) 씨의 소개로 어문고의 소유자인 소 다케유키(宗武志)씨를 만나 사진기로 고문서 조사를 해도 좋다는 허가를 직접 얻을 수 있었다. 다행히도 규슈의 여름은 저녁 8시경까지 밝다. 제한 시간이 없는 어문고 내의 조사는 밖이 어두워질 때까지 오로지 사진의 셔터를 계속 누르는 매일이었다. 1970년대가 되자 사진의 기술 혁신은 눈부시게 발전해 자료 복사 전용 카메라(히라카와 35)가 개발되었다. 이것은 필름 1개로 700장 찍을 수 있는 터프한 카메라이다. 대학에 취직할 수 있었던 1979년 이후, 연구비를 받아 학생들을 동행한 사료 수집으로 전환해, 그 방대한 사료군의 일부를 가까이에 두고 연구에 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수집한 사료에 대해 한 점씩 소개할 시간은 없지만, 특히 주목한 것이 쓰시마 상인들의 활동과 관련된 내용이다. 에도시대 쓰시마의 조카마치(城下町) 후추(府中. 현 이즈하라)에는 섬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한 번(藩)의 도시 인구 비율이 5할을 넘는 것은 일본에서는 쓰시마 번뿐이라며 역사인구학자인 하야미 아키라(速水融) 씨가 놀라고 있었다. 그것은 조선 무역으로

번의 경제를 유지해 온 쓰시마 번만의 특이성이며, 무역에 의한 경제활동이 섬 안팎에서 많은 사람들을 후추(府中)로 끌어들이는 결과이다. 즉 후추는 상인의 도시로, 그 중추에 있던 것이 중세 이래의 쓰시마의 무역특권 상인 '60인'이다. 근세의 60인 상인은 마치부교(町奉行)의 지배하에 놓여 있었다. 그 마치부교가 유력 60인 상인 가문을 대상으로 어판물(御判物)을 조사한 기록 『육십인어판물공(六拾人御判物控)』에는 오래된 것으로는 히라야마 신시로(平山新四郎)가 소지한 에이쿄(永享) 4년(1432), 가키치(嘉吉) 2년(1442), 분안(文安) 4년(1447) 소 사다모리(宗貞盛)가 발급한 3통의 어판물 등 중세 문서의 사본이 다수 수록되어 있다. 『육십인현인장(六拾人現人帳)』과 『육십인장(六拾人帳)』은 번주가 바뀔 때마다 신규로 임명된 60인 상인의 명단으로, 그 유서와 특권이 에도시대에 형태를 바꾸면서도 맥맥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역(定役)』, 『후추 관련된 사항(町=屬)』, 『오고쇼(大小姓)』 『오고쇼 봉공장(大小姓奉公帳)』, 『은거·가독·적식·어봉공출입(隱居·家督·跡式·御奉公出入)』 『사무역 관련 및 사무역 관계자(御商賣筋并御商賣掛)』 등의 기록에서는 이들이 정정(町政)의 유력자인 년교지(年行司), 마치다이칸(町代官), 마치오토나(町乙名)로 등용되었고, 나아가 조선 무역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무역 장부를 남긴 모토카타야쿠는 덴나(天和) 3년(1683) 창설되어 쇼토쿠(正徳) 원년(1711)까지 28년간 사무역(開市)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로 왜관에 파견되었다. 그동안 관영 무역(封進·공무역)과 사무역의 업무는 분장되어 각각 전문 부국에서 경영을 담당하는 새로운 무역 운영이 전개되고 있었다. 창설 당시 모토카타야쿠는 10명의 상인으로 구성되어 폐지될 때까지 30명의 상인 이름이 확인되는데, 그 모두가 60인 상인과 그 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사실이 판명된다. 번의 공식 기록을 통해 상인의 구체적인 활동을 상세히 알 수 있는 것도 무사 계급과 상인이 함께 조선 무역 경영을 담당해 온 쓰시마 번만의 특유한 일로, 어문고에 남겨진 풍부한 사료군에 의해 그들의 실적을 알아갈 수 있다.

어문고에 수장된 방대한 양의 종가문서의 산더미는 쓰시마 번이 기록 작성을 중시하고 그 보관과 활용을 통해 조선 관계의 실무에 종사해 온 증거이기도 하다. 그러나 어문고가 여러 번 이전을 거듭하는 가운데, 직책 별로 보관되어 있었을 문서가 그저 대충 책장에 쌓아놓은 상태가 되고 말았다. 어문고에 출입하면서 이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품은 것은 나뿐이 아니었다. 귀중한 문화재를 장래에도 보존·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고문서 목록을 작성하고 나아가 수장고의 방화 대책, 관리자의 상주, 문서의 수리 등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쓰시마 섬 안팎의 많은 분들의 협력을 얻어 1975년부터 어문고 조사가 시작되어, 그 2년 후에 완성된

나가사키현립 역사민속자료관으로 자료를 순차적으로 이동해 나갔다. 이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작업 개시로부터 36년째인 2011년 마침내 책자류(일기·제기록·일본서[和書]·한적), 일지물(一紙物), 회도류(繪圖類) 등 8만 점 남짓의 목록이 완성된다(별지2【종가문서의 조사】참조). 어문고의 종가문서가 사료 보존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2년 자료관은 신축된 쓰시마박물관 내의 나가사키현 쓰시마 역사연구센터로 이어져 쓰시마 전체의 역사학 연구와 자료 보존이 정력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 3. 국사편찬위원회의 종가문서

1977년 관광 여행 일행의 일원으로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그때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있는 곳을 확인했을 뿐이고, 실제로 이곳의 종가문서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다음 해인 1978년 여름이었다. 그 무렵 국사편찬위원회는 서울 시내의 남산 기슭에 있었다. 처음에는 시내의 호텔에 머물렀고 나중에는 이화여자대학교와 연세대학교 등의 숙소에 머무르면서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남산 시절의 국사편찬위원회는 정면의 사무동에서 보면 좌측에 '사료관'이라는 건물이 있고, 그 2층에 종가문서가 수장되어 있었다. 그곳은 고문서 수장고라기보다는 사무실 풍의 평범한 방으로, 책장 케이스를 몇 개 늘어놓았고 책자와 一紙物·서계(書契) 등이 수납되어 있었다. 책자에는 갈색 표지가 새롭게 붙었으며, 연대(年紀)와 제목, 직책명과 인명이 묵서(墨書)되어 있고, 일련번호 순으로 책을 세워 배치하고 있었다. 서계는 크기가 제법 크기 때문에 책장의 깊이가 깊지 않은 만큼 앞으로 튀어나왔고, 이들 서계는 평평하게 쌓아 두었다. 열람실은 사료관에서 조금 떨어진 사무동에 있었다. 목록은 없고 복도에 놓인 레퍼런스 카드에서 서명·연도·직급명·인명 등으로 구분하여 1회에 5책 정도를 한도로 열람청구를 할 수 있었다. 사료관에서 사무동까지 조금 거리가 있었으므로 비가 오는 날은 고문서가 젖지 않을까 걱정이었다.

한차례뿐이었지만, 사료관에서 재미있는 상자 더미를 보여준 적이 있다. 안내를 해주신 직원분의 설명에 따르면, 이 상자들에는 나카무라 히데타카(中村榮孝) 선생님이 조선총독부의 조선사편수회에서 수사관(修史官)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 충청도에서 실시한 사료 조사에서 얻은 수집 자료가 들어 있다고 한다. 나중에 조사해 보

니 나카무라 선생님은 1929년 6월 충청도 관구인 진천·청주·음성·단양·보은·영동 등 6개 군에서 사료탐방을 했고, 그 내용을 저서 『조선-풍토·민족·전통』(1971년, 吉川弘文館)에 자세히 기술하고 있었다. 이 상자들을 보았을 당시에는 머릿속이 온통 종가 문서로 정신이 없어 내용을 살피지 못하고 끝났지만, 한국사 전문가들이 본다면 그야말로 보물 상자였음이 틀림없다. 아까운 일을 했다고 이제야 후회하고 있지만, 그 후에 이 자료가 어떻게 정리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면 꼭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의 조사는 시간을 들여 노트에 옮겨적는 필사 작업이 중심이었다. 전문(全文)을 필사했기 때문에 수집 수량은 적었지만, 대신에 많은 것을 종가 문서를 통해 배울 수가 있었다. 여기서는 특히 인상에 남은 기록을 2점 정도 소개해 두기로 한다.

하나는, 『어학 연수생 양성 기록(詞稽古之者仕立記錄)』(享保 21년·1736)이다. 이것은 교호(享保) 12년(1727)에 쓰시마 번의 유학자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가 번에 요청(具申)하여 관비를 받아 설치한 일본 최초의 어학 학교에 관한 기록이다. 이보다 6년 전인 교호 6년(1721), 호슈는 문위행 일행이 벌인 밀무역 사건을 은폐하려 한 가로(家老)들과 대립하여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 있던 시기에 해당한다. 마침내 도달한 결론이 젊은이들의 교육, 특히 조선어 통사(通詞)의 양성이었다. 조선의 왜학역관(倭學譯官)은 잡과 시험으로 선발된 우수한 관료인 것에 비해 쓰시마 번의 통사는 상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유소년기부터 부친을 따라 왜관으로 가서 상업용 회화를 중심으로 조선어에 익숙해지면서 성장하다가, 그 가운데 특히 '말에 능통'한 자가 통사로서 번에 고용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렇지만 호슈는 통사직(通詞職)은 '관수(館守)·재판(裁判)·대관(代官)에 버금가는 중요한 자리(『교린제성(交隣提聲)』)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라와 번의 중대사에 종사하는 요직이 상인들의 가정교육에 의존하고 있었던 점에 강한 위기감을 품고 있었다. 호슈는 통사직의 조직강화와 증원을 도모하는 한편 단순히 '언어 능통자'가 아닌 '재지(才智)', '독학(篤學)', '학문'을 함께 겸비한 지식인의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신설한 통사양성소에는 다음과 같은 방침과 과제를 갖고 임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 ①모집대상

호슈 자신의 조선어 학습 경험에 따라 모국어 이외의 어학 학습 개시의 적령기를 12세에서 15세로 정하고 이를 모집 조건으로 한다.

#### ②교사로 밀무역 사건에 관여해 근신 중이었던 전 계고통사(稽古通詞)를 기용

통사가 얼마나 위험한 덫에 걸리기 쉬운 직업인지, 처벌을 받은 전 통사를 교사로 취임하게 함으로써 언어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해 배우는 수업을 실천하게 한다. 동시에 전 계고통사에 대한 재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 ③ 토론 중심의 대면 수업을 중시

성적을 시험에 의한 점수만이 아니라 '상고일(相考日)'이라고 하는 대면 수업을 호슈 자신이 담당하여 이곳의 출석 일수를 중시한다.

『詞稽古之者仕立記録』에는 현대의 교육학과도 상통하는 호슈 독자의 교육이념이 관철되어 있다. 오랫동안 교사 생활을 하게 된 나 자신도 이 기록을 필사하면서 실로 많은 것을 배웠다.

또 하나는 쓰시마 번의 조선어 통사 오다 이쿠고로(小田幾五郎, 1755~1831)가 쓴 『통역수작(通譯酬酢)』(3책 12권)이다. 이쿠고로는 아메노모리 호슈가 창설한 통사 양성소 출신으로 41세의 나이로 통사의 최고 자리인 '대통사(大通詞)'에 발탁된 쓰시마에서 첫째가는 명통사이다. 이쿠고로는 많은 저서를 남겼다. 그 가운데 하나인 『상서기문(象胥紀聞)』은 서로 교의(交誼)를 깊게 나눈 역관들로부터 얻은 다양한 조선 사정을 기록하고 역사, 문화, 관습 등 조선 사회의 실태를 상세하게 기술한 것이다. 그러나 『통역수작』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통'(통사)과 '역'(역관) 사이에서 좋은 템포로 주고받는 대화로 전문이 구성되어 있어서, 녹음기와 같은 것이 없었던 그 시대, 독자는 마치 둘 사이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언급되고 있는 것은 역사와 문학, 정치, 군사에서 자연, 신앙, 기괴 현상, 여성, 음식, 산업 등등 다종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예를 들면, 역사에 관한 대화는 「부설(浮說)의 부」(권6)에 등장한다. 타이틀이 암시하는 것처럼 여기서는 확실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소문으로 들은 이야기의 형태로 대화가 계속된다. 진구황후(神功皇后) 전설, 삼한시대, 삼국시대에 관한 것, 나아가서는 몽골·고려연합군의 일본침공(襲來), 왜구, 임진왜란·정유재란에 대해서도 마치 사실을 회피하는 듯이 대화 주제가 점점 밖으로 벗어난다. 임진왜란은 '임진년란(壬辰年亂)'으로 호칭을 바꿔 부르고 피로인 이문장(李文長)의 자손 스모다(李田) 씨 등은 삼한시대에 쓰시마로 도망해 온 사람으로 대화에 등장한다. 과거 충돌의 역사를 거둬온 사람들끼리 깔끄러운 화제를 애매하게 하면서 어떻게 다른 화제로 전환하면 좋을지, 언급하지 않았으면 하는 화제로 전환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회피할 것인지, 쌍방의 마음을 서로 읽어나가면서 통사로서 지녀야 할 기술이 암시되어 있는 것이다. 대화 상대인 역관을 바라보는 이쿠고로의 시선은 항상 냉정하다. 거만한 태도의 양반을 상대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역관의 긍지는 왜관에 무기를 가지고 들어오려는 양반을 타이르는 말에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쿠고로는 양반에 '레키레키(レキレキ)」「(歴歴=높으신 분)라고 히라가나로 독음을 달고, 계층사회의 모순 속에서 사는 역관의 모습을 빠짐없이 써서 남기고 있다. 『통역수작』을 통해서 '통사는 왜관의 요직'이라고 한 아메노모리 호슈의 깊은 뜻을 엿볼 수 있으며 나아가 조선의 계층사회가 안고 있는 혹독한 실상을 다시 배울 수가 있었다.

## 맺음말

종가문서는 조일 외교·무역의 현장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며 에도막부나 조선왕조 측의 기록에는 없는 귀중한 사실을 현대에 소생시켜 준다. 처음에는 일본 연구자들 사이에서만 주목받고 있었으나 근년에는 일본 이외의 연구자, 특히 한국의 젊은 연구자가 난해한 고문서 해독에 도전하여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외교사·경제사·문화사를 재고찰하여 많은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내고 있다.

여러 사정으로 일곱 곳에 분할 보관되어 있으나 각 보관소별로 착실하게 정리작업과 수리 보존이 진행되어, 내가 이 세계에 들어왔을 무렵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편리하게 연구자에게 제공되게 되었다. 보관소 중 하나인 게이오기주쿠(慶應義塾) 대학 도서관에서는 최근 '미디어센터 디지털 컬렉션'에 종가문서 일부가 들어가 있어서 웹사이트 안에서의 열람·출력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국립국회도서관에서도 '디지털 컬렉션'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약 30책의 「종가문서」가 공개되어 있다. 해설을 단 「종가문서 목록」도 새롭게 공개되어 청구기호도 이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每日記』【請求記号 : WA1-6-34】

<https://dl.ndl.go.jp/pid/2610801>

『別記録』【請求記号 : WA1-6-33】

<https://dl.ndl.go.jp/pid/128654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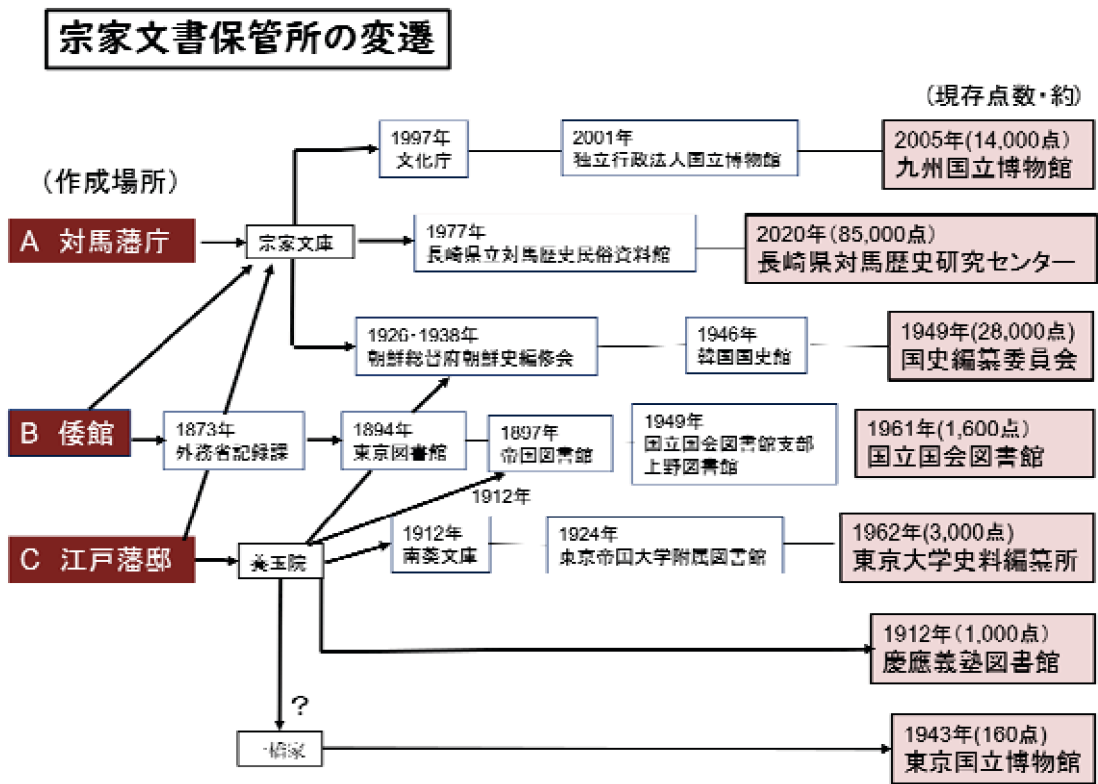
『御代替記』【請求記号 : WA1-6-39】

<https://dl.ndl.go.jp/pid/12865345>

등이다. 최신의 기술 혁신으로 이 제1급 사료가 세계로 널리 퍼져나가 그 사료적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되어 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번역문 감수: 이형주)

[ 별지1 ]



[ 별지2 ]

## 宗家文庫の調査

1975年~1977年	冊子类(日記)調査	『宗家文庫史料目録』(日記類)
1978年~1989年	冊子类(諸記録)調査	『宗家文庫史料目録』 (記録類Ⅰ・Ⅱ・Ⅲ・Ⅳ 和書・漢籍)
1998年~2008年	一紙物調査	『対馬宗家文庫史料一紙物目録』 (1・2・3)
2007年~2011年	冊子类補充調査	『対馬宗家文庫史料冊子物目録』 (第一卷・第二卷・第三卷)
2009年~2011年	絵図類等調査	『対馬宗家文庫史料絵図類等目録』

·기조 강연 : 대마도 종가문서와 한국의  
한일관계사 연구 '30년'

이훈(한림대)

---



# 대마도종가문서와 한국의 한일관계사연구 30년

이훈(한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교수)

## 목 차

### 머리말

1. 한국에 있어서의 대마도종가문서
  - 1)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 2) 대마도종가문서의 정리 및 활용
2. 대마도종가문서의 사료로서의 특징
3. 대마도종가문서와 한국의 한일관계사 연구 30년
  - 맺음말에 대신하여 -

## 머 리 말

‘대마도종가문서(對馬島宗家文書)’란 근세 일본에서 에도막부(江戶幕府)를 대신하여 조선과의 통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대마번(對馬藩)의 번정문서로, 현재 그 일부가 국사편찬위원회(‘국편’으로 약칭)에 소장되어 있다. 1991년 그 존재가 공개된 이래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학계는 물론 일반인의 인식에 이르기까지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이 자리를 빌어 수백년 전의 외국문서인 대마도종가문서가 국편에 소장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활용 실태, 역사 사료로서의 특징, 남겨진 과제 등, 한국에 있어서 대마도종가문서의 존재에 대해서 말해 보고자 한다.

### 1. 한국에 있어서의 대마도종가문서

#### 1)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먼저 국사편찬위원회가 대마도종가문서를 소장하게 경위부터 보자면, 조선총독

부 산하의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가 『朝鮮史』 편찬의 자료로 삼기 위해 1926년과 1938년의 2차례에 걸쳐 구대마번(舊 對馬藩)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그러나 조선사편수회조차도 이들 문서를 정리하지 못한 채 보관만 하다가 1945년 광복과 더불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보존·관리하게 되었다.

수량적으로는 약 3만 점에 달하며, 대마번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기록(記錄類, 6,592점)과 고문서(古文書類, 11,242점)를 비롯하여, 대일본 외교문서인 서계(書契, 9,442점), 회도류(繪圖類, 1,485점), 인장류(印章類, 28個)를 포함한 약 2만 8천점, 그리고 최근에 정리가 끝난 귀중문서(日本本, 80점)가 이에 포함된다. 따라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가운데, 여러 곳에서 하나하나 조사·수집해온 자료가 아니라, 원사료 그대로, 그것도 방대한 수량을 한 덩어리의 형태로 소장하고 있는 것은 대마도종가문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대마도종가문서 현황(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문서 종류	수량	비고
기록류	6,592점	대마도종가문서
고문서류	11,242점	"
서계	9,442점	"
회도류	1,485점	"
인장	28개	"
귀중문서(일본본)	80점	귀중문서
합계	28,869점	

그런데 1970년대 까지 보존·관리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었던 대마도종가문서의 존재가 학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전반까지는 주로 일본의 연구자, 즉 근세 한일관계사를 전문으로 하는 田代和生·長正統·泉澄一 선생님과 같이 소수의 전공자들이 국편(남산 청사)을 방문하여 사료 조사를 하였다. 국편에서도 종가문서의 사료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만큼, 1987년 경기도 과천 청사 이전을 계기로 그동안 귀중문서로서 보관에 중점을 두었던 대마도종가문서를 이때부터 정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편이 일찍이 대마도종가문서의 사료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여 『목록집』 간행에 착수했다고 하더라도 학계는 물론 일반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문서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학계나 일반인들이 대마도종가문서의 존재에 관심을 갖게 된 데에는 하나의 정치적 계기가 있었다. 바로 1990년 5월 노태우(盧泰愚) 대통령의 일본 방문시 궁중 만찬 연설에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의 성신 교린을 언급한 것이다.

비록 정치적 계기를 통해서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대마도종가문서의 존재가 일반에 부각되었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첫째는, 한일관계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일본 국회 연설에서도 고대는 물론 근세에도 선린시대가 있었음을 지적하고, 참된 역사인식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 관계를 이루어 나가자고 역설하였다. 노태우 대통령의 이러한 인식이 당시 한일 양국에서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및 통신사(通信使)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고 할 수 있으며, 대통령 자신도 종가문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후 1991~1992년에 걸쳐 한국(서울·부산) 및 일본(東京·大津)에서 전시회 및 학술회의(서울·東京·對馬) 개최를 통해 대마도종가문서가 한일 양국에 처음으로 공개되었다.<sup>1)</sup> 한국으로서는 이때만 하더라도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30년이 채 안된 시기인 만큼, 아직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던 때였다. 그런 만큼 1991년 5월 서울(국립중앙박물관) 및 부산(시립박물관) 전시회를 통해 「통신사행렬도」, 「초량왜관도」와 같은 대마도종가문서가 처음 공개되자, 이때의 중앙 및 지방의 언론기사들을 보면 우선은 이러한 문서가 일본이 아닌 한국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대한 놀라움이 컸다.<sup>2)</sup> 게다가 몇 백년 전에도 통신사를 통한 양국 외교를 통해 평화와 우호가 유지되고 있었으며, 일본측의 통신사 접대, 통신사 일행의 시문(詩文)을 통한 문화교류, 왜관에서 이루어지는 통교·무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가 소개됨에 따라, 한일관계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는, 학문적인 것에 국한한다면 대마도종가문서의 존재 자체가 조일관계~한일관계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 분야로서 우뚝 설 수 있게 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1991년 5월에는 대마도종가문서 전시회와 더불어 한일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학술회의(1991.5.17, 세종문화회관)도 개최되었는데, 당시 언론기사 가운데는 우려섞인 소리도 있었다. 이때의 동아일보 기사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한일관계사의 재조명’이라는 주제의 학술회의에서, 일본 학자들은 조선통신사 파견에 대해

1) 한국에서의 전시는 「朝鮮後期 通信使와 韓日交流史料展-對馬島宗家資料-」라는 제목으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1991.5)에서 개최되었다.

일본에서의 전시는 「宗家記録と朝鮮通信使展-江戸時代の日朝交流-」라는 제목으로 東京(國立國會圖書館, 1992.1.28.~2.7) 및 大津市(1992.2.11.~16)에서 개최되었다.

2) 1991년 5월 대마도종가문서를 기사화한 중앙언론으로는, 동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국일보·경향신문·한겨레신문·국민일보·세계일보·한국경제신문·서울경제신문 등이, 지방언론으로는 부산매일신문·국제신문 등에 게재됨.

분명한 용어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조선측의 ‘조공외교’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에 반해 한국측 학자들은 조선의 주도 하에 우수한 문화를 일본에 전파했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양국 학자들간에 인식 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에 한일관계사 연구의 기초자료인 대마도종가문서가 다수 소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구인력이 양성되지 않아 학문적인 주도권을 일본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으므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사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절실하다는 제언이 그것이다.<sup>3)</sup>

대마도종가문서의 공개를 계기로 한 한국측의 이러한 우려는 학문적으로도 큰 자극이 되었다. 이에 1993년에는 ‘한일관계사학회’가 창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일관계사연구』라는 학술잡지를 간행(1년 4회 간행, 2024년 5월 현재 제84호)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 하더라도 한일 양국관계를 공부하는 연구자는 극소수로 한국사의 특이한 분야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대마도종가문서의 존재 및 공개를 계기로 한일관계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한일관계사’가 역사학에서 마침내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22년은 한일관계사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으며, 한일 연구자들의 교류가 활발해진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20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학회 자체가 한일관계를 연구하는 한일 양국 연구자들의 교류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대마도종가문서의 공개로 연구자료의 범위도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종가문서 공개 이전에는 한국측 자료만을 이용함으로써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현재는 대마도종가문서를 이용해야만 한일관계를 입체적으로 밝힐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 2) 대마도종가문서의 정리 및 활용

### ① 목록집(기록류, 서계, 고문서) 간행

대마도종가문서 정리는 국사편찬위원회의 과천 청사 이전(1987)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우선은 문서의 현황 파악을 위한 목록집 간행에 착수하였다.

사실 1990년대 중후반 한일간의 교류가 활발해지기 이전까지의 한국 사정이란 1965년 한일간에 국교정상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반일감정이 남아있던 시기였다. 양국 간의 외교는 물론 학문적인 면에서도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다. 아직 소수의 학생들이 일본에 관심을 가지고 유학을 가는 정도로, 그것도 일본 고대사에 집중된 경향이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일본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인력이 충분히 양성되지 않

3) 「한일학자 엇갈린 해석-조선통신사-」(동아일보, 1991.5.20).

은 시기였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도 대마도종가문서 가운데에서는 1987년 가장 먼저 ‘기록류’(記錄類)부터 정리가 시작되었지만, 이러한 사정 때문에 ‘일제 강점기’ 때 고등교육을 받아 일본어와 일본식 초서(くずし字) 해독에 능통한 8순의 노학이 목록집 간행을 위한 카드를 작성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미 오래전 돌아가셨으나, 고 임종해(林鍾海) 선생님이 서고에서 종가문서를 하나하나 꺼내 카드를 작성해 놓으면, 泉澄一(日本關西大學) 선생님처럼 이미 ‘對馬歷史民俗資料館’ 소장 宗家文書を 정리한 바 있는 전문가의 감수를 거쳐 목록집이 간행되었다. 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목록집』은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 간행되었다.

이에 1980년대 후반 국사편찬위원회로서는 무엇보다도 일본문서를 정리할 수 있는 연구인력의 확보가 시급했다고 할 수 있으며,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 취직했던 시기는 기록류 목록집 간행 작업이 거의 완료되어 서계(書契) 정리가 막 시작되었을 때였다. 이에 같이 근무하던 정성일 선생님과 함께 서계 목록집 간행에 착수하여 1991~1994년에 걸쳐 목록집(총5책)을 간행하였다.

작업은 매일 서고에서 서계를 몇 점씩 가져와 내용을 파악하는 일로 시작되었는데, 내용은 중앙정부의 통신사외교에서 표류민 송환, 왜관에서의 일상적인 통교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다양하였다. 이에 목록집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는 서계가 처음으로 공개되는 만큼, 일반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한문으로 작성된 내용을 요약·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기본적인 서지사항 이외에도 내용을 소개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서계 정리가 끝난 후에는 약 12,000점에 달하는 「古文書類」 목록집 간행에 착수하였다. 고문서의 경우, 대마번이 부산 왜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조일 통교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문서는 물론, 번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에도번저(江戸藩邸)의 역인, 또는 막부측과 주고 받은 다종다양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교섭대상 및 장소를 중심으로 「조선(왜관), 대마번, 막부」로 나누어 I·II집(1995~1996)으로 간행하되, 이 역시 기본적인 서지사항 이외에도 내용을 소개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 ② 자료집 (『分類紀事大綱』) 간행

1980~90년대가 「記錄類」(1990년)·「書契」(1991~1994년)·「古文書」(1995~1996년)에 이르기까지 목록집을 간행하여 대마도종가문서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을 한 시기였다면, 2000년대는 자료집을 간행하여 한국에서도 한일관계사 연구에 일본측 자료인 대마도종가문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인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자료집 간행시 가장 고민스러웠던 것은 통신사 초빙에서 왜관 무역에 이르기까지 다종 다양한 6,500여점의 기록 가운데서 어느 것을 가장 먼저 선정할 것인가였다. 최종적으로는 『分類紀事大綱』으로 결정이 되었다. 이유라면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가운데서 『分類紀事大綱』이 차지하는 위상이라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일본인 연구자(池內敏 등)의 한국 방문 연구도 활발해져, 이를 계기로 당시 한일 관계를 연구하던 양국의 연구자들이 모여 雨森芳洲의 『交隣提醒』을 운독하고 있던 시기였다. 『交隣提醒』에서 인상적인 대목이라면, 雨森芳洲가 <朝鮮方>에 근무하는 역인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할 기록으로, 통교 재개를 전후한 시기 조선과 주고받은 서장을 수록한 『善隣通書』(阿比留摠兵衛), 『朝鮮通交大紀』(松浦儀右衛門)와 더불어, 바로 『分類紀事大綱』(越常右衛門)을 지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田代和生 선생님이 밝혔듯이, 『分類紀事大綱』은 17세기 중반 처음 편찬된 이래 19세기 중반까지 동일한 편집체제로 간행될 만큼 대마번에서도 중시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제2기 편찬자인 松浦儀右衛門의 서문이 인상적이었다. 즉 “信使·譯官·參判使·裁判 등과 같이 각각 ‘臚錄’(記錄)이 있는 것은 간략하게 기록하되 교린에 관한 제반사의 십중팔구를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대목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말대로 2기 『分類紀事大綱』(29권)을 보면, 교린에 관한 제반사가 모두 106항목으로 정리·편집되어 검색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교의 전체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일단 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제2기 『分類紀事大綱』부터 자료집으로 간행하기로 결정했는데 다행히도 결본이 없었다. 이에 우선 ぐずし字(くずし字)를 탈초하고 구독점을 붙여 가독성을 높이는 형태로 출간하게 되었다.<sup>4)</sup>

자료집으로서의 『分類紀事大綱』은 2005년 제1책을 시작으로, 중간에 단절도 있었지만 2024년 현재까지 모두 12책이 간행된 상태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한국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와는 별도로 일부 연구자들이 일본국회도서관 소장의 제1기 『分類紀事大綱』을 위원회 간행본과 같은 형태로 가공하여 『日本學論集』(31~37호, 2015~2018년, 한국 慶喜大學校 大學院, 일본학연구회)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 ③ 귀중본 해제

최근 몇년 전(2017)에는 이미 퇴직 후이기는 하지만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貴重本」(日本本, 80점)의 解題를 의뢰받았다. 사실 이 귀중본

4) 『分類紀事大綱』(자료집)의 원고 작성에 참여한 사람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사료연구과정’의 졸업생들로, 감수는 佐伯弘次(九州大學)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은 내용상으로는 대마도종가문서의 일부이지만, 일찍이 귀중본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로 알려져 있는 문서와는 별개로 취급되어 왔다. 누가 언제부터 별도로 분류·취급했는지 확실치는 않지만, 귀중본의 내용이 대마번주 ‘소’(宗)씨 집안, 즉 ‘소케’(宗家)와 관련된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일찍이 조선사편수회가 구 대마번(舊 對馬藩)으로부터 종가문서를 구입할 당시부터 이미 별도로 취급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라고 할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대마번정 기록으로서의 대마도종가문서 2만 8천여점과 다이묘(大名) 가문인 ‘소케’(宗家) 집안의 문서인 귀중본 80점을 합해야만 비로소 한 덩어리의 대마도종가문서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1990년대 초 한국과 일본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가 처음으로 공개될 당시, 귀중본 가운데서는 ‘通信使行列圖’와 ‘초량 왜관도’(草梁倭館圖)가 선별되었다. 그러나 이 2점 이외에는 아주 간단한 목록만 존재하는 정도로 전체상을 잘 알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해제 작성을 위해 귀중본을 더 자세히 조사하면서 번정기록과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문서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직전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宗義智)에게 보낸 문서(朱印狀)를 비롯하여, 소(宗)씨 가문의 가계도, 혼사, 점술, 병법(兵法), 기원(祈願), 詩·書·畫에 이르기까지 문서 종류가 다양하기 그지없었다. 시기적으로는 중세문서까지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큐슈 대학(九州大學)의 사에키 고지(佐伯弘次) 선생님, 한동안 위원회에서 함께 종가문서를 정리했던 鄭成一(광주여자대학) 선생님과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해제작업에 착수하였다. 작업은 세 사람이 각각 조사·작성한 내용에 대해 서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몇 차례에 걸친 상호 점검을 거쳐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귀중본(일본본)의 의미와 사료의 성격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貴重本」(日本本)의 주목할만한 특징으로는 다음의 몇 가지를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귀중본에는 임진왜란이 시작된 1592년부터 전쟁이 끝난 1599년까지 토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가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宗義智) 앞으로 보낸 24통의 서장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임진·정유재란의 실상을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들이라는 점이다. 임진왜란 자체와 관련해서는 히데요시가 대마도주에게 조선에 도해하도록 직접 명령한 문서를 비롯하여, 병량과 무기 및 선박의 조달, 명(明)의 동향 주위에 대한 지시 사항이 들어 있었다. 전쟁이 끝난 1593년 이후에도 왜성(倭城)의 공사 및 계속

주둔에 대한 히데요시의 지시가 있었다. 정유재란과 관련해서도 각 왜성에 대한 병량·무기 조달 관련 지시 및 명과의 전투 이후에 대한 대비 등의 지시가 들어있었다. 이와 같은 임진·정유재란기의 문서들은 전쟁 당시 대마도주 소(宗)씨의 입지나 역할을 알게 해주는 것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 내의 다른 다이묘(大名) 가문, 즉 모리(毛利)씨, 시마즈(島津)씨, 구로다(黒田)씨, 아사노(淺野)씨 가문에 전래되는 문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경우 전쟁의 실상을 새로 밝힐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었다.<sup>5)</sup>

〈사진 1〉 豊臣秀吉 朱印狀(1592년, RB60, 귀중본, 국사편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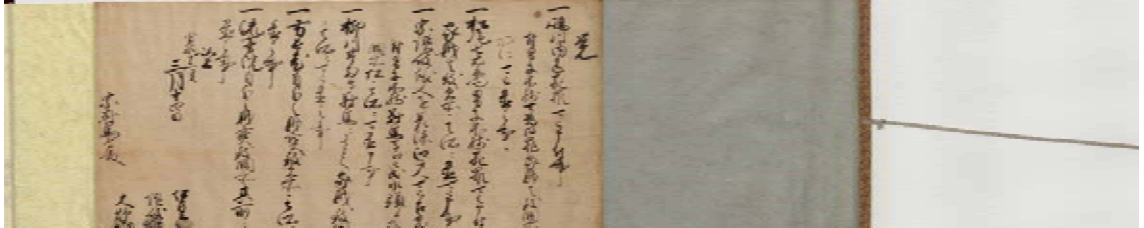
둘째는, ‘국서개작사건’의 판결 결과를 대마번주 소 요시나리(宗義成)에게 직접 통보한 막부(幕府) 로쥬(老中)의 문서가 들어있다는 것이다. 국서개작사건은 일본에서는 ‘야나가와 잇켄’(柳川一件)이라 불리운다. 대마번주와 그의 가신 야나가와 시게오키(柳川調興)가 서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임진왜란 이후 일본과의 국교 회복 당시 야나가와씨가 조선 국왕과 도쿠가와 쇼군(將軍)의 국서를 개작했음이 드러나게 되자, 에도 막부(江戸幕府)의 조사 결과, 1635년 쇼군 도쿠가와 이에미츠(徳川家光)가 요시나리(義成)의 승소 판결을 내린 사건을 일컫는다. 대마번의 이 내분은 누가 승소하느냐에 따라 조선의 대일본 통교방침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외교참사였다. 이에 조선정부로서도 판결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대마번주의 입장에서 본다면 막부로부터 다이묘 교체, 즉 대마번주직을 상실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조선 통교상의 역할로 인해 조일 양국에서 얻고 있던 대마번주의 모든 기득권을 상실당할 수 있는 중대한 정치적 위기였다. 그런 만큼 판결 내용을 통보한 막부 老中(松平信綱·酒井忠勝·土井忠勝) 문서는 ‘소케’(宗家)라는 다이묘 가문의 존속 근거가 되는 더없이 중요한 문서였다고 할 수 있다.<sup>6)</sup> 국서개작사건의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는 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기록류)에도 몇 건이 있지만, 다이묘 가문의 운명을 가르

5)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귀중본(RB60, 貴60)의 해제(佐伯弘次).

6)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귀중본(RB 38, 貴 38)에는 발급자가 「伊豆·讃岐·大炊」로 기재되어 있으며, 黒印이 날인되어 있다(佐伯弘次の 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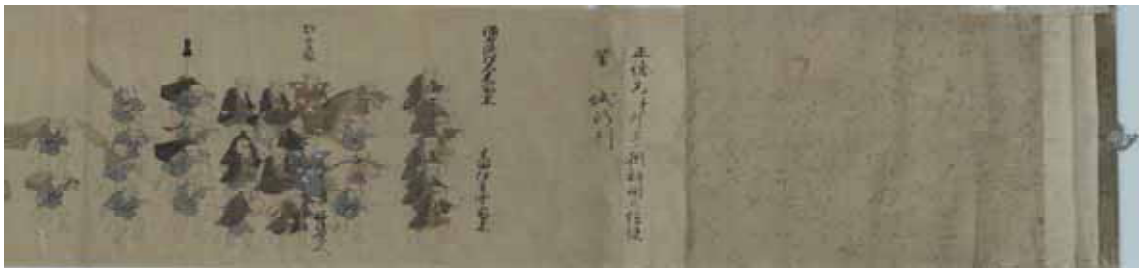
는 결정적인 막부문서였다는 점에서 귀중하게 관리했던 것으로 보인다.

〈사진 2〉 老中の 覺, 국서개작사건 통보(1635년, RB38, 귀중본, 국사편찬위원회)



셋째, 통신사와 관련해서는 기왕에 알려진 1711년 신묘통신사(正德信使)의 에도(江戸) 왕복을 그린 행렬도(行列圖) 이외에도, 이를 호행하는 대마번주의 행렬도, 1811년 신미통신사(易地通信) 일행의 복식도(服飾圖)와 같은 繪圖도 포함되어 있어서, 통신사와 관련된 외교의례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는 것을 새삼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1711년 대마번이 막부(老中 土屋相模守 政直)의 명령을 받아 제작한 6종의 행렬도는 오사카 선단도(大坂船團圖)를 제외한 5종이 모두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sup>7)</sup>

〈사진 3〉 正德信使登城行列圖(1711년, RB41, 귀중본, 국사편찬위원회)



〈사진 4〉 正德信使 國書(1711년, RB14-23, 귀중본, 국사편찬위원회)



7)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귀중본(RB41, 貴41)의 해제(정성일).

귀중본(일본본) 조사를 통해서도 통신사와 관련하여 繪圖 자료에 비해 별로 주목을 받지 못했던 1682년 임술통신사(天和信使) 접응 관련 문서가 여러 건 포함되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임술통신사 관련 문서는 막부측 관리(朝鮮御用老中 堀田筑前守 正俊 등)가 대마번주 소 요시자네(宗義眞) 앞으로 발급한 문서로, 통신사 일행의 에도 왕복시 접대에 대한 지침과 확인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1682년의 임술통신사 관련 자료 역시 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에 『天和信使記録』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기록이 남아 있다. 접대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어쩌면 이 기록이 더 소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서의 발급 주체로 보면 귀중본(일본본)의 서장은 막부 관리가 쇼군의 뜻을 반영하여 대마번주 앞으로 직접 발급한 문서이다. 통신사의 초빙 업무를 가역(家役)으로 부여받은 대마번주로서는 이러한 막부문서야말로 ‘소케’(宗家) 존속의 권원이 되는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사진 5〉 老中の 書狀(1682년 天和信使, RB96, 귀중본, 국사편찬위원회)



넷째는, 대마번주 ‘소케’(宗家)의 가계도(家系圖)·가보(家譜)를 비롯하여, 위기(位記), 기원(祈願), 혼사, 점술(占術), 병법(兵法) 관련 자료, 화조도(花鳥圖) 등과 같이 다이묘 가문의 권위 및 교양과 관련있는 자료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가계도(家系圖)·가보(家譜)에 해당하는「(公義へ被差上候御系圖御控ト相見)」를 예로 들어 보면, 이 자료는 1641년 에도 막부가 『寛永諸家系圖傳』을 편찬하기 위해 각 다이묘(大名) 가문에 가보(家譜) 제출을 지시함에 따라 대마번이 제출한 자료로 보인다. 문서에는 역대 대마도주(對馬島主) 및 대마번주(對馬藩主)의 계도(系圖) 및 혼인관계, 생물 년대, 중요 업적이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소 쓰시마 노가미」(對馬守)라는 일본식 관위(官位)를 칭하게 된 소 요시토시(宗義智)와 소 요시나리(宗義成)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다. 특히 소 요시나리의 업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1643년 寛永信使(癸未通信使, 寛永 20) 초빙의 경우, 실제 역사적 사실과 달리, 조선이 마치 쇼군 이에미츠(家光)의 득남 축하를 위해 일본측에 먼저 자발적으로 사자 파견을 요청한 것처럼 작성되어 있었다. 일본측의 요구로 이루어진 닛코

산 치제(日光山 致祭)의 경우에도 제문(祭文)을 조선 국왕이 스스로 '自撰'한 것으로 표현하였다. 이러한 표현들은 쇼군의 威光을 극대화한 문언을 통해 막부의 정치적 의도를 충족시키는 한편, 대마번주의 대조선외교 교섭력, 쇼군에 대한 충성도를 최대한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사진 6> 家系圖(1643년, 通信朝鮮自請, RB18, 귀중본, 국사편찬위원회)



<사진 7> 家系圖(宗義成, RB18, 귀중본, 국사편찬위원회)



<사진 8> 家系圖(1643년, 通信, 獻使介, 奉賀自撰, RB37, 귀중본, 국사편찬위원회)



따라서 이와 같이 귀중본(일본본)으로 분류된 문서 가운데에는 실로 다종다양한 성격의 문서가 망라되어 있었지만, 공통된 2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시기적으로는 임란 이전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쟁 관련 문서 등, 중세문서가 포함되어 있어 근세 일본의 번정기록인 대마도종가문서에 비해 희소성이 있는 귀중문서임은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점이라면, 내용상으로 볼 때 위의 다양한 문서들을 귀중본으로 규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근거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바로 '소계'(宗家)라는 다이묘 가문으로서 중요하게 여기던 문서들

을 모아놓은 것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면, 임란 관련 문서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대마도주 소 요시토시에게 직접 지시한 문서들을 모아놓은 것이었다.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사후에는 소 요시토시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에게 조선과의 화교(和交) 관련 제안을 하게 된 경위를 기록한 문서가 들어 있었다. 또 국서개작사건 결과를 대마번주 소 요시나리에게 통보한 막부 로쥬(老中) 문서나, 조일관계가 안정되는 17~18세기(1682 天和信使 및 1711년 正徳信使) 때의 통신사 접대와 관련하여 막부(朝鮮御用老中)와 직접 주고받은 서장(문서)들은 대마번주 소(宗)씨 가문이 대조선 통교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였다고 할 수 있다. 다이묘 가문 ‘소케’(宗家)의 입장에서 보면 쇼군의 뜻을 반영하여 幕閣이 대마도주 및 대마번주에게 직접 발급한, 즉 중앙의 권위가 반영된 이 점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고 할 수 있으며, 대마번의 행정과정에서 관련 실무자들이 생산해낸 문서나 기록 등의 번정문서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비로소 알 수 있었다.

특히 「貴重本」(日本本) 가운데는 조선과의 무역 침체로 대마번의 재정이 침체되는 18세기 중엽, 대마번주 소 요시시게(宗義蕃) 명의로 작성된 기원문(祈願)도 포함되어 있었다. 기원문이 비록 희귀한 문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케’(宗家)의 위기의식을 찾아볼 수 있기에는 충분하였다. 이런 가운데 대마번주 ‘소씨’(宗氏) 가문이 대조선 통교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막부 관련 문서들을 별도로 모아 놓았다고 한다면, 이는 혹시라도 막부(老中)에 제출하여 대조선통교업무를 중요함을 어필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다.

## 2. 대마도종가문서의 사료적 특징

우선 첫째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문서는 모두가 원본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외형상의 특징이 있는데, 대일본 외교문서로서의 서계(書契)의 경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9,400점이 넘는 서계는 조일 통교과정에서 수신자였던 대마번이 거의 300년 이상 소장하고 있던 문서로서, 조선사편수회가 종가문서를 구입할 당시 「기록류·고문서·회도류 등」과 함께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었다. 이 서계란 예조를 비롯하여 동래부사·부산첨사 명의로 대마번주에게 발급한 것이었다. 이에 작성 주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조선문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처음 조선사편수회로부터 종가문서를 인수받은 당시부터 지금까지도 조선문서로 분리하지 않고, 대마도종가문서의 일부로서 문서군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정리

및 관리를 해오고 있다. 이러한 서계는 물론 한국측 기록인 『同文彙考』 등에도 수록되어 있지만, 발·수신자가 생략된 채 내용만 있을 뿐이다.<sup>8)</sup> 이에 비한다면 위원회 소장 서계란 모두가 원본인 만큼, 문서의 내용이니 형식은 물론, 사용된 문언, 글자의 크기, 굵기, 수정한 흔적, 종이의 재질, 관리 차원에서 대마번이 메모해둔 것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왕복문서 이상의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는 귀중한 문서라 할 수 있다.

<사진 9> 예조참의 서계(No.718, 국사편찬위원회)



<사진 10> 예조참의 서계(No.718, 국사편찬위원회)



8) 대마번 사자가 조선에 지참해온 대마번주 명의의 서계는 현재 한국에 원본 상태로 전하는 것은 없다. 그 대신 사본이 여러 형태로 전하고 있다. 한국측 기록으로는 『同文彙考』와 『漂人領來謄錄』에, 일본측 기록으로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 종가문서(기록류)인 『善隣通書』를 비롯하여, 『本邦朝鮮往復書』, 『漂差使記錄』과 일본 국회도서관의 『兩國往復書謄』에 그 내용이 필사되어 있다.

둘째로, 대마도종가문서의 사료로서의 또 하나의 특징을 들자면, 『信使記錄』·『分類紀事大綱』 등과 같은 각종 기록에 의외로 조선측 문서가 많이 실려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존하는 조선측 기록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한국측 사료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이고 귀중한 자료라는 점이다.

조선의 경우 조일 교섭에 관한 각종 기록(『邊例集要』 및 각종 『臚錄』)의 관리·작성이 중앙 부처(禮曹)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가장 큰 특징이라면 어떤 현안에 대한 내용이 몇 줄 정도로 매우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수록된 문건을 보면, 대마번(왜관)이 동래부를 통해 제기한 현안에 대해, 중앙 정부의 최종 결론(書契)에 도달할 때까지 동래부사·부산첨사가 중앙에 '狀啓'를 올려 보고(啓聞)를 하면, 이에 대해 예조·비변사가 내려보낸 회답(回啓) 중심으로 수록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주고받은 문서들은 『臚錄』이라는 형태로 기록·정리가 끝나면 모두 폐기되었다. 그 결과 '狀啓·回啓' 중심으로 편찬된 조선측 기록을 통해서는 동래부의 보고에 대한 조선정부의 최종 결정사항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중앙의 결정이 내려올 때까지 대기하는 동안 동래부와 왜관측에서 진행된 실제 교섭실태는 알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실제로 어떤 현안을 둘러싼 조일 교섭과정을 보면, 동래부에서 계문을 한 후 중앙의 회계가 내려와 현안에 대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기다리는 동안 왜관측에서 조선정부나 동래부사의 의사를 확인하고 연락을 위한 의사소통(교섭)은 실제로는 교섭의 실무자인 동래부의 역관(訓導·別差, 兩譯, 任官, 判事)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分類紀事大綱』과 같은 기록에는 이때 동래부 역관(兩譯) 명의로 왜관의 館守·代官·裁判 앞으로 발급되었던 문서(覺·傳令)가 뜻밖에도 많이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주로 한문, 또는 '이두(吏頭)'가 섞인 조선식 한문으로 작성되었으며, 심지어는 한글 문서가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 '전령(傳令)'은 원래 동래부사가 자신의 의사나 중앙에서 내려온 관문(關文)의 취지를 양역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발급한 것으로 원래 왜관에 제출되어야 할 문서는 아니었다. 그러나 왜관측이 참고로 하기 위해 요구하는 경우 양역 명의로 사본을 작성해 주었다.<sup>9)</sup> 대마번은 이러한 양역 관련 문서(覺·傳令)를 통해 조선의 분위기를 파악하는 한편, 대조선 교섭 전략을 구상할 수 있었다. 이에 대마번이 때때로 왜관에 전령을 받아들 것을 지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사본을 대마도로 보내도록 하였다. 대마번은 이렇게 조선측 문서들을 교섭시의 참고나 근거로 삼기 위해 빌리거나 사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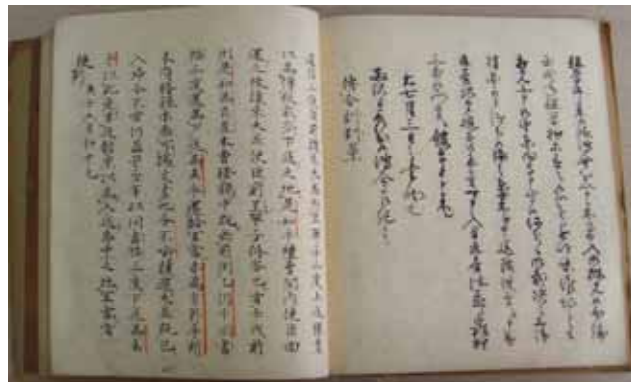
9) 이 때문에 왜관에 전달된 전령의 발신인이 양역, 수신인은 왜관 관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진 11> 전령(『分類紀事大綱』 7, No.4503, 국사편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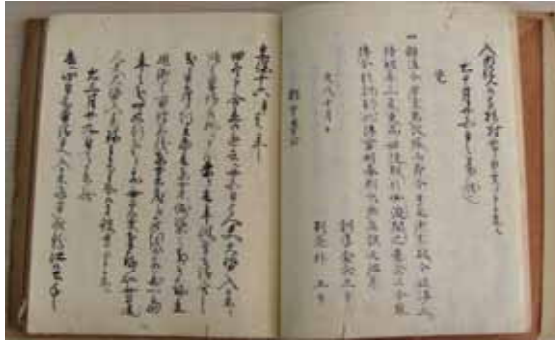
<사진 12> 전령(『分類紀事大綱』 14, No.4505, 국사편찬위원회)



<사진 13> 전령(『分類紀事大綱』 18, No.4526, 국사편찬위원회)



<사진 14> 覺(『分類紀事大綱』 18, No.4526, 국사편찬위원회)



<사진 15> 한글 覺(『分類紀事大綱』 18, No.4585, 국사편찬위원회)



<사진 16> 한글 편지(『分類紀事大綱』 18, No.4585, 국사편찬위원회)



따라서 대마도종가문서(『分類紀事大綱』) 기록류의 특징이라면, 조선측 기록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조선측 문서, 특히 동래부사·부산첨사 보다도 더 낮은 수준,

실제로 교섭현장의 최일선에 있었던 兩譯(훈도·별차) 명의를 문서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에 외교문서(서계) 1장이 작성되기까지 실제로 교섭현장의 최일선에서 역관 등의 실무자들이 얼마나 많은 문서를 대마번 측과 주고받았는지를 수량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자면, 1719년 기해통신사(享保信使) 때 조선이 통신사 파견을 결정하는 서계 1통을 발급할 때까지 외교의례에 관한 강정 교섭차 동래부로 내려온 역관(한첨지)이 대마번 사자(裁判)에게 보낸 문건(覺)만 12통이 남아 있다.

셋째로,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을 지적하자면, 대마번이 동래부를 통해 제기한 각종 문제들 가운데에는 조일간에 정식 외교현안으로 취급되기 이전에 해결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대마도종가문서를 통해서라야만 교섭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적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는 조선 정부와 대마번이 외교문서(서계)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의사나 결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교현안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해결된 문제의 교섭 경위는 오로지 왜관과 대마번 간에 주고 받은 서장, 그리고 동래부 양역이 왜관측에 발급한 문서들을 통해서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서들은 조선측 기록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으며, 대마도종가문서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대마도종가문서, 특히 『分類紀事大綱』에 수록되어 있는 양역 관련 문서란 조일 양국의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외교문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 실무선에서의 구체적인 교섭 경위를 살피기에 최적의 사료일 뿐만 아니라, 수량으로 보더라도 현대의 해외 파견 외교관이 국내로 발송하는 비문(批文)의 수량에 못지않다고 할 수 있다.

### 3. 대마도종가문서와 한국의 한일관계사 30년

#### - 맺음말에 대신하여 -

한국에서 대마도종가문서가 일반에 공개된 지도 이미 30여년이 지난 지금에 이르러서는 종가문서를 활용하는 연구자도 소수이기는 하지만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한일관계사 연구 분야가 확대되는 등의 변화도 있었다. 2000년대 까지 별 주목을 받지 못했던 표류민 송환이 종가문서의 활용으로 조일 통교관계를 밝힐 수 있는 연구 주제로 부각되었으며,<sup>10)</sup> 현재도 꾸준히 새로운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왜관 연구는 대마도종가문서의 활용으로 왜관 무역의 수량적인 추이나 밀무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들이 밝혀지게 되었으며, 왜관을 일본인들의 생활공간이나 지역의 생활사라는 관점에도 본 연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관점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그러나 몇 가지 아쉬운 점도 있기에 여기에서는 2가지를 지적해 보고자 한다.

우선 연구 분야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조일 통교의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통신사에 대해서는 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의 약 1/6을 차지하는 1,200점에 가까운 방대한 수량의 『信使記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사 연구가 활발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반세기가 넘는 연구사에도 불구하고 문학이나 문화사절로서의 연구가 기형적으로 방대하게 이루어진 결과 통신사라는 주제만큼 연구공백과 오해가 많은 분야도 드물다고 할 수 있다. 통신사라는 명칭을 예로 들면, 조선이 일본에 파견했으니까 ‘일본통신사’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조선에서 온 사절이니까 ‘조선통신사’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통신사 연구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된 만큼, ‘조선통신사’라는 명칭이 한국에 역수입되어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언론 등에서는 ‘조선통신사’로 쓰기도 한다. 일본의 관점이 들어가 있는 용어로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일부 있지만, 이미 용어로서 정착된 부분도 있는 만큼, 연구자에 따라서는 편의상 ‘조선통신사’로 쓰기도 한다. 이밖에 파견 시기, 통신사의 역할 등, 기초적인 사항 자체도 혼란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마도종가문서(『信使記錄』)를 활용한 통신사 연구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 외교의례 등 형태적인 연구에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다. 『信使記錄』 가운데에는 통신사 일행이 에도(江戸)에 체류하는 동안 의례 문제 등 현안을 둘러싸고 긴박한 분위기 속에서 막부측과 교섭한 문서들도 수록된 경우가 있다. 이러한 문서 역시 조선측 기록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다. 2017년 10월에는 한일 양국의 노력으로 통신사 관련 기록이 ‘UNESCO 세계기록유산’에까지 등재된 바, 이를 계기로 대마도종가문서를 활용한 실증적인 연구가 더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다음으로는, 대마도종가문서의 활용 내지 접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마도종가문서에 대한 현대 한국어 번역 및 역주가 들어간 『자료집』, 나아가서는 근세 일본어 용어에 대한 사전 간행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다. 현재 대마도종가문서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목록집』과 『자료집』이 간

10) 이훈, 『조선후기 표류민과 한일관계』(國學資料院, 2000년).

11) 田代和生の『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創文社, 1981) 이후 한국에서도 왜관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교·무역을 비롯하여 각종 교류에 대한 연구가 급증했다고 할 수 있다(이훈, 「왜관 연구의 회고와 전망」 『한일관계사연구』 54, 2016) .

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일반인은 물론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도 종가문서는 아직도 여전히 매우 접근하기 어려운 난해한 자료이다. 왜냐하면 ‘소로분’(候文)이라는 독특한 근세일본어(일본식 한문)로 작성되었을 뿐 아니라 구즈시지(くずし字)라는 초서체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탈초하여 구독점을 찍었다 하더라도, 몇백년 전의 외국어(일본식 한문)인 만큼 여전히 난해할 뿐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조선과 대마번의 통교관계에서만 사용되던 독특한 전문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한자용어라 하더라도 고전적 한문이 아닌 만큼 『大漢和辭典』에서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또한 일본어 용어라 하더라도 현재 일본에서 간행된 『近世用語用例辭典』이나 인터넷 검색 만으로는 알 수 없는 용어들도 많다. 이에 특별한 훈련을 받지 않는 한, 그리고 조일통교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이는 대마도종가문서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직도 어디까지나 소수 연구자(이용자)의 개인적 역량에 따라 극히 일부가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는 대마도종가문서의 현대 한국어 번역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도 자료집 간행으로부터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는 종가문서의 활용을 위해 현대한국어 번역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러한 한계 때문에 테마에 따라 대마도종가문서의 극히 일부, 또는 일본의 근세 문서가 현대한국어로 번역되어 자료집으로 간행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번역자의 근세 일본어 및 조일 통교관계에 대한 이해의 정도에 따라 번역 내용의 편차가 너무나도 심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不時’ 사자의 경우, 규정 이외에 임시로 파견되는 사자임에도, 번역서에 따라 ‘아무때나’ 또는 ‘마음대로 파견하는’ 등, 아주 자의적이고 문학적으로 표현된 경우가 있다. 밀무역 선박을 의미하는 ‘拔船’도 ‘배를 빼다’로 잘못 오역되어 있다. 이에 자료집의 번역 간행, 나아가 사전의 간행시에는 전문성 확보를 위한 한일 양국 연구자간의 공동작업 및 감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完)

# 「대마도 종가문서와 한국의 한일관계사 연구 30년」

이훈(한림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대마도종가문서’(對馬島宗家文書)란 근세 일본에서 일본의 막부를 대신하여 조선과의 통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대마번(對馬藩)의 번정(藩政)문서로 국사편찬위원회(‘국편’으로 약칭)에 그 일부가 소장되어 있다. 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는 주로 조선과의 외교·무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통신사 초빙과 무역 등에 관한 각종 記錄類·古文書類를 비롯하여 대일본외교문서인 서계(書契), 회도(繪圖)와 인장(印章)류 등, 약 3만점에 달하는 방대한 수량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귀중본(日本本) 정리를 통해 국편 소장 대마도종가문서의 성격이 더 분명해지게 되었는데, 번정문서에 더하여 다이묘(大名) 가문으로서의 ‘소케’(宗家)문서까지 포함한 문서군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이러한 한국의 대마도종가문서는 조선사편수회가 1926·1938년의 2차례에 걸쳐 구대마번(舊對馬藩)으로부터 구입했던 것을 1945년 광복을 계기로 국사편찬위원회가 보관·관리하게 된 것으로, 1980년대 후반 이후 본격적인 정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의 한국 상황이란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반일감정이 남아 있었으며, 학문적 교류도 미진할 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에 대한 관심도 아직 ‘고대’에 한정되어 있던 때였다.

대마도종가문서가 학계 및 일반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의 일본 국회연설을 계기로, 1991~1992년에 걸쳐 한일 양국에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대마도종가문서의 전시회 및 학술회의가 개최되면서부터였다. 이를 계기로 조일 양국간 선린우호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는 통신사·왜관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일반에 공개되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선입견이 희박해지는 한편, 한일관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폭도 고대를 벗어나 조선후기(근세)로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조일간 교린통교에 있어서의 대마번의 위상, 한국측 자료의 공백을 메꿀 수 있는 대마도종가문서의 존재로 인해, 그동안 한국사에서 특수분야로 취급되었던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관심이 증대된 한편, 연구인력의 확대로 ‘한일관계사’가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 1993년에는 ‘한일관계사학회’가 창립 되었으며, 지난 2022년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국사편찬위원회가 대마도종가문서를 처음으로 정리하고 공개한 1980년대 후반으로부터 30여년이 지난 현재는 목록집(『기록류』 1책, 1990/『서계』 5책,

1991~1994)/『고문서』 2책, 1995~1996)과 자료집(『분류기사대강』 2005 이후) 발간으로 자료 접근성이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연구 분야에 있어서도 통교 체제를 넘어 통신사나 조일간의 무역 및 생활공간으로서의 왜관, 표류와 같은 개별주제로 확대되었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 왜관 관련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대마도종가문서란 어디까지나 몇백년 전의 외국어 자료인 만큼, 아직까지는 전문성을 갖춘 소수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을 뿐이다. 번역된 자료라 하더라도 조일 통교관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 오역도 있어서 여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자료이다.

따라서 대마도종가문서가 공개된지도 30년이 지난 지금으로서는 자료의 접근 내지 활용도를 더한층 높이기 위해 현대한국어로 번역된 자료집과 근세 용어 사전 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다.(완)

# 「対馬宗家文書と韓国の韓日関係史研究30年」

李薰(翰林大學 國際問題研究所)

「対馬宗家文書」とは近世日本で幕府にかわって朝鮮との通交を行う過程で生産された対馬藩の藩政文書であり、国史編纂委員会(「委員会」と略称)にその一部が所蔵されている。委員会所蔵の対馬宗家文書は主に朝鮮との外交・貿易に関わっているものが多く、通信使の招聘や貿易などに関する各種の記録・古文書をはじめ、対日本外交文書である書契、絵図類、印章類など、およそ3万点に及ぶ龐大な数量である。そして最近では委員会所蔵の「貴中本(日本本)」の整理を通して韓国にある対馬宗家文書の性格がさらに明らかになったが、これまでの藩政文書に加えて、大名家門である宗家として所蔵していた文書までも含む資料群であることが把握できるようになった。

このような韓国の対馬宗家文書は、日帝強占期に朝鮮史編修会が1926・1938年の2回に渡って旧対馬藩から購入したものを、1945年の光復以後、国史編纂委員会が保管・管理するようになったものであり、1980年代の後半から本格的な整理が始まった。しかし、当時の韓国状況とは、1965年に韓日間に国交正常化が成し遂げられたとはいえ、まだ反日感情が残っており、学問的にも交流が活発ではなく、韓日関係に対する関心もまだ「古代」に限られていた時期であった。

韓国の対馬宗家文書が学会や一般に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は、1990年のノ・テウ(盧泰愚)大統領の日本国会演説が一つの契機となり、1991~1992年にかけて韓日の両国で国史編纂委員会が所蔵している対馬宗家文書の展示や学術会議が開催されてからである。これをきっかけに朝日両国の善隣友好の象徴ともいわれる通信使・倭館に関わっている多くの資料が一般に公開されるようになった。その結果、韓日関係に対しても否定的な先入観が薄くなる一方、韓日関係に対する関心や認識も古代を越えて朝鮮後期(近世)にまで拡大されるようになった。

それだけではない。朝日間の交隣通交における対馬藩の位相、また韓国資料の空白を補うことのできる対馬宗家文書の存在によって、その間、韓国の歴史において一つの特殊分野として取り扱われていた「韓日関係史」に対しても関心が増大される一方、研究人力も拡大され、「韓日関係史」が一つの学問分野として根付くようになった。1993年には「韓

日関係史学会<sup>1</sup>が創立し、2022年には創立30周年を迎えるようになった。

国史編纂委員会が対馬宗家文書を整理・公開した1990年代から30余年が経った現在は、目録集(『記録類』 1冊、1990/『書契』 5冊, 1991~1994/『古文書類』 2冊, 1995~1996)や資料集(『分類紀事大綱』 2005年以後)の刊行で資料への接近度はかなり高くなったといえる。それに、研究テーマにおいても通交体制をはじめ、通信使、朝日間の貿易および生活空間としての倭館、漂流のように研究テーマが拡大され、殊に2000年代以後は倭館に関する研究が爆発的に増加した。

しかし、対馬宗家文書とはあくまでも何百年前の外国資料であるだけに、いまのところ専門知識のある少数の研究者たちが活用しているだけである。翻訳資料にしても、朝日の通交関係に専門知識のない場合、しばしば誤訳も見付き、依然として活用しがたい側面もある。

したがって、対馬宗家文書が公開されてから30余年が経った現在は、資料の接近および活用をより一層高めるため、現代韓国語で翻訳された資料集や近世の用語辞典などが必要とされる時期ともいえる。(完)



# 〈通訳〉からみた近世日朝関係史

酒井雅代(大妻女子大学)

---



# 〈通訳〉からみた近世日朝関係史

酒井雅代\*

## はじめに

言語・文化を異にする国家間の交渉事には通訳の存在が欠かせない。朝鮮時代には、朝鮮では司訳院とよばれる国家機関で訳官を選抜・養成した。一方、江戸幕府の下で日朝関係の実務を担った対馬藩は、18世紀前半から、朝鮮通詞とよばれる朝鮮語通訳を藩で計画養成するようになった。

朝鮮後期（日本近世）の日朝関係の構造を全体から見ると、朝鮮王朝は諸外国との通交を制限し、中央集権的官僚体制のもと、礼曹・備辺司が対日通交を管掌していた。一方日本の対朝鮮関係は、重層的な構造を特徴とした。外交権は江戸幕府が掌握し、朝鮮王朝から江戸幕府に外交使節が送られるなどしたが、日常的な外交の実務は対馬藩に任されていた。対馬藩は、釜山倭館を拠点に貿易をおこないながら、外交業務を担い、この体制が近世を通じて継続された。

両国間の外交交渉は主に倭館でおこなわれ、最前線での実務折衝が、それぞれ倭学訳官と朝鮮通詞とよばれる通訳官に担われた。ところがその折衝は、対馬藩や東萊府の上層部の立ち会いなくおこなわれることが度々あった。その中では「上からの規範を外れた相互交流」もともなわれた。

それゆえ、外交における通訳官の役割を明らかにし、それを当該期の外交システムの中に位置づけることは、近世の日朝関係の全容解明に不可欠の作業といえる。しかし既存の日朝関係史研究は、主に国家関係史・交渉史（制度史）を中心に検討されてきた。日朝外交体制に関する研究<sup>1)</sup>の一方で、具体的な外交使節の検討<sup>2)</sup>や日朝貿易についての研

1) 中村栄孝『日鮮関係史の研究』下（吉川弘文館、1969年）、田代和生「日朝外交体制の確立」（同『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荒野泰典「幕藩制国家と外交—対馬藩を素材として—」（『歴史学研究』別冊、1978年）、池内敏『徳川幕府朝鮮外交史研究序説』（清文堂書店、2024年）など。

2) 朝鮮から幕府に派遣される信使についての研究として、三宅英利『近世日朝関係史の研究』（文献出版、1986年）、李元植『朝鮮通信使の研究』（思文閣出版、1997年）などが、朝鮮から対馬に派遣される訳官使については、洪性徳「朝鮮後期「問慰行」について」（『韓国学報』59、1990年）をはじめとして、とくに韓国で研究が進められてきた。日本では、大場生与『近世日朝関係における訳官使』（修士論文、慶應義塾大学、1994年）で訳官使の全体が総括され、近年も研究が進展している。

究<sup>3)</sup>が進められた。一方で外交・貿易の場である倭館にも関心が向けられてきたが、日朝関係の分掌構造や倭館の「現場」での諸活動については等閑視されてきたきらいがある。

また、倭学訳官については、訳官を輩出する家門研究や、訳官の職務・機能が明らかにされつつある<sup>4)</sup>のに対し、朝鮮通詞については、主に朝鮮文化の受容者として、あるいは江戸時代中期に開始された対馬藩による通詞養成<sup>5)</sup>や、近代初期の朝鮮語教育の観点から分析されてきた<sup>6)</sup>。通詞の外交官僚としての側面が注目されることはそれほど多くはなかった。一方で、研究の蓄積が厚い幕末維新期の日朝関係史研究は、日本の中央政府の動向を中心に検討が進められてきたが<sup>7)</sup>、倭館での交渉については、懸案となった外交書契問題や交渉過程で顕著な働きをした数人の人物に目が向けられるのみである。

そこで本稿では、日朝関係の最前線を支えた通訳官（倭学訳官・朝鮮通詞）に着目する。とくに対馬藩による通詞養成が開始された18世紀以降の通詞の外交官僚としての側面を追究するとともに、訳官と通詞の諸活動から日朝関係の様相を描き出そうと思う。

## I 近世の通訳官（倭学訳官・朝鮮通詞）制度

18世紀から19世紀において、日朝外交交渉の最前線に立ったのが、相手の国の言語を理

- 
- 3) 田代和生『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同『日朝交易と対馬藩』（創文社、2007年）、鶴田啓「天保期の対馬藩財政と日朝貿易」（『論集さんせい』8、1983年）、鄭成一『朝鮮後期対日貿易』（新書苑、2000年）など。
  - 4) 金義煥「釜山倭館の職官構成とその機能について—李朝の対日政策の一理解のために—」（『朝鮮学報』108、1983年）で倭学訳官についても取り上げられたほか、全允珠『朝鮮後期訳官の身分とその役割』（修士論文、梨花女子大学、1993年）、李尚奎『一七世紀倭学訳官研究』（博士論文、韓国学中央研究院、2010年）など個々の訳官や訳官家門について研究が進められた。また、朝鮮時代の司訳院や訳官の教育については、정광『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김영사、2014年）に詳しい。
  - 5) 対馬藩による通詞養成の経緯や内容については、すでに田代和生「対馬藩の朝鮮語通詞」（『史学』60-4、1991年。のち同『日朝交易と対馬藩』創文社、2007年に「朝鮮語通詞の育成」と改題して再録）や米谷均「対馬藩の朝鮮通詞と雨森芳洲」（『海事史研究』48、1991年）が明らかにしている。
  - 6) 近代初期の朝鮮語教育については、大曲美太郎「釜山港日本居留地における朝鮮語教育」（『青丘学叢』24、1933年）、小倉進平「釜山における日本の語学所」（『歴史地理』63-2、1934年）など戦前からの成果がある。
  - 7) 幕末から近代初期の日朝関係については、対馬藩の動向を中心に挙げたものに限っても、田保橋潔『近代日鮮関係の研究』上（朝鮮総督府中枢院、1940年）以来多くの成果がある。それらの研究をふまえた上で本稿では、通訳官らの活動に焦点をあてる。幕末維新期の朝鮮通詞の活動については、金東哲「対馬藩朝鮮語訳官の開港前後の活動」（韓日関係史学会学術会議『交隣の道—韓日間の貿易を問う』資料集、2020年）などが挙げられる。

解し、直接言葉を交わす通訳官（倭学訳官・朝鮮通詞）である。

朝鮮の日本語通訳官を倭学訳官という。訳官は、中央官庁の司訳院が実施する科挙（訳科）の試験に及第した者で、漢学・蒙学・女真学（清学）・倭学の四学からなり、中人層が多かったとされる<sup>8)</sup>。そのうち釜山には、倭語を専門とする倭学訳官のうち、<sup>くんとう</sup>訓導<sup>9)</sup>1人、別差<sup>10)</sup>1人が派遣された。訓導・別差は、倭館近くの執務所に駐在して倭館との日常的なやりとりをし、対日通交にかかわる情報を、東萊府を通して中央にもたらした。訓導の任期は2年半、別差は1年で、倭館で特別な事件が起こると、別に堂上訳官が派遣されたという<sup>11)</sup>。また、訓導・別差の下に、小通事と呼ばれる下級通訳官が30人ほど置かれ、雑務に従事した。

倭学訳官は、倭館での外交交渉に携わったほか、朝鮮信使の際には随行訳官として日本に渡海した。また、訳官使（問慰行）とよばれる朝鮮から対馬への外交使節団派遣の際には、正使として使節団をまとめ、対馬に渡った。

一方で対馬藩の朝鮮通詞は、朝鮮の倭学訳官のように、科挙を経て採用された官僚ではなかった<sup>12)</sup>。対馬の人びとは、中世以来、朝鮮との貿易をおこなってきており、貿易に携わる特権商人層はその過程で自然と語学を習得していたから、対馬藩は必要に応じてその能力を利用すればよかったという<sup>13)</sup>。そのため、朝鮮通詞は基本的には町人身分からなる。ところが、18世紀前半、貿易が衰退し、十分な語学力を身につけている者が少なくなったことから、藩により通詞養成のための学校がつくられ、そこで教育を受けた者の中から専任の通詞職が生まれた。

通詞は、対馬藩公認の語学生（詞稽古御免札）の中から、五人通詞に任じられることにはじまり、その後、稽古通詞、本通詞、大通詞へと昇進した。18世紀から19世紀においては、基本的には大通詞2人、本通詞3人、稽古通詞3～5人、五人通詞5～9人の定数で

8) 정광『사역원 왜학 연구』(태학사, 1988年)。司訳院には当初、漢学・蒙学が設置されていたが、太宗15年(1415)に倭学・女真学(のちに清学)が追加された。

9) 정광『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によると、訓導は司訳院の四学(漢学・清学・蒙学・倭学)に置かれるものと、外任(地方への派遣)があり、正九品の末職や訳科に合格した参上官(従六品以上)から選ばれた。外任として釜山に派遣される倭学訓導は、堂上訳官を派遣するほど重要な実務職であったという。釜山に派遣された訓導の主な任務は、「渡来倭人への対応」であり、倭館を担当した。

10) 前掲정광『조선시대의 외국어 교육』によると、外任として釜山に派遣される別差は、仁祖元年(1623)に創設されたもので、使行に付き添わせて日本語を習得させることが主な任務であった。

11) 前掲金義煥「釜山倭館の職官構成とその機能について」。

12) 以下、朝鮮通詞の制度や職務、すなわち通詞の養成・昇進や人数、職務やその評価については、酒井雅代「近世後期対馬藩の朝鮮通詞」(同『近世日朝関係と対馬藩』吉川弘文館、2021年)でも論じた。

13) 前掲田代和生「対馬藩の朝鮮語通詞」。

推移していた。前任の本通詞・稽古通詞が転任・病気・死去などにより欠けると、それぞれ下位の職階の稽古通詞・五人通詞から、在職年数順に「繰上」で昇進した。ただ、通詞の最上席である大通詞は、本通詞・稽古通詞と異なり、単なる「繰上」によってその職位を得ることはなく、経験や交渉能力の評価をふまえてはじめて任命された。

そのなかから、勤番とよばれる駐在の職務にあてられた。釜山倭館の勤番は2人で、大通詞・本通詞・稽古通詞から選ばれ、通常1～2年の任期で倭館勤めを経験した。五人通詞は勤番にはあたらなかったが、後述するように、五人通詞のうち数人は倭館に常駐しており、倭館の勤番通詞に付き従って、いわゆる見習いのような形で職務を学んでいった。

## Ⅱ 近世日朝外交における通訳官の役割

倭学訳官・朝鮮通詞が、言語通訳をするだけでなく、外交の事前折衝をおこなっていたことは先に述べたが、とくにその役割が期待されたのが、外交や貿易にかかわる個別事由の任（「御用」）につけられる通詞であった。交渉には、裁判などの役職で上級武士が派遣されたが、その使者には専属の通詞がつけられることが多かった。勤番通詞とは別に立てられたその通詞は、倭館で、倭学訳官との間で個別事由についての折衝をおこない、最終的に使者である上級藩士や対馬藩当局の判断が仰がれた。

ところが、それにとどまらない活動が外交交渉の現場では展開された。実際に通訳官らがどのような外交折衝をしていたのかを、18世紀末から19世紀初めの朝鮮信使来聘交渉を例に見てみよう<sup>14)</sup>。

結果的に最後となった第12回目の朝鮮信使は、幕府将軍徳川家斉の襲職祝賀のために派遣されるもので、天明8年（1788）に交渉が開始された。ただ、朝鮮信使が江戸まで行くそれ

14) 以下、本章で取り上げる信使来聘交渉における寛政七年（一七九五）以降の経緯については、酒井雅代「朝鮮信使易地聘礼交渉の頓挫と再開—朝鮮通詞と倭学訳官の交流を中心に—」（同『近世日朝関係と対馬藩』）で取り上げた。訳官の朴俊漢の内密話により交渉が再開したことは、田保橋潔「朝鮮通信使易地行聘考」（『東洋学報』23-3・4、24-2・3、1936～1937年。のち同『近代日朝関係の研究』下、朝鮮総督府中樞院、1940年、別編第一に再録）以来すでに指摘されることである。ここでは、限られた訳官と通詞の間で、上層部の立ち合いなく折衝が進められている点、その中で偽造書契の作成などの独自の活動がおこなわれた点を指摘したい。

までの例とは異なり、対馬で両国の国書交換の儀式をおこなうように制度を変更するものであったため、交渉は難航し、将軍の交代から実際の聘礼までには24年かかった。

天明8年(1788)にはじまった交渉は、寛政6年(1794)、朝鮮側が拒否することでいったん失敗に終わった。ところが、それを再開させたのは、寛政7年(1795)3月、新たに東萊府の訓導として着任した朴俊漢の内密話であった。朴俊漢は、倭館の朝鮮通詞小田幾五郎に対して、省弊(経費削減)を前提として易地聘礼交渉をおこなうことを持ちかけた。表向きには朝鮮側の拒否で交渉は終了していたが、朝鮮朝廷の内密の指示を受けたといい、両者は秘密裏に交渉を進めることとなった。

もちろん交渉の経過は、通詞を通して、適宜、倭館館守戸田頼母に報告されていたが、朴俊漢が戸田頼母に面会して易地聘礼に関する東萊府使の文書を渡したのは、その年の10月のことで、その間の基本的な交渉は訳官と通詞の間で進められた。

また、そのなかで訳官と通詞は、時に朝鮮朝廷や対馬藩の指示を受けず、独自に活動した。その一つが偽造書契の作成である。偽造は何度もおこなわれ、対馬藩と朝鮮朝廷の交渉で膠着状態が続いた文化4年(1807)にも、訳官玄義洵と崔昔の提案で、通詞小田幾五郎と牛田善兵衛の4人で密かに偽造書契を作成して事を動かそうという計画が立てられた。

#### 【史料 15)】

両訳より密々談申候者、①修聘御返翰改撰之儀、(中略)右返翰対州へ被差越、又々被仰越候ハ、順便ニ斗可申との意有之候、然処右返翰御取帰被成候様ニハ難申上、(中略)御双方今之姿ニ而者此上滞可申も難斗、両国之大事ニ及候者面リニ候、②依之拙者共四人申談、千ニ一仕損し候時者貴様方兩人と拙者共四人罪ニ逢候へ者、上江之御役人ニも御咎メ無之、府使も咎メ無之、爰か一命を以て両国之御為を尽と申ものニ候、其上貴様方者苦勞少く候、③唯外之手ニて不相成事者日本之筆法ニ候間、是を心添可被下候、(中略)蔭ながら 太守様御加さんニ■相成様可致と申聞候ニ付、我々より各様之御はまり誠ニ致感心候、此筋さへ致首尾候へ者無相違急速順便ニ至り候哉、(中略)我々力ニ応し候事者御加力可致と申候処、両訳共より密々御心添可被下と相頼候事、

膠着の原因となったのは修聘使という対馬側の使節が返翰を受領しないことで、朝鮮側

15) 対馬宗家文書一紙物(長崎県対馬歴史研究センター所蔵)、1046-11-52-5-1・2、8月17日条。

は、礼曹書契を対馬藩側が受領し、再度藩から書契を送るよう求めていた(傍線部①)。しかしそれが叶わないため、偽造書契を作成してしまおうとした。もし事が露見すれば罪に問われてしまうが、その時は関わった4人が処罰されてしまえば東萊府使などに処罰はなく、首尾よくいけば交渉は急速に進行するはずだという(②)。両訳側は、紙・印・書手は自分たちで手配できるので、「日本之筆法(日本の文章の書き方)」に協力してほしいと通詞に依頼した(③)。そこで、通詞は東向寺<sup>16)</sup>に相談し、東向寺でも、書契を出すことで御用が調うのであれば「身分を捨相調可申」と応じた<sup>17)</sup>。こうして身を賭して交渉の進展を図ろうとした。

つまり、訳官は朝鮮朝廷や東萊府の、通詞は対馬藩や上級武士の指示・判断を基本的に得てはいるが、妥結にいたるまでのやりとりは、訳官や通詞にある程度任されていたといえるだろう。そのため、訳官と通詞は日々情報を共有し、時には右のように、訳官と通詞が結託して交渉を進展させることがあった。反面、交渉担当の通訳官がうまく立ち回れなければ、交渉が遅滞・頓挫する可能性もあった。

事実、文化易地聘礼交渉の際には、朝鮮側は、朝鮮朝廷(・備辺司)―東萊府―訳官という通常のルートではなく、左議政蔡濟恭が倭学訳官の朴俊漢に直接指示を出すことで、前年に朝廷が出した判断とは異なる外交交渉を訳官に任せ、いずれおこなわれる易地聘礼に向けて倭館で具体的に折衝がなされた。

一方、日本側では、幕府の命を受けて易地聘礼を推進する家老大森繁右衛門の派閥と、元家老で江戸聘礼を推進する杉村直記の派閥の対立があったが、杉村一派は、長年交渉にたずさわってきた通詞の牛田善兵衛や、その交渉を引き継いだ通詞の久光市次郎を抱き込んでいたと見られる。たとえ幕府・対馬藩が易地聘礼実現に向けて指示を出していたとしても、実際の折衝は訳官と通詞の間で進められるものである以上、その折衝にあたる通詞を反対派が懐柔してしまえば、現場で交渉の妨害を図ることが可能であ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

16) 東向寺は倭館にある臨濟宗寺院で、対馬から禅僧が輪番で派遣され、外交文書の記録・審査・勘案をおこなった。

17) 対馬宗家文書一紙物、1046-11-52-7-3、10月2日条。

### Ⅲ. 通訳官による近世的な交渉方式の幕末維新时期への継承/変容

朝鮮後期のこのような外交のあり方は、近代にどのように継承され変容したのだろうか。

慶応3年(1867)、幕府将軍が政権を朝廷に返上し、幕府が廃止された。明治新政府は、明治元年(1868)3月、対馬藩に対して、新政府樹立を朝鮮に通告するよう指示した。新政府となっても、この段階では近世的な日朝通交が維持されており、朝鮮に対する通告は対馬藩を介してなされている。

命令を受けて対馬藩は、明治元年(1868)末、釜山倭館に使節を派遣したが、朝鮮側はこの使節の応接を拒否した<sup>18)</sup>。それは、使節が旧来とは異なるもので、使節のもたらした外交書契についても問題視したからである。朝鮮側の反発は予想され、訓導安東峻との間で交渉がおこなわれたが、両国の主張は平行線をたどり進展せず、倭館では、明け方まで交渉が続けられ、訓導を倭館に連泊させて話し合うこともあった<sup>19)</sup>。

訳官は、「仏国戦争(高宗3年(1866)の丙寅洋擾)以来、武臣権ヲ専ラニシ、武官未曾有ノ兼官等モ始リ、文官ノ面々失望逡巡ノ外無之」状況で、「是迄日本ノ交通ハ全ク文官ノ取扱ニ候処、当節ヨリハ武官ノ建議不少、依之只今一己無理ノ取計ヲ以書契捧出ノ時ハ即時嚴科ニ処セラレ候ハ眼前ニ有之」と、朝廷内で武官の勢力が大きくなっており、文官が日朝通交を取り扱っていた時期とは状況が異なっていると述べた<sup>20)</sup>。

明治2年(1869)、版籍奉還がおこなわれた。朝鮮外交については議論があったが、しばらくの間は対馬藩が引き続き担うことになった。明治3年(1870)には外務省の佐田白茅らが派遣され、交渉が進められた<sup>21)</sup>。

その交渉では、上官の立ち会いなしで、訳官と通詞がやりとりをする近世的な交渉の仕方がいまだ続いていた。訳官と通詞は、時には、倭館ではなく、訳官の任所で話をした。通詞の浦瀬最助は、訓導安東峻に対して、新政府樹立を告げる使節の応接が3年間おこな

18) 『朝鮮事務書』3(釜山市立市民図書館所蔵)、明治2年(1869)2月16日条、2月29日条、2月晦日条など。本稿では、釜山市立市民図書館所蔵本を使用した。これらは現在、韓国国史編纂委員会の「韓国史データベース」内に「近代韓日外交資料」の一種として公開されている。その他、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がインターネットを通じて『朝鮮事務書』を公開している。

19) 『朝鮮事務書』3、明治2年(1869)3月3日条には、「終ニ徹夜の討論、翌4日暁ニ至リ」などと記され、3月9日条から14日条にかけて、訓導安東峻を倭館に留めて交渉をおこな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

20) 『朝鮮事務書』3、明治2年(1869)3月9日条。

21) 『朝鮮事務書』3、明治2年(1869)11月付。

われていないことは問題だとして、「一己ノ心付御内話（自分だけの考えでの話）」を告げた<sup>22)</sup>。それは、「皇上国王」の称号を用いることで、両国政府「等対（同等での外交文書の授受）」として事態の收拾を図ろうとするものであった。それを聞いた訓導も、朝廷の「要路ノ方々」へ内々に聞いてみるとして応じた。

ところが朝鮮朝廷では、その頃、釜山に来航したドイツ軍艦に、通詞の中野許多郎が乗っていたことを問題視していた<sup>23)</sup>。丙寅洋擾以来朝鮮が攘夷政策をとる中、「隣好」の国である日本の、しかも朝鮮語ができる通詞が異国船に乗って朝鮮へやってくるのは、朝鮮に対する「愚弄」や「嘲弄」であり、日本が異国人と結託して朝鮮を攻撃するのではないかとも考えられたからである。

訓導が妥協案を提示したのがその最中であったため、妥協案は朝廷で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訓導は、この状況を通詞に話し、「私から内密に話したことが漏れたら私の身にかかわる」と言いながらも、「政府「等対」のことを日本側から持ち掛けるなら尽力する」と述べるなど、通詞と訳官との間での内々のやりとりが続けられている。

その後、明治4年（1871）7月、廃藩置県で対馬藩が消滅すると、新政府は日朝通交を外務省の所管にするよう動き出した。明治5年（1872）には花房義質が軍艦で釜山に向かって倭館の接收をおこない<sup>24)</sup>、明治6年（1873）には倭館は草梁公館となり外務省の統轄となった。先に述べた「等対」交渉は、その後、新政府のもとで進められたが、交渉は対馬出身の通詞浦瀬最助が変わらずつとめた<sup>25)</sup>。

上記からわかるように、明治4年（1871）の廃藩置県の後も、近世日朝外交を支えた人びとのうち、新政府でも活躍している者がいた<sup>26)</sup>。「韓地応酬文章ニハ至極巧者（朝鮮の文章のやり取りに優れた者）」である川本久左衛門や、「応接必用ノ人物」である浦瀬最助（裕）などがそれである<sup>27)</sup>。明治7年（1874）から8年（1875）にかけて新政府のもとおこなわれた「等対」交渉においても、浦瀬が主に交渉にあたったが、ここでも浦瀬は陪通事の金福珠や金東憲と話をして内々の情報を入手しており<sup>28)</sup>、明治新政府の成立、版籍奉

22) 『朝鮮事務書』5、明治3年（1870）8月19日付、朝鮮掛からの回覧。浦瀬が1870年5月13日、6月13日におこなった交渉のやりとりが記されている。

23) 『朝鮮事務書』5、明治3年（1870）8月25日付、差出：寺島外務大輔・沢外務卿、宛先は三職御中。「訓導応答概略」同九月付、差出：中野許多郎。朝鮮通詞中野許多郎の動向は、前掲金東哲「対馬藩朝鮮語訳官の開港前後の活動」で検討されている。

24) 『朝鮮事務書』13、明治5年（1872）8月22日付など。

25) 『朝鮮事務書』27、明治7年（1874）8月20日付、差出：浦瀬裕。

26) 『朝鮮事務書』9、明治4年（1871）7月22日付。

27) 『朝鮮事務書』9、明治4年（1871）12月付、差出：広津弘信・森山茂。

28) 『朝鮮事務書』28、明治7年（1874）8月5日付、差出：森山茂の報告など。

還、廃藩置県と、日本の中央政府が変化するなかでも、近世的な経験が継続している。

明治8年(1875)、軍艦雲揚号が釜山に入港し、ついで江華島周辺に赴いて、江華島・永宗島を攻撃した。これを機に明治9年(一八七六)、日朝修好条規が結ばれたが、この時の船には対馬の通詞出身である外務四等書記生浦瀬裕・六等書記生荒川徳滋・中野許多郎らが同乗しており<sup>29)</sup>、通訳業務をおこなったと考えられる。この年には、朝鮮から日本へ外交使節(修信使)が派遣されたが、その際にも浦瀬裕や中野許多郎をはじめとする対馬出身者が通詞として同行している<sup>30)</sup>。

一方で、日朝通交が外務省の管轄となるなかで、すべてのものが近代へと継承されたのではなかった。朝鮮通詞は、朝鮮での勤務や漂流民の対応などに必要であり、当面は雇用すべきだという要望も出されていた<sup>31)</sup>が、先に挙げたような交渉能力に長けた一部の通詞のほかは、外務省に任官されることはなかった。また、外交の事前折衝など通詞が果たしていた「外交官的な役割」もしいだに見られなくなる。

新政府は、明治5年(1872)、対馬の厳原に朝鮮語学所を設置して、34人の学生に朝鮮語教育をおこないはじめ<sup>32)</sup>、明治6年(1873)にはそれを廃止して、釜山の草梁に語学所を設置して10人の「稽古通詞」の養成をおこなった<sup>33)</sup>。そこでの教育は、『交隣須知』や『隣語大方』などの語学書を中心に、対話や訳述、輪読をおこなうものであったというが、一方で、暗誦ではなく、流暢に応答できることが良しとされたという<sup>34)</sup>。つまり、新政府の求める通詞は、通訳・翻訳に長けていればよく、大通詞に求められた「経験や交渉能力」の必要性は失われた。こうして近世的な経験は解体されていった。

## おわりに

はじめに述べたように、朝鮮後期の日朝関係は、朝鮮王朝が中央集権的官僚体制のもと

29) 『同文彙考』附編 公使一、丙子、外務卿先告差送理事官議立通商章程補添条規細目別書、公使及隨員。

30) 『日本外交文書』9、文書番号51。

31) 『朝鮮事務書』13、明治5年(1872)8月付。この時の倭館勤番として、6人の大通詞の氏名が記されている。

32) 教授は、通詞出身で外務省出仕の広瀬直行がつとめたが、後に荒川徳滋(金助)となった(『朝鮮事務書』13、明治5年(1872)8月18日付、同9月付)。

33) 『朝鮮事務書』21、明治6年(1873)5月付。

34) 前掲大曲美太郎「釜山における日本の朝鮮語学所と「交隣須知」」。

対日通交を管掌していたのに対し、日本の対朝鮮関係は、幕府—対馬藩によって担われた。そのため、朝鮮朝廷内の権力関係で対日通交が滞ることもあれば、日本側も、時期や案件によって、幕府が対朝鮮外交を主導することもあれば、対馬藩が主導することもあるなど変化があった。そのなかで、日朝間ではさまざまな外交問題が発生したが、それらは日朝が接する倭館の「現場」で主に解消され、両国は260年にわたり交隣関係を維持してきた。

倭館の最前線では、倭学訳官と朝鮮通詞が継続して外交折衝を進め、お互いに情報を共有しながら事態の解決にあたっていた。そのなかで、訳官と通詞の間には、時に職務を超えた結びつきが形成された。一方、今回取り上げなかったが、両者は協力して「先々勤之力」となるであろう両班との関係を取り結び、それが時には非公式の外交ルートとなり、交渉を円滑に進めるのに役立っていた。

このような訳官と通詞の関係が、一面では日朝外交を支えていたが、日本が幕末維新を経て近代へと移行する過程で、通訳官のこうした機能は徐々に失われていったのである。

# 토론문: 〈通訳〉からみた近世日朝関係史

이재훈(동의대학교)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고 왜관이 폐쇄된 이후 과연 쓰시마번은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많이 궁금하였는데, 엄두가 나질 않아 시도해 보지 못하던 걸 이렇게 좋은 자리를 빌려 가르침을 얻게 되어 감사히 생각합니다.

사카이 선생님께서 해 주신 발표 “〈통역〉으로 본 근세일조관계사”는 조선후기 쓰시마번(막부 측)의 통사와, 조선 측 통역인 역관을 중심으로 양 측이 통역 인력 양성에 노력하게 된 과정을 다루고, 이후 이들이 12차 통신사행에 관해 교섭을 진행하면서 사안의 빠른 해결을 위해 행했던 서계 위조에 관해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실패로 돌아갔지만) 메이지 정부가 들어서고 신정부(메이지) 수립을 알리는 사절 응대를 위한 교섭 과정까지 이러한 행태가 남아 있다가, 결국 이들이 신정부에 흡수되어 새로운 형태의 통역으로 남게 된 긴 과정을 다루셨습니다. 결국 조일 관계 속의 변화 속에서 통역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해 갔는가를 다룬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부족하여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한 관계로 궁금한 점에 관해 질문 드리는 것으로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선 조일 관계 속에서 양측의 통역이 만나 상층부의 입회 없이 절충을 하면서 “위로부터의 규범을 벗어난 상호 교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여기에서 규범을 벗어난 행위의 주체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관련해서 이전에 ‘역관은 스파이였는가?’라는 이야기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최소한 오늘의 발표에 한정지어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 본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사례를 보아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 저는 실은 “양 통역의 규범을 벗어난 상호 교류”가 아니라, “조선 측 역관들의 규범을 벗어난 교섭 태도”라고 보고 싶습니다.

사실 역관이라는 입장 자체가 동래부에서도 계속 압박을 당하고 왜관에서도 압박을 당하는 고달픈 입장이었고, 교섭의 장애 옳다고 하여도 통사는 홈그라운드라는 이점을 살려서 관수와 재판에게 시시때때로 지시를 받았기에 왜관이라는 공간이 만드는 폐쇄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관습적인 부분도 적잖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719년 관수가 작성한 매일기를 보면 8차 사행 재판이었던 이가, 당시 훈도였던 자에게 보상을 주는 장면을 찾을 수 있

습니다. (본인이 죽어 자식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내용이 모두 쓰시마번의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본 규범 외 행동들이 쓰시마번의 입장에서는 허용범위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조선 측 사료에서 이 같은 이야기가 남아있지 않음은 역관이 이를 조정에 끝끝내 숨겼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그야말로 조정이 이해할 수 있는 허용범위를 넘어갔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반대로 쓰시마번의 통사들도 허용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이야기를 하였으나 본인들의 기록에 남기지 않았을 가능성도 얼마간은 존재하리라 생각합니다.

초보적인 질문이지만 우선 첫 번째로 이 같은 통역에 의해 많은 것이 좌우되던 행태가 조일 관계, 그것도 왜관에서만 보이는 독특한 형태인가 하는 물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주신 개찬사건에 관해서는 이후 양 측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단 이번 경우를 벗어나 만약에 통사가 쓰시마번에 아무런 사전 언지 없이 규범을 벗어난 제안을 받아들였을 경우 쓰시마 번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메이지 정부 수립 이후에도 잠시간 쓰시마번 통사의 활약은 계속되었지만 결국 통역의 형태는 바뀌었다는 지적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이들의 통역의 형태가 바뀐 것은 외무성이 외교권을 몰수하고 그 교섭 주체가 쓰시마번에서 외무성으로 넘어갔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곧 그 배경에 구레의 형태에 따르지 않는 외교 방식(쓰시마번의 경험과 교섭능력), 교린이라는 것을 내세울 필요성이 없어진 형태가 새로 매워졌음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시 한 번 새로운 형태의 통역으로서 활약하였음은 가직(家職)의 계승과, 일본 내 빠른 인재 확보의 요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신정부에 등용되지 못한 통사들의 행방이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 이후의 쓰시마번의 통사들의 행적을 알고 계신다면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종전 이후에도 쓰시마가 밀입국자들의 통로가 되었음을 상기해 본다면 쓰시마라는 지역이 외교권을 몰수당하였다고 해도 이후에도 한국어를 아는 쓰시마번의 통사들의 활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다시 읽는 통신사와 문위행

- 『역관입료어원(訳官入料御願)』 프로세스와 지원요청 논리

발표- 이시다 도오루(石田徹, 시마네 현립대학)

토론- 이형주(국민대)

- 일본의 조선통신사 기록에 보이는 삽화

발표- 윤유숙(동북아역사재단)

토론- 장순순(전주대)

- 근세 후기 통신사와 일본인과의 학술 교류-'간세이 이학 금지'를 매개로

발표- 마츠모토 도모야(松本智也, 시코쿠가쿠인 대학)

토론- 이상규(국사편찬위원회)



# 「訳官入料御願」プロセスと援助要請の論理

石田徹(島根県立大学)

---



# 「訳官入料御願」プロセスと援助要請の論理<sup>1)</sup>

石田徹(島根県立大学)

## はじめに

本報告は、対馬藩が安永8年(1779)から幕府に対して提出した「訳官入料御願」(「訳官使来聘」のみを理由とする対馬藩の対幕府資金援助要求)プロセスの全体像を概観し、対馬藩の援助要求の論理について検討することを課題とする。対馬藩は、安永8年から慶応3年(1867)まで11回、幕府に対して訳官使接遇にかかる資金援助の願書を提出し、最後の慶応3年度を除く10回で幕府からの援助を得ている。表1がその一覧である<sup>2)</sup>。

[表1 「訳官入料御願」一覧と史料所蔵]

対馬藩・近世日朝外交については、まことに多くの優れた研究が重ねられてきているが、「訳官入料御願」に関しては、実はこれまであまり注目されてこなかった<sup>3)</sup>。それには、表1に示すように、関連する史料の多くが大韓民国国史編纂委員会に所蔵されているという史料へのアクセス問題も少なからず影響を与えているだろう。

こうした状況のなか、「訳官入料御願」については、日本では大場生与の研究がほぼ唯一のもので、「訳官入料御願」は「将軍家に対する慶弔用件」のあるときのみ提出されたことを指

- 1) 本報告は拙稿『「訳官入料御願」の検討』『訳官使・通信使とその周辺』9号(2024年秋刊行予定)を元に加筆再構成したものである。
- 2) 本報告では「訳官入料御願」の結果通知があった年を「年度」の基準とした。表1にある通り、後述する訳官使招聘可否の「伺書」提出は、同年もしくはその前年・前々年であり、実際の訳官使来対は同年ないしその翌年となる。なお、以下、国史編纂委員会を国編、同所蔵対馬島宗家文書記録類を国編記と略す。
- 3) たとえば、森山恒雄「対馬藩」『長崎県史』藩政編、吉川弘文館、1973年、荒野泰典『近世日本と東アジア』第二部第一章「大君外交体制の確立」(とくに四)、東京大学出版会、1988年、鶴田啓「一八世紀後半の幕府・対馬藩関係」『朝鮮史研究会論文集』23、1986年、同『「朝鮮押えの役」はあったのか』佐藤信・藤田覚編『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山川出版社、2007年、田代和生『日朝交易と対馬藩』第一章「対馬藩経済思想の確立」創文社、2007年などが対馬藩の対幕府財政援助を詳しく考察しているが、「訳官入料御願」についてはほとんど検討されていない。

摘し、また、援助要請理由を整理して、「訳官入料御願」は、幕府が許可せざるを得ないような貿易断絶以外の理由として、財政窮乏に苦しむ対馬藩が訳官使渡来を利用したものとしたうえで、「困窮する対馬藩は敢えて援助要請を繰り返した」と論じた<sup>4)</sup>。しかし、この見解に対して、池内敏は「訳官使は、あくまで政治的行為として理解すべきではなかろうか<sup>5)</sup>」と疑問を呈している。対馬藩が幕府から財政援助を得ていたことは事実だが、大場の指摘するように財政援助を得るために訳官使を口実として用いて「敢えて援助要請を繰り返した」のか否かは本報告でも改めて検討したい。

他方、訳官使研究に一日の長がある韓国では尹裕淑が対馬藩の対幕府財政援助要求運動の中に「訳官入料御願」を位置づけつつ、文政11年度(1828)の事例を詳しく検討している<sup>6)</sup>。学ぶところが多いが、「訳官入料御願」の全体像を把握するにはまだ議論が尽くされたとはいえない。

そこで本報告では、以上の研究に学びつつ、対馬歴史研究センターと国編が所蔵する「訳官入料御願」関連史料を用いて、そもそも「訳官入料御願」とはどういうプロセスなのか、どのように始まり定着に至ったのか、そしてどういう理由で援助が要請されていたのかを改めて整理し、対馬藩にとっての「訳官使」とはどういうものだったのかを確認したい。なお、紙幅の関係上、史料を提示しながらの詳しい行論は難しいため、本稿末尾に最低限の関連史料を載せる形を取る。寛恕を乞う次第である。

## 1 「訳官入料御願」プロセスの全体像

まず「訳官入料御願」プロセスについて概観する。基本的には当然のことながら「訳官使招聘」のプロセス<sup>7)</sup>と重なるが、このプロセスは大きく4期に分けられる。すなわち、「將軍家の慶弔事」が起きてから対馬藩江戸藩邸が幕閣に対して訳官使の招聘如何を尋ねるⅠ期、訳官使招聘が決まってから「訳官入料御願」の願書を作成、提出するまでのⅡ期、提出された願書を元に幕府内で評議されその結果が対馬藩に通達されるⅢ期、そして実際に援助金を受け取り、対馬藩主が幕閣に御礼口上を伝えるⅣ期である。以下、各期の状況を簡潔に

4) 大場生与「近世日朝関係における訳官使」、慶應義塾大学文学研究科修士論文、1994年。

5) 池内敏『絶海の碩学』名古屋大学出版会、2017年、169頁。

6) 尹裕淑「朝鮮後期問慰行에 관한 再考」『韓日関係史研究』50輯、2015年。

7) 池内、前掲書168頁参照。

整理する。

### ①Ⅰ期 「将軍家の慶弔事」発生から「伺書」提出まで

訳官使はおもに「対馬島主の帰島」、「対馬島主家の慶弔事」、「将軍家の慶弔事」が起こると招聘されるが、「訳官入料御願」が関わるのは、慶事では将軍家の（養君）立儲・将軍嫡孫誕生、弔事では将軍・将軍嫡子・将軍嫡孫の逝去である<sup>8)</sup>。この他文化6年度（1809）は易地聘礼交渉の準備のため訳官使が招聘されている。そして「訳官入料御願」の直接の発端は安永8年2月に大納言徳川家基が急逝したことだった。それまでは日朝交易の収益などもあって援助無しで賄っていたが、安永年間に入り対馬藩の財政難が進行したことが援助申請の大きな要因となっていたようである<sup>9)</sup>。

Ⅰ期では、「将軍家の慶弔事」発生を知った対馬藩江戸藩邸（江戸家老ないし留守居）が、担当老中（数名）もしくは側用人に対して、その「慶弔事」を朝鮮に知らせるか否かの伺い（「伺書」）と、併せて、同様の慶弔事の際に朝鮮に告知し訳官使を招聘した「先格」を列挙した文書（「例書」）を提出する。対馬藩のスタンスは幕府が命じたら行うというものだった。「伺書」に対する判断は老中・側用人が行う。「訳官入料御願」草創期の安永8年度、天明2年度の場合、この段階から江戸家老杉村直記が各幕閣用人に対馬藩の事情を種々伝えて根回しに着手している。なお、「訳官入料御願」申請は全11回あるが、伺書が却下されたことはなく、どれも次の願書提出に進んでいる。

### ②Ⅱ期 「訳官入料御願」願書作成から提出まで

Ⅱ期では、対馬藩江戸家老／留守居が「願書」を作成し提出するわけだが、この過程で対馬藩側は、関係老中（1～数名）や側用人だけでなく、勘定奉行にも陳情も行い、「願書」の下書の内覧と添削指導を依頼する（とくに草創期に顕著。後述）<sup>10)</sup>。

8) ただし、天保9年度の訳官使の名目には将軍家斉の隠居祝賀（「大御所遜位」）があったが、「訳官入料御願」は出されなかった。この点は今後の課題である。

9) とくに草創期の安永～天明期の対馬藩は、実際、対馬・田代ともにしきりに風水害に見舞われ大きな被害を受けていた。各『毎日記』のほか、国編記3711『洪水度数之覚』参照。

10) 文化14年度以降は、老中、勘定奉行に加え「御儒者林大学頭」が願書下書きの内覧・検討に必ず加わっている点は注目に値する。詳細は後考を俟ちたい。

ところで、対馬藩は直近でも明和6～7年（1769-70）の「御至願（毎年銀300貫）」、安永5年（1776）の「御本願（毎年金1万2000両）」の援助を得ていた。幕府は「御本願」の援助決定時、対馬藩に対して「私貿易禁止・儉約の実行・さらなる嘆願の禁止」を条件としたが、「訳官入料御願」はその条件を破るものだった。安永8年度の願書草案にはこの点の配慮が欠けており、添削依頼を受けた老中松平輝高は「嘆願禁止」への弁明を加筆している（後掲史料1、太字部分）。

添削指導が終わると、改めて関係老中などの了承を得た上で願書を老中に提出する。天明6年度からはこの願書にも、過去に認められた援助申請とその額を先例として記した「例書」を添えるようになる。「訳官入料御願」が「定例化」するのはこの時からである。さらに、文化14年度（1817）からは「願書」に加えて、江戸家老、ないし江戸留守居役名での、対馬藩の財政窮状を含めたより詳しい陳情内容を記した「御内意書／添書」も提出している。

なお、天明2年度の場合、このタイミングで対馬藩江戸家老（杉村直記）は関係幕閣に対して反物を「心添」として送っている。Ⅲ期にも見られるが、願書結果通知より前に送られる金品は便宜供与のための賄賂の可能性が濃厚である。

### ③Ⅲ期 「訳官入料御願」願書提出後から結果通知まで

Ⅲ期では老中に提出した願書が老中・勘定奉行・勘定所などで評議され、その採否の判断と許可時の援助金額が決められる。基本的には幕府内部での議論となるが、結果が出るまで、対馬藩江戸家老／留守居は関係幕府要人（老中・勘定奉行・奥佑筆組頭・勘定組頭など）をしきりに訪ね、審議の行方を尋ねている。なかでもやはり初申請の安永8年度の場合、留守居（濱田源左衛門）と勘定所（勘定奉行安藤惟要ら）との間では厳しいやりとりがあり、勘定所では、対馬藩が「将軍家に関わる訳官使」（公的訳官使）と「宗家に関わる訳官使」（私的訳官使）とをごちゃ混ぜに扱って援助申請することを詰問していた。また、金額については対馬藩側と老中や幕府勘定方との間でやりとりが重ねられる。評議の結果通知は、老中公用人から呼び出しを受け、老中屋敷で書付とともに申し渡され、最終的には定められた日程に従って江戸城で正式に結果が申し渡される。全11回の申請のうち却下されたのは最後の慶応3年度のものだけだった。

そして、やはり結果通知前・結果通知時それぞれのタイミングで対馬藩江戸家老／留守居

は関係要人に対して反物や人参、あるいは現金などの金品を「心添」として一度ならず複数回送っている。結果通知前の「心添」は安永8、天明2(1782)、文政11年度に確認でき、これはⅡ期でのそれと同じく便宜供与の賄賂とみてよい。他方、結果通知時の場合は、願書審議に関わった多くの関係者(老中から評定所の「御六尺」や「湯呑所番」に至る)に対して金品を送っているが、これは世話になった謝礼の意味があるものと考えられる。

ただし、杉村直記が関わった安永8年度・天明2、6(1786)年度の場合、やや事情が異なっており、老中、勘定奉行、奥佑筆与頭や老中家用人などから内々に注文を取り付けたものを調達して渡している。残念ながら注文内容は不明だが、「訳官入料御願」を成功させるため杉村直記が相当に気遣っていたことは伝わるし、単なる謝礼以上の意味もありそうである。

加えて対馬藩江戸藩邸では、願書提出後、深川八幡(富岡八幡宮)・湯島天満宮・浅草観音への祈願や、対馬藩江戸上屋敷に近い鳥越長楽寺(石龍庵)での浴油祈禱、対馬藩江戸下屋敷に近い真先(崎)稻荷への祈願も行っていた。神仏の力に縋る思いもあったのだろう。

#### ④Ⅳ期 援助金受取から御礼口上まで

Ⅳ期は対馬藩が援助金を受け取り、藩主がその御礼口上を伝えるまでである。対馬藩江戸藩邸ではここでも老中や御金奉行から指導・確認を受けつつ援助金の「請取証文」を作成する。証文完成後は援助金受け取りに向けた日程調整が行われ、いよいよ江戸城払方御金蔵で受け取りとなる。ただし、援助金は幕府の事情から常に小判でもらえたわけではなく、天明2年度の場合は総額5000両を「御金二千両一箱、二朱判三千両分六箱」で、天明6年度の場合は幕府に金の在庫がなかったのか、総額金3000両分がすべて銀(銀170貫250目。銀17箱と250目紙包)で、また寛政8年度の場合は総額金2000両のうち1200両が小判、残りの800両が二朱銀500両で、それぞれ支払われていた<sup>11)</sup>。

受け取り後には対馬藩側から、改めて老中・勘定奉行から御金奉行、各同心や各家人など幅広い関係者に礼物が送られ、藩内でも願書執筆の功績に対して佑筆・日帳付に褒美が与えられた。その後、藩主から老中一同へ御礼口上がある。このタイミングでまた謝礼となる金品が送られている。その後老中から返礼の使者が送られて「訳官入料御願」一

11) 対馬歴史研究センター所蔵・記録類1-1-H①-6「訳官入料依御願御金五千両御拝借記録」11月24日条、同記録類1-1-H①-7「訳官入料御願記録」12月23日条、24日条、国編記1614「訳官御入料二千金御手当記録」6月9日条。

連のプロセスが終わる。

以上のプロセスは時間的には、I期の伺書提出後、すぐに招聘の動きに入るか、あるいは時間がかかるかの違いがあり、伺書の結果通知から願書提出まで、最短では文化14年度のケースで約1ヶ月半、最長では天保14年度のケースで約2年かかっている。また、願書を提出してから結果通知までの所要日数については、最短が天明2年度の10日<sup>12)</sup>、長いケースは順に、慶応3年度の5ヶ月強（ただし結果は却下）、寛政8年度（1796）の4ヶ月強、安永8年度の3ヶ月強があるが、他は概ね1ヶ月程度で、やはりプロセスがほぼ定例化していたことが窺える。

## 2 「訳官入料御願」の出願理由

「訳官入料御願」の出願理由については冒頭で触れた通り、大場が以下のように整理している。すなわち、理由は「①知行同様の貿易断絶、②損毛、③天災・火災による浦所（船着場など）や府内建築物の修理、④本来幕府がやるべき朝鮮との外交を宗氏が代行しているということ、⑤外国人を招請するのであるから、不備があっては幕府の威信に拘るということ」の5点に整理でき、このうち対馬藩が特に強調するのは①、④、⑤であるという<sup>13)</sup>。ただ、大場の整理は概括的なものに止まっているので、本稿では「訳官入料御願」記録に基づいてもう少し踏み込んだ分析を試みたい。

とは言え、すべての願書を並べての行論はできないため、ここではその内容を整理した表を示し、安永8年度・天明2、6年度・文化14年度の願書を文末に掲げることにする。なお、大場の整理した5点について、本報告では①と②については「藩財政窮乏」に統合し、⑤については、願書の表現上、「外国への体面」と「幕府の威光」とに分割した。また新たに「『御本願』条件への弁明」、「訳官使来対中断により『三度』の訳使招聘」、「各種出費増」の3点を追加した。

願書では、各回若干の異同はあるが、まず訳官使招聘は幕府の命令を受けてのことだと押

12) ただし、この時は実際の願書提出までの約七ヶ月あまりの間、対馬藩江戸家老と勘定奉行松本秀持と用人（江藤定之進）、側用人田沼意次と用人（井上伊織、三浦庄二、潮田由膳[内膳]）、老中水野忠友と用人（土方縫殿介）、奥佑筆組頭（上村弥三郎）、勘定組頭（若林市左衛門）など多方面に「願書下書」の検討・添削依頼のやりとりを重ねていた。

13) 大場、前掲論文、133-134頁。

し立てた上で、藩財政の窮状を訴え、くわえて非常の出費が続いていること、援助無しでは接応にかかる「格例」を整えられず、「異国・外国見聞」すなわち朝鮮への体面上支障があることに加え、幕府の「御威光」にも関わるので、どうか援助して欲しいという論法になっている。各回の願書内容を整理したものが表2である。

[ 表2 訳官入料御願の理由と「訳官使」名称状況 ]

以上の整理からわかることは、まず、安永8年の初申請時、対馬藩江戸家老杉村直記は、訳官使の招聘名目1つを「一度」と数えて、招聘名目の数だけの訳官使があるかのような説明をし続けた。すなわち、安永8年度は大納言甲慰・宗義暢甲慰・宗義功（猪三郎）襲封祝儀の3つの招聘名目があり、これを「三度」の使節来対が見込まれ、負担が大きいので援助してくれという論法を駆使したのである。これは初回だけの論理だが、幕府側に新たな援助を認めさせるために杉村が駆使した力業と言える<sup>14)</sup>。

次に、大場の挙げた④について、願書の文言からは「本来幕府がやるべき」というニュアンスは読み取れず、対馬藩はあくまでも「幕府の命令によって行う」という態度を貫いており、しかも安永8年度はこの点の言及はなく、天明2年度から現れる。

また「訳官入料御願」の初期においては、「御本願」に際して幕府から出された3条件、とくに「嘆願禁止」への弁明が書かれていたが、寛政8年度を最後に弁明は書かれなくなる。

4つめに、「藩財政窮乏」の内容に関して、文化14年度から「日朝外交」への言及（大場の整理①）が始まっている点で、文政11年度を除いて、天保14年度（1843）からは毎行われている。

5つめは、願書の文面上、やはり草創期の安永8年度・天明2年度に比して、天明6年度以降のものが内容的にも定式化している点である。前章で「訳官入料御願」が定例化するのとは天明6年度からと述べたが、願書の文面からも定例化を裏付けることができる。また、表現自体も、文政11年度以降の願書は、「幕府の命令の実行」・「藩財政窮乏」・「幕府の威光に関わる」点に関しては、言い回しそのものがほぼ前回の表現のままとなっている。

14) 国編記1569『訳官入料御願記録』。

最後に、関連して「訳官使」という使節の名称に関して付け加えておくと、願書上、当初は「訳使」という表現だったものが、寛政8年度に「訳官使」という表現が初めて登場し、その後文政11年度以降定着していくことも分かった。

## むすびにかえて

以上、「訳官入料御願」のプロセスと定例化の画期、また「申請理由」についてそれぞれ駆け足で見てきた。それらを踏まえて、ここでは「訳官入料御願」のキーパーソンに触れ、改めて対馬藩にとっての「訳官入料御願」を位置づけてみたい。

「訳官入料御願」のキーパーソンは対馬藩江戸家老杉村直記である。杉村は申請する度に関係する幕閣らとの接触を重ね、「願書」の下書き内覧・添削依頼や、その都度（やや強引な）陳情するだけでなく、安永8年度と天明2年度では、願書結果通知前に評議の便宜供与にかかる贈り物を関係者に贈り、また別途内々の注文を受けてすらいた。「訳官入料御願」の実現には杉村直記の交渉能力が欠かせなかったものと考えられる。加えて、杉村はこのほか明和6～7年の「御至願」、安永5年の「御本願」、安永9～天明2年の「以酌庵輪番制」維持の論陣、天明5年の宗猪三郎急逝に伴う相続問題解決などで大活躍しており、森山恒雄がつとに評したように安永～天明期はまさに「杉村直記時代<sup>15)</sup>」だった。

もっともこうした杉村の「攻勢」は幕府側からは必ずしも歓迎されておらず、田沼意次の用人三浦庄二は「先達而五山之一事も 上二はいかふ御苦勞二被思召候處、段々と被申立之品も能貫、偏宜 御聞通二而、右之通相濟、此上於對州之事は御安心之事と有之候二また其事も不冷切中、又々何角と被申立、左様二は有之間敷儀、少しは斟酌も可有之、餘り阿漕成事と申居候<sup>16)</sup>」と評してもいた。

かかる評価をものともせず杉村が安永8年度、天明2年度に援助金を獲得したことは、「先例」となってその後の「訳官入料御願」交渉の基準となった。つまり、「訳官入料御願」は天明6年度から言わば定例化し、その後將軍家の慶弔時に関わる訳官使を招聘する際に対馬

15) 森山、前掲論文、1047頁。

16) 対馬歴史研究センター対馬宗家文書・記録類1-1-H①6『訳官入料依願御金五千兩御拝借記録』天明二年九月十八日条。

藩が願い出ることになったのである。

大場は「訳官入料御願」は困窮する対馬藩が敢えて繰り返し援助を得るために訳官使を利用したもの」と評価していたが、本報告からはそれとは異なる「訳官入料御願」像を導き出したい。それは、それだけ財政が厳しいにもかかわらず対馬藩が敢えて訳官使招聘にこだわった点である。ここに対馬藩にとっての訳官使の意義がある。「將軍家の慶弔事」に際して訳官使を呼ぼうとまず動いたのは幕府ではなく対馬藩だったからである。乱暴に言えば、「財政が厳しいから招聘しない」という判断もできたはずだが、その判断をせず、「阿漕」と言われようとも資金援助を取り付け、訳官使招聘に取り組んだのは、それが「御役儀」(安永8年度願書)・「朝鮮ノ役儀」(『宗氏家譜略』)であると対馬藩で自覚していた証である<sup>17)</sup>。「訳官入料御願」は確かに財政援助要求だが、対馬藩は、援助金を得るために訳官使を利用したのではなく、「御役儀」・「朝鮮ノ役儀」として訳官使招聘を進めるためにどうしても援助金が必要だった。

他方、池内敏がすでに指摘したように<sup>18)</sup>、幕府からの資金援助を受けているという点で「將軍家の慶弔事」に関わる訳官使は明らかに「公的」使節であり、実際、当事者(対馬藩・幕府)もそのように認識していた。したがって、これまでも指摘されてきたことではあるが<sup>19)</sup>、改めて、この「公的」訳官使は、通信使同様、ないし少なくとも通信使に準ずる使節としてもっと注目されてよい。ただし同時に訳官使は「私的」すなわち「対馬藩のみ」に関わる使節でもあり、公私両用の顔を持っている。この使節を近世日朝関係にどのように位置づけるかは引き続き報告者の課題である。

記・本稿はJSPS科研費JS20K00983ならびにJS23H00666・JS23K25363の成果の一部である。

## 【史料編】

【史料1】「訳官入料御願」記録(国編記1569)安永八年九月三日条。

「私身代柄累年之逼迫ニ付格別之以御仁恵代々無比類結構被 仰付、重々之御大恩無限難

17) この点は、「訳官入料御願」で得られた援助金の使途や「訳官入料御願」を出さなかった4回の訳官使接遇と比較することでより深く明らかにしうと思われるが、現時点では報告者の能力を大きく超える問題なので、史料の探索も含めて今後の課題としたい。

18) 池内、前掲書、177頁。

19) 大場、前掲論文、池内、前掲書、仲尾宏「朝鮮渡海訳官使と対馬藩」、『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明石書店、1997年所収など。

有奉存、依之非常之大用外御歎等不申上、国内相立候様、儉約筋嚴重取行居候段ハ追々申上候通御座候處、去々年國元并肥前領内多分之損毛其去年同所皆無之損毛仕、元來米穀不足之儀候得者、打続貧民救之手当、家中撫育之買米等身代柄ニハ大造之出方意外ニ相増難渋追重、家中之扶助渡方別而去々年以来猶以多分之滞と罷成、其上先般亡祖父式部大輔病死仕候付、朝鮮國ら吊詞之訳使、去々冬彼国上船仕渡海臨、亡父對馬守病死仕候儀為告知候付、右之訳使渡海相止、諸般之手当悉皆入捨と罷成、弥増之難儀ニ及、彼是進退失途之仕合御座候、然共追々莫大之奉蒙 御仁惠居候上之儀故、何分御奉公筋をも相勤 御高恩之隙相立度、折角下知を加罷在候内、亡父對馬守病死仕、私江家督被成下、就右朝鮮國ら訳使ヲも差渡、是又大造之入料有之候上候得共、外国懸合之儀候得者、諸事取繕訳使相招度、專相尽居候上、此節不存寄

大納言様被遊 薨御候付、其段朝鮮国江為告知候上、御吊慰之訳官差渡可申候處右申上候通、領國打続兩年之皆無同前之損毛之上、非常之儀相重、就中訳使引請候儀ハ異国外聞ニ頭候筋故諸事取飾不申候而ハ難叶、夫ともニ先達而結構と仰付候上之儀ニ御座候間、御苦柄之儀不申上、手当可仕筈ニ御座候得共、前條之通意外之儀差続御役先之手当用費難取続御座候、依之恐入候奉存候得共、相應之御手当被 仰付 被下候様奉願候、先般結構を仰付候節、非常之外願ケ間敷儀申上間敷段申上置候得共、誠今般之儀ハ兼而覚悟不仕非常之大用難補儀ニ御座候付、此上 御憐愍を以外国之見分ハ素、御役儀無滞相勤候様仕度、御手当被成下候様不得已奉願候、以上、

六月 御名斗 御印なし。

※「△」以降が老中松平輝高（用人・大野弥八郎）による添削箇所。太字部分が添削により新たに加筆された文言（文意）。また下線部は「幻の訳官使」で、実際は迎裁判の渡海中止だったものを、杉村直記は幕閣に対しては「訳官使が渡海を中止した」と説明した。波線部は「御役儀（朝鮮ノ役儀）」に関わる言及（以下同）。

[史料2]「訳官入料御願御金五千兩御拝借記録」天明二年十月廿九日条。

「今般

御養君様被 仰出候付、從朝鮮国對州迄御祝詞之訳使差渡可申旨、取計候様被仰渡奉畏候、然処私身代柄之儀、累年逼迫頂上ニ及国家難相立場ニ臨、願之品宜御聞通被成下、格別之以 御憐愍追々之御大恩無限難有奉存候、其上先達而相続方之儀ニ付御厚憐之御尋共被成下置、交易筋之儀ニ付蒙 仰候次第も有之、重疊難有仕合、依之以來国家永続之基此節專勘辨仕罷在候、尤右御用被仰付候付而は、取賄方外国見聞之義乍恐 御威光にも相拘候義、格例も有之候付、過分之入料相掛候儀ニ御座候、勿論御奉公筋之儀及力候儀は如何様ニも相尽勘辨仕相勤可申儀ニ候處、先般相続方ニ付、格別之

御慈恵を以、当節最中判読取計罷在候砌、何分可相尽手段等無御座候、去ル譯使渡海ニ付御手当も被下置候得共、右之御手当ニ而多分引足不申、然共押返奉願候段恐入、其餘不足之分種々差繰を以其節之御用向漸取賄相勤候付、別而逼迫仕、又々此度之御用蒙 仰、多分之入料不足之償等一向調兼候儀御座候、尤可成丈取縮品々差繰仕候得共、金九千兩程是非共入用相見申候間、恐入奉存候得共、何分宜御賢慮被成下置、右入料金高御手当被成下置、此上之御憐愍を以御役先無滞相勤候様、偏奉願上候、右之段、何分可然御沙汰被成下候様、奉希候、以上、

七月 御名」。

※太字部分が勘定奉行松本秀持による添削（加筆）部分。波線部が「御役(儀)」に関わる言及。

[史料3] 「訳使入料御願記録」天明六年十一月十日条。

「公方様 薨御之為御吊礼朝鮮国ち對州迄訳使差渡候儀、可為先格之通旨被仰渡、奉畏候、夫、私家督以来訳使渡海引続難及自力、殊更外国使者接對之儀ニ候故、格例ニ随ヒ取飾不申候而は難相叶候付、其筋奉願度毎御手当被成下候得共、大造之入料 御恵斗ニ而は引足不申、然共御奉公之儀候得は作畧を以取賄相濟候處、今般不慮之就 御大變又々訳使渡海被 仰出、何分自力斗ニ而難相調、当惑仕候、元來困窮之身上柄之儀は追々御糾明之上、其品被為聞召分、亡父代新ニ御取立被成下候格別之以 思召永続為御手当年々莫太之奉蒙 御恵居候得共、其砌も申上置候通、是迎も行届不申儀故、非常之品は其節ニ至可奉願旨をも申上置候通之訳ニ御座候、依之何卒以 御憐愍此度訳使接對無滞相勤候様、相應御手当被仰付被下候ハ、御用先無滞相勤、重々 御高恩難有仕合可奉存候、此段何分可然御沙汰奉願候、以上、

十月 宗猪三郎

大奉書半切 御印無之

上ハ包小奉書 御名

例書

安永八己亥年

孝恭院様薨御之御吊慰從朝鮮國對州迄訳使差渡候様被 仰出候付、御手当之儀奉願候處、金三千兩被成下候、

天明二壬寅年

御養君被仰出候為御賀儀朝鮮国ち對州迄訳使差渡候様被 仰出候付、御手当之儀奉願候處、金五千兩拝借被仰付、年々拝領金之内を以十ヶ年賦返納仕候様被仰付候、

以上 宗之内

十一月 杉村直記」。

※波線部が「御用（御役儀）」に関わる言及。

[史料4]「訳官入料御願記録」(国編記1644)文化十四年二月八日条

「今般

玉樹院様御吊慰之譯官對話之儀奉伺候處、伺之通被仰渡奉畏候、然處、訳使接応取賄入料大造之儀有之、自力ニ而難相届、先年来より譯使渡来之度每奉願御手当且拝借等被仰付以御蔭接無滞相済、御高恩之程有難奉存候、譯使接応等之儀、繰合能成ニも相届候儀御座候は御役儀有限勤向急度於自己夫々取賄可相勤儀本意奉存候得共、信使差継候大銀不時之入料有之、私勝手向追年逼迫仕候次第は追々奉添御聴候通之儀ニ而此節取賄之入料調達方全據無御座、当惑苦念恐入奉存候、先年来譯使對話之度々拝借且御手当等奉願候、其頃迄は朝鮮取遣之品々間々渋滞も仕候得共、近年之様壅塞仕候儀は無之候付、蒙御高恵候、其餘不足之分は色々繰合借財等種々相尽、無滞相勤罷在候處、於此節は勝手向之土台と仕居候彼國と之貿易筋当時全相止候姿候得ば、何を以借財可仕方便聊も無御座候、就夫譯使對話之儀は全一己之儀無之、凡是迄接応之形も有之物品ニ依御威光ニも相拘候儀、対彼国候而も例外格別省略難仕、寔心痛当惑之次第奉存候、近年追重奉蒙御仁恵候砌、又候難渋筋之儀奉願上候段、御沙汰之程重々恐怖至極奉存候得共、此上之被為垂御仁恵別段之以御沙汰当節譯使之御用向無別儀相賄候御手当被仰付被成下候様、奉願候、左候は以御高恩御用無滞相勤重々有難仕合可奉存候、此段、何分宜御沙汰被下候様偏以奉願候、以上、

二月八日 御名」。

※下線部が日朝交易の壅塞（衰退）に関わる部分。波線部が「御役儀（御用）」に関わる言及。

表1 「訳官入料御願」一覧と史料所蔵

	結果通達日	援助内容	援助金受取日	訳官使来対年	史料所蔵
安永8年度(1779)	安永8年12月4日	金3000両拝領	同年12月18日	安永9年	国編・東博
天明2年度(1782)	天明2年11月9日	金5000両拝借	同年11月24日	天明3年	対馬・東博
天明6年度(1786)	天明6年12月11日	金3000両拝領	同年12月23日	天明7年	対馬
寛政8年度(1796)	寛政8年6月7日	金2000両拝領	同年6月10日	寛政8年	国編・東博
文化6年度(1809)	文化6年11月11日	金30000両拝借	不明	文化6年	確認できず
文化14年度(1817)	文化14年4月3日	金2000両拝領	同年4月18日	文政元年	国編
文政11年度(1828)	文政11年10月3日	金2000両拝領	同年10月10日	文政12年	国編・東史
天保14年度(1843)	天保14年5月28日	金2000両拝領	同年6月10日	天保14年	国編
安政2年度(1855)	安政2年3月19日	金2000両拝領	同年3月24日	安政2年	国編・東史
安政6年度(1859)	安政6年7月10日	金2000両拝領	同年7月13日	万延元年	国編・東博
慶應3年度(1867)	慶應3年11月23日	却下		来対せず	国編

凡例 国編：韓国国史編纂委員会、東博：東京国立博物館、対馬：対馬歴史研究センター、東史：東京大学史料編纂所

大場生与（1994）表8、尹裕淑（2015）表2ならびに国編記1775「訳官入料御願記録 諸記録三十五番」を参照して筆者作成（石田徹「『訳官入料御願』の検討」『訳官使・通信使とその周辺』9（2024秋刊行予定）所収表1を一部加工）。なお、訳官使来対年に関しては大場生与（1994）表1ならびに池内敏（2017）表5-1を参照。

表2 「訳官入料御願」の理由と「訳官使」名称状況一覧

	願い出の理由（概ね願書の言及順）			「訳官使」の名称	
安永8年度	藩財政窮状（領内撰毛・支出増）	「御本願」条件への弁明	訳使来対中断により「三度」の訳使来対	「外国」への体面（「異国外聞に願」）	訳使
天明2年度	「訳使差渡」を取り計らえとの仰せ渡し（幕府の命令の実行）	藩財政窮状（累年逼迫）	「外国」への体面＋幕府の威光に関わる（「外国見聞の儀乍恐御威光にも相拘」）	前回の援助額では不足	訳使
天明6年度	「訳使差渡」を「先格の通り行え」との仰せ渡し（幕府の命令の実行）	藩財政窮状（自力困難）	「御本願」条件への弁明（今回は非常時であること）	「外国」への体面（「格例」に随う必要）	訳使
寛政8年度	「訳使差渡」を「先格の通り行え」との仰せ渡し（幕府の命令の実行）	屋鋪大破修復	「御本願」条件への弁明（倭約は勵行しているが今回が非常時であること）	「外国」への体面（「是迄取繕来候姿」の存在）	訳使・訳官使
文化6年度	—	—	—	—	—
文化14年度	「訳官對話」を「伺いの通り行え」との仰せ渡し（幕府の命令の実行）	藩財政窮状（自力困難・幕府からの高恩＋日朝交易の壅塞）	通信使出費	幕府の威光に関わる＋「外国」への体面（「是迄接応の形も有之事品に依御威光にも相拘候儀、対彼国候ても例外格別省略難仕」）	訳官・訳使
文政11年度	「對話之儀」を「伺いの通り行え」との仰せ渡し（幕府の命令の実行）	藩財政窮状（自力困難・幕府からの高恩）	易地贈礼の出費	「新例」に関わる出費増	訳官使・訳使
天保14年度	「訳官使差渡」を「先格の通り行え」との仰せ渡し（幕府の命令の実行）	藩財政窮状（自力困難・幕府からの特恩＋日朝交易の衰退）	非常臨時の出費増		訳官使
安政2年度	「訳官使差渡」を「先格の通り行え」との仰せ渡し（幕府の命令の実行）	藩財政窮状（自力困難・幕府からの特恩＋日朝交易の衰退）	幕府の威光に関わる＋「外国」への体面（「御役儀に属候廉は外国への駈引専要の儀にて御威光にも相拘候事故、万端旧例に違候手簿の取扱難仕」）	非常の出費増	訳官使
安政6年度	「訳官使差渡」を「伺い・先格の通り行え」との仰せ渡し（幕府の命令の実行）	藩財政窮状（自力困難・幕府からの特恩＋日朝交易の衰退）	非常臨時の出費増	幕府の威光に関わる＋「外国」への体面（「御役儀に属候廉は外国への駈引専要の儀にて御威光にも相拘候事故、万端旧例に違候手簿の取扱難仕」）	訳官使
慶応3年度	「訳官使差渡」を「伺いの通り行え」との仰せ渡し（幕府の命令の実行）	藩財政窮状（自力困難・幕府からの特恩＋日朝交易の衰退）	非常臨時の出費増	幕府の威光に関わる＋「外国」への体面（「御役儀に属候廉は外国への駈引専要の儀にて御威光にも相拘候事故、万端旧例に違候手簿の取扱難仕」）	訳官使

対馬歴史研究センター所蔵対馬宗家文書：記録類1-1-H①-6「訳官入料以御願御金五千兩御拝借記録」、記録類1-1-H②-7「訳官入料御願記録」。

国編記1569「訳官入料御願記録」、国編記1614「訳官御入料二千金御手当記録」、国編記1644「訳官入料御願記録 国控」、国編記1682「訳官入料御願記録」、国編記1723「訳官入料御願記録 諸記録三十一番」、国編記1740「訳官入料御願記録」、国編記1766「訳官入料御願記録<朱 三十三番>」、国編記1775「訳官入料御願記録 諸記録三十五番」より報告者作成。

# '역관입료어원(譯官入料御願)' 프로세스와 원조 요청의 논리<sup>1)</sup>

이시다 도루(石田徹, 島根縣立大學)

## 시작하며

본 보고는 쓰시마 번이 안에이(安永) 8년(1779)부터 막부에 제출한 '역관입료어원(譯官入料御願, 문위행 내빙만을 이유로 하는 쓰시마 번의 對 막부 자금 지원 요구)' 프로세스의 전체상을 개관하고, 쓰시마 번이 원조를 요구하는 논리에 대해 검토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다. 쓰시마 번은 안에이 8년부터 게이오(慶應) 3년(1867)까지 11차례에 걸쳐 막부에 문위행 접대자금 지원 원서를 제출했고, 마지막이었던 게이오 3년도를 제외한 10차례나 막부로부터 원조를 받았다. 표1이 그 일람이다.<sup>2)</sup>

[표1 [譯官入料御願] 일람과 사료 소장]

쓰시마 번과 근세 조일 외교에 대해서는 실로 많고 뛰어난 연구가 축적되었지만, '역관입료어원'에 관해서는 사실 지금까지 그다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sup>3)</sup> 이는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관련 사료의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되어 있다는 사료 접근성의 문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관입료어원'에 대해서는 일본에서는 오바 이쿠요(大場生與)의

- 1) 본 보고는 졸고 『『譯官入料御願』の検討』 『譯官使・通信使とその周邊』 9號(2024년 가을 간행 예정)를 기초로 가필 재구성한 것이다.
- 2) 본 보고에서는 '역관입료어원'의 결과 통지가 있었던 해를 「연도」의 기준으로 삼았다. 표1에 나와 있는 대로 후술하는 문위행초빙여부의 '문의서(伺書)' 제출은 동년 혹은 그 전년·전전년이며, 실제 문위행이 쓰시마로 오는 것은 같은 해 내지 그다음 해가 된다. 또한 이하 국사편찬위원회를 '국편', 해당 기관에서 소장하는 대마도종가문서기록류를 '국편기(國編記)'라고 약칭한다.
- 3) 예를 들면, 森山恒雄『對馬藩』 『長崎縣史』 藩政編, 吉川弘文館, 1973년, 荒野泰典『近世日本と東アジア』 第二部 第一章「大君外交體制の確立」(특히 四), 東京大學出版會, 1988년, 鶴田啓「一八世紀後半の幕府・對馬藩關係」 『朝鮮史研究會論文集』 23, 1986년, 同『『朝鮮押えの役』はあったのか』 佐藤信・藤田覺編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 山川出版社, 2007년, 田代和生『日朝交易と對馬藩』 第一章「對馬藩經濟思想の確立」 創文社, 2007년 등이 쓰시마 번의 對 막부 재정원조를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는데, '역관입료어원'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하지 않았다.

연구가 거의 유일하는데, '역관입료어원'은 '쇼군가에 대한 경조사 용건'이 있을 때만 제출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또한 원조 요청 사유를 정리하여 '역관입료어원'은 막부가 허락할 수밖에 없는 무역 단절 이외의 이유로 재정 궁핍에 시달리는 쓰시마 번이 문위행 파견을 이용한 것이라며, '곤궁한 쓰시마 번은 억지로 원조 요청을 반복했다'라고 주장했다.<sup>4)</sup> 그러나 이 견해에 대해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는 '문위행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행위로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sup>5)</sup>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쓰시마 번이 막부로부터 재정원조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오바가 지적한 것처럼 재정원조를 얻기 위해 문위행을 구실로 삼아 '억지로 원조 요청을 반복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본 보고에서도 다시 검토해 보고자 한다.

한편 문위행 연구에서 다소 앞서있는 한국에서는 윤유숙(尹裕淑)이 쓰시마 번의 對 막부 재정원조 요구 운동 속에 '역관입료어원'을 자리매김하면서, 분세이(文世) 11년도(1828)의 사례를 자세히 검토했다.<sup>6)</sup> 배울 점이 많지만, '역관입료어원'의 전체상을 파악하기에는 아직 완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할 수 없다.

이에 본 보고에서는 이상의 연구를 통해 배우면서 쓰시마 역사연구센터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하고 있는 '역관입료어원'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근본적으로 '역관입료어원'이란 어떠한 프로세스였는지, 어떻게 시작되어 정착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원조가 요청되었는지를 다시 정리하여 쓰시마 번에 있어서 '문위행'이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지면 관계상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세하게 논의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본고 마지막 부분에 최소한의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형태를 취하도록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너른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 1. '역관입료어원' 프로세스의 전체상

우선 '역관입료어원'의 프로세스에 대해 개관하도록 하겠다. 기본적으로는 당연한 일이지만 '문위행 초빙' 프로세스<sup>7)</sup>와 겹치면서도, 이 프로세스는 크게 4기로 나눌 수 있다. 즉, '쇼군가의 경조사'가 발생하고 나서 쓰시마 번 에도번저(江戸藩邸)가 막각(幕閣)들에게 문위행 초빙 여부를 묻는 I기, 문위행 초빙이 결정되고 나서 '역관입료어원' 원서를 작성한 다음 제출할 때까지의 II기, 제출된 원서를 바탕으로 막부 내

4) 大場生與「近世日朝關係における譯官使」, 慶應義塾大學文學研究科修士論文, 1994년.

5) 池内敏『絶海の碩學』, 名古屋大學出版會, 2017년, 169쪽.

6) 윤유숙 「朝鮮後期 問慰行에 관한 再考」『한일관계사연구』50집, 2015년.

7) 池内, 前掲書 168쪽 참조.

부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쓰시마 번에 통달되는 III기, 그리고 실제로 원조금을 수령하여 쓰시마 번주가 막각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달하는 IV기이다. 이하, 각 기의 상황을 간결하게 정리하겠다.

### ① I기 '쇼군가의 경조사' 발생부터 '문의서' 제출까지

문위행은 주로 '쓰시마 번주의 귀도', '쓰시마 번주 가문의 경조사', '쇼군가의 경조사'가 발생할 때 초빙되었는데, '역관입료어원'과 관련된 것을 보면 경사로는 쇼군가의 후계자가 정해졌을 때와 쇼군의 적손이 탄생했을 때이다. 조사로는 쇼군, 쇼군 적자, 쇼군 적손이 서거했을 때이다.<sup>8)</sup> 이밖에 분카(文化) 6년도(1809)에는 역지통신 교섭 준비를 위해 문위행을 초빙했다. 그리고 '역관입료어원'의 직접적인 발단은 안에이 8년(1779) 2월 다이나곤(大納言) 도쿠가와 이에모토(徳川家基)가 급서한 것이었다. 그때까지는 조일 교역에서 발생하는 수익 등도 있었기에 막부의 원조 없이 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지만, 안에이(1772~1781)에 들어서 쓰시마 번의 재정난이 더욱 진행된 것이 원조를 신청하게 된 큰 요인이 되었던 듯하다.<sup>9)</sup>

I기에서는 '쇼군가의 경조사' 발생을 알게 된 쓰시마 번 에도번저(에도가로[江戸家老] 내지 루스이[留守居])가 담당 로주(老中, 복수) 혹은 소바요닌(側用人)들에게 그 '경조사'를 조선에 알릴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문의서[伺書]')하고, 동시에 이와 같은 경조사가 있었을 때 조선에 고지하여 문위행을 초빙했던 '선례'를 열거한 문서('예서[例書]')를 제출한다. 쓰시마 번의 스탠스는 막부가 명을 내리면 진행하겠다는 것이었다. '문의서'에 대한 판단은 로주와 소바요닌들이 한다. '역관입료어원'의 초창기인 안에이 8년도(1779), 덴메이 2년도(1782)의 경우, 이 단계부터 에도가로 스기무라 나오키(杉村直記)가 각 막각들의 요닌(用人)들에게 쓰시마 번의 사정을 여러모로 전하며 물밑 교섭에 착수했다. 덧붙여 '역관입료어원' 신청은 모두 11번 이루어졌지만, 문의서가 각하된 적은 없었고 모두 다음 단계인 원서 제출로 진행되었다.

### ② II기 '역관입료어원' 원서 작성부터 제출까지

II기에서는 쓰시마 번 에도가로와 루스이가 '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쓰시마 번 측은 관련 로주(1~수 명)나 소바요닌들뿐만 아니라 간조부교(勘定

8) 다만, 덴포(天保) 9년도(1838) 문위행의 명목에는 쇼군 이에나리(家齊)의 은거 축하('大御所遜位')가 있었는데, '역관입료어원'은 제출하지 않았다. 이점에 대한 해명은 앞으로의 과제이다.

9) 특히 '역관입료어원'의 초창기인 안에이~덴메이(1772~1789)의 쓰시마 번은 실제로 쓰시마 본토와 월경지인 다시로(田代) 모두 빈번하게 풍수해를 입어서 커다란 손해를 입고 있었다. 각 『毎日記』의 國編記3711『洪水度數之覺』 참조.

奉行)에게도 진정을 넣어 '원서' 초안의 내람(內覽)과 첨삭 지도를 의뢰한다(특히 초창기에 현저. 후술).<sup>10)</sup>

그런데 쓰시마 번은 바로 앞 시기인 메이와(明和) 6~7년(1769~70)에 '어지원(御至願, 매년 은 300관)'과 안에이 5년(1776)에 '어본원(御本願, 매년 금 1만 2000냥)'의 원조를 받았다. 막부는 '어본원'의 원조를 결정했을 때, 쓰시마 번에 대해 '사무역 금지, 검약 실행, 더 이상의 탄원 금지'를 조건으로 내세웠는데, '역관입료어원'은 그 조건을 어기는 것이었다. 안에이 8년도의 원서 초안에는 이러한 점의 배려가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첨삭 의뢰를 받은 로주 마쓰다이카 데루타카(松平輝高)는 '탄원 금지'에 대한 변명을 가필했다(밑에 게시하는 사료 1, 굵은 글씨 부분).

첨삭 지도가 끝나면, 재차 관련 로주 등의 승낙을 얻은 후에 원서를 로주에게 제출한다. 덴메이 6년도(1786)부터는 이 '원서'에 더해 과거에 인정되었던 원조 신청과 그 액수를 선례로 적은 '예서'를 첨부하게 된다. '역관입료어원'이 '정례화'하는 것은 이때부터이다. 또한 분카 14년도(1817년)부터는 '원서'와 더불어 에도가로 내지 루스이의 명의로 쓰시마 번의 재정 상황을 포함하여, 더욱 자세한 진정 내용을 담은 '어내의서/첨서(御內意書/添書)'도 제출했다.

또한 덴메이 2년도의 경우, 이 시기에 쓰시마 번 에도가로(스기무라 나오키)는 관계 막각들에 대해 고급 옷감(反物)을 '마음(心添)'이란 명목으로 보내고 있다. Ⅲ기에도 보이지만, 원서 결과 통보에 앞서 보내지는 금품은 편의 공여를 위한 뇌물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 ③Ⅲ기 '역관입료어원' 원서 제출 후부터 결과 통지까지

Ⅲ기에는 로주에게 제출한 원서가 로주, 간조부교, 간조쇼(勘定所) 등에서 논의되며, 그 채택 여부의 판단과 허가 시의 원조 금액이 결정된다. 기본적으로는 막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논의이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쓰시마 번의 에도가로과 루스이는 관계 막부 요인(로주, 간조부교, 오쿠유히쓰구미가시라[奥佑筆組頭], 간조구미가시라[勘定組頭] 등)들을 자주 찾아가면서 심의의 향방을 물었다. 그중에서도 역시 첫 신청이었던 안에이 8년도의 경우, 루스이(하마다 겐자에몬[濱田源左衛門])와 간조쇼(간조부교 안도 고레토시[安藤惟要] 등)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간조쇼에서는 쓰시마 번이 '쇼군가와 관련된 문위행'(공적 문위행)과 '소씨 가문에 관련된 문위행'

10) 분카 14년도 이후는 로주, 간조부교에 더해 '어유자 하야시 다이가쿠노카미(御儒者林大學頭)'가 원서 초안의 내람과 검토에 반드시 관여하고 있었던 점은 주목할 만하다. 자세한 검토는 후일을 기약한다.

(사적 문위행)을 구분하지 않고 함께 취급하여 원조 신청을 한 것을 힐문했다. 또한 금액에 대해서는 쓰시마 번 측과 로주 및 막부의 재무 담당자들(勘定方) 사이에서 교섭이 거듭 이루어졌다. 논의 결과의 통지는, 로주의 고요닌(公用人)의 호출을 받아 로주의 저택에서 문서와 함께 전달되며, 최종적으로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에도성에서 정식으로 결과가 통지된다. 전체 11번의 신청 중 각하된 것은 마지막 게이오 3년도(1788)의 경우뿐이었다.

그리고 역시 결과가 통지되기 전과 결과가 통지될 때 각각의 타이밍에 쓰시마 번 에도가로와 루스이는 관련 요년들에게 고급 옷감이나 인삼, 혹은 현금 등의 금품을 '마음'이라는 명목으로 여러 차례 보냈다.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보낸 '마음'은 안에이 8년도(1781), 덴메이 2년도(1782), 분세이 11년도(1786)에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II기에서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편의 공여를 위한 뇌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한편, 결과가 통지될 때의 경우는 원서 심의에 관련되었던 여러 관계자들(로주를 비롯하여 평정소[評定所]의 하위 관리들[御六尺, 湯呑所番]까지)에게 금품을 보내고 있는데, 이는 신세를 진 것에 관한 사례의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스키무라 나오키와 관련된 안에이 8년도(1779)와 덴메이 2·6(1782·1786)년도의 경우에는 다소 사정이 달랐는데, 로주, 간조부교, 오큐유히쓰구미가시라나 로주의 이에요닌(家人) 등이 은밀히 주문한 물품을 조달하여 제공했다. 아쉽게도 주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역관입료어원'을 성공시키기 위해 스키무라 나오키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단순한 사례 이상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

덧붙여 쓰시마 번 에도번저에서는, 원서를 제출한 후에 후카가와 하치만(深川八幡, 도미오카 하치만[富岡八幡宮]), 유시마 천만궁(湯島天満宮), 아사쿠사 관음(淺草觀音)에서 기도를 올리고, 가미야시키키(上屋敷)에 가까운 도라코에 조라쿠지(鳥越長樂寺, 세키류안[石龍庵])에서는 특별 기도(浴油祈禱)를 올리거나, 시모야시키키(下屋敷)에 가까운 마사키 이나리(眞先[崎]稻荷)에서도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신불의 힘에 기대려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다.

#### ④IV기 원조금 수령부터 감사 인사까지

IV기는 쓰시마 번이 원조금을 수령하고 번주가 그 감사 인사를 올릴 때까지이다. 쓰시마 번 에도번저에서는 이 경우에도 로주나 가네부교(御金奉行)의 지도와 확인을 받으면서 원조금에 대한 '수령 확인 증서(講取証文)'를 작성한다. 증서가 완성된 후에는 원조금 수령을 위한 일정을 조정하고, 마침내 에도성에 있는 막부의 금고(拂方御

金藏)에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원조금은 막부의 사정으로 인해 항상 금화(小判)로 받은 것은 아니었고, 덴메이 2년도의 경우는 총액 5000냥을 '금 2천 냥 1상자, 이주금(二朱判) 3천냥 분 6상자'로, 덴메이 6년도의 경우는 막부에 금 재고가 없었는지 총액 금 3천 냥 분이 모두 은(은 170관 250목, 은 17상자와 종이로 썬 250목)으로, 또 간세이(寬政) 8년도(1796)의 경우는 총액 금 2000냥 중 1200냥이 금화, 나머지 800냥이 이주은(二朱銀) 500냥으로 각각 지불되었다.<sup>11)</sup>

수령 후에는 쓰시마 번 측에서 재차 로주와 간조부교를 비롯한 가네부교, 각 도신(同心)들이나 각 이에요닌들에 이르는 폭넓은 관계자들에게 예물을 보냈고, 번 내부에서도 원서를 집필한 공적으로 서기(佑筆)나 기록 담당자(日帳付)들에게 포상을 내렸다. 그 후 번주로부터 로주 일동에게 감사 인사가 있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사례를 위한 금품을 보냈다. 그 후 로주들로부터 답례를 위한 사자가 파견되면서 '역관입료어원'의 일련의 프로세스가 끝난다.

이상의 프로세스는 시간적으로는 I기의 문의서를 제출한 후, 바로 초빙 단계로 넘어가느냐 혹은 시간이 걸리느냐의 차이가 있어서, 문의서에 대한 결과 통지부터 원서 제출까지 최단은 분카 14년도(1817)의 약 1개월 반, 최장은 덴포(天保) 14년도(1843)의 약 2년이였다. 또한 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결과 통지까지 걸린 일수에 대해서는, 최단이 덴메이 2년도(1782)의 10일,<sup>12)</sup> 길었던 것을 순서대로 보면, 게이오 3년도(1867)의 5개월 이상(단 결과는 각하), 간세이 8년도(1796)의 4개월 이상, 안에이 8년도(1779)의 3개월 이상이 있지만, 그 외에는 대체로 1개월 정도로 역시 프로세스가 거의 정례화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2. '역관입료어원'의 출원 이유

'역관입료어원'을 출원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바가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즉 이유는 '①지행(知行)과 마찬가지로 무역의 단절, ②손모(損毛), ③천재·화재로 인한 포소(浦所, 선착장 등)나 후나이(府內)의 건축물 수

11) 對馬歴史研究センター 소장·記録類1-1-H①-6「譯官入料依御願御金五千兩御拜借記録」11月24日 조, 同記録類1-1-H①-7「譯官入料御願記録」12月23日 조, 24日 조, 國編記1614「譯官御入料二千金御手當記録」6月9日 조.

12) 다만 이 때는 실제의 願書提出까지의 약 7개월 남짓 동안에 對馬藩 江戸家老와 勘定奉行 松本秀持와 그 用人(江藤定之進), 側用人 田沼意次와 그 用人(井上伊織, 三浦庄二, 潮田由膳[内膳]), 老中 水野忠友와 그 用人(土方縫殿介), 奥佑筆組頭(上村弥三郎), 勘定組頭(若林市左衛門) 등 다방면에 걸쳐 「願書下書」의 검토·첨삭 의뢰 등의 작업이 거듭되고 있었다.

리, ④본래 막부가 해야 할 조선과의 외교를 소씨 가문이 대행하고 있다는 것, ⑤외국인을 초청하는 것인 만큼 부족함이 있을 경우 막부의 위신에 관계된다는 것'이라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이중 쓰시마 번이 특히 강조한 것은 ①, ④, ⑤라고 한다.<sup>13)</sup> 다만, 오바의 정리는 개괄적인 것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역관 입료어원' 기록에 근거해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원서를 나열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수는 없기에 여기서는 그 내용을 정리한 표를 제시하고 안에이 8년도(1779), 덴메이 2·6년도(1782·1786), 분카 14년도(1817)의 원서를 발표문 맨 아래에 제시하기로 한다. 또한 오바가 정리한 다섯 이유에 대해 본 보고에서는 ①과 ②에 대해서는 '藩財政窮乏'으로 통합하고, ⑤에 대해서는 원서의 표현상 '외국에 대한 체면'과 '막부의 위광'으로 나누었다. 또한 새롭게 '『御本願』 조건에 대한 변명', '譯官使來對 중단으로 『三度』의 譯使 招聘', '각종 지출 증가'의 3가지 항목을 추가하였다.

원서에는 각 회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우선 문위행 초빙은 막부의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 다음, 번 재정의 궁핍한 상황을 호소하고, 여기에 많은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원조 없이는 응접에 걸맞은 '격례(格例)'를 갖추지 못하고, '이국·외국의 견문' 즉 조선에 대한 체면상 지장이 있는 것 외에도 막부의 '위광(御威光)'과도 관련되는 일이므로, 아무쪼록 원조해 주었으면 한다는 논법이다. 각 회차의 원서 내용을 정리한 것이 표2이다.

#### [표2 譯官入料御願의 理由와 譯官使] 명칭 상황]

이상의 정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먼저 안에이 8년 첫 신청 당시 쓰시마 번 에도가로 스키무라 나오키는 문위행 초빙 명목 한 가지를 '한 번(一度)'으로 계산해서 초빙 명목 가짓수만큼 문위행이 파견되는 것처럼 계속 설명했다는 것이다. 즉, 안에이 8년도는 다이내곤에 대한 조위, 소 요시나가(宗義暢)에 대한 조위, 소 요시카쓰(宗義功, 이사부로[猪三郎]) 습직에 대한 축의라는 세 가지 초빙 명목이 있었는데, 이를 '세 번(三度)'의 문위행 파견이 예상되어 부담이 크므로 원조해 달라는 논법을 구사했던 것이다. 이는 첫 회에서만 사용된 논리였지만, 막부 측에 전례에 없는 새로운 원조를 인정받기 위해 스키무라가 구사한 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sup>14)</sup>

다음으로 오바가 든 ④에 대해 원서 속 문구에서는 '본래 막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뉘앙스를 읽어낼 수 없고, 쓰시마 번은 어디까지나 '막부의 명령에 따라 수행한다

13) 大場, 前掲論文, 133-134쪽.

14) 國編記1569『譯官入料御願記錄』.

'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으며, 더구나 안에이 8년도는 이 점에 대한 언급이 없고 덴메이 2년도부터 나타난다는 것이다.

또한 '역관입료어원'의 초기에는 '어본원(御本願)'과 관련하여 막부에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 특히 '탄원 금지'에 대한 변명이 기재되어 있었지만, 간세이 8년도를 끝으로 변명은 기재되지 않게 된다.

넷째, '번 재정 궁핍'의 내용에 관해서 분카 14년도부터 '조일 외교'에 대한 언급(오바의 정리 ①)이 시작되고 있는 점으로, 분세이 11년도(1828)를 제외하고 덴포 14년도(1843)부터 매회 언급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원서의 문면상 역시 초창기인 안에이 8년도, 덴메이 2년도에 비해 덴메이 6년도 이후가 내용적으로도 정식화(定式化)되어 있다는 점이다. 앞 장에서 '역관입료어원'이 정례화되는 것은 덴메이 6년도부터라고 했는데, 원서의 문면으로도 정례화를 뒷받침할 수 있다. 또한 표현 자체도 분세이 11년도 이후의 원서는 '막부의 명령 실행', '번 재정 궁핍', '막부의 위광에 관한' 점에 관해서는 표현 자체가 거의 이전의 표현 그대로이다.

마지막으로 관련하여 '문위행'의 일본 측 명칭 '역관사(譯官使)'라는 사절의 명칭에 대해 덧붙여 두자면, 원서상 처음에는 '譯使'라는 표현이었지만 간세이 8년도에 '譯官使'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였고, 그 후 분세이 11년도 이후에 정착되어 간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 맺음말을 대신하여

이상, '역관입료어원'의 프로세스와 정례화의 획기, 또 '신청 이유'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여기에서는 '역관입료어원'의 핵심 인물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쓰시마 번에 있어서의 '역관입료어원'을 규정하고 싶다.

'역관입료어원'의 핵심 인물은 쓰시마 번 에도가로 스키무라 나오키다. 스키무라는 신청할 때마다 관련 막각들과의 접촉을 거듭하며 '원서' 초안의 내람과 첨삭을 의뢰하거나, 그때마다(약간 무리한)진정을 올렸을 뿐만 아니라, 안에이 8년도와 덴메이 2년도에서는 원서에 대한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는 논의의 편의 제공에 필요한 선물을 관계자들에게 보내고, 또한 별도로 은밀하게 주문을 받기까지 했다. '역관입료어

원'의 실현에는 스기무라의 교섭 능력이 불가결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기무라는 이 밖에도 메이와 6~7년(1769~1770)의 '어지원(御至願)', 안에이 5년(1776)의 '어본원(御本願)', 안에이 9~덴메이 2년(1780~1782)의 '이정암 윤번제' 유지의 논진, 덴메이 5년(1785)의 소 이사부로(宗猪三郎) 급서에 따른 상속 문제 해결 등에서 크게 활약하고 있으며, 모리야마 쓰네오(森山恒雄)가 일찍이 평가한 대로 안에이~덴메이기는 그야말로 '스기무라 나오키의 시대'<sup>15)</sup>였다.

하지만, 이러한 스기무라의 '공세'를 반드시 막부 측이 환영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고, 다누마 오키쓰구(田沼意次)의 요난인 미우라 쇼지(三浦庄二)는 '지난 이정암 건도 쇼군께서 대단히 신경을 써주셨고, 계속 요청하여 좀처럼 물러서지 않기에 그저 쇼군께서 좋게 들어주셔서 이렇게 마무리되어 앞으로 쓰시마에 대해서는 쇼군께서도 마음을 놓으시겠다 싶었는데, 아직 이 일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무언가를 요청하시다니, 그럴 수는 없다고 조금은 생각해야 하는데, 너무나 뻔뻔한 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先達而五山之一事も 上二はいかふ御苦勞二被思召候處、段々と被申立之品も能貫、偏宜 御聞通二而、右之通相濟、此上於對州之事は御安心之事と有之候二また其事も不冷切中、又々何角と被申立、左様二は有之間敷儀、少しは斟酌も可有之、餘り阿漕成事と申居候)<sup>16)</sup>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평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기무라가 안에이 8년도와 덴메이 2년도에 원조금을 획득한 것이 '선례'가 되어 그 후 '역관입료어원' 교섭의 기준이 되었다. 즉 '역관입료어원'은 덴메이 6년도부터 소위 정례화되었고, 그 후 쇼군가의 경조사와 관련된 문위행을 초빙하게 되면 쓰시마 번이 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던 것이다.

오바는 "'역관입료어원'은 곤궁한 쓰시마 번이 억지로 반복적인 원조를 얻기 위해 문위행을 이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었지만, 본 보고에서는 그와는 다른 '역관입료어원' 像을 도출하고 싶다. 그것은 그만큼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쓰시마 번이 굳이 문위행 초빙을 고집했다는 점이다. 여기에 쓰시마 번에 있어서 문위행이 갖는 의의가 있다. '쇼군가의 경조사'에 즈음하여 문위행을 부르려고 먼저 움직인 것은 막부가 아니라 쓰시마 번이었기 때문이다. 거칠게 말하자면 '재정이 어려우니 초빙하지 않는다'라는 판단도 내릴 수 있었을 테지만, 그러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뻔뻔'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어떻게든 자금을 지원받아 문위행 초빙에 임했다는 것은, 그것이 '역의(御役儀)'(안에이 8년도 원서) 또는 '조선 관련 역의(朝鮮ノ役儀)'(『宗氏家譜略』)

15) 森山, 前掲論文, 1047쪽.

16) 對馬歴史研究センター對馬宗家文書・記録類1-1-H①6『譯官入料依御願御金五千兩御拜借記録』天明二年九月十八日條.

라고 쓰시마 번에서 자각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sup>17)</sup> '역관입료어원'은 확실히 재정원 조 요구이긴 하지만, 쓰시마 번은 원조금을 얻기 위해 문위행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역의'나 '조선 관련 역의'로서 문위행 초빙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원조금이 필요했다.

한편 이케우치 사토시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sup>18)</sup> 막부로부터 자금을 원조받고 있다는 점에서 '쇼군가의 경조사'에 관련된 문위행은 분명히 '공적' 사절이며, 실제 당사자들(쓰시마 번과 막부)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 지적되어 온 사항이지만,<sup>19)</sup> 다시 한번 이 '공적' 문위행은 통신사와 마찬가지로 혹은 적어도 통신사에 준하는 사절로서 더욱 주목받아도 좋을 것이다. 다만 동시에 문위행은 '사적' 즉 '쓰시마 번에만' 관련된 사절이기도 하며, 공(公)과 사(私)라는 두 가지 얼굴을 지니고 있다. 이 사절을 근세 조일 관계 속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앞으로도 보고자가 추구해야 할 과제이다.

\*추가-본고는 JSPS科研費JS20K00983 및 JS23H00666 · JS23K25363 성과의 일부이다.

(번역문 감수: 이형주)

## 【사료편】

[사료 1] 「譯官入料御願」記錄 (國編記1569) 安永八年九月三日條.

「私身代柄累年之逼迫ニ付格別之以 御仁惠代々無比類結構被 仰付、重々之御大恩無限難有奉存、依之非常之大用外御歎等不申上、國內相立候様、儉約筋嚴重取行居候段ハ追々申上候通御座候處、去々年國元并肥前領內多分之損毛其上去年同所皆無之損毛仕、元來米穀不足之儀候得者、打續貧民救之手當、家中撫育之買米等身代柄ニハ大造之出方意外ニ相増難澁追重、家中之扶助渡方別而去々年以來猶以多分之滯ト罷成、其上先般亡祖父式部大輔病死仕候付、朝鮮國ち吊詞之譯使、去々冬彼國上船仕渡海臨、亡父對馬守病死仕候儀爲告知候付、右之譯使渡海相止、諸般之手當悉皆入捨ト罷成、彌増之難儀ニ及、彼是進退失途之仕合御座候、然共追々莫大之奉蒙 御仁惠

17) 이점은 '譯官入料御願'으로 얻은 援助金の 사용처나 '譯官入料御願'을 요청하지 않았던 4회회 譯官使 접대(接遇)와 비교함으로써 보다 깊게 살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시점에서는 보고자의 능력을 크게 벗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료의 탐색도 포함해 금후의 과제로 삼겠다.

18) 池內, 前掲書, 177頁.

19) 大場, 前掲論文, 池內, 前掲書, 仲尾宏「朝鮮渡海譯官使と對馬藩」, 『朝鮮通信使と徳川幕府』明石書店, 1997년 所収 등.

居候上之儀故、何分御奉公筋をも相勤 御高恩之隙相立度、折角下知を加罷在候内、亡父對馬守病死仕、私江家督被成下、就右朝鮮國ち譯使ヲも差渡、是又大造之入料有之候上候得共、外國懸合之儀候得者、諸事取繕譯使相招度、專相盡居候上、此節不存寄

大納言様被遊 薨御候付、其段朝鮮國江爲告知候上、御吊慰之譯官差渡可申候處△  
右申上候通、領國打續兩年之皆無同前之損毛之上、非常之儀相重、就中譯使引請候儀ハ異國外聞ニ顯候筋故諸事取飾不申候而ハ難叶、夫ともニ先達而結構ト仰付候上之儀ニ御座候間、御苦柄之儀不申上、手當可仕筈ニ御座候得共、前條之通意外之儀差續御役先之手當用費難取續御座候、依之恐入候奉存候得共、相應之御手當被 仰付 被下候様奉願候、先般結構を仰付候節、非常之外願ケ間敷儀申上間敷段申上置候得共、誠今般之儀ハ兼而覚悟不仕非常之大用難補儀ニ御座候付、此上 御憐愍を以外國之見分ハ素、御役儀無滞相勤候様仕度、御手當被成下候様不得已奉願候、以上、

六月 御名斗 御印なし。

※'△'이후가 로주 마쓰다이라 데루타카(요닌 오노 야하치로[大野弥八郎])에 의해 침삭된 부분이다. 볼드체 부분이 침삭으로 새롭게 가필된 문언(문의). 또한 밑줄은 '환상의 문위행'으로, 실제로는 이들을 쓰시마로 호위하기 위한 재판의 도해가 중지되었으나, 스키무라 나오키는 막각들에게 '문위행이 도해를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물결선은 '역의(조선 관련 역의)'에 관한 언급(이하 같음).

[자료2]「譯官入料御願御金五千兩御拜借記録」天明二年十月廿九日條。

「今般

御養君様被 仰出候付、從朝鮮國對州迄御祝詞之譯使差渡可申旨、取計候様被仰渡奉畏候、然処私身代柄之儀、累年逼迫頂上ニ及國家難相立場ニ臨、願之品宜御聞通被成下、格別之以 御憐愍追々之御大恩無限難有奉存候、其上先達而相續方之儀ニ付御厚憐之御尋共被成下置、交易筋之儀ニ付蒙 仰候次第も有之、重疊難有仕合、依之以來國家永續之基此節專勘辨仕罷在候、尤右御用被 仰付候付而ハ、取賄方外國見聞之義乍恐 御威光にも相拘候義、格例も有之候付、過分之入料相掛候儀ニ御座候、勿論御奉公筋之儀及力候儀ハ如何様ニも相盡勘辨仕相勤可申儀ニ候處、先般相續方ニ付、  
格別之御慈惠を以、當節最中判讀取計罷在候砌、何分可相盡手段等無御座候、去ル<sup>(安永八年)</sup>亥年譯使渡海ニ付御手當も被下置候得共、右之御手當ニ而多分引足不申、然共押返奉願候段恐入、其餘不足之分種々差繰を以其節之御用向漸取賄相勤候付、別而逼迫仕、又々此度之御用蒙 仰、多分之入料不足之償等一向調兼候儀御座候、尤可成丈取縮品々差繰仕候得共、金九千兩程是非共入用相見申候間、恐入奉存候得共、何分宜御賢慮被成下置、右入料金高御手當被成下置、此上之御憐愍を以御役先無滞相勤候様、偏奉願上候、右之

段、何分可然御沙汰被成下候様、奉希候、以上、

七月 御名」。

※볼드체 부분이 간조부교 마쓰모토 히데모치(松本秀持)에 의해 첨삭(가필)된 부분이다. 물결선이 '역의'에 관한 언급.

[사료3]「譯使入料御願記錄」天明六年十一月十日條。

「公方様 薨御之爲御吊禮朝鮮國ち對州込譯使差渡候儀、可爲先格之通旨被仰渡、奉畏候、夫、私家督以來譯使渡海引續難及自力、殊更外國使者接對之儀ニ候故、格例ニ隨ヒ取飾不申候而ハ難相叶候付、其筋奉願度每御手當被成下候得共、大造之入料 御惠斗ニ而ハ引足不申、然共御奉公之儀候得ハ作畧を以取賄相濟候處、今般不慮之就 御大變又々譯使渡海被 仰出、何分自力斗ニ而難相調、當惑仕候、元來困窮之身上柄之儀ハ追々御糾明之上、其品被爲聞召分、亡父代新ニ御取立被成下候格別之以 思召永續爲御手當年々莫太之奉蒙 御惠居候得共、其砌も申上置候通、是迎も行届不申儀故、非常之品ハ其節ニ至可奉願旨をも申上置候通之譯ニ御座候、依之何卒以 御憐愍此度譯使接對無滯相勤候様、相應御手當被仰付被下候ハ、御用先無滯相勤、重々 御高恩難有仕合可奉存候、此段何分可然御沙汰奉願候、以上、

十月 宗猪三郎

大奉書半切 御印無之

上ハ包小奉書 御名

例書

安永八己亥年

孝恭院様 薨御之御吊慰從朝鮮國對州込譯使差渡候様被 仰出候付、御手當之儀奉願候處、金三千兩被成下候、

天明二壬寅年

御養君被仰出候爲御賀儀朝鮮國ち對州込譯使差渡候様被 仰出候付、御手當之儀奉願候處、金五千兩拜借被仰付、年々拜領金之内を以十ヶ年賦返納仕候様被仰付候、

以上 宗之内

十一月 杉村直記」。

※물결선이 '역의'에 관한 언급.

[사료4]「譯官入料御願記錄」(國編記1644)文化十四年二月八日條

「今般

玉樹院様御吊慰之譯官對話之儀奉伺候處、伺之通被仰渡奉畏候、然處、譯使接應取

賄入料大造之儀有之、自力ニ而難相届、先年來より譯使渡來之度每奉願御手當且拜借等被 仰付以 御蔭應接無滯相濟、 御高恩之程有難奉存候、譯使接應等之儀、繰合能成ニも相届候儀御座候は御役儀有限勤向急度於自己夫々取賄可相勤儀本意奉存候得共、信使差繼候大銀不時之入料有之、私勝手向追年逼迫仕候次第は追々奉添 御聽候通之儀ニ而此節取賄之入料調達方全據無御座、當惑苦念恐入奉存候、先年來譯使對話之度々拜借且御手當等奉願候、其頃迄は朝鮮取遣之品々間々澁滯も仕候得共、近年之様壅塞仕候儀は無之候付、蒙 御高惠候、其餘不足之分は色々繰合借財等種々相盡、無滯相勤罷在候處、於此節は勝手向之土台と仕居候彼國と之貿易筋當時全相止候姿候得ば、何を以借財可仕方便聊も無御座候、就夫譯使對話之儀は全一己之儀無之、凡是迄接應之形も有之事品ニ依 御威光ニも相拘候儀、對彼國候而も例外格別省略難仕、寔心痛當惑之次第奉存候、近年追重奉蒙 御仁惠候砌、又候難澁筋之儀奉願上候段、御沙汰之程重々恐怖至極奉存候得共、此上之被爲垂 御仁惠別段之以御沙汰當節譯使之御用向無別儀相賄候御手當被 仰付被成下候様、奉願候、左候は以 御高恩御用無滯相勤重々有難仕合可奉存候、此段、何分宜御沙汰被下候様偏以奉願候、以上、

二月八日 御名」。

※ 밑줄이 조일 교역의 응색(쇠퇴)에 관련된 부분.

물결선이 '역의'에 관련된 언급.

# 石田徹「訳官入料御願」プロセスと援助要請の論理

이형주(국민대)

본발표는쓰시마번의막부에대한문위행보조금 요청(訳官入料御願)에 주목하여 요청과 지급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과정과 함께, 쓰시마 번이 무엇을 이유로 들어 막부에 보조금을 요청한 것인지 그 논리에 대해 밝혀낸 것이다. 문위행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한일 양국에서 조금씩 연구가 축적되어 왔으나, 발표자의 언급대로 보조금 요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이에 발표자는 본 발표를 통해 쓰시마 번에 있어 문위행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고찰하고, 관련된 후속 연구의 전망까지 제시해 주었다. 발표자가 제시해준 소중한 성과와 통찰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의견과 질문을 드리려 한다.

## 1. 문위행 보조금 요청(訳官入料御願)이 정례화한 시기에 관해

발표자는 문위행 보조금 요청이 정례화하는 시기를 덴메이6년(1786)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때부터 ①과거 사례(안에이8년 및 덴메이2년)를 例書로 제출하고 있다, ②문서 내용이 일정해진다라는 것이 그 이유로 보인다.

②와 관련하여 발표자가 제시한[표2]를 확인해 보면, 확실히 덴메이6년 이후 제출된 요청서는 대략적으로 다음의 요소들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막부의 명령에 따라 문위행을 초빙한다

(나)번 재정이 궁핍하다

(다)비상·임시상황에 따른 지출도 있었다

(라)막부의 위광과 체면이 달린 일이다

※단, 간세이8년(1796)에는(가)가 없고, 분세이11년(1828)에는(라)가 없음.

하지만(다)에 주목해 보면, 덴메이6년과 간세이8년의(다)는 御本願의 조건(더 이상 탄원하지 말 것)을 어기고 문위행 파견에 따른 보조금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변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분카14년부터는 이러한 변명이 자취를 감춘다. 즉, 분카14년부터는 이제 변명을 할 필요도 없어졌다는 것이고, 이때부터‘막부가 내

건 조건을 여기는 것은 송구하지만, 상황이 이러하니 이번만큼은 특별히...’에서 ‘이러 이러한 상황이라면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 정착되었다는 것(=정례화)으로 보인다. 더욱이 발표자도 지적하듯이 이때부터(나)의 내용과 관련하여 조일외교(표에 보이는 한에서는 조일무역?)에 대한 언급이 1차례를 제외하고 매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표1]에서 실제로 지급된 보조금 액수를 확인해 보아도 이때부터 ‘금2000냥 배령’으로 고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발표자의 의견을 여쭙고 싶다.

## 2. 발표의 결론에 관해

발표자는 ‘쓰시마 번에 있어서 문위행이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그것이 보조금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막부에 대한 봉공(御役儀, 朝鮮ノ役儀) 그 자체였다고 문위행 초빙이 갖는 의미를 설명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쓰시마 번이 수령한 보조금과 문위행 초빙시의 지출을 비교해 보아야 위의 결론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표1]에 따르면 쓰시마 번은 매번 최소 금2000냥 이상을 지원받거나 빌렸는데, 이에 비해 문위행 초빙에 따른 비용은 매번 금2000냥 이상이었다고 한다면, 발표자의 언급처럼 ‘재정이 힘든 상황에서도 쓰시마 번이 굳이 문위행 초빙을 고집했다’라는 설명이 더욱 설득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쓰시마 번이 굳이 문위행 초빙을 고집’한 것이 맞다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단순히 ‘막부에 대한 봉공(御役儀, 朝鮮ノ役儀)’이기 때문이겠냐는 의문도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결론에 따르면, 쓰시마 번에서는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열심히 봉공을 수행하고 있음을 막부에 어필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를 통해 쓰시마 번은 무엇을 얻으려 한 것인가? 정말 쓰시마 번의 목표는 어필 그 자체였는가? 예를 들어 문위행 초빙이 번주의 관위 승진이나 가신단 통제와는 관련이 없는지 등등, 더욱 분석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3. 기타

(1) 문위행을 ‘諛官使’로 표기했는지 ‘諛使’로 표기했는지도 따로 표에 항목을 넣어서 주목했는데, 그 이유를 묻고 싶다.

(2) ‘막부의 위광’과 ‘외국에 대한 체면’은 결국 표리일체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따로 구분한 이유를 묻고 싶다.



# 일본의 조선통신사 기록에 보이는 삽화

윤유숙(동북아역사재단)

---



# 일본의 조선통신사 기록에 보이는 삽화

윤유숙(동북아역사재단)

## 1. 서론

한국과 일본, 양국에는 조선통신사와 관련된 다양한 회화가 현존한다. 통신사가 일본에서 육로를 도보로 이동하는 모습을 그린 ‘통신사행렬도’·‘통신사행렬회도(通信使行列繪圖)’를 비롯하여, 부산과 오사카 간을 항해하는 선단화(船團畵), 연도(沿道)나 에도에서 이루어진 접대나 향응의 그림, 여정지도(旅程地圖), 사행원이 남긴 유묵(遺墨)이나 회화류, 일본인이 묘사한 사행원의 인물화 등등.

현전하는 조선통신사 관련 회화 중에 시기적으로 가장 이른 작품은 1636년 통신사행부터 본격화된 조선인 화원에 의한 작품, 그리고 행렬도로는 한국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관영조선인내조권(寬永朝鮮人來朝卷)’, 일본에 소재하는 ‘朝鮮信使參入の圖’(1640년)이다.<sup>1)</sup> 통신사 관련 회화는 17세기 초의 사행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사행과 연관되어 제작되었으며, 회화 제작은 18세기로 접어들면서 문화교류의 활성화를 배경으로 양적, 형태적인 증가 양상을 보인다.<sup>2)</sup> 이처럼 17세기 중기부터 1811년 마지막 사행까지 각각의 사행과 관련되어 제작된 회화들은 사실상 거의 모든 작품들이 논문을 통해 검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sup>3)</sup>

1)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영조선인내조권’ 초록/해제정보에는 ‘인조 2년(1624) 제3차 조선통신사 일행이 일본에 사행(使行)한 장면을 일본인 화가가 그린 기록화’라고 소개되어 있다. 일본 연호 ‘간에이(寬永)’가 가리키는 시기는 1624~1643년에 해당하는데, 해제에는 이 행렬도가 1624년의 사행을 그린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현 시점에서는 ‘관영조선인내조권’이라는 제목을 단서로 하여 관영 년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뿐이다. ‘朝鮮信使參入の圖’에 관한 정보는 田代和生(1990) 「朝鮮通信使行列繪卷の研究-正徳元年(1711)の繪卷仕立てを中心に」, 『朝鮮學報』 137, p.5

2) 현재 한국과 일본에 현전하는 통신사 관련 각종 회화가 전부 몇 점인지 명확하지 않다. 田代和生の 앞의 논문, pp.5-8의 표에는 총 49점의 통신사 ‘행렬도(선박·육로로 이동하는 모습만 소개)’가 소개되었고, 문동수(2019)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통신사행렬도>의 고찰」, 『미술자료』 95, p.109에서는 국내외를 합해 50~60 여점의 통신사 행렬도가 남아 있다고 보았다. 황은영(2019) 「조선 후기 통신사 회화자료를 통해 본 조일 문화교류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3에서 ‘현전하는 통신사 관련 회화는 100점 남짓에 불과하다’고 했다. 향후 국내외에 소재하는 ‘조선통신사 관련 회화 전체’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통신사 관련 회화에는 한 편의 독립된 작품이 아니라 ‘문자 기록’에 삽입된 삽화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다. 이런 부류의 그림은 에도시대 일본에서 작성된 문헌에서 사행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면서, 사행원의 다양한 차림새와 소지품(각종 악기와 도구류)을 함께 그려 넣은 경우이다. 대개는 사행원들의 복장과 도구를 그린 삽화에 명칭, 용도, 색깔, 크기 등 간단한 설명을 함께 기입하곤 했다.

필자가 조사한 범위 내에서 삽화가 수록된 조선통신사 기록물로는 1711년 사행을 기록한 『정덕신사기록발서 신사잡록(正德信使記錄拔書 信使雜錄)』, 1748년의 사행기록 『조선인내빙기(朝鮮人來聘記)』, 1764년 사행을 기록한 『조선인내빙기보력(朝鮮人來聘記寶曆)』<sup>4)</sup> 등이 확인된다. 이 중 『조선인내빙기보력』은 역주서가 출간되어 여기에 수록된 삽화에 기재된 간략한 메모가 번역되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1711년 사행을 기록한 『정덕신사기록발서 신사잡록』과, 1748년 사행기록 『조선인내빙기』에 수록된 삽화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두 문헌은 모두 통신사행을 기록한 일본의 기록물이지만, 각기 다른 배경에서 성립되었다. 각 문헌의 서지사항, 통신사 기록으로서의 특징, 기재된 삽화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삽화에 등장하는 ‘조선의 것’들이 기록자의 눈에 어떤 식으로 이해되었는지 검토할 것이다. 에도시대 일본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 조선의 문화, 습속이 어떻게 표현되고 기록되었는지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2. 1711년 통신사<sup>5)</sup> 기록 『정덕신사기록발서 신사잡록』

『정덕신사기록발서 신사잡록』<sup>6)</sup>은 쓰시마 宗家記錄으로 국사편찬위원회 소장본이다. 이 문헌의 구성을 기재 순서에 따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3) 통신사 행렬도에 관한 최신 연구성과는 池內敏(2021) 「ふたつの延享五年(一七四八)朝鮮信使行列図」, 『訳官使・通信使とその周辺』<sup>4)</sup>, 同(2023) 「朝鮮通信使來朝行列図を読み直す」, 『訳官使・通信使とその周辺』<sup>7)</sup>
- 4) 한국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선총독부 소장 고서(古書)로 분류되어 있으나, 저자와 작성된 시기는 불명확. 사행단 구성원들을 지위별로 나누어, 에도성에 등성할 때와 평상시의 모습을 전신상으로 묘사했고, 관(冠), 무기, 악기, 깃발, 에도성에서 거행되는 의례의 인물 배치도 등 다양한 삽화가 수록되어 있다. 윤유숙 편(2020) 『근세 한일관계 사료집Ⅳ-朝鮮人來聘記寶曆』, 동북아역사재단
- 5) 정사 조태억(趙泰億), 부사 임수간(任守幹), 종사관 이방언(李邦彦), 약 500명의 사행단으로 구성.
- 6)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조선신사내빙기록』(1책 사료)은 『정덕신사기록발서 신사잡록』의 축약본으로 보인다. 성립 연대는 알 수 없고, 오후가키(奥書)에 의하면 1861년에 교토 덴류지(天龍寺) 묘치인(妙智院)의 장서를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

&lt;표 1&gt; 『정덕신사기록발서 신사잡록』의 구성

소제(小題)	주요 내용
삼사(三使)·원역(員役)	삼사·원역(상상관, 상관, 중관, 하관) 명부(名簿). 삼사 외 총 368명
오사카 잔류 차관(次官), 중관, 하관	128명(총인원 496명)
삼사가 가져가는 법도서(法度書)의 사본	금제조(禁制條) 6개조 일행인원좌목(一行人員座目) <sup>7)</sup>
조선국기(朝鮮國忌) 및 삼사 자신의 식가(式暇) <sup>8)</sup>	국기(國忌), 삼사식가(三使式暇)
삼사 생년(生年) 및 호(號), 출소(出所)	
이동 시 삼사의 의복	
통신 삼사·상상관 이하 에도 도착시 의복절차	삼사도(三使道), 다례일(茶禮日), 별연일(別宴日), 사연일(辭宴日)
관(冠) 및 립(笠) 착용에 관한 문서	관 착용자, 립 혹은 전립(檀立) 착용자, 전립 착용자
삼사 기(旗)와 지참한 도구(道具)	청도기, 형명기, 독(燻), 언월도, 등에 관한 설명
삼사 도구 및 악기 그림(繪圖)	※ 삽화 (A)
조선인 선박에 관한 정보	조선인 탑승선 각각의 인원수, 에도로 이동하는 인원수와 오사카 잔류 인원수, 삼사 승선·복선(卜船) <sup>9)</sup> 의 크기(寸尺), 삼사선과 복선에 단 표식 깃발의 크기, 색깔 등등
(▲)아라이 지쿠고노카미(新井筑後守)님께서 통신사의 관명(官名)과 역할을 기재하여 제출하라고 하셔서 도고로(東五郎)가 정리해서 제출함	동지첨지(同知僉知), 판관(判官), 한학판관(漢學判官), 주부(主簿), 첨정(僉正) 등등에 관한 설명
오보에(覺)	삼혈수(三穴手), 흡창(吸唱), 국서(國書), 인신(印信) 등 사행원의 명칭과 각종 도구 설명(한문)
삼사에서 차관까지 관직·성명에 조선음을 붙여 내라고 하여 巳 6월 에도에 제출한 문건의 사본	
(▲)아라이 지쿠고노카미(新井筑後守)님께서 전에 문의하셨을 때 제출했으나, 다시 상세하게 적어 내라고 하셔서 巳(癸巳年, 1713) 10월 제출한 답서 2책과 그림 1권의 사본	※ 삽화 (B)

문헌의 구성과 내용으로 보아, 쓰시마가 통신사 사행원 전원의 구성·관직명·인원수·의례용 의복·선박의 규모·지참하는 도구 등, 사행단 그 자체에만 집중해서 관련된 잡다한 사항들을 기록한 것이다. 서두의 통신사행원 명부(名簿) 부분에서는 삼사(三使)를 비롯하여 상상관에서 하관에

7) 삼사는 '일행인원좌목(一行人員座目)'이라는 사행단원 명부를 별도로 지참하고 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름이 아닌 직명을 적었고 하급직은 역할별로 인원수만 적혀 있다. 좌목(座目)은 조선시대 관원이나 특정 단체 소속 회원의 성명·나이 등을 기록한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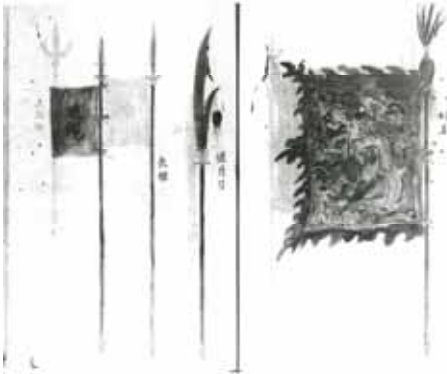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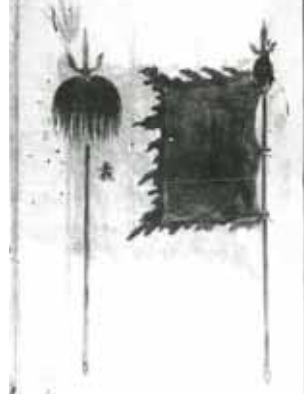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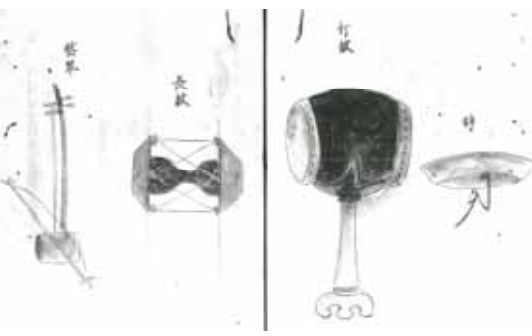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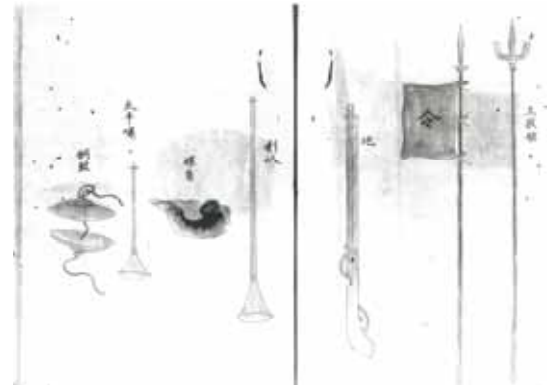
8) 식가(式暇)는 관원에게 주던 규정된 휴가. 집안 기제가 따위가 있을 때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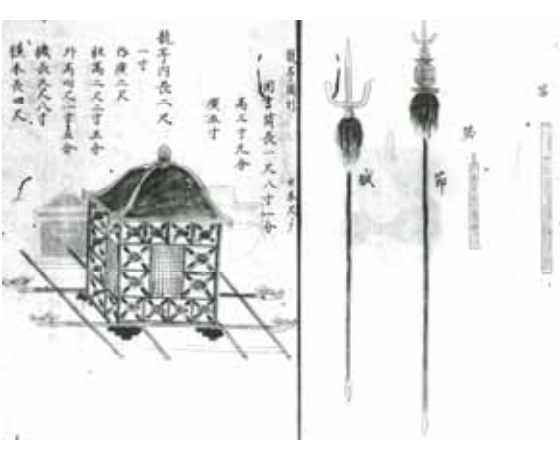
9) 통신사행 또는 문위행 때 짐을 싣고 가는 배. 복물선(卜物船). 기선(騎船)과 함께 칭하여 기복선(騎卜船)이라고도 함.

이르기까지 각 직책 별로 참가자의 이름, 나이가 적혀있고, 이름 우측에 한글 발음을 가타카나로 표기했다. 삼사를 제외한 사행원 전원의 이름과 역할을 빠짐없이 기록한 점이 흥미롭다.

이 문헌에는 삽화가 두 군데에 등장한다. 우선 문헌 중간 부분에 ‘삼사 기(旗)와 지참한 도구(三使旗持道具)’라는 소제목을 두어 청도기(淸道旗)를 비롯한 깃발과 각종 도구·악기에 관해 설명하고, 연이어서 ‘삼사 도구 및 악기 그림(三使持道具并樂器繪圖)’이라는 항목을 두어 앞에서 설명한 깃발·도구·악기를 그림으로 나열했다[삽화 (A)]. 설명에만 그치지 않고 각종 도구의 삽화를 추가하여 시각 정보를 보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표 2> 『정덕신사기록발서 신사잡록』의 삽화 (A)

	
<p>②  <b>형명기(形名旗)<sup>10)</sup></b>  <b>언월도(偃月刀):</b> 갈래 있음. 커다란 나기나타(長刀)임  <b>장창(長槍):</b> 창. 깃발 없음.  <b>순시기(巡視旗):</b> 靑地에 순시의 두 글자 붉은 글자로 있음. 頭에 창 있음. 小旗인 令旗보다는 두꺼움.</p>	<p>계재순서①  <b>청도기:</b> 靑地에 淸道の 두 글자 붉은 글자로 있음. 頭에 창 있음. 小旗.  <b>독기:</b> 오니아타마(鬼頭). 頭에 갈라진 창 있음.</p>
	

<p>④  <b>쟁(鐙):</b> 하치가코(ハチカ子, 쇠바리매[절에서 쓰는 공양그릇])  <b>타고(打鼓):</b> 다이코(大鼓, 일본 전통 북)  <b>장고(長鼓):</b> 큰 쓰즈미(つづみ, 어깨에 얹어놓고 치는 북).  <b>혜금(絺琴):</b> 조선의 고구(胡弓, 일본의 전통 찰현악기).                  혜금(解禁)과 같음.</p>	<p>③  <b>삼지창:</b> 세 갈래 창. 깃발 없음  <b>영기(令旗):</b> 靑地에 旣 한 글자가 붉은 글자로 있음. 頭에 창 있음. 小旗  <b>포(炮):</b> 뱃포(鐵砲)  <b>나팔(喇叭):</b> 큰 주라이(ジュライ)<sup>11)</sup>  <b>나각(螺角):</b> 호라노카이(ほら貝, 소라고둥)  <b>태평소(太平簫):</b> 작은 주라이(ジュライ)  <b>동고(銅鼓):</b> 도라(銅鑼, 놋쇠 타악기)</p>
	
<p>⑥  <b>인신(印信):</b> 인신을 받드는 군관(軍官)이 도장 상자(印箱)를 지님.                  [삽화 첨부글: 관첩함(關帖函) 인신 동일, 별도로 있음]                  세악(細樂)</p>	<p>⑤  <b>적(笛):</b> 竹으로 된 大笛. 조선의 후에(피리). 絺琴·苾·笛이런 부류를 둘러서 細樂이라 함.  <b>필(苾):</b> 竹으로 된 小笛.  <b>절(節):</b> 大管에 있음. 中官, 小官에는 없음.  <b>월(鉞):</b> 상동(上同).  <b>용정(龍亭)<sup>12)</sup>:</b> 국서를 태우는 臺輿(가마)의 이름.                  [삽화 첨부글: 국서통(國書筒) 길이 1尺8寸1分, 높이 3寸9分, 넓이 5寸. 용정 內長 2尺1寸, 內廣 2尺, 外高 4尺1寸5分]</p>

10) 大管의 大旗임. 赤白의 地에 승천하는 용(登り龍)의 그림이 있음. 旗의 머리 부분에 새털 있음. 旗의 바탕색은 사방(四方)의 색을 씀. 교토를 중앙으로 하여 東行할 때는 靑地의 기, 서쪽으로 갈 때는 白地의 기, 南北 모두 그 방각(方角)의 색을 쓴다고 함.

11) 『世界大百科事典』(平凡社)의 ‘스오나(ソオナー)’ 항목에 의하면, ‘페르시아어 <祭sūr의笛nāy>라는 의미로, 투르크의 zurna, 北인도의 shahnāi, 인도네시아의 seruna 등과 같이, 페르시아어에 유래하는 호칭이 사용되기도 하고, 티벳은 가린(rgyaling), 타이는 피(pī) 라고 부르기도 한다. 중국에는 명대에 전해져 소나, 스오나 등으로 불리었고, 쇠납(鎖唳), 쇠(鎖) 등으로 기록되어 청대에는 쇠납(哨唳), 蘇爾奈 라고도 기록되었다. 조선에서는 태평소(太平簫). 일본에서는 사나이(哨唳)라 불리었다.’고 되어 있다. 가타카나로 쓰여진 ‘주라이(ジュライ)’는 일본에서 쓰여지던 ‘사나이’란 명칭으로 추정된다.

12) 나라의 옥책(玉冊), 금보(金寶) 등의 중요한 물건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견여(肩輿). 용정자(龍亭子)라고도 하며, 『통항일람(通航一覽)』에는 ‘국서교(國書橋)’로 되어 있다. 통신사가 전명식(傳命

①~⑥은 삽화가 게재된 순서이고, 삽화 아래 부분에 있는 ‘각각의 도구에 관한 설명’은 문헌의 ‘삼사 기(旗)와 지참한 도구’에 기재된 설명을 필자가 번역하여 추가한 것이다.<sup>13)</sup>

위 삽화의 특징은 첫째, 삽화에서 물건들이 게재된 순서가 통신사 행렬도<sup>14)</sup>에 묘사된 조선인의 배치된 순서(들고 있는 도구)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삽화에 등장하는 물건들은 모두 ‘조선의 사신’임을 상징하는 물체이거나 악기로써, 육로를 이동할 때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행원들이 들고 있는 물건’들이다. 에도를 향해 육로를 이동하는 모습을 그린 ‘도중행렬도’, 에도 성으로 향하는 모습의 ‘등성행렬도’를 보면, 쓰시마번의 가로(家老)를 위시한 일본 측 전위(前衛) 무사들이 선두에 서고 그 뒤에 조선인 본체의 행렬과 일본 측의 후위 그룹이 이어져, 행렬 전체가 분절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조선인 본체 역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통상 청도기<sup>15)</sup>를 위시해서 독기(藁旗)<sup>16)</sup>, 형명기(形名旗)<sup>17)</sup>를 든 기수가 반드시 선두에 서고, 그 뒤를 언월도(偃月刀)<sup>18)</sup>, 장창(長槍), 삼지창(三枝槍), 포(炮)를 든 군관, 악대, 국서(國書) 가마를 짊어진 조선인 집단, 삼사가 탄 가마를 둘러싼 집단이 이어진다. 그 뒤로 상상관(上上官), 상판사(上判事), 제술관(製述官), 양의(良醫), 판사(判事), 서기(書記)의 순서로 조선인 본체의 후미 그룹이 구성되곤 한다.

『정덕신사기록발서』가 1711년 통신사행을 기록한 사료인 점을 고려하여, 1711년 조선통신사 등성행렬도(국사편찬위원회 소장)와 대비해보고자 한다(<그림 1> 朝鮮國之信使登城行列圖卷).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이 등성행렬도는 로주 츠치야 마사나오(土屋政直)의 지시를 받아 쓰시마가 작성한 행렬도 중의 하나로, 막부의 명에 의해 제작된 행렬도로는 1711년의 작품이 유일하다.

막부의 지시로 제작된 만큼 1711년 통신사 행렬도는 다른 시기의 작품에서 볼 수 없는 특

式)을 행할 때에 이 용정으로 국서를 운반했다.

- 13) 일본 고문서는 펼쳐서 가장 오른쪽 행에서 시작해서 왼쪽 페이지의 끝 행을 향해 기술이 진행되므로, 표에서도 고문서에 수록된 순서대로 삽화를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나열했다.
- 14) 유형별로 구분하면 일행이 이동하는 시공간에 따라 ‘도중행렬도(道中行列圖)’, ‘등성행렬도(登城行列圖)’, ‘국서봉정행렬도(國書奉呈行列圖)’, ‘귀로행렬도(歸路行列圖)’ 등으로 구분된다.
- 15) 사행 때 앞서 가면서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깃발. 원래는 행군할 때 사용하는 군기(軍旗)의 일종이다. 남빛 바탕에 가장자리와 화염(火焰)은 붉은 빛이며, ‘淸道’라고 쓰여 있다. 본래 청도기는 직사가 제후국에 갈 때 사용하는 것으로 일본이 사용 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하우봉·홍성덕 역(1998) 『국역증정교린지』, 민족문화추진위원회, p.174.
- 16) 독기(藁旗)라고도 하는데, 독은 대기(大鷲) 앞이나 군대에서 대장의 앞에 세우는 기(旗)의 한 종류로 커다란 삼지창에 검은 털을 수북하게 달았다. 독은 검은 소의 꼬리로 만들었는데, 군법의 신 치우(蚩尤)의 머리를 상징했다.
- 17) 조선 왕권의 상징인 용(龍)이 그려져 있는 깃발. 형명(形名)의 형(形)은 깃발, 명(名)은 징이나 북을 뜻한다. 형명수는 사행 때에 북을 울리면서 기폭(旗幅)을 이용하여 사행단의 여러 가지 행동을 호령하며 신호를 보냈다.
- 18) 언월도는 초승달과 같이 생겼고 칼등은 두 갈래로 나뉘어 있으며 칼끝에 긴 자루가 달려 있다. 중국의 명장 관우(關羽)가 이 무기를 사용한 것에서 유래했는데 무거운 무게로 인해 실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주로 군사훈련 시에 사용했다.

이점을 지녔다. 제작된 10점의 행렬도는 10점 모두가 각각 약 40~50미터에 이르는 길이의 에마키(두루마리 그림)로, 현존하는 통신사행렬 에마키 중에서 압도적인 길이를 자랑한다. 육로의 보행 행렬은 통신사만 해도 300명 이상, 거기에 통신사를 수행하는 무사들까지 합하면 상당한 인원수가 되는데, 수행하는 쓰시마 번사들의 역할과 성명까지 그림 안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등 미술작품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록’에 가까운 성격을 지닌다. 주목할 점은 쓰시마 번사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의 직책과 그들이 들고 있는 기구의 명칭도 각 인물 위에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행렬도에 묘사된 기구의 순서가 삽화의 그림 순서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4점의 행렬도 ‘朝鮮國信使道中行列圖卷’ ‘朝鮮國之信使來聘歸路行列圖卷’ ‘朝鮮國之信使登城行列圖卷’ ‘朝鮮國信使來聘之節宗對馬守參着歸國行列圖卷’은 로주 츠치야에게서 지시받은 통신사행렬 에마키의 완전한 세트이자 쓰시마번이 막부에 헌상한 작품이다. 다만 행렬도의 밑그림이 전년에 에도성에 등성한 류큐 사절의 행렬도이고, 그 중 귀국행렬도는 에도 체재 중에 완성될 것이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실사화(實寫畫)와는 거리가 있다.<sup>19)</sup>

두 번째로 말할 수 있는 점은 각종 깃발, 무기류, 악기, 용정, 인신함 등의 형태는 실물의 특징을 살려서 그렸고, 조선의 명칭도 대체로 정확하다. 도구에 대한 설명문에서는 그림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크기, 색깔, 용도 등을 기술했는데,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사한 용도의 악기에 비유한다거나 일본인에게 익숙한 이미지를 동원했다. 사료를 접하는 독자에게 ‘타국의 것’을 설명할 때 보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북(鼓), 장고, 해금, 나각 등의 악기에 비유된 일본의 다이코, 쓰즈미, 고큐, 호라가 이는 조선의 악기와 동일한 모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림 2>). 독기의 경우에는 삼지창 아래 수북하게 있는 털 장식 부분을 ‘오니아타마(鬼頭)’라고 표현해서, 가부키(歌舞伎)에 등장하는 ‘오니(鬼)’역할 배우의 머리 모습을 연상하게 했다.

19) 현존하는 총 10점의 1711년 통신사 에마키는 현재 국사편찬위원회(4점), 나가사키현(長崎縣) 쓰시마 역사연구센터(3점), 교토의 高麗美術館(2점), 오사카 역사박물관(1점) 등 네 개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田代和生은 이들 행렬도의 구도와 화풍에 서로 공통점이 보이는 점을 들어, 이 10점의 에마키가 아마 공통된 원화(原畫)를 사용하면서 동일한 화가들에 의해 제작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1711년 통신사 에마키에 관한 정보와 평가는 田代和生 앞의 논문 참조.



<다이코(大鼓)> <쓰즈미(つづみ)> <고큐(胡弓)> <『紅葉狩』<sup>20)</sup>의 鬼女>

<그림 2> 일본의 전통악기와 가부키 분장

근세 일본사회의 정치문화의 특질을 표현하는 양극적인 현상으로 ‘군대행사로서의 다이묘 행렬’과 ‘마쓰리(祭り) 행렬’이 있으며, 조선통신사 등의 외교행렬도 마쓰리의 행렬과 동일시되었다는 견해가 있다.<sup>21)</sup> 단 통신사 행렬이 일본의 참근교대(參勤交代) 다이묘 행렬이나 구계(公家)의 행렬과 확연하게 다른 점은 악대가 수행했다는 점이다.

유교를 근본으로 ‘예악(禮樂)’을 통한 덕치(德治)를 이상향으로 생각한 조선은 국가적 차원에서 음악과 관련된 모든 실무 관원·악인(樂人)들의 교육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궁중과 관련된 모든 의례와 연향에서 ‘악’을 연주했다. 통신사행의 경우, 조선 국왕의 국서를 받들고 에도까지 이동했다가 일본 쇼군의 국서를 받아 돌아오는 행위라는 점에서 사실상 일본에서 행해지는 조선 조정의 공적인 의례였다. 통신사행에 다수의 악인이 동원된 이유는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통신사 수행 악인은 악인 총책임자인 전악(典樂) 2명과 마상고수(馬上鼓手), 동고수(銅鼓手), 대고수(大鼓手), 세악수(細樂手), 쟁수(鐙手), 풍악수(風樂手) 등, 『증정교린지』 권5, 통신사행에 나오는 인원수만 봐도 총 41명에 이른다.<sup>22)</sup> 일본에서 육로로 이동하는 통신사 일행에서 악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그만큼 조선이 외교의 장에서도 ‘악(樂)’을 중시했음을 의미할 것이다. 조선의 음률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조선인들이 이동하는 광경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이 국정취에 빠져들게 하여 기억 속에 각인되는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통신사 행렬도나 관련 기록

20) 모미지가리(紅葉狩)는 원래 노(能)의 一曲. 후에 이 작품을 기초로 치카마쓰 몬자에몬(近松門左衛門)이 가부키 시대극 『모미지가리쓰루기노혼치(色狩劍本地)』을, 九代目 이치가와 단주로(市川團十郎)가 메이지20년 무용극 『紅葉狩』를 만들었다.

21) 久留島浩(2015) 「描かれた<武士の行列>」, 久留島浩編『描かれた行列-武士・異国・祭礼』, 東京大學出版會, p.60.

22) 에도시대의 일본인이 외국의 악대를 볼 수 있는 기회는 류큐(琉球)사절의 ‘江戸上がり’ 때와 네덜란드 상관장(商館長)의 공식행사에 수행한 네덜란드군 악대가 있었으나, 악인의 인원수로는 조선 통신사에 미치지 못했다. 尹芝惠(2008) 「近世日本の絵画作品における朝鮮通信使の描き方-楽隊とその衣装に注目して-」, 『美学』 59-1(232號), p.66.

물의 삽화에서 악기 그림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정덕신사기록발서』의 삽화에서 다소 생소한 그림은 ‘인신(印信)’과 설명문에 나오는 ‘관첩함’이다. 인신이란 국가기관과 관리들이 공적으로 사용하는 인장 즉 관인(官印)이다. 조선시대에는 관인을 대부분 인신이라고 불렀으며, 국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나 중요한 문서에 사실임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다. 관인에는 관청명이 새겨진 관청인, 관직명이 새겨진 관직인이 대부분이었다. 이 관인은 그 사용과 관리가 매우 엄중하여, 관인함에 넣어 소중하게 보관되었다. 대부분 검정색 함을 사용했고, 어보를 비롯하여 국왕이 직접 통솔하던 기관의 관인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붉은 색 함을 사용했다고 한다.<sup>23)</sup> <그림 3>의 ‘별장인신함’이 인신을 보관하던 함이다. 또한 관첩(關帖)이란 공문서인 관문(關文)과 첩문(帖文)을 합해서 부르는 말이다.<sup>24)</sup>

			
1711 <登城行列圖>	별장인신함(別將印信函)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24.8×24.8×28.8cm)	1876년 수신사(修信使) 김기수(金綺秀) <sup>25)</sup>	1880년 수신사 김홍집(金弘集)

<그림 3> 인신함과 관첩함

통신사는 인신함과 관첩함을 함께 일본에 가져갔다. <그림 3> 중앙의 1711년 등성행렬도에서 보이듯이, 조선의 군관이 검은색의 함 두 개를 말 등에 걸고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통신사가 일본에 체재하는 동안 조정이나 관청의 의향을 물어서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조선에 보내는 문서 작성을 위해 준비해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1876년 일본에 간 수신사 김기수가 찍힌 사진에서 ‘신사인신(信使印信)’, 김홍집의 사진에서 ‘수신사인(修信使印)’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함을 곁에 두고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인신함에

23) <https://www.archives.go.kr/next/common/archivedata/render.do?filePath=2F757046696c652F70616c67616e2F313335373139353831353837352e706466> (2024.8.15)

24) [http://thesaurus.history.go.kr/TermInfo.jsp?from=TermInfo&&term\\_id=14966](http://thesaurus.history.go.kr/TermInfo.jsp?from=TermInfo&&term_id=14966) (2024.8.15.). 조선시대 법령자료에 의하면, ‘서울과 지방에서 사용하는 문서는 동등 이하에게 보낼 경우 관문(關文)을 사용하고, 동등 이상에게 보낼 경우 첩정(牒呈)을 사용하며, 7품 이하에게 보낼 경우에는 첩(帖)을 사용한다. 지방 관원이 왕명을 받든 사신(使臣)에게 문서를 보낼 때 및 서울과 지방의 장신(將臣)들이 병조에 문서를 보낼 때에는 모두 첩정을 사용하고, 도총부에서는 관문을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

25)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8828> (2024.8.15)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인장이 들어있었는지는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 삽화(B).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사행원들의 직책과 역할을 정리해서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筑後守)에게 제출했는데, 더 상세하게 적어 내라는 하쿠세키의 요구에 맞추어 ‘그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각종 도구의 쓰임새, 사행원의 역할, 의관(衣冠)에 관해 설명하고 그 중 몇 가지 질문에 관해 그림을 덧붙인 것이다.

하쿠세키의 질문 중에 “인신·관첩 상자는 대략 태수(太守, 宗義方)가 올린 행렬도에 있는 물건과 비슷하다”라든가, “가노 슌코(狩野春湖)가 그린 것과 다르다.....”라는 구절이 나온다. 아마도 하쿠세키는 호슈가 제출한 설명서에 나오는 사항들을 앞에서 소개한 1711년 통신사의 행렬도, 즉 쓰시마가 제작해서 막부에 헌상한 행렬도에서 찾거나 대조해 본 뒤, 의문시되는 점을 다시 질문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자 쓰시마는 1713년(巳, 癸巳年) 10월에 제출한 답변서와 그림을 사본으로 남겨 놓았다. 두 번째 삽화의 필자를 알 수 있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3〉 『정덕신사기록발서 신사잡록』의 삽화 (B)

삽화에서의 명칭	용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용)
마구(馬具)	마구의 명칭과 자음(字音, 조선발음) ※ 하쿠세키의 질문 “進上之鞍具ハ、有之候付、....” 조선의 말과 마구를 함께 쇼군에게 선물한 것인가?
삼혈총도(三穴銃圖)	‘삼안총(三眼鏡)’. 삼혈총은 개인이 휴대할 수 있게 만든 작은 규모의 총. 한손잡이에 3개의 총신을 연결시켜 한 번에 3발을 발사. 인마살상용 혹은 신호용으로 사용.
사령(使令)이 소지하는 장(杖)	대곤장(大棍杖) 소곤장(小棍杖), 형장(刑杖), 주원장(朱圓杖) ※ 사령은 사행 때의 수행원으로 형사(刑事) 업무 등을 맡은 사람. 죄를 지은 격군(格軍)이나 사공(沙工) 등 하부 수군직의 원역(員役)들을 문초하는 일, 출입을 통제하는 일 등을 담당. 통신사행 때 총 12인을 거느림
팔괘관(八卦冠)	조선후기 편복관모 중의 하나로 관모의 정수리에서 앞뒤로 사각관형 자락이 드리워진 형태의 관모. 문양은초화(草花)·전자채글자[百篆]·팔괘(八卦)·산(山)·문자[수복(壽福), 만(卍)] 등으로 다양하다. 계절에 맞는 소재를 사용하여 사계절 사용되었고, 왕·왕세자·양반·서얼·중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실내용 또는 외출용 관모로 착용되었다. 18세기에는 서얼과 중인의 편복관모로 자리잡게 되었다. <sup>26)</sup>
사모관대(紗帽冠帶)	사모관대는 사모(紗帽)와 관대(冠帶)를 붙여 부르는 말이며, 사모, 관대[단령(團領), 각대(角帶), 목화(木靴)]로 구성된 옷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조선시대의 백관들이 착용했던 상복(常服)이자 신랑의 혼례복. 상투를 튼 머리 위에 사모를 쓰고, 바지저고리와 포(袍)를 갖춰 입은 다음 그 위에 단령포(團領袍)를 입는다. 단령에 다는 흉배(胸背)는 무관은 짐승 무늬를, 문관은 새 무늬를 품급에 따라 장식. 혼례복으로는 쌍학흉배(雙鶴胸背)를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 단령 위 허리에 각대를 두르고 발에는 버선과 목화를 착용.

삽화에서의 명칭	용 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인용)
적색관대(赤色冠帶)	<p><b>홍의(紅衣)</b>. 조선시대 별감(別監), 수복(守僕), 의장군(儀仗軍), 연배군(輦陪軍), 귀유치(歸遊赤) 등 관아의 하리(下吏), 원역(員役)이 착용하던 <b>홍색 관복</b>인 홍직령·홍철락·홍목의이다. 홍색 옷을 통칭하는 어휘로, 한 가지 복장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p> <p>※ 등성행렬도에서 악사(樂士)가 붉은 겹옷을 착용</p>
서함(書函)	<p>국서함. 보자기를 뜻하는 한자어 ‘복(袱)’은 ‘복(福)’과 뜻이 통하는 것으로 믿어졌음.</p> <p>※ “서함을 감싸는 것을 복(袱)이라 한다”고 답변</p>

이 삽화들은 하쿠세키의 의문을 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된 그림과 정보라서, 일반적인 행렬도라면 아예 묘사되지 않거나 혹은 형태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기물(器物)이 상당히 세밀하게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 기록된 마구(馬具), 사령이 소지하는 곤장과 삼혈총, 사행원이 착용하는 의복, 머리에 쓰는 팔괘관과 사모, 국서함의 형태, 크기, 색깔, 문양, 부품별 명칭 등은 18세기 초 조선의 복식과 기물, 무기 연구 혹은 복원에 없어서는 안 될 정보이다.

예를 들어 팔괘관의 경우, 관련 자료가 국내에는 단편적으로 남아 있는 데 비해, 일본의 문헌과 회화에 상대적으로 자료가 많이 남아 있어서 팔괘관의 조형적인 특성 등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한다. 팔괘관에 관한 일본의 회화 자료는 주로 통신사행렬도와 필담창화 문헌에 있는 인물화이다.<sup>27)</sup>

또 하나 필자가 주목한 삽화는 ‘서함(書函)’이다. 이것은 조선의 국서함으로 추정되는데 박스의 크기와 구조, 겹과 안쪽의 색깔과 문양, 박스의 겹을 감싸는 보자기가 묘사되어 있다. 국서를 넣고 이동하는 가매(용정)는 행렬도에서 그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지만, 국서함의 모습이 이 정도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문헌을 필자는 달리 발견하지 못했다. 통신사 관련 회화자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조선의 외교의식·외교의장(儀裝) 연구의 측면에서도 주목되는 삽화이다.

### 3. 와타나베(渡辺) 가문 전래 『조선인내빙기』

본고에서 다루는 『조선인내빙기』는 에도시대 요도번(淀藩)<sup>28)</sup>의 번사 와타나베 가문에 전래

26) 이주영(2019), 「조선 후기 고후관의 특성과 유래」, 『한복문화』제22권 3호, p.37

27) 이주영, 앞의 논문, pp.26~27

28) 교토시 후시미구(伏見区) 요도혼마치(淀本町)에 위치. 1748년 통신사 일행이 이곳을 방문했을 당

되어 온 1748년 통신사<sup>29)</sup> 관련 사료이다. 와카나베 가문에는 『조선인내빙기』외에도 『조선인내조행렬도(朝鮮人來朝行列圖)』, 『종대마수행렬도(宗對馬守行列圖)』, 『한인희마도(韓人戲馬圖)』, 『통신사요도성하도착도(通信使淀城下到着圖)』, 『조선인어향응어헌립(朝鮮人御饗應御獻立)』이 전래되었는데, 현재 『조선인내조행렬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저본(底本)이 교토시 역사자료관에 기탁되었다.<sup>30)</sup> 위 기록들은 교토대학 문학연구과 도서관에 등사본이 소장되어 있었고,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도 이 기록을 충실하게 베낀 모사본이 남아 있다.<sup>31)</sup>

이 중 『조선인내빙기』원본(7권 3책, 각 22×27cm), 『조선인내조행렬도』, 『종대마수행렬도』, 『한인희마도』, 『통신사요도성하도착도』등 5점은 모두 와타나베 젠에몬(渡邊善右衛門)의 작품이다. 그는 1748년 사행 때 요도 성하(城下)에서 통신사 향응을 담당했던 인물이다. 『조선인내빙기』는 사행단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들을 맞이하는 요도번의 응접 준비와 그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번사들의 모습을, 본인이 목격한 사실에 소문 등을 섞어서 기록한 것이다.

제1책은 1746년 12월 번내(藩內)에서 통신사 접대 담당으로 임명된 시점부터 적기 시작해서, 제2책은 사행단의 요도번 도착, 제3책은 통신사가 귀국길에 요도에서 휴식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sup>32)</sup> 이 때 저자가 관찰한 통신사 일행의 풍습, 의상, 기물 등의 모습을 가장 마지막에서 6면에 걸쳐 삽화로 묘사해 두었다.

『조선인내빙기』 삽화에서 보이는 특징은 묘사한 대상의 조선식 명칭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많다는 점이다. 크기와 형태, 용도를 중점적으로 설명하면서 기구의 용도를 제목처럼 쓰거나 혹은 일본에서 사용되던 유사한 도구의 명칭을 그대로 쓰기도 했다. 예를 들면 삼사의 밥상을 ‘산시노젠(三使の膳)’, 곤장을 ‘세이바이보(成敗棒)<sup>33)</sup>’, 밥그릇을 ‘쇼쿠완사하리(食碗さはり)’<sup>34)</sup>라고 하는 식이다. 와타나베는 대상의 조선식 명칭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

시 번주는 이나바 마사요시(稲葉正益). 그는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기 전해(1747)에 막부 소샤반(奏者番)에 취임했고 그해 말 지사부교(寺社奉行)을 겸하고 있었다.

29) 1748년 통신사는 정사 홍계희(洪啟禧), 부사 남태기(南泰耆), 종사관 조명채(曹命采)를 위시하여 총 475명으로 구성. 사행단은 1747년 11월 말 한성을 출발, 2월 부산포를 출항하여, 5월 초순 요도(淀)에 상륙했고 요도번의 접대를 받은 후 교토를 거쳐 5월 21일 에도에 도착. 6월 1일, 조선국왕의 국서를 쇼군에게 전달하고 귀국길에 올라, 8월 중순 부산포에 귀항.

30) 교토시 역사자료관은 이 6건의 사료 중 문자 기록을 번각(翻刻)하여 단행본 『淀渡辺家所藏通信使關係文書』로 발간. 京都市歴史資料館編(2010) 『(叢書 京都の史料11) 淀渡辺家所藏通信使關係文書』, 京都市歴史資料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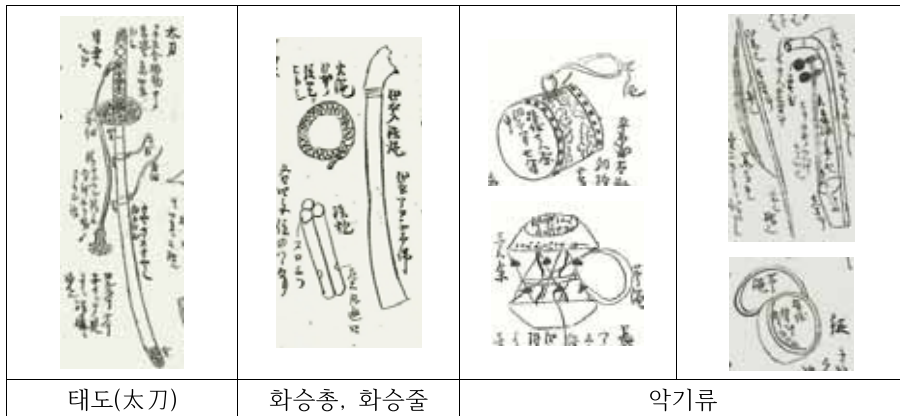
31) 이재정(2014) 「제10차 조선통신사 관련 자료 “朝鮮人來聘記”」, 『미술자료』 86, 국립중앙박물관, pp.150-167

32) 京都市歴史資料館編, 앞의 책, pp.1-2, pp.4-5

33) ‘세이바이(成敗)’는 처벌, 징계, 사형 등의 의미.

34) ‘사하리’는 동(銅)을 주체로 해서 주석, 연을 섞은 합금으로, 문지르면 황금색의 광택을 띠고 두드리면 좋은 소리가 난다. ‘향동(響銅)’이라 쓰기도 하며, 주로 소리를 내는 불교 도구로 사용된다. 조선의 밥그릇 ‘사발(砂鉢)’에서 유래한다는 설도 있다.

둘째, 사행단의 이동을 관람하는 입장에서 가장 눈에 들어오기 쉬웠을 크고 화려한 기구, 예를 들면 청도기를 위시한 깃발, 교자(轎子), 국서함을 태운 가마 등은 아예 기록하지 않았다. 물론 조선인의 의복, 머리에 착용한 관(冠), 태도(太刀)·갓가지 악기·개(蓋, 양산 모양의 의장[儀仗]) 등 조선인의 외관에서 눈에 띄이는 이국적인 부분과 조선인이 소지한 도구들을 다양하게 수록하고 있지만, 악기와 개(蓋)를 제외하면 나머지 물건들은 의장과 상관없이 몸에 지니는 일상적인 소지품이나 기호품이 대부분이다.



<그림 4-1> 『조선인내빙기』의 삽화

그림체는 소박하며 그림 하나하나가 간결하면서도 사물의 특징을 잘 집어서 표현했다. 일본에서 작성된 통신사 관련 회화는 대부분 사행단이 행렬을 지어 이동하는 모습, 에도성에서 전명식(傳命式)을 치르기 위해 정렬한 모습, 필담창화를 나누었을 때의 인물화가 일반적이다. 결국 사행단의 모습을 담은 회화의 대부분은 일본인 관람객이 있을 때의 ‘갓추어 입은 모습’, 혹은 ‘의장을 갖춘 모습’인 셈이다. 2장에서 살펴본 1711년 통신사 행렬도를 비롯하여 현전하는 행렬도의 상당 부분이 그렇다.

하지만 『조선인내빙기』의 삽화는 사행단의 구성원들을 훨씬 더 근접 거리에서 관찰해야만 묘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흥미롭다. 의복을 그린 삽화만 보아도 겹옷 뿐 아니라 겹옷 아래 공통적으로 입는 옷과 함께 그것을 입는 방법을 소개했고, 관(冠)을 그리면서도 관 아래의 헤어스타일, 상투 튼 머리 모양에 주목했다.



<그림 4-2> 『조선인내빙기』의 삽화(의복과 冠)

저자 와타나베가 요도번의 통신사 향응을 담당한 인물이다 보니 사행단원과 접촉할 기회가 많았겠지만, 식사하고 휴식하는 자리에서 조선인이 보여주는 모습과 그들이 일상적으로 소지한 물건들을 세세하게 관찰한 듯하다. 의장과는 거리가 먼 생활용품들 이룰테면 밥그릇, 밥뚜껑, 담뱃대(キセル), 접는 손부채(扇子), 되(升), 솥(鐵釜), 밥상(食膳), 심지어 곡식(穀食)을 까불러서 불순물을 걸러내는 데 사용하던 키(箕[み])를 묘사했다. 그의 기록물이 최종적으로 공적으로 활용되었는지 그저 개인 소장에만 머물렀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통신사 사행단의 ‘의장 해제 시의 모습’까지 세밀하게 묘사했다는 점에서 그의 삽화는 여타 조선통신사 관련 기록물의 삽화와는 다른 차별성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삽화에 보이는 ‘의장 해제 시 사행단의 사용기물’로 유추되는 ‘통신사행의 실상’을 언급하고자 한다. <그림 4-3>에 인용한 밥그릇, 되, 솥, 밥상, 키 등은 명백하게 ‘곡물에서 불순물을 골라내어 음식을 지어 먹기’ 위해 필요한 도구들이다. 일반적으로 통신사 일행은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본 곳곳에서 음식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요리된 음식을 제공받기도 했지만 사행단이 이런 물건들을 챙겨서 일본에 가져갔다는 것은 상황에 따라 해당 도구를 사용해서 직접 취사를 했음을 의미한다.



<그림 4-3> 『조선인내빙기』의 삽화

실제로 사행단원에는 숙수(熟手: 요리사) 1명·도척(刀尺) 7명·도우장(屠牛匠) 1명<sup>35)</sup>이 포함되어 있던 점을 상기하면 요리에 필요한 도구를 지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이다. 이처럼 통신사 기록에 보이는 삽화는 때로 1711년 통신사행렬도와 같은 공식적인 기록화에는 묘사되지 않는 ‘통신사행의 실상’<sup>36)</sup>을 말해주기도 하며, 통신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시

35) 도척은 음식 만드는 노복(奴僕)으로, 삼사가 2명씩, 당상이 1명을 거느리고, 도우장은 우마(牛馬)를 도살하는 자. 숙수는 1682년에 日光山致祭가 정지된 후 이후 폐지. 명칭과 인원수는 『증정교린지』 권5, 통신사행.

36) 와타나베 젠에몬의 『조선인내조행렬도』도 일반적인 통신사 행렬도에 묘사되지 않은 ‘행렬의 실상’을 전해준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다. 『조선인내조행렬도』의 가장 큰 특징은 행렬 중간 중간에 ‘○ ○樣鞍鞍具’라는 검은 글자가 쓰여진 깃발을 든 일본인(말을 탄 조선인 바로 뒤에 위치)이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조선통신사의 이동에 사용되는 말과 마구류는 막부의 명에 의해 각 다이묘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와타나베는 실제로 말과 마구류를 제공한 주체를 적은 깃발과, 그것을 들고 통신사 일행과 함께 이동하는 관리들의 모습을 행렬도에 그려 넣은 것이다. 池内敏은 ‘여타의 행렬도에서 해당 관리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화가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생략했기 때문으로, 따라서 와타나베의 행렬도가 오히려 현실의 통신사행렬을 충실히 반영했을 가능성’을 제기했



다. 池内敏, 앞의 논문 「朝鮮通信使來朝行列圖」を読み直す, pp.23-24.

각자료이자 역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참고로 1636년 통신사 일행이 에도성에 등성할 때에는 들고 있던 깃발과 취악기 그 외 도구들은 오테고몬(大手御門) 하마소(下馬所)에 남겨두고 말을 탄 상태의 조선인도 여기에서 말에서 내렸다. 삼사(三使)는 오테고몬에서 좀 더 성의 안쪽으로 진입한 곳에 있는 아카가네고몬(銅御門) 안쪽 대기소(腰掛)<sup>37)</sup>에서 가마에서 내렸고, 의장용 양산(蓋)를 여기에 남겨 두었다. 가마에서 내린 삼사는 번주 요시나리, 쇼초로, 린세이도 등의 안내를 받아 혼마루고텐(本丸御殿)의 덴조노마(天井之間)로 이동했다.<sup>38)</sup>

---

37) 성이나 다이묘의 저택에서 동행한 수행원이나 종자들이 대기하며 기다리던 곳.

38) 『寛永丙子信使記録』 卷之五, 寛永13(1636), 12월 13일조(도쿄국립박물관 소장)

# 日本の朝鮮通信使記録に見られる挿絵

尹裕淑(東北亞歴史財団)

本研究は、「朝鮮通信使記録の挿絵」の特性を検討すべく、18世紀前半に成立した二つの文献-1711年使行の『正徳信使記録抜書 信使雑録』・1748年の使行記録『朝鮮人來聘記』-に収録された挿絵を取り上げたものである。この二つの文献は、いずれも通信使行を記録した日本の記録であるが、それぞれ異なる背景から成立した。各文献に記載された挿絵の特徴を通じて、「朝鮮人」と「朝鮮人が身に着けた多様な器物」が、江戸時代の日本人の目にどのように映し出され、如何に理解されたか推測してみた。

『正徳信使記録抜書信使雑録』は対馬宗家記録であり、国史編纂委員会の所蔵本である。文献の構成と内容から見て、対馬が1711年の通信使使行団の構成・官職名・人数・儀礼用の衣服・船舶の規模・持参する道具など、使行団そのものだけに焦点を当てて、雑多な事項を記録したものである。

この文献では、二か所で挿絵が確認される。まず、「三使の旗と持参した道具」という小題のところで、清道旗をはじめとする旗と各種道具・楽器について説明し、続いて「三使持道具并楽器絵図」という項目において前述した旗や道具・楽器の絵が並べられている[挿絵(A)]。これは、説明だけにとどまらず、道具の挿絵を追加して視覚情報を補強したものと考えられる。

挿絵(A)に描かれた物は、その順序が通信使行列図に描写された朝鮮人の持っている物の順序とほぼ同じである。挿絵に登場する物は、全てが「朝鮮の使臣」であることを象徴するものであり、陸路を移動する時に「他人に見せるために持っているもの」である。

二番目の挿絵(B)は、雨森芳洲が使行員の職責と役割を整理して新井白石に提出したものの、さらに詳しく書いて出すようにという白石の指示に応じて、「白石の質問に答える形」で対馬が提出した答弁書の写しである。各種道具の使い道、使行員の役割、衣冠について説明し、そのうちいくつかの質問については、絵を付け加えたものである。

これらの挿絵は、白石の疑問を解いてあげるために作成した絵と情報であるた

め、一般的な通信使行列図であれば、最初から全く描写されなかったり、あるいはかたちを把握できる程度で描かれるような器物がかなり細かく紹介されている。ここに記録された馬具、使令が所持する棍杖と三穴銃、使行員の着用する衣服、頭にかぶる八卦冠や紗帽、国書函の形、大きさ、色、紋様、各部分の名称などは、18世紀初め頃朝鮮の服飾や器物・武器類の研究あるいは復元に欠かせない大事な情報である。通信使関連の絵画資料としての価値だけでなく、朝鮮の外交儀式・外交儀装の研究の側面からも注目すべき挿絵といえよう。

『朝鮮人来聘記』は、淀藩の藩士である渡辺善右衛門の家門に伝来されてきた1748年の通信使関連史料である。渡辺善右衛門は1748年の使行の際、通信使を迎える淀藩の様子をここに記録し、末尾には本人が観察した通信使一行の風習、衣装、器物などを6面にわたって描写しておいた。

この挿絵は、描写した対象の朝鮮式名称を記録していないものが多い。おもに大きさ、形、用途を説明しており、用途そのものを器具の名称のように記していたり、日本で使われていた類似の道具の名称をそのまま記したりもした。また、使行団の移動を観覧する立場からみて最も目立つ筈の大きくて華やかな器具は、最初から記録しなかった。著者の渡辺は、儀仗用の派手な器物よりは、使行団の構成員を非常に近接距離で観察してはじめて分かることのできる様なもの、すなわち彼らの所持品や嗜好品を多数記録した。例えば、茶碗、ご飯の蓋、キセル、扇子(扇)、升、鉄釜、食膳、ましてや穀物をあおって穀や不純物を分け除く農具(箕[み])などがそれである。

このように通信使記録に見える挿絵は、通信使に関する具体的な情報を知らせる視覚資料として、また通信使行列図のような記録画に描写されないような「通信使行の実態」を物語ってくれるという点で、貴重な「歴史資料」としての価値を持つといえよう。

# <토론문> 윤투숙, 「일본의 조선통신사 기록에 보이는 삽화」

장순순(전주대)

## ○ 논문의 의의

본 연구는 조선후기 통신사행과 관련해서 제작된 다양한 회화 가운데 문자 기록에 삽입된 삽화에 주목한 연구이다. 삽화가 들어있는 문헌기록으로 1711년 사행을 기록한 『정덕신사기록발서 신사잡록(正德信使記錄拔書 信使雜錄)』과 1748년의 사행 기록 『조선인내빙기(朝鮮人來聘記)』를 주목하여 문헌의 서지사향, 통신사기록으로서 특징, 삽화의 특징 등을 살펴보았다.

기존의 통신사 관련 회화의 연구가 대부분 ‘독립된 작품’으로서 두루마리 그림(繪卷)에 주목한 것이라면, 본 연구는 문헌 기록 속의 수록된 삽화에 주목했다는 점이 특징이자 학술적 의의이다.

발표자는 삽화에 주목한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18세기 일본의 조선통신사 기록에 수록된 삽화 검토-『조선신사내빙기록』 『조선내빙기』를 중심으로-, 『比較日本學』 58, 2023). 오늘 발표는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논의 사항 및 질문

1. 삽화가 수록된 통신사 기록물이 18세기에 한정해서 보이는 이유에 대하여

본 발표에 의하면, 삽화가 수록된 통신사 기록물은 18세기에만 존재한다. 1711년 사행을 기록한 『정덕신사기록발서 신사잡록(正德信使記錄拔書 信使雜錄)』, 1748년의 사행 기록 『조선인내빙기(朝鮮人來聘記)』, 1764년 사행을 기록한 『조선인내빙기보력(朝鮮人來聘記寶曆)』이 있다(발표자께서 기존 논고에서 언급한 1711년 『조선신사내빙기록』은 그 수에 포함하지 않음). 주지하다시피 18세기에는 네 차례(1711년, 1719년, 1748년, 1764년)의 통신사가 일본에 파견되었고, 1719년 통신사를 제외한 세 차례의 통신사행에서 삽화가 있는 문헌기록이 작성되었다. 이것은 18세기에 들어와 쓰시마 혹은 막부에 있어서 통신사기록의 기록 양식이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

17세기와 달리 18세기에 들어와 삽화가 포함된 통신사 기록물이 작성된 배경은 무엇일까?

## 2. 삽화의 출현과 관련하여

발표자는 『정덕신사기록발서 신사잡록』과 『조선인내빙기』에 수록된의 전체적인 구성이 해당 사행의 핵심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며, 18세기 초 조선의 복식과 기물, 무기 연구 혹은 복원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 관련 회화자료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조선의 외교 의식·외교 의장(儀裝) 연구의 측면에서도 주목된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다만, 위 두 자료는 작성 시기와 작성 주체만큼이나 작성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 문건의 성격도 다르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일한 관점에서 일률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덕신사기록발서 신사잡록』(1711년)은 막부측 인사인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의 요청에 따라 통신사의 에도행(江戸行)을 수행한 쓰시마번의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가 정리하여 막부에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사행단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춰 작성된 공적 문서이자 통신사행을 주관한 쓰시마번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조선인내빙기』는 1748년 통신사의 접대를 담당했던 요도번(淀藩)의 번사 와타나베 젠에몬(渡辺善右衛門)이 작성한 것으로 사행단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들을 맞이하는 요도번의 응접 준비와 그 과정에서 우왕좌왕하는 번사들의 모습 등을 본인이 목격한 사실에 소문 등을 섞어서 기록한 것이어서 개인 와타나베 젠에몬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조선인내빙기』는 『정덕신사기록발서 신사잡록』과 달리 18세기 중반 일본 지식인의 개인적인 호기심이 반영된 자료로 생각된다.

여기에서 왜 이런 기록물이 이때 출현하게 되었을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삽화가 수록된 기록 문헌, 『조선인내빙기』의 출현을 18세기 조선사회에서 중인 등을 중심으로 한 서민문화로서 閭巷文學의 발달 양상과 마찬가지로, 18세기 에도시대 서민문화의 발달, 지식의 다양화 등 일본사회의 변화양상과 결부지어 설명할 수는 없는지, 당시 간행된 기록물의 일반적인 양식이었는지? 그런 점에서 통신사 기록물 속 삽화의 출현을 18세기 에도시대 사회사 및 생활사의 관점에 접근할 수는 없을까? 그 가능성에 대해 발표자의 고견을 듣고 싶다.

3. 발표자는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1711년 통신사의 『조선신사내빙기록』을 다루면서, 「조선신사내빙기록」은 1711년 통신사행을 기록한 쓰시마 증가문서 『正德信使記錄』의 일부를 발췌하여 편집한 책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 각주6)에서는 1책으로 된 『조선신사내빙기록』은 『정덕신사발서 신사잡록』의 축약본으로 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1711년 통신사의 『조선신사내빙기』, 『정덕신사기록』, 『정덕신사발서 신사집록』의 사료상의 차이 및 특징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 1764년 통신사행을 기록한 『조선인내빙기 보력(朝鮮人來聘記 寶曆)』에 대하여

- 발표자는 1764년 통신사행을 기록한 『조선인내빙기보력(朝鮮人來聘記寶曆)』(동북아역사재단, 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IV, 2020)를 자료집으로 소개한 바 있다. 『조선인내빙기 보력』은 삽화가 들어 있다는 점에서 앞에서 소개한 두 자료와 동일한 형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에서 소개한 기록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일본인의 눈에 비친 조선인, 조선의 문화, 습속이 표현되고 기록된 삽화에 반영된 타자의식(朝鮮觀)에 변화가 있는지, 1711년, 1748년의 것과 비교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5. 통신사 행렬의 성격과 관련하여

- 발표자는 발표에서 “근세 일본사회의 정치문화의 특질을 표현하는 양극적인 현상으로 ‘군대 행사로서 다이묘 행렬’과 ‘마쓰리(祭り) 행렬’이 있으며, 조선통신사 등의 외교행렬도 마쓰리의 행렬과 동일시되었다는 견해가 있다.”고 소개하였다. 그리고 “통신사 행렬이 일본의 참근교대 다이묘 행렬이나 구계(公家)의 행렬과 확연하게 다른 점은 악대가 수행했다는 점이다.”라고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렇다면 ‘조선 조정의 공적 의례’ 양식으로 동원된 악대를 제외한다면 통신사 행렬은 참근교대의 다이묘 행렬이나 구계의 행렬과 동일시킬 수 있는지, 나아가 쇼군의 上京 행렬과는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6 기타

- <표 3>의 하쿠세키의 질문 가운데 ‘進上之鞍具’의 鞍具는 말과 마구가 아니라 마구만을 의미?  
- 주10)의 大管→大官?, 이하 동일



近世後期の通信使と日本人との学術交流——  
「寛政異学の禁」を媒介に

松本智也(四国学院大学)

---



# 近世後期の通信使と日本人との学術交流—「寛政異学の禁」を 媒介に1)

松本智也(四国学院大学)

## 1、はじめに

朝鮮通信使(以下、通信使)とは周知のように、朝鮮国王が日本(室町~江戸期)の武家政権の首領に対し修好や慶賀などの名目で派遣した外交使節団のことである。通信使と日本人の間では漢文での筆談・漢詩文の唱和(以下、筆談・唱和)など様々な交流が行われ、浩瀚な研究蓄積は枚挙に暇がない[李元植1997など]。しかし通信使を対象とした交流史研究は近代との接合が容易でない。その理由として、対馬易地聘礼方式で実施された1811年次の通信使が結果的に最終回になったこと、近世後期の日本で昂揚していた「蔑視観」と易地聘礼を直結させて理解する傾向が根強いこと、また当該期の対ロシア・欧米関係と比べ日朝関係の重要度が相対的に低下していたことなどが挙げられる。そのため19世紀の通信使と日本人との交流はほとんど注目されないか、前後の時期と断絶し孤立したものとして扱われる傾向にある。そこで本発表は近世後期の通信使と日本人との学術交流に焦点を当て、「寛政異学の禁」を媒介してその意義を検討し、ひいては幕末期を展望する視座を提示したい。

交流史研究における重要な論点の一つに、日朝間の学術交流が両国の思想史の形成に一定の役割を果たした点が挙げられる。かつて阿部吉雄は、17世紀の日本の学者が朝鮮漢籍の研究を通じて朱子学の理解を深化させ、もって日本における朱子学の導入が本格化したことを論じた[阿部吉雄1965]。近年では、18世紀の日本で勃興した古学・徂徠学をめぐる日朝交流に注目が集まり、徂徠学を重んじる日本の学者と朱子学を重んじる通信使との論争、古学の朝鮮への伝来、古学が朝鮮知識人の思想形成にもたらした影響などが解明された[河宇鳳2006、夫馬進2015、藍弘岳2018など]。とりわけ夫馬、藍が複数次の

---

1) 本発表は拙著『〈文事〉をめぐる日朝関係史』(春風社、2023年)のうち、特に第2章「宝暦度通信使と日本人との接触」、第4章「文化度通信使と日本使節との接触」の一部をもとに、同書刊行後に得られた知見も加えて再構成したものである。引用史料・文献等の詳細は同書を参照されたい。

通信使を取りあげ、連続性をもって把握した方法は、交流史を歴史的脈絡に位置づけるうえで重要な論点である。しかし19世紀以降への接合は課題として残る。

ところで[夫馬進2015]は古学の朝鮮知識人への影響関係をもって日朝間の学術関係の「逆転」が生じたと評価した。しかし日朝交流を通じた朱子学の日本知識人への影響関係も視野に入れる必要があるだろう。18世紀後期の日本では徂徠学に対する批判から朱子学を重視する儒者たちが登場し、それがのちの「寛政異学の禁」(以下、異学の禁)の背景の一つとなった[辻本雅史1990]。「異学の禁」とは狭義には、1790年5月に幕府が林家の聖堂内部に朱子学が林家創設以来の正統な学問である旨を達した学派統制勸告のことであるが、結果としてその影響は聖堂外にも広がり、非朱子学諸派への規制の役割も果たしていった。「異学の禁」はかつて「封建反動」というように否定的に評価されていた。しかし近年では評価が刷新されている。幕府は「異学の禁」を通して幕府における人材登用を制度化し、そのための学問吟味において朱子学を採用した。「異学の禁」を経て武士層に儒学・朱子学が普及し、その素養を身につけた武士層、とりわけ昌平黌儒者やその弟子筋の幕府吏僚が幕末・明治期の外交現場で活躍した[眞壁仁2007、奈良勝司2010]。異学の禁は幕末・明治にかけての政治思想を規定したため、「異学の禁」を経て19世紀に登場する正学派朱子学を検討する意義が高まっている研究段階にある。

このように「異学の禁」を媒介すると、近世後期の通信使と日本人との交流の意義について検討する余地が大きい。そこで本発表では1764年・1811年通信使を取りあげ、朱子学をめぐる日本側の学者の態度に注目して分析を行う。朱子学とは南宋の朱熹が大成した学問であり、理気二元論的構成をもち、宇宙論・自然学・人間学・道徳論などを包括する。朱子学では道徳優位の観点から政治・文学を捉えるのに対し、徂徠学は政治・文学の領域に道徳を包摂する理解を打ち出し、道徳を「礼楽」や「修辞」といった仕掛けによって自ずと操作・醸成可能なものと捉えた。本発表では、①朱子学のうち道徳・修身の要素が日朝交流のなかでどのように表れるのか、②通信使との接触経験者のその後の経歴に留意する。以下、2では1764年度通信使との交流、3では「異学の禁」を前後する時期の思想潮流と通信使との関係、4では1811年度通信使との交流を検討する。

## 2、1764年通信使と日本人との交流

17世紀前期の通信使は、豊臣秀吉の朝鮮侵略、明清交替といった東アジアの政情不安を背景として、政治的要素が色濃かった。17世紀後期になると、情勢の安定を背景として、通信使における文化・儀礼的要素の比重が増大する。朝鮮では1682年から通信使一行に製述官を加え日本人との筆談・唱和を重視するようになった。日本側でも、文治主義を基調とする幕藩体制安定期のなか通信使と接触する人々の層も拡大し、各地の人々が通信使に詩文を求めるようになった。こうして18世紀には日朝間で通信使と日本人との間で活発な交流が行われるようになった。

18世紀初期の日本では、荻生徂徠(1666~1728)が古文辞学を形成した。江戸で生まれた徂徠学はその門下や孫弟子によって各地に普及した。例えば徂徠の孫弟子の林東溟(1708~80)が1732年に大坂で学塾を開き多数の門弟を抱えたことにより、大坂でも徂徠学が流行するようになった。しかし徂徠が存命中の1711年・19年通信使とは接触できず、徂徠の弟子もこの段階では交流の場からはほとんど疎外されていた。また兩次の通信使側の史料には徂徠らについて言及がなく、徂徠は朝鮮ではほぼ無視されていた。1748年通信使が日本で徂徠学の流行を目撃し、ようやく朝鮮の学者たちが徂徠学に関心を示すようになる。

では1764年度通信使はどのような対日姿勢をもっていたのだろうか。朝鮮では信義・道理にもとづき日本との敵愾関係を実現するため隣国の日本に通信使を派遣した。当該通信使の副使書記・元重拳は朝鮮のこうした対日政策への活用を目的として帰国後に『乗槎録』と『和国志』を執筆した。元重拳は、江戸での公式儀礼を終えて出発する前日、往路での日本人との接触、応酬の様子について整理する(『乗槎録』3月10日)。そのなかに「今回、最も力を尽くして優先したことは謙讓の二字であり、その次は安静にして彼に應じることであった。(今行、得力最在謙讓二字、其次安静而応彼。)」とある。また元重拳は四人の文士で事前に示し合わせ、日本では「学究」の立場を自任し、尋常の問答から詩文唱酬にいたるまで二程・朱子のを引用し、いつも「誠正」を称したとも回想する(6月14日)。こうした記述から、通信使一行は日本において「居敬」の実践を試みんとしていることが窺える。すなわち心が極度に緊張した状態を意識的に作り保ち、外形を整え目の具体的な事柄に意識を集中させて、一つ一つの動作を丁寧に行おうとしている。

朱子学の実践は実際の応接の様相からも確認できる。通信使の宿所には大勢の人々が群がって押しかけ、名刺・詩文などが百枚以上積み重なり、騒々しい様相であった(『乗槎録』3月10日)。通信使たちは夜まで対応することもあるほど肉体的、精神的に大きな負担がかかったものの、心を落ち着かせ、日本人全員に対応するよう心掛け、謙譲の実践に努めた。また朱子学の基本書である『小学』が話題になった事例もある(『乗槎録』3月10日)。芥川元澄(1744~1807)は通信使との交流のなかで『小学』に言及し、知識を示そうとした。それに対し元重挙は『小学』のどの項目が実践できているのかを問うと、元澄は赤面して答えられなくなる。元重挙が『小学』を实践するよう諭したところ、元澄はその日の帰宅後沐浴し、翌日衣服を改めて通信使の前に現れて礼を述べる。ここには、『小学』の知識の有無ではなく、表情・服装・立ち居振る舞いなどの所作を目に見える形で肅然と整え厳かにすることが望ましいということが示されている。

通信使の眼前には徂徠学のごとき「邪説」が流行し、通信使を神仏のように崇め群がる人々などがいた。元重挙はこうした有様を日本社会の秩序の乱れとして把握し、日本人に足りないものは「正学」(朱子学)であるから、窮理・居敬といった内面の修養につとめるよう導けば、啓蒙されて「文明」に到達し正しい秩序に復するだろうと期待した(『乗槎録』6月14日)。元重挙の目に日本での「邪説」の横行が厄介なものと映じたことは確かであろうが、朱子学に基づく優越感は揺らいでいない。それどころか日本にも朱子学が普及していくだろうと楽観視している。

通信使に対応した日本人にはどのような人がいたのであろうか。製述官・南玉の『日観記』巻4末尾の「唱酬諸人」には、南玉が出会って名刺を受けとった500人の日本人が挙げられている。まずここから当該通信使と接触した日本人の傾向を三点指摘しておこう。①通信使との接触者の層の厚さ。著名な人物の名も散見されるが、無名の人々が大多数である。大名(松平容頌、徳川宗翰)や藩士をはじめ、「医者」と自称した人物(20人あまり)、「僧」(70人あまり)、さらには年少の童子も確認できる。多くは特定困難であるが、通信使と接触した人々の層が厚かったことが確認できる。②親子、兄弟また師弟同士での通信使との接触にみられるように、通信使との接触経験が諸藩、諸地域、コミュニティで蓄積されていた点。例えば尾張の松平君山は先行する複数回の通信使との接触経験があり、今回の通信使とは子、孫とともに接触しており、さらに君山の弟子たちも多数接触している。また皆川淇園は1748・64年の兩次の通信使と交流しており、淇園の弟子の三宅橘園は

今回の1811年通信使と交流する。③後年、混沌詩社に関わったり、幕府や藩の儒者になるなどして活躍する人物がみられる点。例えば幕府や藩の儒者では亀井南冥や瀧鶴台など徂徠学を重視する人物をはじめ、那波魯堂、西山拙斎、芥川元澄、渋井太室、後藤芝山など、朱子学に基づいた教育を行う人物も多数みられる。このような傾向をみると、通信使と接触した人びとのうち、のちに朱子学に立脚した教育を行う人物と通信使経験との関係に注目できる。以下では那波魯堂と西山拙斎を取りあげてみよう。

那波魯堂(1727~89)は通信使来日当時、京都で私塾を開いていた。通信使が大坂に滞在中に出会い、江戸行きに同行し、通信使が江戸での行事を終えて大坂に戻り、大坂を出発するまでの期間、魯堂は行動を共にした(1月22日~5月6日。ただし崔天宗事件処理中の4月7日から5月3日は面会が禁止されたため記録にない)。通信使の記録をみると、魯堂は道中でほぼ毎日通信使の宿舎を訪れていたことが確認できる。

魯堂は南玉を「知己」と称して慕い、日本人たちと通信使たちとの問答の仲介役を担った。例えば魯堂の仲介によって成立した筆談唱和集『品川一燈』には澁井太室・今井兼規(ともにのちの佐倉藩儒)・木村貞貫らと通信使との交流がみられる。『品川一燈』の跋文は中井竹山(1730~1804)・頼春水(1746~1816)が寄せている。竹山・春水は南玉・元重挙らと直接接しなかったためか、その名を使行録から確認できないものの、筆談唱和集を媒介として間接的に通信使との繋がりが見られる。通信使と日本人との直接の接触に加えて、通信使来日を媒介した日本人たち同士の人的関係の発生にも注目できよう。

魯堂と通信使との間で学術に関する議論も交わされた。魯堂は五行説にたいする疑問があると元重挙に尋ねた(『乗槎録』2月12日)。これに対し元重挙は、明儒が程朱の説を排斥するために言った誤りを踏襲していると魯堂を批判し、陰陽五行説を説明し始めた。元重挙の書いた説明を読んで魯堂はつぎのように答えた。以前から徂徠学・明儒の方法論およびそれらの流行に疑問を持っていたところ、元重挙先生に出会って対話をし、朱子学の正しさに確信を得た。この筆談のやり取りを写して他の人たちにも伝えたい、と。このように魯堂は、元重挙の言葉には日本の儒者たちに対し、徂徠学・明儒の問題点、朱子学的重要性を説明するうえで有効性があるものと認識していたことが窺える。

魯堂と通信使との接触について日本側史料では、後世の伝記である『先哲叢談後編』に記されている。魯堂は通信使との接触を期に、兼ねてより抱いていた朱子学の正しさ、流行

している徂徠学の誤りに確信をもつにいたった。そこで魯堂は友人の西山拙斎（1735～99）にも通信使との面会を勧めた。通信使は筑前から江戸までの経由地で数百人の日本人と接見したものの、当時の日本では徂徠学が流行していた。筆談では王世貞・李攀龍の古文辞や訓詁記誦の話題ばかりで、修省の議論に及ぶ者に出会わなかった。そうしたなか、拙斎が通信使の客館にて「持敬工夫」について尋ねた。元重挙はそうした拙斎を珍しく思い、「不自妄語始」（『小学』）に言及したところ、拙斎は悟りを得たという。

拙斎は後年、「異端」と題した文章（1772年）において通信使との接触を次のように述懐する。かつて元重挙は、「異端之説」は「正理に背き新奇を尚ぶ」説のことであると述べた。この説を吟味してみると、「正理」とは堯・舜・禹三王が授受し孔子・孟子・二程・朱熹が伝える道のことであって、これに従うものを「正学」、背くものを「異端」ということに確信を得た。明の李攀竜や徂徠学の学説が人びとを惑わせることが深刻であるため、学者は適従するところを撰び、邪を閑める心を持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元重挙がこのような問題を警省させてくれたのだと拙斎は述懐する。

以上の魯堂、拙斎の発言は後世に書かれた史料に基づく。しかし通信使側の史料に現れる状況とも照合すると、次の点は確実であろう。①通信使は江戸までの沿道で数百人の日本人に出会った。②当時の日本では徂徠学のごとき「異端」の学説が流行する風潮にあり、そうした風潮や徂徠学の方法論に批判的な魯堂・拙斎のような学者がいた。③通信使は日本人たちに居敬・窮理を説いていた。以上を踏まえると、元重挙の言説は、「正学」を主張する魯堂・拙斎の思想形成を支えるうえで活用された側面もあったと考えられる。では通信使の来日はのちの「異学の禁」運動とどのように関わってくるのであろうか。

### 3、18世紀後期の学術動向と日朝関係

1750年代頃から西日本を中心として徂徠学に対する批判が現れた〔頼祺一1986、辻本雅史1990〕。那波魯堂・頼春水・西山拙斎・尾藤二洲ら「正学派」儒者たちは徂徠学の流行について、自己の心身の修養を前提とせず「功利」を求めて「道義」を軽視し、詩文に傾倒する頹廢した風潮とみなし批判した。たとえば魯堂は『学問源流』（1769～76頃）のなかで徂徠学およびそれが立脚する明儒の方法論、徂徠学が流行している風潮を次のように批判する。徂徠学に傾倒する人々は詩文を作って仲間内での同好の次元にとどまり、経義の説

や天下のことにまで深く及んでいない。このような現状を克服するためには、朱子学の学習に意義がある、と。魯堂のこの批判は元重挙との対話内容とも一脈通じる。前述のように、1764年度通信使の四文士は日本に来ては『小学』を説き、朱子学の居敬を実践していた。更に、通信使の来日は、通信使と日本人との接触のみならず通信使を媒介した日本人同士の人的関係も発生させた。1764年通信使は、18世紀後期の日本において朱子学の重要性を喚起させる潮流の一要素という観点から位置づけることも可能だろう。

正学派の儒者たちは学問に道徳的な社会秩序規範を確立する根本原理を提示することを求め、朱子学を「正学」として再興しようと図った。ただし正学派は、徂徠学が道徳・修身を軽視する点は批判したものの、徂徠学が社会を全体として統合するための包括的原理を「道」に求める点は継承し、学問の社会的実践を重視した [ 辻本雅史1990 ]。彼らは朱子学を幕藩制秩序再編の規範原理たる「正学」と位置づけ、「治人」という目的のための手段として「修己」の重要性を強調した。

こうした動向のなか、西山拙斎は後年、朱子学を基軸とした学制改革を柴野栗山 ( 1736 ~ 1807 ) に提言した。栗山はそれを「上書」として松平定信に提示し、定信が「異学の禁」を発した ( 1790年 )。定信は朱子学を「正学」として確定し、その理念と権威でもって、社会統合論や教化論、武士教育論を寛政改革のうちに組み込み、一定の成果をあげた [ 辻本雅史1990 ]。拙斎本人は幕府の学制には直接関与しなかったが、彼に代わり柴野栗山・岡田寒泉・尾藤二洲・古賀精里 ( 1750 ~ 1817 ) らが幕府儒者として招聘され、昌平黉で朱子学に基づく教育を行った。古賀精里は1811年通信使との筆談・唱和で中心的役割を果たすことになるが、彼は青年期の1760~70年代に畿内での人間関係を通じて朱子学への理解を深め、1780年代には佐賀藩で朱子学を基軸とした学制改革を実施していた。また各藩においても朱子学に基づく教育が実践された。通信使との接触経験者では那波魯堂 ( 1779年に徳島藩に赴任 )、芥川元澄 ( 1788年に鯖江藩に赴任 )、渋井太室 ( 佐倉藩 ) などがよく知られている。

一方、「異学の禁」と同時期に易地聘礼方針が打ち出された ( 1791年5月 )。易地聘礼の提案者の一人に中井竹山がいる。通説では彼が『草茅危言』で神功皇后の「三韓征伐」に言及することを取りあげて、易地聘礼の背景に彼の「蔑視観」を読み取る。その理解にも一理あるが、竹山は同書で通信使と無秩序な筆談・唱和を行う日本人たちも批判している。彼は日本の学問の水準が低いと朝鮮から軽視されて問題であるので、適切な人材を通信使に接

見させることが「善隣ノ美意」の観点から望ましいとも主張している。竹山の問題意識には、正学派の儒者たちや通信使の元重挙たちと共通する面も窺える。

以上の諸点に注目すると、幕府は朱子学を基軸として朝鮮に思想的立脚点を接近させていく動向の中で、1811年度通信使への対応のため日本側使節団を対馬に派遣することになったといえよう。最後に、「異学の禁」を経た1811年の時点で、朱子学を国是とする立場の朝鮮との接触はどのようなものであったのかを見ていきたい。

#### 4、1811年通信使と日本使節との交流

幕府は1811年の通信使を対馬で迎えるにあたり、従来の応接のありようを問題視していた。そこで筆談・唱和に携わる人員を厳選し、大学頭・林述斎(1768~1841)とその弟子の掛川藩儒・松崎慊堂(1774~1844)、昌平黌儒官・古賀精里とその弟子の草場珮川(1787~1867、のちに佐賀藩儒)・樋口溜川(1785~1865、のちに会津藩儒)らを対馬に派遣した。筆談・唱和の内容をみると、豊臣秀吉の朝鮮侵略後に好を結んで200年になるという認識のもと、前回までの使行時にやり取りされた詩文や、近年の日・朝・清の学術動向についての関心が高かったことがうかがえる。これまでの使行を踏まえつつ、「異学の禁」にともなう学制改革・朱子学の重視という時代状況を反映していることが理解できる。

佐藤一斎(1772~1859)は師の大学頭・林述斎が通信使迎接のため対馬に赴くにあたり文章を贈った。この中で一斎は、従来の江戸聘礼と今回の対馬聘礼を比較している。旧来の礼式においては日本各地の文物で使節に対し「国体」(日本の体面)を示していた。しかし今回、対馬での聘礼となったため日本各地の文物を示すことができなくなった。とはいえ、使節を「辺境」に留めておけばかえって日本に対する関心をかき立てることができるので、応接する人材に朝鮮を懐柔させ得るだけの実力があれば「国体」を示すことができる。つまり一斎は「辺境」で日本の優位性を示すためには、接見する人物が学問の力量を示さねばならなくなったと認識している。

古賀精里・草場珮川らは先行する通信使との筆談集の刊本にみられる誤謬をただすため、通信使の応接を終えたあと、今回の筆談を整理した『対礼余藻』を編纂した。精里の三男

の古賀侗庵（1788～1847）がその跋文を書いた（1813年）。侗庵は精里たちについて次のように言及する。従来の交際の反省の上に立ち、今回は露骨に自らの優位性を誇示して相手の競争心も煽る「好勝之心」ではなく、礼をもって自らの姿勢を低くする「賓主揖讓之礼」を取った。そのため筆談中には自尊心や競争意識に満ちた詩作がなくなり、朝鮮側も感服し日本側に逆らおうとしなくなった。

通信使と実際に接見した草場珮川は『津島日記』で対馬での見聞、通信使との接触について子細に記録している（1811年6月26日）。珮川は通信使と面会する以前、先行する通信使との筆談集を読み、従来の聘礼の様子についての知識を得ていた。珮川は、これまで通信使を応接する際には、日朝双方とも自らの文化的な優位性を示そうとして互いに不興を買う結果となっていたと把握する。日本側は新井白石や荻生徂徠の門下が国の光輝を示そうとしたものの朝鮮側からは評価されなかった。他方、朝鮮側も李退溪や李栗谷など朝鮮朱子学の議論をかざして日本側に論戦を挑んで仁齋・徂徠の学説を論難し、日本の儒者が「朱子正大ノ學術ニ由ラズシテ、邪路ニ迷ヘル」ことを批判していた。

それにたいし今回は、林述齋や古賀精里の学徳を通信使が高く評価したという。例えば精里が『大学纂釈』などの著述を提示したことで「我邦学風ノ正シキニ帰」したことを朝鮮側が称賛したと記している。実際、精里と筆談した通信使の正使書記・金善臣は「學術」を基準として精里を「忠信博雅君子」と評価した（『清山島遊録』巻8）。

この背景には、朝鮮と接する際の意識の変化が指摘できる。かつての筆談を見ると、国の体面をわきまえずに議論をおこなって公事の進行を妨げたり、使節におもねる日本人の賤しさが通信使から軽蔑されることがあった。そこで精里は「国家恩信ヲ以テ、大賓ヲ礼待」するという本来の意図に従い、以前のように「主客乖角不遜ノ光景」に至らないように、あらかじめ珮川たちに周到な準備をおこなわせていた。珮川らは筆談の想定問答集を作成し、「前古ヲ鑑ミ」で「後来ヲ戒テ、永ク文翰・応接ノ規則」を立てた。その結果、「ヨク彼ノ歡心ヲ得テ、使主格ヲ破テ下交シ、彼方ノ文人ナド直チニ走り、訴ヘテ、会晤センコトヲ渴望セシユト」があった。

今回、通信使側が精里らを評価した点に鑑みると、かつて中井竹山が問題視していた人選の課題を克服しえたことになる。また朝鮮の立場に立つと、今回幕府儒者が「正学」を標榜したことは、前回の通信使の元重挙らが期待していた日本における朱子学の興隆が実現し

えたものと映じた面もあるだろう。

本章で言及した日本の学者たちはおしなべて日本の優位性を前提・強調している。しかし同時に、朝鮮を礼待し学問の力量を示さなければならないとも認識している。彼らは、朝鮮を軽く扱ってはむしろ日本の威信を示すことができないと理解している。近世後期の日本では、朝鮮と対峙するにあたり学問の素養を有する人材が求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と考えられる。このように考えると、1811年の通信使との接触は、「異学の禁」を経た学問所儒者の活躍する場として位置づけることも可能であろう。

## 5、おわりに

近世後期の通信使と日本人との学術交流の意義を整理すると次の通りである。1764年度通信使は18世紀後期の日本において朱子学の重要性を喚起させる潮流の一要素として位置づけうる側面がある。また1811年度通信使の応接は「異学の禁」を実施後に、学問の素養を有した人材が活躍する場となった。「異学の禁」を媒介して、朱子学の要素が顕現する側面に焦点を当てると、1764年通信使と1811年通信使との間にはこのように連続性が浮上する。また19世紀初頭の日本知識人は、1811年度通信使を1764年通信使からの延長線上に捉え、かつ1811年以降も通信使が来日して朝鮮との関係が継続していくものとみなしていた。欧米列強の接近による情勢変化にともない日朝関係の重要度が相対的に低下しつつあったとしても、その重要性が失われていたわけではない。19世紀を通じて通信使の来聘計画があり [ 池内敏2006 ]、幕末の対欧米外交儀礼の構築には通信使の外交儀礼が参照されていた [ 佐野真由子2016 ]。しかしながら皮肉なことに、1811年以降、通信使との接触は結果的に実現することなく明治維新を迎える。

ただし結果ではなく過程に焦点を当てると、興味深い論点が浮上する。例えば1866年、丙寅洋擾の仲介のため、徳川慶喜政権は幕府使節を朝鮮に派遣する計画を立ち上げた。翌年、幕府使節の副使には古賀精里の孫である古賀謹堂が抜擢される。謹堂は朝鮮との折衝にあたり、「文筆之人」の同行が必要であると考え、1811年通信使と交流のあった草場珮川の朝鮮との旧縁を頼ろうとした (『草場船山日記』1867年4月14日・17日)。ところがまもなく幕府が倒壊したことにより、遣使計画は自然消滅した。とはいえ幕末期に日朝関係の構築を模索する過程において、1811年通信使との接触経験者に期待される役割があったこと

が窺える。通信使が希薄化する時期の日朝関係について、朝鮮に対する優越意識との関連にも注意しつつ、関係構築の模索過程を様々な観点から検討する余地がある。

### ●主要参考文献

【史料】荒木見悟監修・三好嘉子校註『草場船山日記』（文献出版、1997年）、草場珮川『対礼余藻』（相良亨・頼惟勤・戸川芳郎・日野龍夫編『近世儒家文集集成15 精里全書』ぺりかん社、1996年）、草場珮川『津島日記』（西日本文化協会、1978年）、金善臣『清山島遊録』大韓民国国立中央図書館、那波魯堂『学問源流』（岸上操編『少年必読日本文庫』6、博文館、1891年）、中井竹山『草茅危言』（瀧本誠一編『日本経済叢書』16、日本経済叢書刊行会、1915年）、南玉『日観記』大韓民国国史編纂委員会、西山拙斎「異端」（關儀一郎編『日本儒林叢書史伝書簡部』1928年）、松村操編『近世先哲叢談』上（1880年）、佐藤一斎「述斎林公が津島に赴いて韓使を迎接するを送り奉るの序」（岡田武彦監修『佐藤一斎全集』2、明德出版社、1991年）、渋井太室『品川一燈』国立公文書館内閣文庫、元重拳『乗槎録』高麗大学校六堂文庫

【研究文献】奈良勝司『明治維新と世界認識体系』（有志舎、2010年）、藍弘岳『漢文圏における荻生徂徠』（東京大学出版会、2018年）、頼祺一『近世後期朱子学派の研究』（溪水社、1986年）、眞壁仁『徳川後期の学問と政治』（名古屋大学出版会、2007年）、佐野真由子『幕末外交儀礼の研究』（思文閣出版、2016年）、李元植『朝鮮通信使の研究』（思文閣出版、1997年）、池内敏『大君外交と「武威」』（名古屋大学出版会、2006年）、辻本雅史『近世教育思想史の研究』（思文閣出版、1990年）、河宇鳳『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혜한、2006年）、夫馬進『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名古屋大学出版会、2015年）

# 근세 후기 통신사와 일본인의 학술교류-'寬政異學의 禁'을 매개로<sup>1)</sup>)

마쓰모토 도모야(松本智也, 四國學院大學)

## 1. 시작하며

조선통신사(이하 통신사)는 주지하듯이 조선국왕이 일본(무로마치~에도기)의 무가 정권 수장에게 수호(修好)나 경하 등의 명목으로 파견한 외교사절단을 말한다. 통신사와 일본인 사이에는 한문 필담·한시문의 창화(唱和, 이하 필담·창화) 등 다양한 교류가 이루어졌고, 이에 관한 방대한 연구 축적은 다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이다[이원식 1997 등]. 그러나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교류사 연구는 근대와의 접합이 쉽지 않다. 그 이유로 쓰시마 역지통신(對馬易地聘禮) 방식으로 실시된 1811년 통신사가 결과적으로 마지막 사절이 된 점, 근세 후기 일본에서 고조되었던 '멀시관'과 역지통신을 직결시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또한 해당 시기의 對 러시아 및 구미 관계에 비해 조일 관계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래서 19세기 통신사와 일본인의 교류는 거의 주목받지 못하거나 앞뒤 시기와 단절되어 고립된 것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발표는 근세 후기 통신사와 일본인과의 학술교류에 초점을 맞추어 '간세이 이학 금지(寬政異學の禁)'를 매개로 그 의의를 검토하고 나아가 막말기를 전망하는 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교류사 연구의 중요한 논점의 하나로 조일 간의 학술교류가 양국 사상사의 형성에 일정한 역할을 한 점을 들 수 있다. 일찍이 아베 요시오(阿部吉雄)는 17세기 일본 학자들이 조선 한적(漢籍)의 연구를 통해 주자학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로써 일본에서의 주자학의 도입이 본격화되었음을 논하였다[阿部吉雄 1965]. 근년에는 18세기 일본에서 발흥한 古學과 徂徠學을 둘러싼 조일 교류에 이목이 집중되어 徂徠學을 중시하는 일본의 학자와 주자학을 중시하는 통신사와의 논쟁, 고학의 조선 전래, 고학

1) 본 발표는 저서 『〈文事〉をめぐる日朝關係史』(春風社、2023年) 가운데 특히 第2章 '寶曆度通信使と日本人との接觸', 第4章 '文化度通信使と日本使節との接觸'의 일부를 기초로 同書 간행 후에 얻은 知見도 더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인용 사료·문헌 등의 상세에 관해서는 이 책을 참조하길 바란다.

이 조선 지식인의 사상 형성에 미친 영향 등이 해명되었다[하우봉 2006, 후마 스스무(夫馬進) 2015, 남홍악(藍弘岳) 2018 등]. 특히 후마와 남홍악이 몇 차례의 통신사를 거론하여 연속성 속에서 파악한 방법은 교류사를 역사적 맥락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논점이다. 그러나 19세기 이후로의 접합은 과제로 남는다.

그런데 [후마 스스무 2015]는 고학의 조선 지식인에 대한 영향 관계로 조일 간학술 관계의 '역전'이 발생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조일 교류를 통한 주자학의 일본 지식인에 대한 영향 관계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18세기 후기의 일본에서는 徂徠學을 비판하면서 주자학을 중시하는 儒者들이 등장해, 그것이 후의 '간세이이학 금지'(이하, 이학 금지)의 배경의 하나가 되었다[쓰지모토 마사시(辻本雅史) 1990]. '이학 금지'란 협의로는 1790년 5월에 막부가 하야시(林) 가문의 성당(聖黨) 내부에 주자학이 하야시 가문 창설 이래의 정통 학문이라는 것을 통제한 학파 통제 권고(學派統制勸告)를 말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그 영향은 성당 밖으로도 확대되어 비주자학 제파에 대한 규제의 역할도 해 나갔다. 일찍이 '이학 금지'는 '봉건 반동'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부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평가가 쇄신되고 있다. 막부는 '이학 금지'를 통해 막부에서의 인재 등용을 제도화하고, 이를 위한 학문 음미(吟味)에 있어 주자학을 채용하였다. '이학 금지'를 거쳐 무사 층에 유학과 주자학이 보급되어, 그 소양을 익힌 무사 층, 특히 쇼헤이코 유학자(昌平黌儒者)나 그 제자 계통의 막부 관리(吏僚)가 에도막부 말기(幕末)·메이지기의 외교 현장에서 활약했다[마카베 진(眞壁仁) 2007, 나라 가쓰지(奈良勝司) 2010]. 이학 금지는 막말·메이지에 걸친 정치사상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학 금지'를 거쳐 19세기에 등장하는 정학파 주자학을 검토하는 의의가 높아지고 있는 연구 단계에 있다.

이처럼 '이학 금지'를 매개로 하면 근세 후기의 통신사와 일본인과의 교류의 의의를 검토할 여지가 크다. 그래서 본 발표에서는 1764년과 1811년 통신사를 중심으로 주자학을 둘러싼 일본 측 학자의 태도에 주목하여 분석을 한다. 주자학이란 남송 주희가 대성한 학문으로 이기이원론적 구성을 가지며 우주론·자연학·인간학·도덕론 등을 포괄한다. 주자학에서는 도덕 우위의 관점에서 정치·문학을 이해하는 데 반해 徂徠學은 정치·문학의 영역에 도덕을 포섭하는 이해를 내세워 도덕을 '예악(禮樂)'이나 '수사(修辭)'와 같은 장치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작, 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본 발표에서는 ①주자학 중 도덕·수신의 요소가 조일 교류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②통신사와의 접촉 경험자의 그 후 경력에 유의한다. 이하 2절에서는 1764년도 통신사와의 교류, 3절에서는 '이학 금지'를 전후한 시기의 사상조류와 통신사와의 관계, 4절에서는 1811년도 통신사와의 교류를 검토한다.

## 2. 1764년 통신사와 일본인의 교류

17세기 전기의 통신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명청 교체와 같은 동아시아의 정치 상황의 불안으로 인해 정치적 요소가 짙었다. 17세기 후기가 되면 정세의 안정을 배경으로 통신사에 있어서 문화·의례적 요소의 비중이 증대된다. 조선에서는 1682년부터 통신사 일행에 제술관(製述官)을 포함시켜 일본인과의 필담·창화를 중시하게 되었다. 일본 측에서도 문치주의를 기조로 하는 막번체제의 안정기 속에 통신사와 접촉하는 사람들의 층도 확대되어 각지의 사람들이 통신사에게 시문을 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18세기에는 조일 간에 통신사와 일본인 사이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18세기 초기 일본에서는 오규 소라이(荻生徂徠, 1666~1728)가 고문사학(古文辭學)을 형성하였다. 에도에서 발생한 徂徠學은 그 문하나 손제자들에게 의해 각지에 보급되었다. 예를 들면 徂徠의 제자 하야시 도메이(林東溟, 1708~80)가 1732년 오사카에서 학숙(學塾)을 열어 다수의 문학생을 거느림으로써 오사카에서도 徂徠學이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徂徠가 살아있던 1711년과 1719년 통신사와는 접촉할 수 없었고, 徂徠의 제자도 이 단계에서는 교류의 장에서는 거의 소외되어 있었다. 또한 이 두 차례 모두 통신사 측의 사료에는 徂徠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徂徠는 조선에서 거의 무시되고 있었다. 1748년 통신사가 일본에서 徂徠學의 유행을 목격하면서 비로소 조선의 학자들이 徂徠學에 관심을 보이게 된다.

그렇다면 1764년도 통신사는 일본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까? 조선에서는 신의·도리를 바탕으로 일본과의 적례(敵禮) 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이웃 나라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해당 통신사의 부사(副使) 서기(書記)인 원중거(元重擧)는 조선의 이러한 대일정책 활용을 목적으로 귀국 후에 『승차록(乘槎錄)』과 『화국지(和國志)』를 집필하였다. 원중거는 에도에서의 공식 의례를 마치고 출발하기 전날, 에도로 향하는 길에서 있었던 일본인과의 접촉, 응수하는 모습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다(<승차록>3월 10일). 그중에 "이번에 가장 힘을 써서 우선한 것은 겸양(謙讓)이라는 두 글자였고, 그다음은 안정을 취하여 그들에게 응하는 것이었다(今行, 得力最在謙讓二字, 其次安靜而應彼)."라고 되어 있다. 또한 원중거는 네 명의 문사(四文士)가 함께 사전에 논의하여 일본에서는 '학구(學究)'의 입장을 자처하고, 일상적인 문답에서부터 詩文 唱酬에 이르기까지 二程과 朱子를 인용하여 항상 '誠正'을 칭했었다고도 회상한다(6월 14일). 이러한 기술을 통해 통신사 일행은 일본에서 '居敬'을 실천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즉 마음이 극도로 긴장된 상태를 의식적으로 만들어 유지하고 외형을 가다듬어 눈앞의 구체적인 사항에 의식을 집중시켜 하나하나의 동작을 정성스럽게 행하려 하고 있다.

주자학의 실천은 실제 응접 양상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통신사 숙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모여들어서 명함과 시문 등이 백 장 이상 쌓여 소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승차록>3월10일). 통신사들은 밤까지 응대하기도 할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있었지만, 마음을 진정시키고 일본인 모두를 응대한다는 마음을 먹고 겸양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주자학의 기본서인 『소학』이 화제가 된 사례도 있다(<승차록> 3월 10일). 아쿠타가와 모토스미(芥川元澄, 1744~1807)는 통신사와의 교류에서 『소학』을 언급하며 지식을 보여주고자 했다. 그에 대해 원중거가 『소학』의 어느 항목이 실천하고 있는지를 묻자, 모토스미는 얼굴이 붉어져서 대답할 수 없게 된다. 원중거가 『소학』을 실천하도록 타이르니, 모토스미는 그날 귀가 후에 목욕하고, 다음날 옷을 고쳐 입고 통신사 앞에 나타나 예를 표한다. 여기에는 『소학』의 지식 유무가 아니라, 표정·복장·행동거지 등의 동작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숙연하게 갖추고 엄숙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통신사의 눈앞에는 徂徠學과 같은 '사설(邪說)'이 유행하고 통신사를 신불(神佛)처럼 추앙하여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다. 원중거는 이러한 양상을 일본 사회의 질서문란으로 보고, 일본인에게 부족한 것은 '정학'(주자학)이므로, 窮理·居敬이라는 내면의 수양에 힘쓰도록 이끌면, 계몽되어 '문명'에 도달해 올바른 질서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승차록』6월 14일). 원중거의 눈에 일본에서의 '사설'의 횡행이 골칫거리로 여겨진 것은 분명하겠지만, 주자학에 근거한 우월감은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일본에도 주자학이 보급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었다.

통신사를 응대한 일본인에게는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것일까. 제술관 남옥(南玉)의 『일관기(日觀記)』 4권 말미의 '창수제인(唱酬諸人)'에는 남옥이 명함을 받은 500명의 일본인이 거론되어 있다. 우선 이를 통해 해당 통신사와 접촉한 일본인의 경향을 세 가지 지적해 두자. ①통신사와의 접촉자 층의 두터움이다. 저명한 인물의 이름도 여럿 보이지만, 무명의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다이묘(마쓰다이라 가타노부[松平容頌]、도쿠가와 무네모토[德川宗翰])와 그 가신들을 비롯해 '의사'라고 자칭한 인물(20여 명), '승려'(70여 명), 심지어 어린 동자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통신사와 접촉한 사람들의 층이 두터웠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부모와 자식, 형제, 사제 간의 통신사 접촉에서 보듯이 통신사와의 접촉 경험이 여러 번(藩), 여러 지역, 커뮤니티에서 축적되었던 점이다. 예를 들면 오와리(尾張) 지역의 마쓰다이라

군산(松平君山)은 이전에 파견된 몇 차례의 통신사와도 접촉한 경험이 있었고, 이번 통신사와는 아들, 손자와 함께 접촉하고 있으며, 심지어 군산의 제자들도 다수 접촉하고 있다. 또한 미나가와 기엔(皆川淇園)은 1748년과 1764년 두 차례 통신사와 교류하고 있으며, 기엔의 제자인 미야케 기쓰엔(三宅橘園)은 다음 1811년 통신사와 교류한다. ③ 훗날 혼돈시사(混沌詩社)와 관련되거나 막부나 번의 儒者가 되는 등 활약하는 인물이 보이는 점이다. 예를 들면 막부나 번의 儒者 가운데에서는 가메이 난메이(龜井南冥)나 다키 가쿠다이(瀧鶴台) 등 徂徠學을 중시하는 인물을 비롯하여 나바 로도(那波魯黨), 니시야마 셋사이(西山拙齋), 아쿠타가와 모토스미(芥川元澄), 시부이 다이시쓰(澁井太室), 고토 시잔(後藤芝山) 등 주자학에 근거한 교육을 실시하는 인물도 다수 보인다. 이러한 경향을 보면 통신사와 접촉한 사람들 중 훗날 주자학에 입각한 교육을 하게 되는 인물과 통신사 경험과의 관계에 주목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나바 로도와 니시야마 셋사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나바 로도(1727~89)는 통신사 방문 당시 교토에서 사숙을 열고 있었다. 통신사가 오사카(大坂)에 머물던 중에 통신사와 만나 에도행에 동행하고, 통신사가 에도에서의 행사를 마치고 오사카로 돌아와 오사카를 떠날 때까지 로도는 행동을 함께 했다(1월 22일~5월 6일. 다만 최천종[崔天宗] 사건을 처리하고 있던 4월 7일부터 5월 3일은 면회가 금지되어 기록에 없다). 통신사의 기록을 보면 로도는 도중에서 거의 매일 통신사의 숙소를 방문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로도는 남옥을 '지기(知己)'라 칭하며 흠모하고 일본인들과 통신사들 사이에서 문답을 중개하는 역할을 맡았다. 예를 들어 로도의 중개로 만들어진 필담창화집 『品川一燈』에는 시부이 다이시쓰와 이마이 가네노리(今井兼規)(두 사람 모두 훗날 사쿠라 번[佐倉藩]의 儒者가 되었다), 기무라 데이칸(木村貞貫) 등과 통신사와의 교류가 보인다. 『品川一燈』의 발문은 나카이 지쿠잔(中井竹山, 1730~1804)·라이 슌스이(賴春水, 1746~1816)가 썼다. 지쿠잔과 슌스이는 남옥 및 원중거 등과 직접 접촉하지 않아서인지 그 이름을 사행록에서 확인할 수 없지만, 필담창화집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통신사와의 연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통신사와 일본인 간의 직접적인 접촉과 더불어 통신사의 방일을 매개로 한 일본인들 사이의 인적 관계 발생에도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로도와 통신사 사이에는 학술에 관한 논의도 오고 갔다. 로도는 오행설에 대한 의문이 있다며 원중거에게 질문했다(<승차록> 2월 12일). 이에 원중거는 明儒가 程朱의 설을 배척하기 위해 말한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며 로도를 비판하고 음양오행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원중거가 쓴 설명을 읽고 로도는 '예전부터 徂徠學과 명유의

방법론 및 그들의 유행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원중거 선생을 만나 대화를 하고 주자학의 올바름에 확신을 얻었다. 이 필담을 베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이처럼 로도는 원중거의 말에는 일본 儒者들에게 徂徠學과 명유의 문제점, 주자학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로도와 통신사의 접촉에 대해 일본 측 사료에서는 후세의 전기인 『선철총담후편(先哲叢談後編)』에 기록되어 있다. 로도는 통신사와의 접촉을 계기로 이전부터 품고 있던 주자학의 올바름, 유행하고 있는 徂徠學의 오류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로도는 친구인 니시아마 셋사이(1735~99)에게도 통신사와의 면회를 권유하였다. 통신사는 지쿠젠(筑前) 지방에서 에도 사이에 있는 경유지에서 수백 명의 일본인을 접견하였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徂徠學이 유행하고 있었다. 필담에서는 왕세정(王世貞)·이반룡(李攀龍)의 고문사(古文辭)와 훈고기송(記誥記誦)에 관한 화제뿐이었고, 수정(修省)의 논의에 이르는 자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중 셋사이가 통신사의 객관에서 '지경궁리(持敬工夫)'에 대해 물었다. 원중거는 그러한 셋사이를 특이하게 생각해 '불자망어시(不自妄語始)'(『소학』)를 언급했더니, 셋사이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셋사이는 훗날 '이단(異端)'이라는 제목의 글(1772년)에서 통신사와의 접촉을 다음과 같이 술회한다. 과거 원중거는 '이단지설'은 '정리(正理)를 어기고 신기(新奇)를 숭상하는' 설이라고 했다. 이 설을 음미해 보면, '정리'란 요·순·우 삼왕이 수수(授受)하고 공자·맹자·이정·주희가 전하는 道이며, 이를 따르는 것을 '정학', 어기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점에 확신을 얻었다. 명나라의 이반룡이나 徂徠學의 학설이 사람들을 현혹하는 것이 심각하므로 학자는 적종(適從)할 바를 택하고 사(邪)를 다스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원중거가 이런 문제를 각성시켜 준 것이라고 셋사이는 술회한다.

이상에서 확인한 로도와 셋사이의 발언은 후세에 쓰인 사료에 근거한다. 그러나 통신사 측의 사료에 나타나는 상황과도 대조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은 확실할 것이다. ①통신사는 에도까지의 길가에서 수백 명의 일본인을 만났다. ②당시의 일본에서는 徂徠學과 같은 '이단'의 학설이 유행하는 풍조가 있었고, 그러한 풍조나 徂徠學의 방법론에 비판적인 로도나 셋사이와 같은 학자가 있었다. ③통신사는 일본인들에게 거경·궁리를 설파하고 있었다. 이상을 감안하면 원중거의 언설은 '정학'을 주장하는 로도와 셋사이의 사상 형성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된 측면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통신사의 일본 방문은 후일의 '이학 금지' 운동과 어떻게 관련되어 가는 것일까.

### 3. 18세기 후기의 학술 동향과 조일 관계

1750년대 무렵부터 서일본을 중심으로 徂徠學에 대한 비판이 나타났다[라이 기이치[賴祺一] 1986, 쓰지모토 마사시 1990]. 나바 로도·라이 슌스이·니시야마 셋사이·비토 지슈(尾藤二洲) 등 '정학파' 儒者들은 徂徠學의 유행에 대해 자신의 심신의 수양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공리'를 추구하여 '도의'를 경시하고 시문에 경도하는 퇴폐한 풍조로 간주하여 비판하였다. 예를 들면 로도는 『학문원류(學問源流)』(1769~76경)에서 徂徠學 및 그것이 입각하고 있는 明儒의 방법론, 徂徠學이 유행하고 있는 풍조를 '徂徠學에 경도되는 사람들은 시문을 지어 동료들끼리 동호의 차원에 그치고, 경서(經義)의 설이나 천하의 일일까지 깊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자학 학습에 의의가 있다'고 비판한다. 이 로도의 비판은 원중거와의 대화 내용과도 일맥상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1764년도 통신사 사문사(四文士)는 일본에 와서 오로지 『소학』을 설파하고 주자학의 居敬을 실천하고 있었다. 또한 통신사의 방일은 통신사와 일본인의 접촉뿐만 아니라 통신사를 매개로 일본인들 사이의 인적 관계도 발생시켰다. 1764년 통신사는 18세기 후기의 일본에서 주자학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조류의 한 요소라는 관점에서 자리매김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정학파 儒者들은 학문에 도덕적인 사회질서 규범을 확립하는 근본 원리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면서 주자학을 '정학'으로 재흥하려 하였다. 다만 정학파는 徂徠學이 도덕과 수신을 경시하는 점은 비판했지만, 徂徠學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통합하기 위한 포괄적 원리를 '道'에서 구하는 점은 계승하고 학문의 사회적 실천을 중시했다[쓰지모토 마사시 1990]. 이들은 주자학을 막번제 질서 재편의 규범 원리인 '정학(正學)'으로 규정하고, '치인(治人)'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수기(修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동향 속에서, 셋사이는 훗날 주자학을 기축으로 하는 학제 개혁을 시바노 리쓰잔(柴野栗山, 1736~1807)에게 제언했다. 그리고 리쓰잔이 이를 '上書'로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에게 제시하여 사다노부가 '이학 금지'를 발표하게 된다(1790년). 사다노부는 주자학을 '정학'으로서 확정하고, 그 이념과 권위로 사회통합론이나 교화론, 무사교육론을 간세이 개혁 속에 포함하여 일정한 성과를 올렸다[쓰지모토 마사시 1990]. 셋사이 본인은 막부의 학제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그를 대신하여 시바노 리쓰잔·오카다 간센(岡田寒泉)·비토 지슈·고가 세이리(古賀精里, 1750~1817) 등이 막부 儒者로 초빙되어 쇼헤이코(昌平黌)에서 주자학에 기반한 교육

을 실시했다. 고가 세이리는 1811년 통신사와의 필담·창화에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는 청년기인 1760~70년대에 기나이(畿内)에서의 인간관계를 통해 주자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1780년대에는 사가 번(佐賀藩)에서 주자학을 기축으로 한 학제 개혁을 실시했다. 또한 각 번에서도 주자학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실천되었다. 통신사와의 접촉 경험자로는 나바 로도(1779년에 도쿠시마 번[德島藩]에 부임), 아쿠타가와 모토스미(1788년에 사바에 번[鯖江藩, 현 후쿠이 현]에 부임), 시부이 다이시쓰(사쿠라 번[佐倉藩, 현 치바현]) 등이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이학 금지'와 같은 시기에 역지통신 방침이 나왔다(1791년 5월). 역지통신의 제안자 중 한 사람으로 나카이 지쿠잔이 있다. 통설에서는 그가 『草茅危言』에서 진구황후(神功皇后)의 '삼한정벌'을 언급한 것을 들어 역지통신의 배경으로 그의 '멸시관'을 읽어내고 있다. 이러한 이해에도 일리가 있지만, 지쿠잔은 이 책에서 통신사와 무질서한 필담·창화를 하는 일본인들도 비판하고 있다. 그는 일본의 학문 수준이 낮으면 조선으로부터 경시를 당하는 것이 문제이므로, 적절한 인재를 통신사와 접견시키는 것이 '선린의 미의(善隣ノ美意)'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지쿠잔의 문제의식에는 정학파 儒者들이나 통신사 원중거 등과도 공통되는 측면이 엿보인다.

이상에서 언급한 점들에 주목하면, 막부는 주자학을 기축으로 하여 조선에 사상적 입각점을 접근시켜 나가는 동향 속에서 1811년도 통신사에 대한 응대를 위해 일본 측 사절단을 쓰시마에 파견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학 금지'를 거친 1811년 시점에서 주자학을 국시로 삼고 있는 입장인 조선과의 접촉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 4. 1811년 통신사와 일본 사절의 교류

막부는 1811년 통신사를 쓰시마에서 맞이하면서 기존의 응접 형태를 문제 삼았다. 그래서 필담·창화에 종사하는 인원을 엄선하여 다이가쿠노카미(大學頭) 하야시 쯩사이(林述齋, 1768~1841)와 그의 제자이자 가케가와 번(掛川藩)의 儒者 마쓰자키 고도(松崎慊黨, 1774~1844), 쇼헤이코의 儒官 고가 세이리와 그의 제자인 구사바 하이센(草場珮川, 1787~1867, 후에 사가 번 儒者)·히구치 시센(樋口溜川, 1785~1865, 후에 아이즈 번[會津藩] 儒者) 등을 쓰시마에 파견하였다. 필담·창화의 내용을 보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침략 후 우호를 맺은 지 200년이 되었다는 인식 아래, 지

난 사행 때 주고받은 시문과 최근 조선·일본·청의 학술 동향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의 사행을 바탕으로 '이학 금지'에 따른 학제 개혁과 주자학 중시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사토 잇사이(佐藤一齋, 1772~1859)는 스승인 다이가쿠노카미 하야시 줏사이가 통신사 영접을 위해 쓰시마로 가게 되자 글을 보냈다. 이 가운데 잇사이는 기존의 에도 빙례와 이번 쓰시마 빙례를 비교하고 있다. 기존의 예식에서는 일본 각지의 문물을 통해 사절에 대해 '국체'(일본의 체면)를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쓰시마에서 빙례를 거행하게 되어 일본 각지의 문물을 보여줄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사절을 '변방'에 가두어 두면 오히려 일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응접하는 인재에게 조선을 회유시킬 만한 실력이 있으면 '국체'를 보여줄 수 있다. 즉 잇사이는 '변방'에서 일본의 우위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접견하는 인물이 학문의 역량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고가 세이리와 구사바 하이센 등은 이전에 파견된 통신사와의 필담집 간본에 보이는 오류를 고치기 위해 통신사의 응접을 마친 후, 이번 필담을 정리한 『대례여조(對禮余藻)』를 편찬하였다. 세이리의 셋째 아들 고가 도안(古賀洞庵, 1788~1847)이 그 발문을 썼다(1813년). 도안은 세이리 등에게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종래의 교제에 대한 반성을 전제로,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자신의 우위성을 과시하고 상대의 경쟁심도 부추기는 '호승지심(好勝之心)'이 아니라, 예로써 자신의 자세를 낮추는 '빈주이양지례(賓主揖讓之禮)'를 취했다. 그 때문에 필담 중에는 자존심이나 경쟁의식에 찬 시작(詩作)이 없어졌고, 조선 측도 감복하여 일본 측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게 되었다고. 통신사를 실제로 접견한 구사바 하이센은 『津島日記』 속에서 쓰시마에서의 견문, 통신사와의 접촉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1811년 6월 26일). 하이센은 통신사와 면회하기 전에 앞서 행해진 통신사와의 필담집을 읽고 기존의 빙례 양상에 대한 지식을 얻었다. 하이센은 지금까지 통신사를 응접할 때는 조일 쌍방 모두 자신의 문화적 우위성을 보이려고 하여 서로 흥을 깨는 결과를 낳았다고 파악했다. 일본 측은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나 오규 소라이(荻生徂徠)의 문하들이 일본의 광휘를 보여주려 했으나 조선 측으로부터는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한편, 조선 측도 이퇴계나 이율곡 등 조선 주자학의 논의를 들면서 일본 측에 논쟁을 걸어서 이토 진사이(伊藤仁齋)나 오규 소라이의 학설을 비난하고, 일본의 유학자들이 '주자의 정대한 학술에 따르지 않고 사로(邪路)에서 헤맨다(朱子正大ノ學術ニ由ラズシテ、邪路ニ迷ヘル)'라며 비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야시 줏사이와 고가 세이리의 학덕을 통신사가 높이 평가했

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세이리가 『대학찬석(大學纂積)』 등의 저술을 보여주자 '우리나라(=일본)의 학풍이 바르게 돌아왔다(我邦學風ノ正シキニ歸)'라며 조선 측이 칭찬했다고 기술한다. 실제로 세이리 필담한 통신사 정사 서기 김선신(金善臣)은 '학술'을 기준으로 세이리를 '충신박아군자(忠信博雅君子)'로 평가했다(『淸山島遊錄』 권8).

이러한 배경으로는 조선과 접할 때의 의식 변화를 지적할 수 있다. 과거의 필담을 보면 국가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논의하여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사절의 눈치를 보는 일본인의 천박함이 통신사들의 경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세이리는 '국가의 은신(恩信)으로 대빈을 예대(國家恩信ヲ以テ、大賓ヲ禮待)' 한다는 본래의 의도에 따라 예전처럼 '주객이 서로 날을 세우는 불손한 광경(主客乖角不遜ノ光景)'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구사바 하이센 등을 주도면밀하게 준비시키고 있었다. 구사바 하이센 등은 필담의 예상 문답집을 작성하여 '前古를 거울삼아(前古ヲ鑑ミ)'서 '뒷일을 경계하고 길이 文翰·응접의 규칙(後來ヲ戒テ、永ク文翰・應接ノ規則)'을 세웠다. 그 결과 '잘 그들의 환심을 사서 주인이 격식을 깨고 아랫사람과 교류(下交)하고 상대편 문인들도 곧바로 달려와 탄원하며 만나기를 갈망하는 일(ヨク彼ノ歡心ヲ得テ、使主格ヲ破テ下交シ、彼方ノ文人ナド直チニ走り、訴ヘテ、會晤センコトヲ渴望セシユト)'이 있었다.

이번에 통신사 측이 세이리 등을 높이 평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과거 나가키 지쿠잔이 문제로 삼았던 인선 과제를 극복한 셈이다. 또한 조선 입장에서는 이번에 막부 유학자가 '정학'을 표방한 것은 지난 통신사의 원증거 등이 기대했던, 일본에서의 주자학의 제대로 실현된 것으로 비추어진 면도 있을 것이다.

이 장에서 언급한 일본 학자들은 전체적으로 일본의 우위성을 전제·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조선을 예대하고 학문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는 인식도 갖고 있다. 그들은 조선을 가볍게 취급한다면 오히려 일본의 위신을 보여줄 수 없다고 이해하고 있다. 근세 후기의 일본에서는 조선과 대치하는 데 있어 학문적 소양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1811년 통신사와의 접촉은 '이학 금지'를 거친 막부의 공식 학문소(昌平坂學問所) 유학자들이 활약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을 것이다.

## 5. 맺으며

근세 후기 통신사와 일본인 사이의 학술교류가 갖는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1764년도 통신사는 18세기 후기 일본에서 주자학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조류의 한 요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1811년도 통신사에 대한 응접은 '이학 금지'를 실시한 후에 학문적 소양을 갖춘 인재가 활약하는 장이 되었다. '이학 금지'를 매개로 주자학의 요소가 현현하게 되었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1764년 통신사와 1811년 통신사 사이에는 이처럼 연속성이 부각된다. 또한 19세기 초의 일본 지식인은 1811년도 통신사를 1764년 통신사로부터의 연장선상으로 파악했고, 또한 1811년 이후에도 통신사가 일본을 방문하여 조선과의 관계가 계속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구미 열강의 접근으로 인한 정세 변화에 따라 조일 관계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고 해도 그 중요성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19세기에도 통신사 초빙 계획이 있었고[池內敏 2006], 에도막부 말기의 對 구미 외교 의례를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는 통신사의 외교 의례가 참조되고 있었다[사노 마유코(佐野眞由子) 2016].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811년 이후 통신사와의 접촉은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메이지유신을 맞이한다.

다만 결과가 아닌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 흥미로운 논점이 떠오른다. 예를 들면 1866년 병인양요를 중개하기 위해 도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喜) 정권은 막부 사절을 조선에 파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듬해 막부 사절의 부사로는 고가 세이리의 손자 고가 긴도(古賀謹黨)가 발탁된다. 긴도는 조선과의 절충에 즈음하여 '文筆之人'이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811년 통신사와의 교류가 있었던 구사바 하이센의 조선과의 옛 인연을 이용하려 했다(『草場船山日記』 1867년 4월 14일·17일). 그러나 곧 막부가 무너지면서 사절 파견 계획은 자연스럽게 소멸하였다. 하지만 막부 말기 조일 관계의 구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1811년 통신사 접촉 경험자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통신사가 거의 파견되지 않게 되는 시기의 조일 관계에 대해, 조선에 대한 우월의식과의 관련성에도 주의하면서 관계 구축의 모색 과정을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

(번역문 감수: 이형주)

## < 주요 참고문헌 >

### 【史料】

荒木見悟監修・三好嘉子校註『草場船山日記』( 文献出版、1997年 )、草場珮川『對禮余藻』( 相良亨・頼惟勤・戸川芳郎・日野龍夫編『近世儒家文集集成15 精里全書』ぺりかん社、1996年 )、草場珮川『津島日記』( 西日本文化協會、1978年 )、金善臣『清山島遊録』大韓民國國立中央図書館、那波魯黨『學問源流』( 岸上操編『少年必読日本文庫』6、博文館、1891年 )、中井竹山『草茅危言』( 瀧本誠一編『日本經濟叢書』16、日本經濟叢書刊行會、1915年 )、南玉『日觀記』大韓民國國史編纂委員會、西山拙齋「異端」( 關儀一郎編『日本儒林叢書 史伝書簡部』1928年 )、松村操編『近世先哲叢談』上( 1880年 )、佐藤一斎「述齋林公が津島に赴いて韓使を迎接するを送り奉るの序」( 岡田武彦監修『佐藤一斎全集』2、明德出版社、1991年 )、澁井太室『品川一燈』國立公文書館内閣文庫、元重擧『乗槎録』高麗大學校六黨文庫

### 【研究文献】

奈良勝司『明治維新と世界認識体系』( 有志舎、2010年 )、藍弘岳『漢文圏における荻生徂徠』( 東京大學出版會、2018年 )、頼祺一『近世後期朱子學派の研究』( 溪水社、1986年 )、眞壁仁『徳川後期の學問と政治』( 名古屋大學出版會、2007年 )、佐野眞由子『幕末外交儀禮の研究』( 思文閣出版、2016年 )、李元植『朝鮮通信使の研究』( 思文閣出版、1997年 )、池内敏『大君外交と「武威」』( 名古屋大學出版會、2006年 )、辻本雅史『近世教育思想史の研究』( 思文閣出版、1990年 )、河宇鳳『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혜안、2006年 )、夫馬進『朝鮮燕行使と朝鮮通信使』( 名古屋大學出版會、2015年 )

마츠모토 토모야(松本智也),  
近世後期の通信使と日本人との學術交流—“寛政異學の禁”  
を媒介に, 토론문

이상규(李尙奎, 국사편찬위원회)

(1) 연구 의의 : 종래 부정적으로 평가되어 왔던 1790년의 「寛政異學의 금지」를 매개로 하여, 1764·1811년 2차례의 통신사와 일본인 문사 간의 교류 중에 주자학의 道德 修身의 요소가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검토하고자 한 논고이다. 통신사와 접촉 경험이 이미 있는 문문사의 경력에 유의하였다. 1811년 통신사를 교류의 종착역으로 생각하지 않고 19세기의 통신사의 교빙 시도, 1866년 병인양요 이후 토쿠가와 요시노부(徳川慶熙)이 막부 파견 시도까지 확장하여 전망하고자 하였다.

18~19세기 통신사 외교와 쓰시마번의 관계를 文事라는 관점으로 저술한 바 있는 신진기예의 연구자이기에 그에 맞는 발랄하고 정교한 발언이 요구되지만, 이 분야의 문외한으로서 외피적인 의문점이나 제안을 하는 데 그쳤다.

(2) 질문

○ 2쪽 아래, 1748년 통신사가 일본에서 오규 소라이 학(學)의 유행을 목격하고 점차 조선의 학자들이 소라이 학에 관심을 보인 시기는 언제부터인가. 바로 1764년 통신사 때에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그 이전부터 조선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던 것인가. 1748년 통신사의 자제군관인 홍경해(洪景海)가 古學派 유학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하고 그 저술을 본 후에 평가를 내렸다고 하는데(河宇鳳 해제, 『국역 隨槎日錄』, 보고서, 2018년, 16쪽), 필담창화록에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는가.

○ 4~5쪽, 나와 로도(那波魯堂), 니시아야 셋사이(西山拙齋)는 접촉한 書記 원중거 이외에 같은 서기 成大中, 金仁謙, 제술관 南玉 등은 소라이 학에 관하여 의견 교환이 없었는가.

○ 8쪽, 토론자가 읽기에 1830년대 1850년대에 통신사 파견 시도가 있었을 때

쓰시마번(일본)에서 조일관계를 중시하는 부류만 있었는가, 또 그러한 시각에서 나온 저술이 있는가.

○ 9쪽, 1866년 丙寅洋擾 후에 토쿠가와 요시노부 정권이 막부 사절을 조선에 파견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사절의 副使를 코가 세리이(古賀精里)의 손자 코가 킨도(古賀謹堂)를 발탁한 점은 부연 설명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관련 자료 및 연구를 제시해 주면 좋겠다.

### (3) 제안

발표자의 2023년 저술에는 1864년 통신사, 1811년 통신사 때에 양국 문사 간의 의견 교환이 한국 자료(일본사행록)와 일본 자료에 공히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위 저술은 발표자와 동년배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동시기 연구자들의 업적까지도 반영되었다. 짧은 지면에 본인 연구를 아주 축약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유기적인 관계로 표현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표 시점에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생략된 내용 가운데도 맥락이 닿아 독자들이 평이하게 이해되도록 발표해 주면 좋을 것이다.



## 근대 전환기의 한일관계

· 막말· 메이지 초기의 왜관과 ‘관수일기’

발표- 현명철(한일관계사학회)

토론- 유채연(전북대)

· 조선국왕과 대마도주의 외교 선물 교환: 1864년 일본의 조문 사절과 축하 사절 사례

발표- 정성일(광주여대)

토론- 허지은(서강대)



# 막말·메이지 초기의 왜관과 『관수일기』

현명철(한일관계사학회)

---



# 막말·메이지 초기의 왜관과 『관수일기』

현명철(한일관계사학회)

## I. 머리말

발표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관수매일기(館守每日記)』의 효용(效用), 즉 『관수일기』를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는지 발표해 보라는 뜻으로 이해한다.

필자는 변혁기 한일관계사를 연속적으로 이해하고자 관심을 기울여왔다. 『동래부계록』에는 1869년에서 1873년까지 5년간 동래부사의 장계가 누락되지 않고 남아 있어 이 시기를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된다. 예전에 『동래부계록』을 검증하는 작업으로 1869년에서 1870년 윤시월까지의 『관수일기』를 읽고 번역 정리해 둔 바가 있었다. 그 후, 최근에는 왜관에 관한 관심에서 좀 더 긴 시기의 데이터가 필요해서 1865년부터의 기록을 번역 정리하고 있다.

본 발표는 약 6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귀납적으로 알 수 있는 왜관의 모습에 대한 보고이며, 『관수일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03대 관수 하라타쿠에몬[原宅右衛門]과 102대·104대 관수 반누이도노스케[番縫殿介]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당시 쓰시마번의 정치 상황이 어떠하였는지, 혹은 관수를 비롯 왜관에 파견된 무사들의 지위가 쓰시마번에서는 어떠한지 등은 정치사 전공자가 아닌 연구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102대 관수 반누이도노스케는 구미가시라[與頭]로 1863년 4월 17일 관수직을 인수하여 65년 6월11일 103대 관수 하라타쿠에몬에게 관수 임무를 인계하였다. 그 후에도 재판가(裁判家)에 머물면서 왜관에 남아있다가 통신사 연기(延期) 교섭을 마치고 1866년 1월 귀국하였다. 103대 관수 하라타쿠에몬[原宅右衛門] 역시 구미가시라[與頭]로 갑자의 변(甲子之變)<sup>1)</sup> 직후인 65년 1월 관수로 부임하

1) 갑자의 변이란, 쓰시마번에서 일어난 내홍을 말한다. 1864년 제1차 長州 토벌이 시작되자 쓰시마번의 무사들이 長州를 도와 막부에 저항하고자 하여 쓰시마번 내에 佐幕파와 攘夷파의 대립이 극심해졌다. 10월13일 勝井五八郎는 번주 宗義達을 옹립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尊王攘夷派를 탄압하였다. 그는 그해 11월 奥家老(石高1100石)가 되었고, 왜관에 그가 奥家老가 되었다는 소식이

라는 지시를 받았다. 지시를 받고 난 후에도 갑자의 변에 대한 반발과 오쿠가로[奥家老] 카쓰이 탄핵을 원하는 무사들의 농성을 지켜보았으며, 그야말로 좌막(佐幕)과 양이(攘夷)의 치열한 대립을 경험해야 하였다. 심지어 5월에는 카쓰이고하치로(勝井五八郎)의 살해 현장에 있었다<sup>2)</sup>. 뒤이어 가고시마(鹿兒島=薩摩)、야마구치(山口=長州)、후쿠오카(福岡=筑前)、산조(三条實美)등의 사자(使者)가 부중(府中)에 도착하여, 지난 1월에 쫓겨났던 히라다(平田大江)를 등용하여 내분을 종식시키라는 압력을 가하였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라(原宅右衛門)은 부중(府中)을 출발하여, 윤5월12일 왜관에 도착한 것이었다. 결국 번주 종의달(宗義達)은 히라다(平田)의 반역에 대한 의혹이 오해였다고 용서하고 그를 교대 가로(交代年寄中)로 등용하게 된다<sup>3)</sup>. 하라(原宅右衛門)는 6월11일 교대식을 거행한 후 관수 업무를 시작하여 1867년 4월1일 104대 관수에게 관수직을 인계하였다. 하라(原宅右衛門)와 전관수 반(番縫殿介)이 왜관에 함께 있었던 1865년 11월 히라다오에(平田大江)는 토벌되었고 그 아들은 절복(切腹), 가문은 단절에 처해졌다. 그 외 존왕양이(尊王攘夷)에 물들었던 많은 무사가 처벌되어 정쟁은 쓰시마에 깊은 상처만 남겼다. 많은 젊은 무사가 번을 떠났으며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처하게 되었다.

왜 이런 내홍이 발생하였던 것일까. 쓰시마번에서 일어난 좌막(佐幕)과 양이(攘夷)의 투쟁으로 보이는 정쟁은 1862년 9월 말일 맺어진 쓰시마 세자 젠노조(善之允)와 조슈(長州)와의 동맹에서 비롯된다. 이 동맹으로 1862년 12월 25일, 세자는 종의달(宗義達)의 이름으로 새로운 번주의 자리에 오르게 되며, 종의화(宗義和)는 은거하였다. 1863년 5월, 10만석의 연조에 해당하는 3만석이라는 거액의 원조를 매년 얻게 된 것은 친조슈(親長州) 양이정권의 쾌거였지만, 여론에 몰려 결정한 것으로 막부 관료의 심기를 건드렸으며, 일본 내부의 정쟁에 쓰시마가 말려드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1864년 막부의 조슈(長州) 정벌과 막부의 원조 중단 지시는, 원조가 절실하였던 쓰시마의 내분을 초래하기 충분하였던 것이었다<sup>4)</sup>.

전관수 반(番縫殿介)이 귀국하였던 1866년은 조약칙허의 소식이 전해지고 해외 도항이 허용되어 나가사키를 통해 각 번이 무기수입에 열중하였던 상황으로, ‘양이전

전해진 것은 1865년 1월4일이였다.

- 2) 『対馬藩庁記録』 5월2일자. 당시 함께 있었던 與頭로는 浅井求馬、原宅右衛門、平田主殿、鈴木園母였다. 축시경에 勝井는 살해되었다. 이 소식은 바로 長州様の 使者에게 알렸고, 三条様の 사자와 回天隊에는 表御目付 寺崎直右衛門과 長屋忠助를 보내어 알렸다.
- 3) 『관수일기』를 보면 平田가 반역의 모의가 있어서 가로직에서 해임되었다고 알려진 것이 1865년 2월 27일, 交代年寄中이 되었다고 전해진 것이 1865년 8월 21일이다.
- 4) 여기에 대해서는 출처 『근대 변혁기 한일관계사 연구』(경인문화사, 2021년) 제1부, 3장 「쓰시마번 양이정권의 성립배경과 과정」 및 4장 「막부말기의 정한론과 쓰시마」에 상술하였다.

쟁'을 울부짖던 시대가 지나가고 그야말로 '전국시대'가 도래하는 분위기였다. 귀국한 그는 구미가시라[與頭]에 복직하였다. 그러나 귀국한 지 8개월만인 66년 9월 그에게 왜관 관수로 다시 부임하라는 인사 명령이 내렸다. 그해 왜관에서 백중절 고관참예 후, 오인통사와 소통사의 패싸움이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의 출발은 연기되어 다음해 1867년 3월 27일 왜관에 도착한다. 이는 관수 하라[原宅右衛門]의 경질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파견이 연기되는 사이에 12월에는 조선에서 병인양요를 알리는 서한이 도착하였고, 막부의 외교 일원화 정책과 이정암 윤번제의 폐지가 공포되었다.

104대 재임관수 반[番縫殿介]은 1867년 4월1일 관수직을 인수하여 1870년 윤 10월 해임될 때까지 3년 7개월을 관수로 근무한다. 104대 재임관수 반[番縫殿介]이 관수로 부임한 이후의 주요 정치적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부임직후인 67년 4월에는 야도마사요시[八戶順叔]의 기사에 대한 질의서가 도착하였으며, 5월에는 강신대 차사가 도착하여 무기류의 교역을 주장하여 무기류 수출의 길을 열었다<sup>5)</sup>. 이는 전국시대의 도래에 맞추어 쓰시마가 부국강병을 추구한 것이었다고 파악된다. 왕정복고의 소식이 왜관에 알려진 것은 1868년에는 3월이었고, 12월에는 대수대차사가 도래하였다. 1869년에는 조선이 준 도장을 사용하지 않았기에 세견선의 접대는 정지되었고, 왜관에서 동래부사가 연대청에 나아간 횡수도 지난해 들어온 부특송사 다례연과 봉진연, 관수 다례연 3회에 불과하였다<sup>6)</sup>. 또한 6월에는 신정부의 지시에 따라 직제 개편이 이루어져 쓰시마에서 참정5명<sup>7)</sup>과 대영사 4명이 임명되었다고 전해졌으며, 9월에는 판적봉환의 소식이 전해져 부중(府中)이 이즈하라[巖原]로 개칭되었고 번주(藩主)가 번지사(藩知事)가 되었다는 소식이, 뒤이어 11월에는 번지사가 지방의 3만9천 석의 토지를 관할지로 받았다는 소식과 개혁을 조선에 알리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1870년에는 1월 조슈상인 아와야[粟屋彌]가 도착하여 무역을 모색하였는데 하급무사와 상인(町人)을 붙여주는 대우를 해야 했다. 2월에는 쓰시마번에 직제개편이 또 이루어져 집정직(3인)<sup>8)</sup>, 참정(3인)<sup>9)</sup>, 대영사(3인)이 임명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

5) 이로 1872년 2월 29일 울산 목도에 고의로 표류하여 정박한 배로 別求物種依約載來(대포3좌, 포탄300인(箇), 조총25병, 화약2500근, 환도30병)을 3월4일 전달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또 1873년 5월 조선이 대포 5좌를 구한 일이나, 그 외에도 화약을 구입한 사실 등이 사료에 나타난다.

6)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는 다례연과 봉진연시에 연대청에 나간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10회의 出宴이 이루어진다. 그 외에 대차가가 왔을 경우에는 추가된다. 참고로 1868년에는 12회 행사를 하였으며, 1870년에는 11회, 1871년에 13회 행사를 하였다.

7) 참정(參政)은 淺井求馬、平田佐賀之介(田代)、高瀬繁三郎、深見六郎、大島友之允(在京外) 였다.

8) 島雄益城、番建直人、古川太織가 執政職으로 임명되어 번정 일선에 임하게 됨.

9) 참정 : 淺井求馬、高瀬繁三郎、深見六郎、

편, 외무성 관리 사다[佐田白茅] 일행이 왜관에 도착하여 국서수리를 교섭하여 왜 조선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단한(單翰)으로 받아 귀국하였다. 10월에는 쓰시마도에 무역서가 설치되어 공사무역을 전관하게 되었음이 전해졌다. 아울러 금도왜를 폐지하므로 모두 귀국시키라는 대규모의 인원감축 명령이 내려왔다. 이로 말미암아 왜관은 혼란에 빠지게 된다.

무역서의 권대속(權大屬-江口広右衛門)이 수출입 관리를 담당하고, 그리고 무역서 소속(少屬-前川太兵衛)이 2대관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지만, 기존과 같은 입출항 수속이나 왜관 단속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부단히 왜관의 고충을 호소하던 관수 반[番縫殿介, 忠見, 高麗造]은 윤10월 파면된다. 그는 기존의 외교 무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메이지 정부는 기존의 외교 무역관계를 부정하여 외무성 관리를 파견할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수일기』를 읽으면서 기존의 예상과 달라서 흥미로웠던 것은 『관수일기』가 관수 업무 인수에서 관수 업무 인계까지의 기록이 아니라 관수의 임명에서 시작하여 귀국까지 기록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보여 흥미롭다<sup>10)</sup>.

『관수일기』에 주로 기록된 것은 선박의 입출항과정과 인원관리, 대차사 및 세건선 사절과 표차왜의 접대, 왜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왜관원에 대한 인사이동과 포상, 특정 사건에 대한 훈도와의 대담, 쓰시마에서 내려오는 지시와 쓰시마로 보내는 보고 내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기본적인 왜관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한다. 즉 II장에서는 『관수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왜관에서의 행사 즉, 신년의 모습, 2월 피안(彼岸)시 1주간의 구관 산소 성묘의 모습, 7월1일의 세가키(施餓鬼) 행사, 7월15일 백중(盂蘭盆)때 4일간의 구관 성묘, 8월 피안(彼岸)시 구관 성묘 모습, 그리고 개시에 대한 기록 등 왜관에서 행해진 관례적 행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왜관 구성원과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관수는 어떤 사람이 임명되는지, 도두금도왜(横目頭)와 1대관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관수의 부관격인 서역(書役)과 도금도왜에 해당하는 직책 등의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IV장에서는 접대 과정에서 기존의 규정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0) 예를 들면 102대 관수 番縫殿介의 마지막 기록인 『관수매일기468』은 1865년 5월부터 1866년 정월까지 기록인데, 6월11일까지의 기록이 공식 관수로서의 기록이며, 그 이후는 전관수 신분의 기록이다. 한편, 103대 관수 原宅右衛門의 첫 기록인 『관수일기369』는 1865년 정월부터 1865년 9월까지 기록이 있는데, 정월에서 6월11일까지의 기록은 관수로 부임하기까지의 과정이며, 6월11일 이후 9월말까지가 공식 관수로서의 기록이다.

## Ⅱ. 왜관에서의 연중행사

우선 『관수일기』를 읽다 보면, 왜관에서의 연중행사를 이해할 수 있다. 매년 왜관에서 행해지는 행사의 모습은 비슷하며, 몇 년의 기록을 보면 귀납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물론 이 일반화는 전 시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1860년대의 모습이라고 한정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특정한 해의 기록이 자세한 예도 있어서 이해가 쉽다. 전체적인 행사의 모습을 이해하면 『관수일기』를 읽을 때 속도가 붙을 것이다.

주요한 행사로는 신년행사, 피안(彼岸-춘사일, 추사일)때 구관 산소 참배, 세가키(施餓鬼) 행사, 백중(盂蘭盆)시 구관참배 행사, 그리고 개시의 모습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행사별로 정리해 보자.

### 1) 정월의 신년 행사

연초에는 신년행사가 있었다. 왜관에서는 매년 신년 행사로 신년하례식, 창고 개방식, 총포 사격대회, 조선 임관과의 신년 인사, 동향사 참배 등이 행해졌다.

우선 신년하례식의 모습을 보자. 정월 초하루, 새해 인사를 겸하여 관내 무사(在館侍中)들과 대관(町役)들이 관수 집무실에 모이면, 관수가 나아가 대면하여 인사를 나누었다. 그 후에 관수는 마루(板之間)에 모여 있었던 하급무사(組下御横目、下目付)들의 인사를 받았다. 옆방(次之間)에서는 도두금도왜(横目頭)가 관수에게 인사를 하고 나오는 무사들에게 인사를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정월 초이틀에는 창고 개방식(御蔵開き)과 신년 총포 사격 대회를 거행하였다. 창고개방식에는 관수와 서역이 근번통사를 거느리고 창고로 나아가 참여하였다. 서역(書役)이 먼저 축사를 하고 다음에 관수가 축사를 하는데 창고 담당은 3대관과 정대관(町代官)이었다. 銅出門인 경우는 정대관이 출문장(出門帳)을 들고 와 관수에게 결재를 받았다. 한편, 신년 총포 사격 대회는 도금도왜(大小姓御横目)가 담당하였는데 먼저 총쏘기 대회가 열렸고 다음에 활쏘기 대회가 열렸다. 관수가 관람하는 가운데 총포 훈련에는 10여명 정도, 활쏘기에도 10여명 정도가 참가하여 기량을 뽐내었다. 명단을 보면 양쪽 모두 참가한 자들도 있었다. 훈련이 끝난 다음에는 관수대청 옆방(次之間)에서 평가회를 열었다. 총쏘기 대회에서 총기가 폭발하여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정월 3일에는 조선 측과 인사를 나누었다.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군관사를 보내어 신년의 축하를 전해오면, 관수는 군관사에게 관례대로 술과 안주를 내어 접대하였다. 군관사를 보내준 것에 대한 답례로 관수는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그리고 임관(훈도 별차)에게 신년 인사를 전하기 위해 약당사(若黨使)<sup>11)</sup>를 임소인 성신당(誠信堂)에 보내었다.

정월4일, 동향사 수좌(首座)가 신년 부적(お守り)을 가지고 관수 집무실을 찾아오면, 관수는 이들을 맞아 대면하고 신년인사를 나누었다. 같은 날, 왜관의 일본인 통사(勤番通詞와 五人通詞)들이 성신당(임소)을 찾아가 임관에게 인사를 하고 한편 조선인 소통사들이 관수대청을 찾아 관수에게 신년 인사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임소를 찾아간 일본인 통사들은 임관을 동반하여 왜관으로 들어온다. 임관이 왜관으로 들어올 때에는 소통사가 먼저 관수에게 연락하였고, 임관(훈도, 별차, 관수차비관)은 대통사, 근번통사, 오인통사를 대동하고 관수 집무실을 찾아갔다. 관수는 통역(御重用通弁)과 부관(書役)을 데리고 나아가 이들을 만났다. 관수와 훈도는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이때 조선측은 쓰시마도주의 안부를 축하하는 인사를 건넸으며, 관수는 조선 조정의 안녕을 축하하는 인사를 건네었다. 관수와 임관의 면담이 끝나면, 관수는 술을 대접하였는데, 이 모습은 한일 외교 담당자들이 모인 신년하례식이었다.

정월5일은 관수가 동향사를 답방하여 헌금하고 불공을 드리고 동향사 지주와 인사를 나누었다.

이상은 1868년 1월의 『관수일기』를 통해 본 신년 왜관의 모습이다. 65년에서 70년까지 신년의 모습은 비슷했다. 69년에 2일 예정된 총포 사격훈련(鉄砲打初、射初)이 비로 말미암아 5일로 연기된 일이나, 1870년에는 임관이 사정이 있어서 하루 늦은 5일 관수를 찾았다는 점 등 사소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일이 관례를 벗어난 일이라고 기록되었기에 일정한 순서와 규칙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관수일기』가 사라진 1871년, 1872년에도 위와 같은 행사가 계속되었을까는 의심스럽다. 왜냐하면, 71년 원단은 1870년 10월에 도두금도왜를 비롯 금도왜(横目)가 전원 해임되어 귀국하였고, 외무성 관리 요시오카가 70년 윤10월 부임하여 실질적 관수 역할을 수행하였기 때문이다. 신관수는 아직 부임하지 않았다.

## 2) 2월의 피안(춘사일)과 8월의 피안(추사일)의 구관 성묘

피안(彼岸)이란 저세상의 영혼을 위로하는 불교행사로, 춘·추분 앞의 3일과 뒤

11) 약당(若黨)은 관수의 종자를 말한다. 종자를 보내었다는 뜻이다.

의 3일 합하여 7일간을 지칭한다. 조선은 이 기간에 왜관원들의 고관(古館) 성묘를 허락하였으며, 이를 춘사일(春社日)과 추사일(秋社日)이라고 불렀다.

구관 성묘는 큰 행사였다. 왜관 구성원들이 핑계로 수문과 설문을 벗어나 두모포까지 나아가 민가를 둘러볼 기회이기도 하였다. 아울러 조선인과의 접촉이나 설문을 벗어난 해방감에 몰래 길을 벗어나 술을 마시는 일도 발생하였다<sup>12)</sup>. 따라서 관수는 피안 2-3일 전에 피안에 고관 참배를 허락하니 패(札)를 소지하고 왕래하도록 하며 조선인들과 불상사가 없도록 주의하고 해가 지기 전에 귀관하라는 내용을 거듭 지시하고 있다. 이 지시는 관례대로 도두금도왜(橫目頭)를 통해서 관내 무사들에게, 1대관을 통해 대관소 관리들과 상인들(役下配下之面々)에게 알려진다. 도두금도왜는 성묘시 담당 감독(行規人)을 선발한다. 행규인으로는 금도왜(橫目) 2인과 하급무사(組下橫目) 2인이 고관 참여자가 있을 시 인솔하여 두모포 고관까지 다녀왔다. 행규인은 고관에 다녀 온 후, 관수에게 왕환(往還) 보고를 하였는데 이는 춘사일, 백중과 동일하였다. 1870년 왜관 금도왜가 축소되는 과정에 있었던 추사일에도 행규인이 금도왜 2인과 하급무사 2인이 담당하였다. 다만 나가지 않는 날이 많았다.

왜관의 일본인들이 고관을 참여할 때에는 조선측에서도 별차와 소통사, 부산진의 장나(將羅), 동래부의 별장(혹은 천총) 2명이 동원되어 위월남행(違越濫行)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었다.

『관수일기』의 기록이 없는 1871년과 72년의 피안(춘사일+추사일)의 모습은 『동래부계록』의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72년 8월의 추사일 기록에는

관수왜가 말하기를 쓰시마에서는 오늘 16일이 추사일이어서 이날을 비롯 7일간(고관을) 왕래하고자 한다고 훈도 안동준과 별차 현풍서가 수본(手本) 사본에 의거하여 보고하므로, 전례에 따라서 그 왕복을 허락하였습니다. 왜인들이 출입할 때에는 별차가 소통사를 이끌고 왕래하여 남행(濫行)이 없도록 하며, 전로(前路)의 두모포에는 각별하게 금호하도록 이관신칙(移關申飭)하였습니다. 부산진에서도 나장을 정하여 섞이지 않도록 하였으며, 동래부에서도 수성별장 김계학과 별무사별장 김성규를 보내어 금호하여 위월남행하지 못하도록 신칙(申飭)하였습니다.<sup>13)</sup>

12) 1865년 2월 彼岸(춘사일) 때에는 兪官取立役人 齋藤与市와 2대관의 하인3명, 別方徒士目付의 하인1명, 대통사가역의 하인1명, 근번통사의 하인1명 모두 7명에 대해 금족을 선고한 일이 있었다. 兪官取立役人 齋藤与一에게 내린 지시를 보면, “지난 25일 금족에 처한 것은 24일 고관 참여 후 돌아오다가 일부러 길을 벗어나 술에 취해 조선인과 말싸움을 벌였다고 들었기 때문이다. 낮은 신분도 아니고 첨관取立役人이라는 신분으로 양국의 법을 준수하지 못하였으므로 관중의 치욕이 되는 거동이다. 특별히 용서하여 금족을 풀어주지만 귀국을 명한다.”라고 하였다. 나머지는 평균7일간의 금족 처벌을 받고 용서하고 있다.

13) 館守倭言內弊邦憲書中今十六日爲秋社日是如右日爲始限七日往來事所告據訓導安東峻別差玄豐瑞等

라고 되어있다. 71년 춘사일과 추사일, 72년 춘사일의 기록도 비슷하다. 73년부터는 이러한 기록이 없다. 이는 대관소가 폐지된 이후에는 고관참예가 폐지된 것을 의미한다. 그 후 외관의 외무관료가 상인들의 요청으로 고관참예를 교섭하였지만, 복잡 문제가 제기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위 1872년 8월의 고관참예가 전통적 고관참예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되었다.

### 3) 7월 세가키(施餓鬼) 행사

세가키(施餓鬼)법회란, 아귀에게 음식을 베풀어 준다는 뜻으로, 연고가 없는 망자의 혼을 위로하여 독경과 공양을 베푸는 일을 말한다. 왜관에서는 7월1일 거행하였다. 왜관에서 세가키(施餓鬼) 행사는 무사들이 모두 동향사(東向寺)에 모여 행사를 하고 불공을 드렸음을 알 수 있다. 시아귀 법회 며칠전에 관수는 도두금도왜(橫目頭), 1대관, 대관방(代官方), 동향사(東向寺)에 지시를 내려 시아귀 법회를 준비하게 하였다.

세가키(施餓鬼) 당일엔, 도두금도왜(橫目頭)가 도금도왜(大小姓橫目)1인과 금도왜(橫目)2인을 거느리고 마의(麻衣)를 입고 묘시(卯時)에 동향사로 나가 질서를 유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관수가 관수서역(書役)과 관의(館醫)와 함께 행사에 참석하였으며, 하급무사(組下橫目) 2인은 하오리하카마(羽織袴)를 입고 동향사 현관 옆에 임시 초소(番所)를 만들어 그 곳에서 근무하였는데 반테[番手]의 사람들이 모두 모였다. 초소 근무자에게는 관수가 은1근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관수는 동향사에도 은을 헌금하였으며 이를 알려 무사들과 대관소의 정역(町役)들도 적절한 헌금을 하게 하였다. 이를 세가키료(施餓鬼料)라 불렀다. 1대관과 2대관은 마의(麻衣)를 입고 같은 묘시(卯時)에 무역 담당 관리(町役)들을 이끌고 동향사에 모였다. 행사가 거행되고 난 후 정역(町役)들과 상인들은 불공을 드렸다고 한다.

### 4) 7월의 백중절(盂蘭盆) 행사

7월 15일은 백중(百中)이다. 우란분절(盂蘭盆節)이라고도 한다. 이때는 앞의 2일과 뒤의 하루 합하여 4일간 고관참예가 허용되었다. 백중에는 신년 하례식과 마찬가지로 모두 관수대청에 모였다. 관수와 도두금도왜(橫目頭) 휘하의 무사들, 1대관 휘하의 정역(町役)들의 인사를 나누고, 뒤이어 관수는 거실(板之間)에서 하급무사들

手本寫有等以依前許其往來爲乎矣倭人等出入時別差率通事押領來往使不得濫行是遣前路豆毛浦良中各別禁護之意移關申飭而自本鎮定將羅禁雜是如已仍于亦自臣府發遣守城別將金啓學別武士別將金聖奎等眼同禁護毋使違越濫行之意另加申飭爲白乎於(72년 8월)

(組横目、下目付)의 인사를 받았고, 도두금도왜(横目頭)는 옆방(次之間)에서 관수에게 인사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신년하례식과 비슷하였다.

축사가 끝난 후, 고관 성묘를 위한 일행이 수문과 설문을 지나 두모포 묘지로 향하였다. 행규인은 춘사일, 추사일과 마찬가지로 금도왜(横目) 2인과 하급무사(組下横目) 2인이 담당하였으며, 귀관 후 왕환(往還)을 관수에게 보고하였다. 왜인들이 고관을 참여할 때에는 조선측에서도 별차와 소통사, 부산진의 장나(將羅), 동래부의 별장(혹은 천총) 2명이 감독에 동원되었음은 피안과 마찬가지로였다.

역시 70년 우란분 고관 참여까지는 『관수일기』에 기록되어 있고, 71년과 72년 우란분(백중절)에도 고관 참여가 이루어졌음을 『동래부계록』을 통해 알 수 있다.

1873년부터는 백중절 고관 참여의 모습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관수 교체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던 1866년 백중절 구관 성묘 후에 벌어진 패싸움과 그 처리에 대해 살펴보자.

#### <백중절 구관 성묘 후 벌어진 싸움과 처리>

1866년 7월 15일, 고관 참여후 돌아오는 길에 오인통사(五人通詞) 다카시게 이치지로(高繁市次郎), 카지야마 가이치(梶山嘉一), 야마다 세이지로(山田清次郎)와 뱃사공 분기치(文吉) 등 4인이 설문 앞 바닷가에서 술을 마셨다. 다카시게가 만취하여 소동을 벌이자 소통사 8인이 다가와 그만 설문 안으로 들어갈 것을 권하였다. 만취한 다카시게는 도리어 행패를 부리고 소통사 이대종과 말싸움이 벌어졌다. 만류하던 나머지 소통사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카시게는 이대종과 몸싸움을 하였다. 다카시게는 이대종을 구타하였고 옆에 있던 카지야마등도 가세하였다. 이대종은 다쳐서 도망하면서 구원을 호소하였고 이를 목격한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과 돌아온 소통사들이 몽둥이로 이들을 구타하였다. 이들이 설문 안으로 도망하는 데 돌맹이를 던졌으며 이들 4인은 겨우 몸을 피해 임소로 들어갔고 임소에서 싸움을 말려 상황이 종료된 사건이었다.

우선 임소에서는 다친 이대종과 일본인 4인을 치료하도록 조치하였다. 왜관에서 관수가 관의(館醫) 하시베(橋辺文安)를 임소로 보냈다. 아울러 금도왜들이 임소에 도착하여 다친 오인통사와 뱃사공을 조선측 군관과 함께 보호하였다. 마침 훈도와 별차는 동래부로 올라가 있어서 임소에 없었다. 관수는 소통사를 통해 훈도가 빨리 돌아오도록 요청하였다. 동래부사는 이 소식을 듣고 관련자들을 체포하였고 체포소식을

왜관에 알렸다. 무엇보다 다친 사람들에 대한 치료가 우선이라고 하고 치료 방법이 조선과 일본이 다르며 소통사 대종은 처자가 있으므로 집으로 보내어 자가에서 치료하도록 조치하고, 일본인 부상자는 임소에서 치료하기로 하였다. 동래부는 일본인 부상자를 치료하기 위해 인삼 14본을 비롯한 약재를 보내왔고 간병인으로 소통사 6인을 배당하였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였다.

고관참예를 이끌었던 금도왜는 관수에 죄를 청하였으나 관수는 이를 물리쳤다. 관수는 19일 다카시게, 카지야마(梶山嘉一), 야마다(山田清次郎)와 又吉 4인을 구금하고 쓰시마번청에 보고하였다. 쓰시마번청은 즉시 이들을 송환해 오도록 지시하였고 이들은 8월 23일 통사직을 박탈당하고 구금상태에서 귀국한다. 관수는 이 처벌 사실을 임관에게 설명하였다. 한편 동래부도 구타에 가담한 소통사 2인과 주민 11명을 엄벌에 처하고 이 처벌 사실을 관수에게 알렸다. 양측은 관계자를 모두 엄히 처벌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

애초 싸움을 벌인 소통사와 오인통사는 안면이 있었고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이었다. 훈도와 관수는 문화의 차이로 오해가 발생하였고 또 술을 먹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사건을 수습하고 있다. 이후로 성묘 시에 관리 감독이 더욱 엄격해졌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

## 5) 개시의 모습

왜관에서의 개시 무역은 보통 5일장으로 열렸다. 즉 3일과 8일이었다. 장이 열릴 때에는 훈도와 별차, 그리고 소통사들이 왜관에 들어왔으며, 왜관에서는 근번통사들이 개시대청에 출석하여 시장을 관리하였다. 그런데 변혁기(1865-1870)의 『관수일기』를 보면, 개시는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상적인 날짜에 열리는 시장을 예시(例市)라고 불렀고 예시가 열리지 못하여 대신 열리는 시장을 대시(代市), 특별히 열리는 시장을 별시(別市)라고 불렀다. 관수나 대차사가 떠날 때 열리는 시장을 치주시(馳走市)라고 하였다. 이들을 다 합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평균 10회 정도 열렸을 뿐이었다.

예정되었다가 취소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를 보면 이 시기에는 개시는 사무역 상인을 위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송사를 비롯하여 재판 무사들을 위한 것이었다. 이 사실은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다.<sup>14)</sup>

14) 관수(番縫殿介)의 마지막 상신.(1870년 윤10월)

一, … 元來朝市を始月六度之開市、商人中売買之為被設置候訳に無之、御送使を始在館大小之御役々

그러나 사무역을 진흥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음도 확인된다. 즉 초시에 관수와 상인이 만나는 모습이 보인다. 1869년에는 1월28일 초시에는 관수가 상인들을 만나는 모습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도중청(都中廳)과 관련하여 이번에 조선쪽에서 개혁(改革)을 하여 인원수를 8인으로 정하였으며, 전에 상역(商譯)들이 관수(館守)에게 새해 축하 인사를 하던 고례(古例)를 재흥(再興)할 것을 도중(都中)이 희망한다는 취지의 말을 직접 대면하였을 때 들었다.

간사관(幹事官) 겸1대관 가와모토구사에몬(川本九左衛門)이 오늘 처음으로 도중(都中)과 대면하였다. 도중(都中)들이 물화소(物貨所)에 모여서 3대관(三代官) 호리나 오스케(堀直助), 세물대관(細物代官) 하나다야베에(花田弥兵衛)와 함께 관수대청을 찾아왔다. 관수대청의 옆방(次之間)에서 茶와 담배와 과자를 내놓았다. 도중(都中)이 관수 자리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줄을 지어 앉고, 3대관과 세물대관, 그리고 통사(通詞)들은 남쪽 미닫이문(障子) 서쪽으로 앉았다. 부관(書役)과 관수통역(浦瀨最助)이 본座的 서쪽 통로에서 출석하여 인사를 하고 館守가 나올 것이라고 알렸다.

-, 관수가 하오리[羽織] 하카마[袴]를 입고 출석하여 두 번 절하고[二揖], 도중(都中)의 우두머리인 성범(聖範)이 통사 후쿠야마(福山傳五郎)를 통해서 “이번에 청중(廳中) 개혁으로 인원이 8인이 되었는데 모든 일이 잘 풀리도록 지도 바랍니다.”고 하여 관수도 “ 이번에 도중의 인원수가 정해졌으니 모두 열심히 노력하여 개시가 왕성해 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인사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전에는 도고상인들이 관수에게 새해 인사를 하였는데 언젠가 이 관습이 없어졌고, 1869년에 초시에 다시 생겼음을 알 수 있다. 도고 상인들은 개시대청에 있다가 물화소 앞에 모여서 3대관, 세물대관과 함께 관수대청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아울러 1870년에는 2월 4일에 초시 때에도, 도중들이 관수에게 찾아와 대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때도 도중들이 개시대청에서 물화소로 이동하여 3대관, 세물대관을 동반하여 관수대청으로 가서 옆방(次之間)에서 관수와 대면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개시 무역은 쇠퇴하고 개시는 제대로 열리지 않았지만, 사무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는 서로 간에 존재하였음을 알려준다. 71년 이후에도 개시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는 기록이 산견된다.

### III. 왜관원의 구성과 임무

전통체제 동요기 왜관 구성원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살펴보자. 이를 위해서는 『在國 每日記』의 인사명령 기술도 살펴봐야 한다. 관수, 도두금도왜(橫目頭), 1대관, 도금도왜, 2대관, 소금도왜(橫目), 3대관, 4대관, 町代官, 근번통사, 오인통사, 하급무사(組下橫目) 등이 왜관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동래부사례』 왜관 항목<sup>15)</sup>을 보면,

관수왜1인 : 관내의 일을 주관하고, 금도왜를 통솔하여 모든 왜인들을 糾察하여 마치 우리나라의 鎭將과 같다. 항상 왜관에 머무르며 2년에 교체한다. 반종왜3명(우리나라의 僱人), 종왜8명(우리나라의 奴子), 서기왜1인(우리나라의 冊室), 의왜 1인(우리나라의 審藥), 통사왜1인(우리나라의 譯官)을 거느린다.

#### 代官倭秩

1대관 1인 : 관내 공무역을 장악하며 書記 1인을 두고 徒倭 5명을 둔다.

별2대관1인 : 즉 1대관의 부관이다.

2대관 1인, 3대관3인 : 공미목을 담당한다.

#### 禁徒倭秩

都頭禁徒倭 1인, 都禁徒倭 2인, 별금도왜 4인, 중금도왜 1인 : 왜관 내의 禁飭이나 搜檢등의 일을 담당한다.

소금도왜 10인 : 우리나라의 部長과 같으며 원래는 定數가 없다.

書僧倭 1인 : 2년마다 교체하며 왕래 서한을 전관한다. 從倭 3명을 둔다.

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조선이 파악한 왜관 구성원이 『관수일기』에서 나타난 직책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1) 관수

반누이도노스케(番縫殿介)는 1863년 4월에서 1865년 6월까지 2년간 왜관에서 관수의 임무를 행하고 1866년 1월 쓰시마도에 돌아와 구미가시라(與頭-군지휘관) 자리에 복직하였다. 그의 뒤를 이어 1865년 왜관 관수로 부임한 하라타쿠에몬(原宅右衛門) 역시 구미가시라(與頭)였다. 與頭[구미가시라]란 직책은 쓰시마번에서 家老(=年

15) 『동래부사례』는 1867-1868년에 만들어져 1868년 윤5월에 발간되었다. 동래부의 상황과 재정 내역 및 여러 가지 사무 규례를 정리하여 수록한 책이다. [왜관]항목에는 왜관의 위치와 시설, 왜관 구성원, 개시와 조시, 8송사와 별차왜의 규정, 각 사신의 헌상물과 조선의 증급물 규정 등이 기록되어 있다.

寄) 바로 밑의 직책이었다. 가끔 오메츠키(大目付)가 승진하여 與頭 助勤을 맡게 되는 것을 봐서 알 수 있다. 구미가시라[與頭]는 260석 이상의 무사로 여두방(與頭方) 소속이며, 법령준수의 판단, 가중(家中)과 팔조(八組-弓, 鐵砲, 旗, 鑼, 道具 등 병대)를 지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왜관의 관수에게는 여두(與頭)로부터의 정보가 들어왔다. 주로 가로급과 여두(與頭)급의 인사이동에 대한 정보였으며, 이는 왜관 무사들에게 공지되었다. 관수가 여두(與頭-군지휘관)급에서 임명되었고, 조선에서는 진장(鎭將)으로 이해하였으니 적절한 외교적 대접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만호와 침절제사 사이의 지위로 이해하면 되겠다.

관수 밑에는 관수서역(書役)이 있는데 이를 서기왜라고 칭하였다고 보인다. 서역(書役)이라는 직책은 관수의 부관에 해당된다. 관수의 심복으로 일지를 작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수의 대리인으로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서역은 문서부(文書方)의 관리(目付)였다. 입출항의 경우, 관수가 왜관에 입항한 고위 무사들의 신고(인사)를 받고 서계와 명령서 등을 받아 두었다가 출항시 인사를 받고 내주는 반면에 하위 무사들은 서역(書役)에게 입출항 신고를 하고 서류를 맡기고 받았다. 메츠키(目付)이므로 조선의 입장에서는 ‘도금도왜’급이 되겠다. 의왜는 관의(館醫)를 말하며, 통사왜는 관수통역(御重用通弁)을 지칭한다.

## 2) 1대관과 요코메가시라(横目頭)

관수 바로 밑 주요 직책에는 1대관과 요코메가시라(横目頭 = 老頭)가 있다. 이들은 쓰시마번에서는 오메츠키(大目付-치안대장)급으로 1대관은 재정부(勘定奉行所) 소속으로 공무역을 책임지는 위치였고, 요코메가시라는 오메츠키가타(大目付方) 소속으로 왜관의 치안을 책임지는 위치였다.

1대관은 관수가 공석일 때에 관수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1대관이 잠시 공석일 때 관수가 1대관의 역할을 겸하는 경우를 보면, 관수 다음 직책이라 보아도 무리는 없다. 『관수일기』를 보면 ‘勘定奉行兼一代官大目付 安達土肥之亮’라는 직명과 이름이 나온다. 아다치(安達土肥之亮)는 1865년 2월 27일 왜관에 도착하여 102대 관수 番縫殿介와 함께 1대관으로 근무하였고, 103대 관수 原宅右衛門 임기 내내 같이 근무하였으며, 104대 관수 番縫殿介가 부임하여도 계속 같이 근무하다가 1869년 1월 가와모토[川本九左衛門]과 교대한 인물로 65년에서 69년까지 4년을 1대관으로 근무하였다. 가와모토는 1870년 윤10월 아오야마[靑山繁次郎]와 교대하였고, 아오야마는 바로 난바[難波安積]와 교대하였다. 『관수일기』를 보면, 통사를 차출할 일이 있을 경우, 관수는 1대관에게 지시하고 있다. 이는 통사중(通詞中)이 1대관의 지시를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선과의 외교 무역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대관은 표류민 송환을 책임지는 자리였다. 표류민이 도착하면 상륙시켜서 행규인의 감시하에 1대관에 보낸다. 1대관이(一代官家)에서 1대관이 표류민을 문정하고 이들을 데리고 관수대청으로 가게 된다. 통사들과 함께 별차가 관수 집무실에서 표류민을 인수하였다. 별차는 1대관에게 표류민을 인수하였다는 증서를 주었고 1대관은 이를 관수에게 건네주었다. 1대관은 공1대관, 별1대관으로 따로 존재하기도 하였고, 한 사람이 겸하여 근무하기도 하였는데, 65년에서 70년 사이에는 65년2월에서 65년 7월까지만 따로 존재하였고, 그 이후에는 한 사람이 근무하였다.

반면, 요코메가시라[横目頭]는 왜관의 치안을 책임지는 자리로 조선에서는 도두금도왜(都頭禁徒倭)라고 불렀고, 왜관에서는 노두(老頭)라고도 불렀다. 도두금도왜(横目頭)는 1865년 사이토[齋藤新助]가 근무하다가 1866년에는 마쓰오[松尾繁之介]로 교대되었고, 1867년에는 다케모리[竹森平右衛門]가, 1868년에는 오우라[大浦蔵之助], 1869년에는 시마즈이[島居織衛]가, 그리고 1869년 12월부터는 다카세[高瀬波衛]가 근무하여, 1년마다 교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다카세[高瀬波衛]는 1870년 10월 메이지 정부의 사족 정리에 따라 직을 잃고 귀국하며, 이후 왜관에는 도두금도왜는 물론 금도왜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 3) 메츠케(目付=도금도왜)와 금도왜

1대관과 요코메가시라(横目頭) 밑에 도금도왜와 중금도왜 그리고 소금도왜가 있었다. 도금도왜에 해당하는 직급으로는 오모테메츠케(表目付), 고카치메츠케(御徒士目付), 다이쇼세이메츠케(大小姓目付) 등이 있었고, 관수서역(館守書役)도 같은 급이라 보인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왜관에 도금도왜가 2인 있다고 하였다.

고카치메츠케(御徒士目付)는 하마가타(濱方)와 베쓰가타(別方)로 나뉘어 있었으며 濱方は 항구에 베쓰가카[別方]는 왜관 내부의 질서 특히 행사와 관련한 질서를 담당하였는데, 한 사람이 결원일 경우에는 겸임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뚜렷한 구분은 없었다고 보인다. 다이쇼세이메츠케(大小姓目付)는 1대관이 병중일 때 표류민 송환을 담당하였고, 신년 총포사격대회의 주관을 맡았다. 한편, 표류민을 호송해 오는 호송사의 경우에도 조선에서는 도금도왜라고 인정해 접대해 주었다. 즉 표차왜는 도금도왜로 대접받았으며, 우호를 실천하였기에 향접위관이 접대하였다.

중금도왜 1명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도금도왜 밑이므로 감찰(監察)이 아닐까 추론해 보니 대충 타당한 것 같았다.

그 밑에 소금도왜 10명(정해진 인원수가 없다)은 요코메(横目)를 의미한다고 보

면 타당하다. 소금도왜는 도금도왜의 지휘를 받고 둘로 나뉘어 입출항을 담당하는 하마가타(濱方)와 접대 의식 및 행사를 담당하는 베쓰가타(別方)로 나뉘었는데, 필요에 의해 교대되기도 하였고 임무가 뚜렷하게 분리되지는 않았다. 하마가타[濱方]는 하마가타고카치메쓰케[濱方御徒士目付] 휘하에서 입출항시의 선박의 관리를 담당하는 한편 조선과 쓰시마도를 오고 가는 선박의 치안(行規)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베쓰가타[別方] 역시 베쓰가타고카치메쓰케[別方御徒士目付]의 휘하에서 왜관에 조선인이 수리, 견물 개시 등으로 들어오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행사에 동원되었다. 조시, 초대면, 다레연, 조반, 중연석, 봉진연, 예단다레(御返翰) 등 모든 행사의 치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급무사로 소금도왜 밑에 시타메쓰케(下目付)와 구미시타요코메(組下横目)가 있었다. 이들은 성이 없었고, 입출항시 관수와 대면할 수 없어 서역(書役)에게 신고를 하고 서류(첨장)를 맡기거나 받았다.

#### 4) 대통사, 근번통사, 오인통사

통사는 조선과 무역을 담당하는 상인 가문의 자제중 조선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서 면허(免札)를 준다. 이 면허를 받으면 정식으로 어학생으로 인정받아 번(藩)에서 학비를 지원받는 학생이 된다. 이후 실력을 인정받아 오인통사(五人通詞)가 되며, 오인통사부터는 정식으로 통사(通詞)의 일원이 된 것으로 인정받고 급료와 수당을 받는다. 다음에 계고통사(稽古通詞)로 승진하게 되면 통사들을 교육시키고 근번통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가 근번(勤番)통사로 승진한다. 그 후 대통사(大通詞)로 승진한다. 대통사는 4대관 혹은 정(町)대관 등을 담당하기도 한다. 65-67년 정(町)대관을 근무한 나카노(中野許太郎)가 대통사 출신이었다.

관수의 통역을 중용통변(御重用通弁役)이라고 불렀다. 항상 관수의 임무를 임소에 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훈도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근번통사는 입출항시에 관수에게 직접 신고하고 대면하였기에 중급무사의 대우를 받았음을 알 수 있으며, 오인통사는 입출항시에 서역에게 신고하고 첨장을 맡기거나 견네받는 모습을 보면 하급무사의 대우를 받았다고 이해된다.

## IV. 왜관에서의 접대

1865-1870년 사이의 왜관에서의 접대는 기존 연구<sup>16)</sup>에서 언급하는 교린의 통과 변화된 것이 없는지 비교하면서 검토하고자 한다.

### 1) 일본 사신의 문정과 초대면

우선 입항의 절차와 문정에 대해 살펴보자. 횡령산 봉군이 쓰시마에서 건너온 선박을 발견하면, 동북쪽의 동래부, 동쪽의 좌수영, 서남쪽의 부산진으로 이를 알린다. 부산첨사는 즉시 초탐장을 보내어 확인하는데 초탐장으로는 두모포만호, 개운포만호, 제1전선장, 제2전선장이 임명되었다. 보통은 두모포만호와 개운포만호가 담당하였으며, 부산진의 전선장이 동원되는 경우는 화륜선이 도래하였을 경우에 보인다.

해상에서의 1차 문정이 끝나고, 문정선의 인도로 일본 선박이 선창에 도착하면 훈도와 별차는 문정을 행한다. 문정은 일단 노인(路引)을 확인하여 받고, 쓰시마에 별일이 있는지 여부를 묻고, 언제 출발하여 지금 도착하였는지의 과정을 살폈다. 다음으로는 사신의 성격, 입항한 사람들의 신분과 성명, 동행한 사람의 수 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받은 노인을 예조로 상송(上送)하였다. 한 예로 비선이 도착하였을 때의 기록을 보자.

왜 비선 1척이 도관(到館)하여 문정을 하니, 쓰시마에는 별일이 없다고 합니다. 두왜 1인, 격왜5인, 교대차 별금도왜3인, 하대왜3인 등이 노인(路引)과 관수왜에 보내는 사서(私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배 1척은 어제 사시(巳時)에 쓰시마도를 출발하여 물마루(水湄)에 이르자 바람이 나쁘고 날이 어두워 바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오는 오시(午時)에 도관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 배가 소지한 노인 1도를 상송합니다<sup>17)</sup>.

세견선인 경우에는 서계를 가지고 오므로 문정이 끝나면 별차와 通詞들이 남아

16) 심민정, 『조선후기 일본사신 왕래와 접대양상』 2015년, 부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7) 『동래부계록6』 1869년 3월3일자.

倭飛船一隻到館卽爲問情則島中別無他事而 頭倭一人格倭五名交代次別禁徒倭三人下代倭三名等持路引及館守倭了私書爲有矣 同倭等言內,俺等船一隻昨日巳時自馬島發船及到水湄風殘日暮洋中經夜今日午時到館是如爲乎等 以同飛船所持路引一度捧上上送事

서 서한의 사본을 작성한다. 이때 동향사와 관수 서역이 함께 하였다. 사본은 원본을 받아들여도 되는지 즉 다례연을 베풀어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한편, 왜관에서는 양역소의 금도왜(濱方横目)들이 선박의 도항증(切手)과 물송장과 화물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인원을 확인하여 상륙시키고 입항수속(御改め)을 진행하였다. 들어온 사람들은 신분제 따라 중급무사 이상은 관수에게 입항 신고를 하고 첨장(添狀)<sup>18)</sup>을 제출하였으며, 하급 무사들은 관수서역에게 신고하고 첨장을 제출하였다. 서계를 가지고 온 사신들의 경우에는 서한을 관수에게 맡기었다.

일본 사신을 접수한 후, 부산진에서는 별차를 보내어 사신들의 안부를 묻고 초대면의 날짜를 정하게 된다<sup>19)</sup>. 초대면의 경우 관례대로 별차가 근번통사, 오인통사를 대동하여 사자(使者)를 방문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대면식은 양측이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접위관의 도착 일자 및 사무에 관하여 간단한 담소를 하고 음식을 즐겼다고 한다. 초대면이 끝나면 使者와 통사들이 관수에게 초대면이 무사히 끝났음을 보고한다. 고위직인 경우 차비관이 따로 붙게 된다. 차비관은 양역을 대신하여 사신을 안내하고 잡다한 사무를 처리하였다<sup>20)</sup>.

## 2) 하선다례

하선다례는 조선측이 쓰시마에서 파견한 사신의 서계를 접수하고 향응을 베풀어 접대하는 공식 의례였다. 다례가 행해지게 되면 공식적으로 일본 사신에 대한 접대가 시작되었고 유관일수(留館日數)가 시작된다. 다례를 위해 동래부사와 부산첨사(표차사인 경우 향접위관, 대차사인 경우 경접위관) 일행은 왜관의 연향대청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왜관에서도 다례연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졌다. 위 다례를 안내하기 위해 별차가 근번통사와 오인통사를 동반하여 사자(使者)를 찾았고, 사자는 이를 관수에게 알렸다. 관수는 도두금도왜(横目頭)에게 연향대청까지의 행렬을 경호하는 행규인과 연석문 개폐를 담당하는 하급무사(組下横目)를 임명하도록 지시하고, 모든 일을 선격(先格)대로 조치하도록 대관방(代官方)에, 그리고 치안유지를 별방(別方)에 지시하였다.

당일날, 다례연에 제출할 서한을 받기 위해 사자 정관과 봉진이 관수 집무실로 출두하여 서한을 받아간다. 연향이 끝나고 난 다음, 행규인 요코메(横目) 2인과 구미

18) 사람을 파견하거나 물건을 보낼 때에 용무, 사용처 등을 적은 편지.

19) 그 이전에는 문안군관(問安軍官)을 파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865-70년 사이에는 별차가 그 일을 모두 담당하고 있다.

20) 이전에는 見舞通事라고 하였다. 뒤로 오게되면서 차비관이라는 명칭으로 통일된 것으로 보인다.

시타요코메(組下横目) 2인이 다녀왔다고 보고한다. 한편, 정대관(町代官), 근번통사와 오인통사, 그리고 사자(使者) 등이 연향대청에 다녀왔다고 관수에게 보고는 것을 보아 그들이 다례연에 참석한 사람들임을 파악할 수 있다. 연석문 개폐를 맡았던 구미시타요코메는 연석문을 개폐하였다고 관수에게 알렸다. 위는 연례 송사를 기준으로 살펴본 내용이며, 대차사나 관수, 재판의 경우는 송영행사가 있어서 조금 의례가 달라지기는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동일하였다.

한편, 동래부사가 왜관의 연대청을 찾을 때에는 군관사를 보내어 관수를 위로하는 것이 상례였다. 관수는 군관사를 간단하게 접대하였고, 답례로 약당사(若黨使)를 임소에 보내어 인사를 하는 것이 또한 상례였다. 다례연이 끝나면 바로 동래부사는 받은 서계와 별폭을 예조에 상송하였다.

### 3) 조반(早飯)

조반은 다례연이 끝난 후 바로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인 서관에서 훈도와 별차가 주체가 되어 치러지는 향응이라고 한다. 숙공조반식(熟供早飯式)이라고 하여 이틀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조반(早飯)은 일본 사신이 왜관에 머무는 동안 업무관계로 자주 접하게 될 실질적 외교 책임자의 향응이었다. 조반식이 끝나면 아침, 점심, 저녁이 시간에 맞추어 제공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식사 대신 일공(日供)으로 계산하여 접대 대신 물품이 제공되었다.

『관수일기』 1865년 이후의 기록에는 모두 하루에 끝나고 있으며, 서관 3대청에 서가 아니라 연향대청에서 행해졌음이 주목된다. 이는 조반시에 연석문 개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반 당일에 별차가 근번통사 오인통사를 동반하여 입관하고, 사자들과 함께 연대청으로 이동하여 조반식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조반이 끝나면 송사 일행이 조반이 끝났음을 알려왔고, 하급무사(組下横目)가 연석문 개폐를 관수에게 보고하였다.

### 4) 봉진연(下船宴)

봉진연이 다가오면 관수는 사카노시타[坂の下]와 대청(大廳)에 행규인을 정하고, 연석문 개폐 등 유의하도록 도두금도왜(横目頭)에, 모든 일이 전례대로 진행되도록 대관방(代官方)에, 그 뜻을 유의하도록 별방(別方御徒士目付)에 각각 편지로 지시하였다. ‘사카노시타[坂の下]’란 수문에서 객사에 이르는 길을 말한다.

봉진연 전날 별차는 봉진연을 안내하기 위해 근번통사와 오인통사와 동행하여 입관하여 使者를 방문하였다. 오인통사가 관수에게 별차가 입관하였음을 알렸고, 소

통사도 관수에게 별차가 입관하였음을 알렸음은 물론이다. 아울러 송사도 관수 집무실에 출두하여 내일 봉진연이 있음을 관수에게 알렸다.

봉진연 당일은 진상물건 간품과 숙박가 행해졌다. 이날은 도선주와 대관이 임관과 만나 연향대청에서 간품을 하고 봉표(封標)를 마치면 사신과 접대관원이 객사로 향하여 숙박례를 행하였다. 동래부사와 부산첨사(표차사인 경우 향접위관, 대차사인 경우 경접위관과 당상당하 차비관) 일행은 객사로 이동하였다가 숙박례를 마친 후, 연대청으로 이동하였다. 사절들은 연대청에서 조선이 베푸는 연회에 참석하였다. 1865년에서 1870년 사이에 봉진연은 하선다례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참석하였다. 혹 한 사람만이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둘다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봉진연을 연기하였다. 다례연과 봉진연은 하행(下行)으로 진행되지 않았다.

봉진연이 끝나면 행규인 금도왜(橫目) 2인과 하급무사(組下橫目) 2인이 다녀왔다고 관수에게 보고하였고, 정대관(町代官), 근번통사, 오인통사, 송사 정관인이 출두하여 봉진연이 무사히 끝났다고 보고하였음은 다례연과 같다. 연석문 개폐를 하급무사(組下橫目)가 보고하였다.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연회에 참석하였으므로 군관사를 보내어 위문을 하였고, 관수는 군관사를 접대하고 若黨使를 임소에 보내어 보내어 인사를 하였다.

##### 5) 예단다례(御返翰)

예단다례는 조선정부의 회답 서계를 일본측에 전달하는 의식이다. 일본측에서는 御返翰이라고 불렀다. 예단다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회답서계의 전달이었으므로 서계의 확인 및 봉인 과정은 매우 중요하였다. 따라서 예단다례일 이전에 회답서계(返翰)를 가지고 내려오는 차비관의 성명이 왜관에 알려지고, 회답서계의 내용이 미리 검토되었다. 예단다례 당일에는 送使 정관인과 함께 동향사 승려가 참석하여 의식을 행하였다. 의식이 끝나면 조선측에서 잔치상을 제공하였고, 일본측에서도 요리상을 준비해 답례하였다고 한다.

1865-1870년도의 기록을 보면 동래부사나 부산첨사는 참석하지 않고 임관만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즉 언제나 하행(下行)으로 진행하였다. 『관수일기』에는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병으로 하행으로 진행한다'고 되어 있지만 6년간 변함이 없는 것을 보면 이미 정례화되어 있다고 하겠다. 언제부터 하행이 관례화되었는지 궁금하다. 송사는 예단다례가 끝난 후 관수대청으로 출두하여 조선의 회답 서계를 관수에게 맡겼으며 정대관(町代官)이 별폭 입송에 관한 증서(書付)를 관수에게 제출하였다. 행사에

참석하였던 통사(通詞)와 동향사도 예단다례가 무사히 끝났다고 보고하였다.

#### 6) 상선연(出船宴)

상선연은 송사가 돌아가는 배에 승선하기 전에 치르는 마지막 연향이었다. 이를 출선연이라고도 하였다. 1865-1870년 사이에는 중연석과 상선연 역시 하행으로 거행되었으며, 연석문 개폐는 없었다. 상선연 역시 별차가 근번통사, 오인통사 등을 동반하여 들어와 날을 잡고 이를 관수에게 알렸다. 그런데 『동래부계록』을 보면 다음과 같이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 ○○송사왜 원역등의 상선연 설행을 감하여 건물(乾物)을 받기를 원하므로 그 원에 따라서 연수잡물을 본월 ○일, ○일 헤아려(點數) 모두 지급하였습시다<sup>21)</sup>.

1865년 이후에는 실제 연향이 이루어지지 않고 연수잡물 비용을 지급한 것 같다.

## V. 맺음말

『관수일기』에 주로 기록된 것은 선박의 입출항과정과 인원관리, 사절과 표차왜의 접대과정, 왜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왜관원에 대한 인사이동과 포상, 특정 사건에 대한 훈도와의 대담, 쓰시마에서 내려오는 지시와 쓰시마로 보내는 보고 내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발표에서는 기본적인 왜관의 모습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머리말에서 관수 하라[原宅右衛門]과 반[番縫殿介] 부임시의 쓰시마번의 정치적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II장에서는 『관수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왜관에서의 행사 즉, 신년의 모습, 춘분 때 피안(彼岸)으로 1주간의 구관 산소 성묘의 모습, 7월1일의 세가키(施餓鬼) 행사, 7월15일 백중(盂蘭盆)때 구관 성묘, 8월 춘분 때 피안(彼岸)으로 구관 성묘 모습, 그리고 개시의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구관 성묘가 2월, 7월, 8월 정례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서 양국민 사이에 지인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흥미롭다. 여기서 언급되지 못한 밀무역 미수사건이나 왜관 잠입사건 등과 연결하여 흥미로운 분석이 가능할

21) ○○條○○送使倭員役等上船宴設行除良願受乾物是如乙仍于, 依其願同宴需雜物本月○日○日點數計給爲白有等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왜관 구성원과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수, 도두금도왜(橫目頭)와 1대관, 관수의 부관격인 서역(書役)과 도금도왜에 해당하는 직책, 중금도왜와 소금도왜에 대해 해당하는 명칭을 비정해 보았다.

IV장에서는 접대 과정을 살펴보았다. 접대 과정에 관한 이 시기(1865-1870)의 기록을 보면, 초대면 날짜를 잡는(日取り) 일을 문안군관이 아니라 별차가 담당하고 있는 점, 하선다례와 하선연에는 반드시 동래부사나 부산첨사 혹은 둘다 참석하고 있는 점, 반면에 예단다례와 상선연은 전부 하행으로 처리하여 임관이 담당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상선연시 연회를 베풀지 않고 연수잡물을 지급하고 있는 점도 지적할 수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이 기대되는 바이다.

# 막말·메이지 초기의 왜관과 『관수일기』

현명철(한일관계사학회)

## < 국문 요지 >

『관수일기』에 주로 기록된 것은 선박의 입출항과정과 인원관리, 사절과 표차왜의 접대과정, 왜관에서 이루어지는 행사, 왜관원에 대한 인사이동과 포상, 특정 사건에 대한 훈도와의 대담, 쓰시마에서 내려오는 지시와 쓰시마로 보내는 보고 내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본 발표는 1865-1870년의 약 6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귀납적으로 알 수 있는 왜관의 모습에 대한 보고이며, 아울러 『관수일기』를 읽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안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당시 대마번의 정치 상황이 어떠한지, 혹은 관수를 비롯 왜관에 파견된 무사들의 지위가 대마번에서는 어떠한지 등은 정치사 전공자가 아닌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하여 머리말에서 관수하라[原宅右衛門]와 반[番縫殿介] 부임시의 대마번의 정치적 상황을 간략히 설명하였다. II장에서는 『관수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왜관에서의 행사 즉, 신년의 모습, 춘분 때 피안(彼岸)으로 1주간의 구관 산소 성묘의 모습, 7월1일의 세가키(施餓鬼) 행사, 7월15일 백중(盂蘭盆)때 구관 성묘, 8월 추분 때 피안(彼岸)으로 구관 성묘 모습, 그리고 개시의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구관 성묘가 2월, 7월, 8월 정례적으로 행해지고 있어서 양국민 사이에 지인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에 대해 강조하고 싶다. 여기서 언급되지 못한 밀무역 미수사건이나 왜관 잠입사건 등과 연결하여 흥미로운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III장에서는 왜관 구성원과 그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관수, 도두금도왜(横目頭)와 1대관, 관수의 부관격인 서역(書役)과 도금도왜에 해당하는 직책, 중금도왜와 하금도왜에 대해 해당하는 명칭을 비정해 보았다. IV장에서는 접대 과정을 살펴보았다. 접대 과정에 관한 이 시기(1865-1870)의 기록을 보면, 초대면 날짜를 잡는(日取り) 일을 문안군관이 아니라 별차가 담당하고 있는 점, 하선다례와 하선연에는 반드시 동래부사나 부산첨사 혹은 둘다 참석하고 있는 점, 반면에 예단다례와

상선연은 전부 하행으로 처리하여 임관이 담당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 상선연(上船宴)시 연회를 베풀지 않고 연수잡물을 지급하고 있는 점도 지적할 수 있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지에 대한 전공자의 분석이 기대되는 바이다.

## <日本文 要旨>

『館守日記』に主に記録されたのは船舶の入出港過程と人員管理、使節と標差倭の接待過程、倭館で行われる行事、倭館員に対する人事移動と褒賞、特定事件に対する訓導との対談、対馬から降りてくる指示と対馬に送る報告内容などで多様に活用できる。

本発表は1865-1870年の約6年間のデータを通じて帰納的に分かる倭館の姿に対する報告であり、併せて『館守日記』を読もうとする人々に対する案内になればと思う。当時、対馬藩の政治状況がどうだったのか、あるいは関守をはじめ倭館に派遣された武士たちの地位が対馬藩ではどうなのかなどは政治史専攻者ではない読者たちには理解しにくい部分があると考えられる。そして、I章で館守の原宅右衛門と番縫殿介の赴任時の対馬藩の政治的状況を簡略に説明した。II章では、『館守日記』から分かる倭館における行事、すなわち新年の様子、春分の時の彼岸(彼岸)で1週間の旧館墓参りの様子、7月1日の施餓鬼の行事、7月15日の百中(盂蘭盆)の時に旧館墓参り、8月秋分の彼岸で旧館墓参りの様子、そして開市の状況などを調べた。特に旧館の墓参りが2月、7月、8月に定例的に行われているので、両国民の間に知人関係が形成される可能性について強調したい。ここで言及されなかった密貿易未遂事件や倭館潜入事件などと連結し、興味深い分析が可能だと考えられる。

次にIII章では倭館の構成員とその役割について見てみた。館守、都頭禁徒倭と1代官、書役と禁徒倭に該当する職責、中禁徒倭と下禁徒倭に対して該当する名称を比定してみた。第四章では接待の過程について考察した。接待過程に関するこの時期(1865-1870)の記録を見ると、初対面の日付を決める(日取り)ことを問安軍官ではなく、別差が担当している点、下船茶礼と下船宴には必ず東萊府使や釜山添使、あるいは両方とも参加している点、反面、礼単茶礼と上船宴は全て'下行'として処理し、任官が担当している点を浮き彫りにすることができる。上船宴の際、宴会を行わずに宴需雑物を支給している点も指摘できた。いつからこのように変わったのかに対する専攻者の分析が期待されるところだ。

# 현명철, 막말·메이지 초기의 왜관과 『관수일기』에 대한 토론문

유채연(전북대학교)

본 발표에서는 왜관을 통괄하는 임무로 조선에 파견된 관수가 작성한 일지, 『관수일기』에서 1865~1870년까지 기록을 통해 5년간의 왜관의 모습을 소개하였다. 발표자께서도 언급하셨지만 19세기 중반은 일본 내부의 정세가 복잡하게 전개되었고, 조일관계의 시스템이 붕괴되어 가는 상황이었다. 이 시기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관련사료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수이다. 그렇기에 발표자가 오랫동안 『동래부계록』을 비롯하여 『관수일기』까지 세밀하게 확인하며 정리한 본 발표는 매우 의미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관수일기』는 조일관계에서 최일선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왜관에서 발생한 일(선박의 입출항과정과 인원관리, 사절의 접대, 왜관 행사, 동래부와의 소통, 쓰시마에서 내리는 지시 등)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왜관 연구뿐만 아니라 한일관계사 연구에 큰 단초를 제공하는 귀중한 사료이다. 그렇기에 『관수일기』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며, 그 기본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것이 오늘 발표이다.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본 발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1. 머리말에서는 19세기 중반의 격동기를 서술하였다. 복잡다단한 시기에 왜관에 파견되었던 관수는 그 임명에서 시작하여 귀국할 때까지 일을 기록하였다. 즉 자신이 임명되는 이유와 임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기록하였다고 볼 때, 쓰시마에서 1865~70년에 관수를 파견할 때의 왜관 운영에 대한 밑그림도 『관수일기』에 투영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메이지 유신 이후 조선이 발급한 도서문제가 불거지고, 직제 개편과 판적봉환, 조슈상인의 왜관 도착, 외무성 관리의 국서 교섭, 금도왜의 폐지와 대규모의 인원감축 등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쓰시마변에서 관수에게 내리는 지시와 기대는 여느 때와는 달랐을 것이다. 발표자가 보는 이 시기의 관수는 어떠한 자리였으며, 또 쓰시마의 왜관운영에 관한 구상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다. 이 질문은 쓰시마가 조선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해와도 연결될 것이다.

부수적으로, 조선측 사료에서는 종종 관수가 외교력을 발휘하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발표문에서 관수는 지극히 행정가적인 이미지가 강하다. 예컨대 일본에서 온 사절의 대한 행사가 있을 때, 관수는 참관하지 않고 보고만 받는 체계이다. 『관수일기』를 통해 관수의 역할이 입체적으로 실증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평면적이라는 인상을 받는다. 물론 본 발표에서는 연중행사, 왜관의 직제 및 접대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시기 관수의 역할에 변화가 있었는지 알고 싶다.

2. 해당 시기에 왜관의 직제 개편 및 대규모의 인원감축이 진행되었고, 1870년에는 왜관에 무역서가 설치되고 금도왜가 정리되었다. 이는 그동안의 조일외교의 시스템과 절차가 붕괴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떠한 외교 행위든지 상대자가 있기 마련인데, 왜관 직제에 변화가 있다면 조선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이다. 예컨대 금도왜가 사라지면서 이들이 담당하던 왜관 내의 치안 및 입출항하는 선박 관리 등도 전과 같지 않았을 것이므로, 왜관 관리에 대한 조선의 구체적 반응이 궁금하다.
3. 위의 질문과 연결하여 해당 시기에 나타나는 사건, 조선과의 마찰, 범죄 양상 등이 기존과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왜관의 변화와 그로 인한 혼란은 의외의 사건, 사고로 전개될 수 있다. 1866년 백중절 구관 성묘 후에 벌어진 싸움도 기강이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외에도 밀무역, 난출 등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양상들이 있다면 소개되었으면 한다.
4. 정월의 신년 행사에서 정월 초이튿에 창고 개방식과 신년 총포 사격대회를 거행한다고 하는데, 총포 사격대회는 왜관의 행사이지만 엄연한 조선 땅에서 벌어졌다. 게다가 총기 폭발사고는 공격으로 오인할 만한 사건이다. 이는 주변에 혼란을 줄 뿐 아니라 조선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진다. 이 행사가 언제부터 허락되어 진행되었고, 이에 대한 조선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 궁금하다.



조선국왕과 대마도주의 외교 선물 교환  
—1864년 일본의 조문 사절과 축하 사절 사례—

鄭成一(광주여자대학교)

---



# 조선국왕과 대마도주의 외교 선물 교환

## —1864년 일본의 조문 사절과 축하 사절 사례—

鄭成一(광주여자대학교)

### 목차

- I. 머리말
- II. 일본 사절의 일정과 의례 절차
- III. 외교 선물의 교환
  - 1. 서계와 별폭을 통한 선물 교환
  - 2. 삼도연(三度宴)을 통한 선물 교환
  - 3. 그 밖의 개인 간 선물 교환
  - 4. 외교 선물과 주문품의 관련성
- IV. 맺음말

## I. 머리말

재화의 교환 방식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 번째는 상품으로서 교환하는 경우이며, 두 번째는 선물(또는 증여)로서 교환하는 경우이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일본 사절(日本使節)과 조선 사이에서 교환되었던 ‘외교 선물(diplomatic gift)’<sup>1)</sup>은 두 번째에 해당한다. 즉 외교 선물 교환이란 상품 교환과 대칭되는 개념이다. 상품 교환은 거래 당사자가 재화의 값을 치르고 그것을 팔거나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시장 교환이라고도 부른다. 상품 교환(시장 교환)의 경우에는 재화의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1) ‘외교 선물(外交贈物)’이라는 학술 용어는 국사편찬위원회가 2007년에 간행한 『한국문화사』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정성일, 「역사 속 외교 선물과 명품의 세계를 내면서」, 『한국문화사—역사 속 외교 선물과 명품의 세계—』 12, 국사편찬위원회 편, 탐구당, 2007, 6-8쪽; 정성일, 「부산 왜관에 살았던 대마도 사람들」, 『한반도의 일본인, 일본열도의 한국인』(한일 문화교류기금, 경인문화사), 2023, 262쪽.

재화의 소유권이 명백하게 이전되며, 거래의 성립과 동시에 둘 사이의 관계도 종료된다. 이와 달리 선물(또는 증여) 교환은 경제적 대가의 지불이 없어도 재화가 교환되는 경우가 있다.<sup>2)</sup>

외교 선물의 교환에는 몇 가지 형태가 있다. 예를 들면 공식 외교문서(外交文書)의 교환에 수반되는 별폭(別幅)을 통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밖의 다양한 형태로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양국이 교환한 외교 선물에 대하여 실증적·종합적으로 분석한다면, 조선후기 한일관계사(외교, 무역 등)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더욱 선명하게 밝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의 분석 시기는 1864~65년이다. 그리고 분석 대상은 철종(哲宗)의 승하(昇遐)와 고종(高宗)의 즉위(即位) 이후 조선으로 건너온 일본 사절에 맞추어져 있다.

## Ⅱ. 일본 사절의 일정과 의례 절차

1863년 12월 8일 철종이 창덕궁(昌德宮) 대조전(大造殿)에서 승하하였다.<sup>3)</sup> 그날 이 날 대왕대비(大王太妃)가 철종의 뒤를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이명복(李命福)으로 정하였다.<sup>4)</sup> 그로부터 닷새 뒤인 동년 12월 13일 고종이 인정문(仁政門)에서 조선 제26대 국왕으로 등극(登極)하는 즉위식이 거행되었다.<sup>5)</sup> 철종 승하와 고종 즉위 이후 일본에서 조선으로 외교 사절이 건너왔는데, 두 차례 모두 즉위식(1863.12.13.)과 장례식<sup>6)</sup>(1864.4.7.)이 종료된 뒤의 일이었다. 즉 철종 승하를 조문(弔問)하는 일본 사절은(조선은 弔慰差倭, 일본 측은 弔禮使 또는 弔慰使라 칭했음) 1864년 7월 11일 왜관에 도착하였다(왜관 도착 시각은 기록마다 차이 보임).<sup>7)</sup> 넉 달 뒤인 동년 11월

2) 선물과 증여는 엄밀하게 말한다면 개념 차이가 존재한다. 즉 증여(gift)란 걸보기에는 의무가 아니지만, 답례(答禮)나 회례(回禮)를 의무나 다름없이 전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증여는 오늘날 우리가 일반적 의미로 사용하는 선물(present) 개념과 다른 점이 있다(『한국문화사』 12, 7쪽).

3) 『철종실록』 철종 14년(1863) 12월 8일. 일본 측 기록에도 “조선 국왕이 지난해 선달 12월 8일 흥거했다고 두 역관이 말하였다(朝鮮國王舊臘十二月八日薨去之段兩譯より申出).”는 내용이 적혀 있다(『弔禮使記錄』 文久 4 갑자년(1864), 국사편찬위원회 DK 3554).

4) 『고종실록』 고종 즉위년(1863) 12월 8일.

5) 『고종실록』 고종 즉위년(1863) 12월 13일.

6) 상여(喪輿) 즉 영가(靈駕)가 4월 6일 축시에 궁궐을 떠났으며 홍화문(弘化門) 밖에서 하직 인사를 하였고, 이튿날인 4월 7일 철종을 예릉(睿陵)에 장사 지냈다(『고종실록』 고종 1년(1864) 4월 6일, 동 7일). 그런데 조선의 국장(國葬) 소식은 왜관의 일본인들에게도 알려졌다. 즉 훈도(仲南 李同知)와 별차(大年 崔主簿)가 “인산(因山) 즉 국장일이 4월 7일”임을 알리는 문서를 작성하여 관사(館司) 즉 관수에게 전달하였다(『館守日記』 文久 4년(1864) 4월 3일).

7) “오늘 오전 7~9시에 순풍이 불어서 이상 없이 왜관에 도착하였으며, 별차가 소통사를 데리고 와서 작은 배에 탑승한 채로 (일본 사절의 무사 도항을) 축하한다는 말을 통역을 시켜서 말하였기에 (이

15일에는 고종 즉위를 축하(祝賀)하는 일본 사절이(조선은 陳賀差倭, 일본 측은 陳賀使로 불렀음) 왜관에 도착했다(왜관 도착 시각은 기록마다 차이 보임).<sup>8)</sup>

일본에서 조선으로 건너온 조문 사절과 축하 사절의 주요 일정과 의례 절차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이에 따르면 조문 사절은 1864년 7월 11일 왜관에 입항하여(나흘 전인 7월 7일 경상도 機張에 不時着) 이듬해인 1865년 2월 3일 부산을 떠났다(201일간 왜관 체류). 그리고 축하 사절은 1864년 11월 15일 입항하여(닷새 전인 11월 10일 경상도 玉浦에 不時着) 1865년 3월 19일 부산에서 대마도로 돌아갔다(123일간 왜관 체류). 그런데 두 사절이 동시에 왜관에 체류하기도 하였는데 그 기간이 78일간이었다(1864년 11월 15일부터 1865년 2월 3일까지).

<표 1> 일본의 조문 및 축하 사절의 일정

구분	연도	조례사(弔禮使)		진하사(陳賀使)	
		월일		월일	
대마도-부산	1864	7.5	대마도 府中 출범(出帆)		
		7.6	대마도 鱒浦 출범		
		7.7	機張 표착[欠乘]		
		7.11	왜관 도착[廻館]		
		7.12	부산첨사, 훈도 별차가 중원(中元) 선물 보냄		

에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며 응대하였음”(今辰之刻順風ニ相成無異儀廻館無程別差小通事相附小船より爲祝詞罷越取次を以申聞候付相應及挨拶(『弔禮使記錄』文久 4 갑자년(1864) 7월 11일, 국사편찬위원회 DK 3554). 왜관에서 작성된 『관수일기』에도 다음 기록이 보인다. “오늘 오전 9~11시 경에 위쪽 포구에서 큰배 1척이 보인다고 알려 왔으며 이윽고 포구 안으로 들어왔는데, 어수선 번영환에 조례사 정관인과 봉진 등이 탑승하여 지난 6일(7.6.-인용자주) 바다를 건넜으나 바람과 조수의 흐름이 나빠서 기장으로 불시착하였다가 오늘 무사히 왜관으로 돌아왔음(今巳之刻比上ニ口より大船壹艘相見候段船見より相屆無程浦入候處、御手船繫榮丸…乘御物送狀之通積之、乘主弔禮使正官人樋口直左衛門同封進永瀨常助何れも…御切手前之通積乘、去ル六日渡海之處風勢汐合惡敷機張へ上乘せしめ居今日無異儀廻館)”(『館守日記』文久 4년(1864) 7월 11일).

- 8) “오늘 오전 5~7시 지나자 순풍이 불어서 옥포를 출발하였으며, 오후 3~5시 지나서 모든 배가 왜관에 도착하였는데… 훈도 학일 이주부가 통사(삼베옷을 위아래로 착용)를 데리고 작은 배를 타고 와서 ‘배가 건너온 것을 축하한다’고 말하자, ‘곧이어 물으로 올라가서 대면을 하겠다’고 통역을 시켜서 답변을 하였음(今卯之刻過順風=付玉浦出帆申之刻過迄=船々何れも館着…訓導學一李主簿通詞麻上下着相附小船より罷越船越祝詞申聞候付追付揚陸之節可致對面旨取次を以及返答)”(『陳賀大差記錄』文久 4 갑자년(1864) 11월 15일, 국사편찬위원회 DK 3541). 이와 관련하여 『관수일기』에도 기록이 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경에 아래쪽 포구에서 크고 작은 배 4척이 보인다고 알려 왔으며 이윽고 포구 안으로 들어왔는데, 지난 10일(11.10.-인용자주) 옥포에 불시착한 진하사 1호선 순길환에 진하사 정관인과 봉진, 부의…등이 탑승하였고, 2호선 길영환에 진하사 도선주 등이 탑승…모두가 무사히 왜관으로 돌아왔음(今午之刻比下之口より大小船四艘相見候段船見より相屆無程浦入候處、去十日玉浦へ下モ乗せしめ居候陳賀使一號船順吉丸船頭安川槌五郎水夫共拾七人乘陳賀使都船主早田作左衛門…乘組、二號船吉榮丸船頭善口芳兵衛水夫共九人乘陳賀使都船主早田作左衛門…乘組、曳小隼春秋丸船頭村井市左衛門水夫共拾人乘、頭漕飛船として佐須奈村長治水夫共六人乘…何れも無異儀廻館)”(『館守日記』元治 1년(1864) 11월 15일).

부산 (왜관)	7.12	훈도가 왜관 들어가 서계 필사, 동래부사에게 보고		
	7.14	동래부사가 서계 개찬 요구(국상 관련)		
	7.15	동래부사가 중원(中元) 선물 보냄		
	8.11	훈도와 별차가 조례사와 첫 대면		
	9.5	개찬 서계가 비선(飛船) 통해 왜관 도착, 임관이 필사		
	9.5	동래부사가 서계 재개찬 요구		
	9.29	개찬 서계대로 하기로 결정		
	10.18	부산첨사가 중양(重陽) 선물 보냄		
	10.20	동래부사가 중양(重陽) 선물 보냄		
			10.27	대마도 府中 출범(出帆)
			11.10	대마도 妙見浦 출범
			11.10	옥포 표착[脇乘]
		11.11	경접위관 등 동래부 도착	
			11.15	왜관 도착[館着]
		11.18	다례(서계)	
		11.19	(熟供) 조반(早飯) 5일간(11.19.~11.23.)	
		12.19	봉진연(封進宴) * 進香儀, 看品, 肅拜	
		12.20	중연석(中宴席)	
		12.23	회답서계[御返翰]	
	12.26	출선연(出宴席)		
		12.27	다례(서계)	
		12.28	(熟供) 조반(早飯) 5일간(12.28.~1.3.)	
1865		1.28	봉진연(封進宴) * 陳賀儀, 看品, 肅拜	
	2.1	상선(上船)		
		2.11	중연석(中宴席)	
		2.13	회답서계[御返翰]	
		3.2	출선연(出宴席)	
		3.18	상선(上船)	
부산- 대마도	2.3	부산 출범(出帆), 사스나 도착	3.19	왜관 출범
	2.11	사스나 출범	3.19	鹿見浦(1호선) 佐須內浦(2호선) 착선
	2.13	대마도 府中 도착[廻府]	3.21	대마도 府中 도착[府着]

자료 : 『弔禮使記錄』(국사편찬위원회 DK3554); 『陳賀大差記錄』(국사편찬위원회 DK3541).

일본의 조문 사절과 축하 사절은 조선 체류 중 여러 차례 공식 의례에 참석하였다.<sup>9)</sup> 그 시작은 다례(茶禮)였는데, 그 자리에서 일본 사절이 가져온 외교문서(書契)가 조선 측에 전달되었다. 그리고 다례 이후 닷새 동안은 조선 측이 일본 사절에게 익힌 음식을 제공하였는데(熟供), 이를 조반(早飯)이라고 불렀다(그 이후는 5일마다 식

9) 일본 사절에 대한 조선 측의 접대에 대해서는 심민정, 『조선후기 일본사신 왕래와 접대』, 경인문화사, 2022, 173-186쪽 참조.

재료 지급). 조문 사절의 경우 1864년 11월 18일부터 동월 23일까지, 그리고 축하 사절의 경우 동년 12월 27일부터 1865년 1월 3일까지 각각 조반이 있었다.

다례와 조반이 끝나고 나면 세 차례에 걸쳐서 연회(연석)가 개최되었다. 이것을 가리켜 삼도연(三度宴)이라고 했는데, 조선과 일본에서 이것을 가리키는 명칭이 서로 달랐다. 예를 들면 삼도연의 첫 번째를 조선은 하선연(下船宴)이라고 불렀는데, 일본 측은 봉진연(封進宴)이라고 했다. 하선연(봉진연)은 일본 사절이 먼저 초량객사(草梁客舍; 현재 부산광역시 영주동 봉래초등학교 자리)로 가서 조선 국왕의 전패 앞에서 진향의(進香儀) 또는 진하의(陳賀儀)를 거행하고 숙배(肅拜) 등을 마친 뒤에, 다시 장소를 연향대청(宴享大廳; 현재 부산광역시 대청동 광일초등학교 자리)으로 옮겨서 연회(연석)를 베푸는 것이 관행이었다.<sup>10)</sup> 하선연(봉진연) 때 양측의 외교 선물이 전달되었다.

삼도연 중 두 번째를 조선은 별연(別宴)이라고 불렀다(『동문회고』에는 관중연(館中宴)으로 적혀 있음). 그리고 일본 측은 이것을 ‘중간에 거행되는 연회’라는 뜻으로 중연석(中宴席) 또는 중연향(中宴享)이라는 명칭을 썼다.

그런데 다례 때 일본 사절의 외교문서(書契)를 조선 측에 전달한 것에 대하여, 일본 사절이 받아 갈 조선 측의 회답 문서(일본은 이를 御返翰으로 적었음)를 전달하는 의례가 별연(중연석) 이후에 거행되었다. 조문 사절의 경우 별연(중연석) 개최(12.20.) 사흘 뒤인 1864년 12월 23일에, 축하 사절의 경우는 별연(중연석) 개최(2.11.) 이틀 뒤인 1865년 2월 13일에 각각 회답서계가 일본 측에 전달되면서, 외교 의례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

삼도연 중 마지막 세 번째를 가리켜 조선은 상선연(上船宴)으로 불렀지만, 일본 기록에서는 이것이 출선연(出船宴)으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다(일본 기록에 조선과 동일하게 上船宴이라 적은 사례도 있음). 아무튼 외교문서의 교환과 외교 선물을 주고받는 의례가 당시 외교 사행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였는데, 아래에서는 외교 선물의 교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외교 선물의 교환

#### 1. 서계(書契)와 별폭(別幅)을 통한 선물 교환

10) 정성일, 「일본 사신의 조선 국왕 즉위 축하와 가쓰오부시[鯉節]-1864년 고종 즉위 축하 사절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연구』 34, 조선통신사학회, 2022, 8쪽.

## (1) 조문 사절의 경우

## 가. 서계(書契)의 교환

1864년 일본의 조문 사절이 지참하고 왔던 외교문서(外交文書)인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서계(書契)는 동년 11월 18일 다례(茶禮) 때 조선 측에 전달되었다. 그런데 다례 전까지는 그 서계를 관수 측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례가 열리는 날 조문 사절이 그 서계를 관수한테서 받아와서 다례에 참석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래서 이날도 서계 보관함(保管函) 두 상자를 조문 사절의 봉진(永瀨常助)이 관수 쪽으로 가서 찾아왔다. 둘 중 하나는 예조로 보낼 서계 상자였으며, 다른 하나는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 보낼 서계 상자였다고 한다.<sup>11)</sup> 다례를 마친 뒤 정관(樋口直左衛門)과 봉진(永瀨常助)이 관수에게 직접 가서 다례의 무사 종료를 설명하였다. 조선 쪽 책임자도(差備官, 兩譯) 소통사(小通事)를 관수에게 보내서 다례가 종료되었음을 알렸다.<sup>12)</sup> 그런데 과거 같았으면 다례 때는 봉진물(封進物)을 조선 측에 건네지 않고 하선연(봉진연) 자리에서 전달했을 터이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조선 조정으로 보낼 증물(贈物)을 다례 때 전달하였다. 그렇게 해서 일본의 조문 사절이 가져온 부물(賻物)을 곧장 서울로 올려보내 영전(靈前)에 바칠 수 있게 하였다고 한다.<sup>13)</sup>

대마도주의 서계에 대한 조선의 회답서계(回答書契)는 동년 12월 23일 일본 측에 전달되었다. 관례대로 동향사(東向寺)가 회답서계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를 관수에게 보고하였다.<sup>14)</sup> 조선 측의 회답서계가 담긴 상자 3개를(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인용자주) 받아왔던 조문 사절의 정관(樋口直左衛門)과 봉진(永瀨常助)이 관수 쪽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맡겨 놓았다.<sup>15)</sup> 이로써 양측의 서계 교환은 모두 완료되었는데, 이때 그 서계에 딸린 별폭(別幅)을 통해서 양국이 외교 선물을 교환하였다.

그런데 별폭에 적힌 외교 선물을 현물로 즉시 지급하지 못해서 뒤로 미루는 일도 있었다. 특히 인삼은 현물 조달이 어려워서 이런 일이 잦았다. 만일 현물로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이 생긴다면, 현물 부족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은이나 동전으로 대신 지급

11) 右茶禮ニ付御書翰請取として封進永瀨常助罷出候付禮曹へ之御書翰壹箱東釜へ之別書一箱相渡(『館守日記』 元治 1년(1864) 11월 18일).

12) 樋口直左衛門永瀨常助茶禮無滯相濟候段爲届被罷出、差備官兩譯よりも小通事使を以相届(『館守日記』 元治 1년(1864) 11월 18일).

13) 常之御使者等之封進物ハ封進宴之節相渡候得共、此節ハ贈物故茶禮之節相渡直ニ都へ被差登賻物都表靈前へ被相備彼方より一左右有之候而封進宴被相整候先格ヤ(『館守日記』 元治 1년(1864) 11월 18일).

14) 東向寺御返翰ニ罷出別條無之段相届(『館守日記』 元治 1년(1864) 12월 23일).

15) 甲禮使正官人樋口直左衛門封進永瀨常助御返翰三箱持參候付相預置(『館守日記』 元治 1년(1864) 12월 23일).

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1864년 조문 사절의 별폭과 삼도연 때 지급할 인삼 중에서 7근 반을 내년(1865년-인용자주) 정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틀림없이 (왜관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문서를 훈도(訓導) 등 조선의 책임자들이 연명(連名)으로 작성하여, 그것을 왜관의 대관(代官)에게 제출한 것에서 이러한 사정을 살필 수 있다.<sup>16)</sup>

#### 나. 서계별폭(書契別幅)의 교환

일본의 조문 사절이 가져온 외교 선물(書契別幅)은 <표 2-1>에 소개하였다. 이에 대한 조선 정부의 회답은 <표 2-2>로 제시하였다(回賜別幅, 回禮別幅, 回答別幅으로 불렀음). 이때 일본의 조문 사절은 동래부사와 부산첨사에게도 한 통으로 작성된 서계를 보내오기는 하였지만, 그 어느 쪽에도 별폭은 붙이지 않았다.<sup>17)</sup> 이에 대하여 동래부사와 부산첨사는 각각 한 통씩 작성하여 서계 두 통으로 회답하였을 뿐, 마찬가지로 그 어느 쪽에서도 회사별폭을 일본 쪽으로 보내지는 않았다. 1864년 조문 사절의 경우도 이전과 동일하게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앞으로 보내는 한 통의 서계가 전부였다(朝鮮國東萊釜山兩令公閣下). 이에 대하여 동래부사(姜滌)와 부산첨사(鄭雲龜)는 각각 한 통씩 회답서계를 작성하였을 뿐, 그 어느 쪽에서도 별폭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sup>18)</sup>

<표 2-1> 일본의 조문 사절이 조선으로(여조참의) 가져온 書契의 別幅(국왕 조문)

연번	품목	단위	1	2	3	4	5	6	7	8	9	10
			1649 기축	1659 기해	1674 갑인	1720 경자	1724 갑진	1776 병신	1800 경신	1835 을미	1849 기유	1864 갑자
1	白檀	斤	3									
2	蠟燭	挺, 柄	1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3	白布	端	10									
4	高宮細布	端		20								

#### 16) 覺

##### 一 現蔘柒觔半

右者甲禮使別幅并三度宴蔘該數如是故依約而明正月五月兩度以銀錢間無違入送之事

甲子十二月 日 訓導學一李主簿

別差雨卿吳主簿

堂下差備官大有李主簿

代官僉公

(『館守日記』 元治 1(1864) 12월 25일).

17) 정성일, 「일본 사절의 조선 국왕 조문과 대마도주의 별폭」, 『한일관계사연구』 83, 한일관계사학회, 2024, 230쪽.

18) 『兩國往復書牘』 188(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5	沈水香	觔		3								
6	沈香	斤, 觔			3	3	3	3	3	3	3	3
7	靈前卓子	脚		1								
8	前卓	脚			1	1	1	1	1	1	1	1
9	三具足	飾		1								
10	華瓶	箇			1	1	1	1	1	1	1	1
11	燭臺	箇			1	1	1	1	1	1	1	1
12	香爐	介			1	1	1	1	1	1	1	1
13	朱漆圓盆	束			5束	50	50	15	50	50	50	50
종류				3	5	7	7	7	7	7	7	7

주 : 朱漆圓盆의 단위는 1674까지는 束, 나머지는 枚임.

자료 : 정성일, 「일본 사절의 조선 국왕 조문과 대마도주의 별폭—1864년 철종 승하 조문 사절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83, 240쪽.

<표 2-2> 조선 측(예조참의)이 일본의 조문 사절(대마도주)에게 전달한 回賜別幅

연번	품목	단위	1	2	3	4	5	6	7	8	9	10
			1649 기축	1660 경자	1675 을묘	1720 경자	1725 을사	1776 병신	1801 신유	1835 을미	1850 경술	1864 갑자
1	人蔘(人參)	斤, 觔	2	3	3	3	3	3	3	3	3	3
2	虎皮	張	1	2	2	2	2	2	2	2	2	2
3	豹皮	張	1	2								
4	白苧布	匹	7	10	10	10	10	10	10	10	10	10
5	白綿紬	匹	7	10								
6	黑麻布	匹	5	7	7	7	7	7	7	7	7	7
7	白木綿	匹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8	花席	立, 張	5	10	10	10	10	10	10	10	10	10
9	四張付油芘	部	3	3	3	3	3	3	3	3	3	3
10	黃毛筆	柄	30	50	40	40	40	40	40	40	40	40
11	眞墨	笏	30	50	40	40	40	40	40	40	40	40
종류			11	11	9	9	9	9	9	9	9	9
출전	국편 일본 서계		-	929	1464	-	3534	5444	6447	7889	8514	9018
	동문회고		2-1796	2-1798	2-1798	2-1799	2-1799	2-1800	4-3834	4-3835	4-3836	4-3836
	往復書牘				19	60	66	108	130	160	173	188

주 : ‘국편 일본 서계’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서계의 DS로 시작하는 번호.

‘동문회고’는 『同文彙考』二와 『同文彙考』四(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8)의 해당 부분 쪽번호.

‘往復書牘’은 『兩國往復書牘』(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의 문서 번호.

자료 : 정성일, 「일본 사절의 조선 국왕 조문과 대마도주의 별폭—1864년 철종 승하 조문 사절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83, 244~245쪽.

그런데 대마도주의 서계 별폭도, 조선 예조참의 회답서계에 딸린 회사별폭도, 모두 1649년과 1659~60년의 변화를 거친 뒤, 1674~75년부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정례화(定例化)가 되었고, 그것이 1864년까지 이어졌다. 대마도주 서계의 별폭은 1674년 이후 7종(납촉 200병, 침향 3근, 전탁 1각, 화병 1개, 촉대 1개, 향로 1개, 주칠원분 50속)이었다(<표 2-1> 참조). 그리고 조선 예조참의 서계의 회사별폭은 1675년 이후 9종(인삼 3근, 호피 2장, 백저포 10필, 흑마포 7필, 백목면 20필, 화석

10장, 사장부유돈 3부, 황모필 40명, 진묵 40홀)으로 각각 정례화가 이루어졌다(<표 2-2> 참조).

## (2) 축하 사절의 경우

### 가. 서계(書契)의 교환

1864년 일본의 축하 사절이 지참하고 왔던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서계(書契)는 동년 12월 27일 다례(茶禮) 때 조선 측에 전달되었다. 다례가 열리게 되자 관례대로 관수가 보관하고 있던 그 서계를 축하 사절의 봉진(嶋居清助)이 관수 쪽으로 가서 서계의 보관함(保管函) 세 상자를 받아왔다.<sup>19)</sup> 다례 종료 후에는 도선주(早田作左衛門)와 봉진(嶋居清助)은 물론이고, <sup>20)</sup> 조선 측에서도(差備官, 兩譯) 다례가 무사히 끝났음을 관수에게 알렸다.<sup>21)</sup>

대마도주의 서계에 대한 조선 측의 회답서계(回答書契)는 1865년 2월 13일 일본 측에 전달되었다. 관례대로 동향사(東向寺)가 회답서계의 내용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 그 결과를 관수에게 보고하였다.<sup>22)</sup> 조선 측의 회답서계가 담긴 상자 3개를(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인용자주) 받아왔던 축하 사절의 봉진(嶋居清助)이 관수 쪽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맡겨 놓았다.<sup>23)</sup> 이로써 양국 사이의 서계 교환은 완료되었다. 다만 “1864년 조문 사절이 외교 선물로 받기로 되어 있었던 인삼(禮單蔘) 22근을 (조선의 상평통보인) 대전(大錢) 13,840냥으로 정해진 기한 내에 틀림없이 (왜관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2월 13일에 작성하여 왜관의 대관(代官) 쪽에 제출하였다.<sup>24)</sup>

19) 陳賀使今日茶禮被成御整候付御書翰爲請取封進嶋居清助入來=付拙者出席御預申上置候御書翰三箱相渡(『館守日記』元治 1년(1864) 12월 27일). 이처럼 원문에는 ‘3상자’로 적혀 있다. 이것은 동년 11월 18일 조문 사절의 다례 때 ‘2상자’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20) 都船主早田作左衛門封進嶋居清助茶禮無滯相濟候段爲届被罷出(『館守日記』元治 1년(1864) 12월 27일).

21) 差備官兩譯より茶禮無滯相濟候段小通事を以挨拶申來(『館守日記』文久 4년(1864) 12월 27일).

22) 陳賀使御返翰下夕仕候處宜相見候段東向寺より相届(『館守日記』元治 2년(1865) 2월 13일).

23) 陳賀使御返翰無滯御請取被成候段封進嶋居清助入來相届御返翰三箱持參=付相預置(『館守日記』元治 2년(1865) 2월 13일).

24) 覺

一 大錢壹萬參仟捌佰肆拾兩

右者甲子年條陳賀大差使禮單蔘貳拾貳勛依約而日限內無違入送之事

乙丑二月十三日 訓導學一李主簿

堂上差備官明老秦僉知

그런데 1주일 뒤인 2월 20일에는 “진하사 예단삼 대금 협상과 관련하여 마치다이칸(町代官) 이하 역인들이 조선 역관의 근무지(任所)로 가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철야를 해서라도 독촉을 하고자, 이치다이칸(一代官)이 앞장서서 (집단행동을) 이끌었던 왜관 내부의 움직임이 확인된다.<sup>25)</sup> 이것은 조선 국내에서 인삼 조달이 어려웠던 당시 사정을 잘 말해 준다고 생각된다.

#### 나. 서계별폭(書契別幅)의 교환

##### ㉞ 일본 사절의 서계에 딸린 별폭

조선 국왕 즉위를 축하하러 온 일본 사절이 가져온 외교 선물에 대해서는 <표 3-1>(예조참의)과 <표 3-2>(동래부사, 부산첨사)에 각각 소개하였다. 대마도주가 축하 사절을 통하여 예조참의 앞으로 보낸 서계의 별폭은, 1650년과 1660년, 1675년의 변화를 거쳐서 1720년부터 정례화가 되었는데, 1800년에 다시 한번 변화를 거친 다음에 그것이 1864년까지 이어졌다. 예조참의에게 전달된 서계 별폭의 종류는 1650년에는 11종이었으나, 1660년부터 1684년까지 모두 9종으로 동일하였다. 그 별폭에 적힌 외교 선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종 서적(通鑑綱目, 前後漢書 등)과 공예품(蒔繪書冊, 貼金屏風 등), 직물(毛絹, 緋合呂紬, 茶宇絹, 紅白羽絹 등), 주홍(大和眞朱), 술(淸酒), 시계(自鳴鐘), 과일(龍眼肉, 龍圓) 등이었다(<표 3-1> 참조).

대마도주가 축하 사절을 통하여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앞으로 보낸 서계의 별폭은 1650년부터 1776년까지는 대체로 동일했다. 그러다가 1800년 이후 변화가 있었는데, 그 뒤 1864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동래부사나 부산첨사에게 전달된 외교 선물의 종류가 전 시기에 걸쳐 동래부사는 6종, 부산첨사는 3종으로 일관되게 유지된 점도 특이하다. 다만 각각의 별폭에 기재된 외교 선물의 내용을 살펴보면, 거울(大圓鏡, 彩畫一尺匳鏡), 베투(蒔繪掛硯, 革褓(褓)疣挂硯), 그릇(鐵鉢, 鐵鉢三入子)을 동래부사에게, 그리고 종이(紋紙)와 베투(彩畫枕挂硯), 문갑(蒔繪文匣, 蒔繪提瓶) 등을 부산첨사에게 각각 외교 선물로 주었음이 확인되었다(<표 3-2> 참조).

別差雨卿吳主簿  
堂下差備官君善李主簿

代官僉公

(『館守日記』元治 2년(1865) 2월 13일).

25) 陳賀使禮單參代懸合方ニ付町代官已下任所へ泊催促として差越度段一代官より被申出候付承届可被得其意旨濱方別方へ手紙を以申達(『館守日記』元治 2년(1865) 2월 20일).

〈표 3-1〉 일본의 축하 사절이 조선 측(예조참의)에 전달한 別幅

연번	품목	단위	1	2	3	4	5	6	7	8	9	10
			1650.1 경인	1660.1 경자	1675.4 을묘	1720.9 경자 <sup>26)</sup>	1724.11 갑진	1776.10 병신	1800.11 경신	1835.6 을미	1850.1 경술	1864.6 갑자
1	서적	冊, 箱	唐書籍			四書五經 <sup>27)</sup> 大部	通鑑綱目 全部 2箱	通鑑綱目 全部 2箱	前後漢書 各1部 2箱	前後漢書 各1部 2箱	前後漢書 各1部 2箱	前後漢書 各1部 2箱
2	蒔繪書冊	箇	1	1 <sup>28)</sup>	1							
3	貼金屏風	雙	1	1	1 <sup>29)</sup>							
4	직물	卷, 端, 疋	毛絹 5卷	緋合呂紬 <sup>30)</sup> 1端 <sup>34)</sup>		茶字絹 15本 <sup>35)</sup>	紅白羽絹 20匹	紅白羽絹 <sup>31)</sup> 20匹	紅白羽絹 <sup>32)</sup> 20疋	紅白羽絹 <sup>33)</sup> 20疋	紅白羽絹 20疋	紅白羽絹 20疋 <sup>36)</sup>
5	胡椒	斤	200	200 <sup>37)</sup>	200							
6	丹木	斤	300	300 <sup>38)</sup>	300 <sup>39)</sup>							
7	蜜果鐵壺	箇	2									
8	花糖鐵壺	箇	1									
9	蜜漬物	斤		30 <sup>40)</sup>	20 <sup>41)</sup>							
10	清酒	樽	雙									
11	小蛤 <sup>42)</sup> 魚	連	20									
12	昆布	束	5									
13	平骨銀瑤琢扇子	柄		50 <sup>43)</sup>	50 <sup>44)</sup>							
14	獺狍皮 <sup>45)</sup>	張		5	5 <sup>46)</sup>							
15	猩猩皮	間			2							
16	鯉節	節, 箇		鯉魚 2箱	200箇	200箇	200箇	200箇	200箇	200箇	200箇	200箇
17	白鳴鐘	坐				1	1	1	1	1 <sup>47)</sup>	1 <sup>48)</sup>	1
18	圓鏡并架	面				2	2	2	2	2	2	2
19	革褱大簿匣	備				1	1	1	1	1	1	1
20	布目紙	片				200	200	200	200	200 <sup>49)</sup>	200 <sup>50)</sup>	200
21	大和眞朱	斤				5	5	5	5	5	5	5
22	龍圓(龍眼肉)	斤				30	30	30	30	30 <sup>51)</sup>	30 <sup>52)</sup>	30
種			11	9	9	9	9	9	9	9	9	9

자료 : 『陳賀差倭臈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同文彙考』二; 『同文彙考』四(이상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兩國往復書臈』(일본 국립국회도서관); 『本邦朝鮮往復書』(국사편찬위원회 DK2928)

- 26) 원문에는 “동래부사, 부산첨사 (별폭) 물목 모두 효종 경인년을 참조”(東萊釜山 物目并見 孝宗庚寅)라고 적혀 있음(『同文彙考』二,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799쪽).
- 27) 『兩國往復書臈』60(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에는 四書五經 各壹部 貳箱으로 적혀 있음.
- 28) 『동문회고』 원본에는 단위가 脚으로 적혀 있음.
- 29) 『동문회고』 원본에는 貼金小屏風으로 적혀 있음.
- 30) 『本邦朝鮮往復書』(국사편찬위원회 소장)에는 緋合呂細로 적혀 있음.
- 31) 『兩國往復書臈』174(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에는 紅白絹으로 적혀 있음.
- 32) 『兩國往復書臈』174(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에는 紅白絹으로 적혀 있음.
- 33) 『兩國往復書臈』174(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에는 紅白絹으로 적혀 있음.
- 34) 『동문회고』 원본에는 단위가 端으로 적혀 있음.

〈표 3-2〉 일본의 축하 사절이 조선 측(동래부사, 부산첨사)에 전달한 別幅

구분	연번	품목	단위	1	2	3	4	5	6	7	8	9	10
				1650.1 경인	1660.1 경자	1675.4 을묘	1720.9 경자 <sup>53)</sup>	1724.11 갑진	1776.10 병신	1800.11 경신	1835.6 을미	1850.1 경술	1864.6 갑자
동래부사	1	大圓鏡	面	2	2	2	2	2	2				
	2	蒔繪掛硯	箇	1	1	1	1	1	1				
	3	鑲鉢	紐	5	5	5	5	5	5				
	4	革褰(褰)疣挂硯	箇							1	1 <sup>54)</sup>	1	1
	5	鑲鉢三入子	組							2	2	2	2
	6	彩畫一尺窓鏡	面							1	1	1	1
	種			3	3	3	3	3	3	3	3	3	3
부산첨사	1	紋紙	片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500
	2	蒔繪文匣	箇	1	1	1	1	1	1	1 <sup>55)</sup>	1 <sup>56)</sup>	1	1
	3	蒔繪提瓶	携	1	1	1	1	1	1				
	4	彩畫枕挂硯	箇							1	1	1	1
	種			3	3	3	3	3	3	3	3	3	

자료 : 『陳賀差倭贈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同文彙考』二; 『同文彙考』四(이상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兩國往復書牘』(일본 국립국회도서관); 『本邦朝鮮往復書』(국사편찬위원회 DK2928)

- 35) 『兩國往復書牘』 60(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에는 拾本으로 적혀 있음.
- 36) 『동문회고』 원본에는 단위가 疋로 적혀 있음.
- 37) 『동문회고』 원본에는 단위가 觔으로 적혀 있음.
- 38) 『동문회고』 원본에는 단위가 觔으로 적혀 있음.
- 39) 『兩國往復書牘』 19(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에는 參百斤으로 적혀 있음.
- 40) 『동문회고』 원본(庚子 島主陳賀書 別幅, 『同文彙考』 二, 1798쪽)에는 蜜漬物三十觔入鑲壺一로 적혀 있음.
- 41) 『兩國往復書牘』 19(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에는 蜜漬 參拾斤으로 적혀 있음.
- 42) 문어를 의미하는 蛸는 蛸로도 쓴다. 그런데 蛸는 본디 거미(일본어로 ‘구모’)를 가리키는 한자(漢字)이다. 발이 8개 달린 모습이 마치 바다에 사는 거미와 같다는 뜻으로 문어를 海蛸子로 적는 경우도 있다. 여기에서 해(海)를 생략하고, 고기 어(魚) 변으로 바꾼 蛸을 일본어에서는 ‘다코’라고 읽는다.
- 43) 『동문회고』 원본(庚子 島主陳賀書 別幅, 『同文彙考』 二, 1798쪽)에는 平骨銀瑠扇子로 적혀 있음.
- 44) 『동문회고』 원본(乙卯 島主陳賀書 別幅, 『同文彙考』 二, 1798쪽)에는 平骨扇으로 적혀 있음.
- 45) 『本邦朝鮮往復書』(국사편찬위원회 소장)에는 蠟虎皮로 적혀 있음.
- 46) 『동문회고』 원본에는 단위가 枚로 적혀 있음.
- 47) 『兩國往復書牘』 174(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에는 座로 적혀 있음.
- 48) 『兩國往復書牘』 174(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에는 座로 적혀 있음.
- 49) 『兩國往復書牘』 174(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에는 布紋紙로 적혀 있음.
- 50) 『兩國往復書牘』 174(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에는 布紋紙로 적혀 있음.
- 51) 『兩國往復書牘』 174(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에는 龍眼肉으로 적혀 있음.
- 52) 『兩國往復書牘』 174(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에는 龍眼肉으로 적혀 있음.
- 53) 원문에는 “동래부사, 부산첨사(별폭) 물목 모두 효종 경인년을 참조”(東萊釜山 物目并見 孝宗庚寅)라고 적혀 있음(『同文彙考』 二,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799쪽).
- 54) 『兩國往復書牘』 130(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에는 革褰疣挂硯壹箇로 적혀 있다.
- 55) 『동문회고』에는 彩畫文匣으로 적혀 있다. 즉 일본 기록의 蒔繪를 조선 기록의 彩畫와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 56) 『兩國往復書牘』 130에는 彩畫文匣으로 적혀 있다.

## (나) 조선의 회답서계에 딸린 회사별폭

일본 사절의 외교 선물에 대한 조선 정부의 회답에 대해서는 <표 3-3>(예조참의) 과 <표 3-4>(동래부사, 부산첨사)로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예조참의가 대마도주 앞으로 보낸 외교 선물(回賜別幅)의 종류는 전 시기 11종으로 같았다. 그런데 별폭에 적힌 외교 선물의 내용에서는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면 1650년과 1660년까지는 표범 가죽(豹皮)이 들어 있지 않았고, 그 대신에 여섯 장을 붙인 기름 종이(六張付油芘)이 포함되었다. 그것이 1675년부터는 이전과 반대로 표범 가죽(豹皮)이 들어가게 되고, 그 대신에 여섯 장을 붙인 기름 종이(六張付油芘)가 빠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1864년까지 이어졌다(<표 3-3> 참조).

그런데 동래부사와 부산첨사가 보낸 회사별폭은 종류도 내용도 모두 1650년부터 1864년까지 전 시기에 걸쳐서 변함이 없었다. 백저포와 백면주가 각각 5필씩, 백목면이 10필, 그리고 화석이 5장, 녁 장을 붙인 기름 종이(四張付油芘)가 1부씩이었다 (<표 3-4> 참조).

<표 3-3> 조선 측(예조참의)이 일본의 측하 사절(대마도주)에게 전달한 回賜別幅

연번	품목	단위	1	2	3	4	5	6	7	8	9	10
			1650.4 경인	1660.3 경자 <sup>57)</sup>	1675.6 을묘	1720.12 경자 <sup>58)</sup>	1725.6 을사	1776.12 병신	1801.3 신유	1835.7 을미	1850.5 경술 <sup>59)</sup>	1864.12 갑자 <sup>60)</sup>
1	人蔘(人參)	斤, 觔	10 <sup>61)</sup>	10	10	10	10	10	10	10	10 <sup>62)</sup>	10 <sup>63)</sup>
2	虎皮	張	5	5	5	5	5	5	5	5	5	5
3	豹皮	張	-	-	5	5	5	5	5	5	5	5
4	白苧布	匹	40	40	30	30	30	30	30	30	30	30
5	白綿紬	匹	40	40	30	30	30	30	30	30	30	30
6	黑麻布	匹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7	白木綿	匹	150	15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	花席	張	30	30	30	30	30	30	30	30	30	30
9	六張付油芘	部	8	8	-	-	-	-	-	-	-	-
10	四張付油芘	部	10	10 <sup>64)</sup>	10	10	10	10	10	10	10	10
11	黃毛筆	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2	眞墨	笏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種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출전	국편 일본 서계		753	945	1470	3552	3535	5447	6455	7897	8524	9024
	동문회고		2-1796	2-1798	2-1798	2-1799	2-1799	2-1800	4-3834	4-3835	4-3836	4-3836
	往復書牘				19	60	64	108	130	160	174	188

자료 : '국편 일본 서계'는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서계의 DS로 시작하는 번호.

'동문회고'는 『同文彙考』 二와 『同文彙考』 四(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8)의 해당 부분 쪽번호.

'往復書牘'은 『兩國往復書牘』(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의 문서 번호.

<표 3-4> 조선 측(동래부사, 부산첨사)이 일본의 축하 사절(대마도주)에게 전달한 回賜別幅

※ 동래부사, 부산첨사 회사별폭의 내용이 동일

연번	품목	단위	1	2	3	4	5	6	7	8	9	10	
			1650.4	1660.3	1675.6	1720.12	1725.6	1776.12	1801.3	1835.7	1850.5	1864.12	
			경인	경자	을묘	경자 <sup>65)</sup>	을사	병신	신유	을미	경술	갑자	
1	白苧布	匹	5	5	5	5	5	5	5	5	5	5	
2	白綿紬	匹	5	5	5	5	5	5	5	5	5	5	
3	白木綿	匹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4	花席	張	5	5	5	5	5	5	5	5	5	5	
5	四張付油 芻	部	1	1	1	1	1	1	1	1	1	1	
출전	국편 일본 서계	문서 번호	753	945	1470	3552	3535	5447	6455	7897	8524	9024	
	동문회고 本邦朝鮮 往復書		二(1796)										
	兩國往復 書牘			2938									
				19	60	66	108	130	160	173	188		

자료 : 1650년 회답서계의 별폭 내용에 대해서는 『同文彙考』 二(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그리고 1720년은 『兩國往復書牘』(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에 의한 것이며, 나머지 연도는 모두 국사편찬위원회 ‘일본 서계’에 의함.

지금까지는 외교문서 교환에 수반되어 양측이 주고받았던 외교 선물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그런데 외교 선물의 교환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일본 사절이 조선에서 일정을 모두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즉 그들이 왜관에 체재 중일 때, 양측은 여러 차례 외교 선물을 교환하였다. 아래에서는 세 차례 공식 연회(三度宴) 때의 외교 선물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 57) 『동문회고』 원문에는 “별폭 물목이 위와 같음. 경인년을 참조”(別幅 物目同上 見庚寅)라고 적혀 있음(『同文彙考』 二,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798쪽).
- 58) 『동문회고』 원문에는 “별폭 물목이 숙종 을묘년과 같음”(別幅 物目同上 肅宗乙卯)라고 적혀 있음(『同文彙考』 二,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799쪽).
- 59) 『동문회고』 원문에는 “별폭 문서 형식과 물목이 정종(정조-인용자주) 경신년(1800년-인용자주)과 같음”(別幅 文式物目同 正宗庚申)으로 적혀 있음(『同文彙考』 四,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3836쪽).
- 60) 『동문회고』 원문에는 “별폭 문서 형식과 물목이 정종(정조-인용자주) 경신년(1800년-인용자주)과 같음”(別幅 文式物目同 正宗庚申)으로 적혀 있음(『同文彙考』 四,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3836쪽).
- 61) 『동문회고』 원문에는 斤으로 적혀 있음.
- 62) 『兩國往復書牘』에는 觔으로 적혀 있음.
- 63) 『兩國往復書牘』에는 觔으로 적혀 있음.
- 64) 『동문회고』 원문에는 四油芻으로 적혀 있음(『同文彙考』 二,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798쪽).
- 65) 원문에는 “동래부사, 부산첨사 (별폭) 물목 모두 효종 경인년을 참조”(東萊釜山 物目并見 孝宗庚寅)라고 적혀 있음(『同文彙考』 二,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799쪽).

## 2. 삼도연(三度宴)을 통한 선물 교환

### (1) 조문 사절을 위한 삼도연(三度宴)의 개최

조선 측이 1864년 일본의 조문 사절을 위해 개최한 삼도연 가운데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하선연(봉진연)은 동년 12월 19일에 있었다. 그날 『관수일기』에 따르면, 연석에 참석한 접위관(接慰官)이 군관사(軍官使)를 왜관으로 들여보내서 관수에게 문안 인사를 했으며, 관수는 그 군관사에게 담배를 선물로 주었다고 했다. 그리고 관수도 접위관 측에 약당사(若黨使)를 보내 답례 인사를 하였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하선연(봉진연)을 마친 뒤에는 조문 사절의 봉진(永瀨常助)이 관수 쪽으로 가서 연회가 무사히 종료되었음을 보고했다고 적혀 있다.<sup>66)</sup>

『조례사기록』(1864년 12월 19일)에도 ‘봉진연 거행 절차(封進宴席之次第)’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이날 오전 9~11시(巳之刻) 접위관과 동래부사가 사카노시타(坂之下)-조선 역관의 집무소인 임소(任所) 주변-로 불리는 곳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때 차비관(差備官) 1인이 소통사를 왜관으로 들여보내 외대청(外大廳)-초량객사(草梁客舍)<sup>67)</sup>-에서 일본 사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관수에게 알렸다. 하선연(봉진연)이 개최되는 날에는 일본 사절이 조선 국왕의 위패(位牌) 앞에서 예를 표하는 의례가 있었다. 이를 숙배(肅拜)라 했으며, 그 장소를 숙배소(肅拜所)로 부르기도 했다. 1864년에도 관례대로 조위진향의(弔慰進香儀)라 불리는 의식을 거행하였는데, 그 뒤에는 조선 조정과 접위관이 각각 보낸 선물(일본 기록에서는 音物로 표기)이 목록과 함께 일본 측에 전달되었다(看品). 그 뒤 장소를 옮겨서 연회가 베풀어졌다(封進宴).<sup>68)</sup>

66) · 今日弔禮使封進宴有之。

· 接慰官出宴ニ付爲見舞軍官使來候付割葉紛相與此方よりも若黨使を以挨拶申入。

· 弔禮使封進永瀨常助入來封進宴無滯相濟候段屆有之。

(『館守日記』 元治 1년(1864) 12월 19일).

67) 초량왜관으로 이전 하기 전의 두모포왜관 때까지는 부산진성 안의 객사까지 일본 사절이 드나들었다. 임진왜란 이후 상경(上京)이 불허된 일본 사절에게 조선 국왕의 전패(殿牌) 앞에서 예를 표하는 숙배(肅拜)가 그곳 객사에서 거행되어 왔다. 그런데 두모포왜관에서 부산진객사까지 오가는 사이에 일본 사절이 조선인 마을에 함부로 출입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래서 초량왜관으로 이전하면서 초량객사가 신설된 뒤로는 일본 사절이 이곳까지만 가게 되었다. 왜관과 인접한 연향대청(宴大廳)으로 줄여 부르기도 함)과 달리 ‘왜관의 바깥쪽에 위치한 대청’이란 뜻으로, 일본인들은 초량객사를 가리켜 외대청(外大廳)으로 불렀다(부산광역시 중구, 『우리의 삶터 부산 중구를 담다』 상, 100쪽; 다시로 가즈이(田代和生) 지음, 정성일 옮김, 『왜관-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2005, 74쪽, 156쪽).

68) · 今日大廳之次第、… 如初階を下り肅拜所ニ歸る時 … 尤中之門を出る時接慰官東萊より進香之式無滯相濟候挨拶軍官使を以申來、詰合之判事中也祝辭申聞相應ニ及返答。

일본 조문 사절에 대한 두 번째 연회(연석)에 해당하는 별연(중연석)은 앞에서 설명한 하선연(봉진연) 개최 하루 뒤인 1864년 12월 20일에 있었다. 이날도 별차와 차비관이 왜관으로 들어간 사실을 조선 측이 전례대로 소통사를 시켜서 관수에게 알렸다. 별차 등이 왜관으로 간 것은 이날 별연(중연석)이 열렸기 때문이었다. 별연(중연석)이 끝난 뒤에는 일본 측하 사절의 봉진(永瀬常助)이 관수 쪽으로 가서 연회의 무사 종료를 알리는 동시에, “접위관이 병이 나서 참석할 수 없어 이날 중연석(中宴席)이 하행(下行)으로 열렸다”고 관수에게 보고하였다.<sup>69)</sup> 여기에서 하행이란 동래부사 이상 고위직이 불참한 가운데, 부산첨사라든가 양역(훈도, 별차) 등 ‘하위직만 참석하여 거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sup>70)</sup>

『조례사기록』(1864년 12월 20일)도 “이날 중연석이 하행(下行)으로 거행되었다”고 적었다. 하루 전에 개최된 하선연(봉진연)에는 참석했던 접위관이 바로 다음 날 열린 별연(중연석)에는 병을 이유로 들어서 불참하였는데, 이와 같은 관행은 그 전부터 이어져 왔었다. 그런데 이날도 양측이 다양한 선물을 주고받았음은 물론이다.<sup>71)</sup>

일본 조문 사절의 삼도연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상선연(출선연)은 별연(중연석) 개최 6일 뒤인 1864년 12월 26일에 있었다. 그런데 『관수일기』 작성자는 이에 대하여 “조례사 중연석과 관련하여 별차가 함께 왔는데, 하행(下行)으로 개최하기로 협의하여 무사히 종료되었다고 대통사(大通詞) 대리를 맡은 가와모토(川本信助)와 오인통사(五人通詞) 오다(小田莊輔) 등이 관수에게 보고하였으며, 일본의 조문 사절 쪽에서도 이 사실을 관수에게 알렸다.”고 적었다. 다만 이날 열린 것은 별연(중연석)이 아니라 상선연에 해당하는 ‘출선연’이었는데, 『관수일기』 작성자가 이를 ‘중연석’으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생각한다.<sup>72)</sup>

• 兼日兩譯より差出置候進香之式書左ニ記。

• 朝廷より之音物足附之臺之上ニ配之、接慰官より之音物も出之、差備官を以兩所之目錄正官へ被差渡、乍菲薄依先例目錄之通致進覽候との儀故、則目錄請取之通通詞を以封進へ廻し封進より侍奉へ廻し侍奉より此方役人請取之、相應ニ一札申達 … (이하 생략).

(『弔禮使記録』 元治 1년(1864) 12월 19일, 국사편찬위원회 DK3554).

69) • 別差弔禮使差備官入館之段小通事相届。

• 就右封進永瀬常助入來中宴席接慰官病氣ニ付下行引合無滯相濟候段届有之。

(『館守日記』 元治 1년(1864) 12월 20일).

70) 정성일, 「일본 사신의 조선 국왕 즉위 축하와 가쓰오부시[鯉節]-1864년 고종 즉위 사절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연구』 34, 조선통신사학회, 2022, 8-9쪽.

71) • 今日中宴享下行ニ而入來候付差備官別差入館 … (이하 생략).

• 宴享音物下行物等無別條相請取候段 … 封進より館守へ相届。

• 接慰官東萊より出入船遣并正官別遣之返物來短簡木ニ記。

(『弔禮使記録』 元治 1년(1864) 12월 20일, 국사편찬위원회 DK3554).

72) 弔禮使中宴席ニ付別差同道罷出候處下行引合無滯相濟候段、大通詞假役番川本信助五人通詞小田莊輔相届、御使者よりも届有之。

그런데 이날 상선연(출선연)도 별연(중연석)과 마찬가지로 하행(下行)으로 거행되었다. 그렇지만 상선연(출선연) 때 지급할 선물의 교환은 관례대로 이루어졌으며, 일본 조문 사절의 봉진이 이 사실을 선례에 따라 왜관의 관수에게 보고하였다.<sup>73)</sup> 그리고 이날 조선 측이 12종의 육물(陸物) 즉 배를 수리할 때 필요한 물품을 조문 사절 일행에게 지급하였다.<sup>74)</sup>

## (2) 축하 사절을 위한 삼도연(三度宴)의 개최

일본 축하 사절의 삼도연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하선연(봉진연)은 1865년 1월 28일 개최되었다. 이날 하선연(봉진연) 준비가 완료된 뒤에 관수가 축하 사절의 정관이 있는 쪽으로 갔다. 그리고 재판 이하 역인들도 나와서 (정관 일행을) 맞이하였다. 하선연(봉진연)이 종료된 뒤에는 축하 사절의 도선주(早田作左衛門)와 봉진(嶋居清助)이 관수에게 가서 하선연(봉진연)을 무사히 마쳤다고 보고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하선연(봉진연)에 출석한 동래부사가 관수에게 문안 인사를 하려고 군관사를 왜관으로 들여보냈기에, 관례대로 관수가 담배를 그 군관사에게 주었으며, 관수도 사람을(若黨使) 보내서 동래부사 쪽에 답례 인사를 하였음이 『관수일기』에 보인다.<sup>75)</sup>

『진하대차기록』(1865년 1월 28일)에는 ‘봉진연 거행 절차’ 등이 더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외교 선물(別幅物)의 교환 장면과<sup>76)</sup> 일본 사절의 숙배소(肅拜所)<sup>77)</sup> 의례 등 당시 상황을 살필 수 있다. 그리고 하선연(봉진연) 때는 꽃으로

(『館守日記』 元治 1년(1864) 12월 26일).

73) · 今日出船宴下行二而入來封進方二而禮房と役人引合之 … (이하 생략).

· 出宴享下行物無滯入來候、爲届封進館守へ罷出。

(『甲禮使記錄』 元治 1년(1864) 12월 26일, 국사편찬위원회 DK3554)

74) 外向より相請取候陸物左ニ記。(아래 원문자는 인용자가 붙인 것임)

① 空席(50枚), ② 藁(30束), ③ 帆箆(5枚), ④ 折板(2枚), ⑤ 大蓬(20枚), ⑥ 菰皮網(1房), ⑦ 切柱(1本), ⑧ 苧網(1房), ⑨ 葛網(1房), ⑩ 板釘(30本), ⑪ 大竹(42本), ⑫ 折絲(50枚)

(『甲禮使記錄』 元治 1년(1864) 12월 26일, 국사편찬위원회 DK3554).

75) · 今日陳賀使封進宴被成御整候付拙者麻上下着正官方へ其外裁判已下役中侍中麻上下着罷出迎送茶禮之節同斷ニ付略之。

· 陳賀使都船主早田作左衛門封進嶋居清助入來宴席無滯相濟候段届有之。

· 東萊出宴ニ付見舞として軍官使來候付割葉紛相與此方よりも若黨使を以挨拶申遣。

(『館守日記』 元治 2년(1865) 1월 28일).

76) · 僉使より訓導を以初而對面之挨拶別幅之品可請取と之儀申來相應及挨拶候上小通事罷出僉使之書記讀掛候を別幅物順々ニ取出僉使一覽被相請取町代官致差圖小通事取扱此方下代共も手を添、

· 別幅物相渡畢而相應之挨拶有之、如初對禮として都船主封進退去無滯別幅物相渡候段正官へ相届

(『陳賀大差記錄』 1865년 1월 28일, 국사편찬위원회 DK3541).

77) 肅拜之節正官脇へ醫師小姓通詞中相附罷在(『陳賀大差記錄』, 국사편찬위원회 DK3541). 그리고 이 자료에 실린 당시 숙배소 그림은 다음을 참조. 鄭成一, 「일본 사신의 조선 국왕 즉위 축하와 가쓰오부시[鯉節]-1864년 고종 즉위 축하 사절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연구』 34, 조선통신사학회,

장식을 한다든가, 기생이 와서 공연(女樂)을 하는 것이 선례였지만, 이때는 국상(國喪) 중이라서 그것을 없앴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일본인들이 먹을 것은 생선과 닭고기 등으로 준비했으며, 조선인이 먹을 음식은 (고기나 생선이 아닌) 채소류를 가지고 준비했다고 한다.<sup>78)</sup>

두 번째에 해당하는 별연(중연석)은 1865년 2월 11일 개최되었다. 그런데 이날 중연석에는 접위관(接慰官)과 동래부사가 모두 병이 나서 불참했으며, 차비관(差備官)과 양역(훈도, 별차)만 참석해서 연회가 개최되었다고 생각한다.<sup>79)</sup> 동래부사 이상 고위직이 불참한 가운데 하위직만 참석하여 연회를 치르는 하행(下行)이 이때도 되풀이되고 있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sup>80)</sup>

일본 축하 사절의 삼도연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상선연(출선연)은 1865년 3월 2일에 있었다. 그런데 이때도 “접위관과 동래부사가 병이 나서 출선연이 하행(下行)으로 실시되었다”고 『관수일기』에 적혀 있다.<sup>81)</sup> 『진하대차기록』도 상선연(上船宴) 즉 출선연이 하행으로 실시되었다고 하면서, 당상차비관과 당하차비관이 병으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썼다. 그리고 양역(훈도, 별차)이 일본 측 통사를 데리고 연회(연석) 장소로 가서 연향 선물(宴享音物)을 받아 갔음이 확인되었다.<sup>82)</sup>

### (3) 삼도연(三度宴) 때의 외교 선물에 관한 기록

삼도연 때 양측이 교환한 외교 선물의 내용은 어떠하였을까? 조선 측 기록에 보이는 삼도연(三度宴) 때의 외교 선물(禮單) 지급 규정을 정리한 것이 <표 4-1>이다. 이에 따르면 외교 선물을 지급하는 조선 측의 주체는 크게 둘로 나뉜다. 즉 첫 번째는

2022, 17쪽.

78) · 封進宴之節は作花飾女樂等有之候先格候得共、國喪中故無之儀膳部も此方之分は魚鳥仕立彼方は精進仕立。(『陳賀大差記錄』 1865년 1월 28일, 국사편찬위원회 DK3541).

79) 陳賀使出中宴席之義接慰官東萊共病氣ニ付差備官兩譯入來手數問無滯相濟候段御使者より届有之(『館守日記』 元治 2년(1865) 2월 11일).

80) · 中宴席下行入來候付太廳鑣建正官并都船主伊達道具飾之  
· 兩差備官訓導別差御重用通辯役廣瀨豊吉通詞中相附太廳へ罷出候付封進役人罷出宴享音物短簡ニ引合請取之相濟候段相届候上 … (이하 생략)  
(『陳賀大差記錄』 元治 2년(1865) 2월 11일, 국사편찬위원회 DK3541).

81) 陳賀使出船宴東萊接慰官病氣ニ付下行ニ而無滯相濟候段都船主早田作左衛門入來被相届(『館守日記』 元治 2년(1865) 3월 2일).

82) · 今日上船宴下行入來候付太廳鑣建正官并都船主伊達道具例之通飾之  
· 堂上差備官堂下差備官病氣ニ付不罷出訓導別差御重用通辯役通詞相附太廳へ罷出候付封進役人宴享音物短簡ニ引合請取之相濟候段届之上 … (이하 생략)  
(『陳賀大差記錄』 元治 2년(1865) 3월 2일, 국사편찬위원회 DK3541).

조정(朝廷)이고, 두 번째는 접위관(接慰官) 이나 당상차비관(堂上差備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 조정이 지급하는 외교 선물의 수취자는 일본 사절의 정관(正官), 도선주(都船主) 등 상위 직급부터 반종(伴從) 등 하위 직급까지 열거되어 있다. 그렇지만 접위관이나 당상차비관 등이 지급하는 외교 선물(이를 조선에서는 私禮單으로 불렀음)에 대해서는 그것을 수취하는 일본 사절이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대조를 보인다.

〈표 4-1〉 조선의 三度宴 禮單 지급 규정

연번	품목	단위	朝廷의 禮單 (下船宴, 館中宴, 上船宴 동일)			私禮單	
			正官, 都船主	奉進押物, 侍奉	伴從	接慰官	堂上差備官
			각 1인	각 1인	16인		
1	人蔘	觔	1			6	3
2	虎皮	張				2	4
3	豹皮	張				4	
4	白綿紬	匹	5	2	16	15	5
5	白苧布	匹	5	2	16	15	5
6	白木綿	匹	5	3	32	25	10
7	黑麻布	匹	3			8	5
8	黃毛筆	匹	20			80	
9	眞墨	笏	20			80	
10	四張付油筆	部	2			8	
11	花席	張	3			13	
12	清酒	瓶				15	
13	大口魚	尾				30	
14	花硯	面				5	
15	桃花紙	卷				6	
16	雲暗紙	卷				6	
17	黃菊紙	卷				6	
18	草注紙	卷				6	
19	雪花紙	卷				9	
20	壯紙	卷				32	
21	白紙	卷				48	
22	大厚油紙	張				53	
23	桃花唐扇	柄				13	
24	雲暗唐扇	柄				13	
25	黃菊唐扇	柄				13	
26	白唐扇	柄				78	
27	栢子	斗				7	
28	胡桃	斗				10	
29	房栢子	顆				240	
30	黃栗	斗				17	
31	石耳	斗				3	
32	鮒魚	尾				40	
33	鯉魚	尾				20	

주: 侍奉은 1776년까지는 1인이며, 1801년 이후는 2인임.

자료: 『同文彙考』二(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796쪽); 『국역 증정교린지』(하우봉·홍성덕 옮김, 77쪽)

일본 측 기록에 보이는 1864년 삼도연(三度宴) 때 지급되었던 외교 선물(禮單)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 <표 4-2>이다.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교 선물의 지급 주체가 조선 조정과 접위관(接慰官)으로 둘로 나뉘어 있었다. 앞의 <표 4-1>과 달리 당상차비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리고 조선 기록에서는 삼도연(下船宴, 館中宴, 上船宴)의 예단 내용이 동일하다고 되어 있지만, 일본 기록에는 삼도연(封進宴, 中宴席, 出船宴)의 예단 내용이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었다. 즉 조선 조정이 지급하는 외교 선물은 삼도연이 모두 동일하다고 기록하였지만, 접위관이 지급할 때는 그것이 연석(연향) 때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예를 들어 황모필(黃毛筆)의 경우 봉진연 때는 정관에게도 지급되지 않았지만, 중연석에서는 정관에게만 지급되었다. 그런데 출선연 때는 그것을 정관과 봉진과 시봉에게 모두 지급하되, 정관과 봉진(시봉) 사이에는 차등을 두었다(봉진과 시봉에게는 지급량 동일).

<표 4-2> 일본 측하 사절이 기록한 三度宴 외교 선물(1864년)

연번	품목	단위	朝鮮 朝廷이 지급				接慰官이 지급(私禮單)															
			封進宴, 中宴席, 出船宴 (동일)				封進宴				中宴席				出船宴							
			수취인				수취인				수취인				수취인							
			正官 都船 主	封進 侍奉	伴人	格人	正官 都船 主	封進	侍奉	伴人	正官 都船 主	封進	侍奉	伴人	正官 都船 主	封進	侍奉	伴人				
			각 1인	각 1인	10 인					각 1인	1인	1인	10 인	각 1인	1인	1인	10 인	각 1인	1인	1인	10 인	
1	人蔘	觔	1						1									1				
2	豹皮	張												1								
3	白綿紬	匹	5	2	10				2	1	1		2	1	1		2					
4	白苧布	匹	5	2	10				2	1	1		2	1	1		2					
5	白木綿	匹	5	3	20				3	2	2			2	2		3	2	2			
6	黑麻布	匹	3										3				2	1	1			
7	黃毛筆	匹	20										10				10	5	5			
8	眞墨	笏	20										10				10	10	10			
9	四張付 油笔	部	2						1				2									
10	花席	張	3						3													
11	淸酒	瓶						5														
12	大口魚	尾						10														
13	花硯	面							1				1				1					
14	色扇	柄							5					10	10		10					
15	桃花紙	束							1													
16	雲暗紙	束							1	1												
17	黃菊紙	束											1				1					
18	草注紙	束											1									
19	雪花紙	束							1		1		1				1	1	1			

20	壯紙	束					2	2			2	2			2	2		
21	白紙	束							10				10				10	
22	白唐扇	柄							20				20				20	
23	栢子	斗								1	1							
24	胡桃	斗					1	1										
25	房栢子	顆										50						
26	黃栗	斗					1	1	4					4			5	
종류			9	3	3	2	11	7	7	3	11	7	6	3	11	6	6	3

자료 : 『陳賀大差記錄』(국사편찬위원회 DK 3546)

이처럼 조선 기록과 일본 기록이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일본 기록에는 조선 조정이 지급하는 일본 사절의 대상자 중에 배를 끄는 결꾼(한자로는 格軍으로 적음)인 격인(格人)이 들어 있는 반면에(<표 4-2> 참조), 조선 기록에는 그 내용이 적혀 있지 않다(<표 4-1> 참조). 조선 조정이 정관과 도선주에게 지급하는 예단의 품목과 수량에서는 두 기록이 일치하지만, 그것 외에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더 많다. 특히 접위관 등이 지급한 것을 기록한 내용에서는 일본 측 기록이 상대적으로 더 자세하다. 외교 선물을 주는 쪽보다는 그것을 받는 쪽에서 선례를 더 중요하게 취급하여 그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외교 선물은 삼도연 때까지만 교환되었을까? 공식적인 3대 연회(삼도연) 외에도 비공식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았을 것이기 때문에, 외교 선물의 교환은 삼도연으로 그치지 않는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다만 조선 측 기록은 삼도연까지만 다루고 있기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 기록에서 찾아볼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는 일본 사절의 왜관 체재 중에 교환되었던 개인 차원의 외교 선물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 3. 그 밖의 개인 간 선물 교환

#### 가. 조문 사절의 경우

1864년부터 1865년 사이에 일본의 조문 사절이 왜관에 머물면서 조선 측에 전달한 외교 선물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 <표 5-1>이다. 『조례사기록』에는 절기에 따라서(中元, 重陽, 歲暮), 일본 사절의 입항과 출항에 맞추어서(入船, 出船), 그 밖에 그때 그때 개인의 형편을 고려하여(自分), 외교 선물이 교환된 시기를 6가지로 구분하여 기술되어 있다.<sup>83)</sup> 품목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뉜다. 즉 ① 구리 등 금속

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炙網, 炙子, 藥罐, 酒鍋, 南飛, 姜板, 鍋, 卸 등), ② 일본의 독특한 마키에(蒔繪, 이를 彩畫로 기록하기도 함) 기법으로 제작한 공예품(層匣, 菓子盆, 蒔繪重箱, 手提重, 春慶吉野重), ③ 문방구(紋紙), ④ 기타(別雨傘, 別傘, 剪子, 輪圖, 南艸, 唐鋏, 太平, 眞針, 扇子, 仁風,<sup>84)</sup> 眼鏡)가 그것이다.

〈표 5-1〉 일본의 조문 사절이 조선 측에 전달한 외교 선물(1864~65년)

No	구분	지급인	수취인	시기	種	품목			
						동철 제품	채화 목공	문방구	기타
1	中元	弔禮使	東萊府使	1864.7.	8	中炙網	土層匣, 小土層匣		別雨傘, 五寸剪子, 中輪圖, 代南艸, 仁風
			釜山僉使		5	中炙網		小輪圖, 代南艸, 煙器, 仁風	
2	重陽	弔禮使	東萊府使	1864.9.	10	小藥罐, 朱蓋酒鍋, 中炙網	菓子盆		別雨傘, 唐剪子, 眼鏡, 小輪圖, 中輪圖, 仁風
			釜山僉使		5	小炙網		小輪圖, 中輪圖, 代南艸, 仁風	
3	入船	弔禮使	接慰官	1864.11.	8	鐵梅紋累伍南飛, 中藥罐, 中炙網, 中姜板	大層匣, 中層匣		別雨傘, 眼鏡
			東萊府使		8	鐵梅紋累伍南飛, 中藥罐, 中炙網, 中姜板	大層匣, 中層匣		別雨傘, 眼鏡
			釜山僉使		6	小炙網	大層匣, 中層匣, 小層匣		小輪圖, 仁風
			訓導		9	鐵梅形五入子鍋, 銅中卸, 銅小炙子.	蒔繪七寸重箱,		六寸唐鋏, 太平, 眼鏡, 二寸眞針, 扇子
			別差		9	鐵梅形五入子鍋, 銅小炙子	五色手提重, 菓子鉢		六寸唐鋏, 別傘, 眼鏡, 小眞針, 扇子
			差備官(李主簿)		7	鐵梅形五入子鍋, 銅小炙子	五色手提重		唐鋏, 別傘, 眼鏡, 二寸眞針
			差備官(韓主簿)		7	鐵梅形五入子鍋, 銅小炙子	五色手提重		唐鋏, 別傘, 眼鏡, 二寸眞針
4	出船	弔禮使	接慰官	1864.11.	8	赤銅累參南飛, 赤銅間鍋, 中炙網, 中姜板	中層匣, 小層匣	紋紙	眼鏡

83) 『弔禮使記錄(1864년)』(국사편찬위원회 DK3554)

84) 仁風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혹시 이것이 술의 일종은 아닐까 하고 추정해 본다. 일본어로 진푸(仁風 じんぷう)는 오키나와 특산물인 아와모리(泡盛)에 붙여진 술 이름으로 짐작된다(사람들 사이에서 산들산들 부는 바람 같은 술이 되라는 의미?).

		㉔		東萊府使		8	赤銅累參南飛, 赤銅間鍋, 中炙網, 中姜板	中層匣, 小層匣	紋紙	眼鏡
		㉕		釜山僉使		6	小炙網	大層匣, 中層匣, 小層匣		小輪圖, 仁風
		㉖		訓導		9	鐵梅形五入子鍋, 銅小炙子, 銅中卸	蒔繪七寸重箱		六寸唐鉢, 大平, 二寸眞針, 眼鏡, 扇子
		㉗		別差		9	鐵梅形五入子鍋, 銅小炙子	五色手提重, 菓子鉢		六寸唐鉢, 別傘, 小眞針, 眼鏡, 扇子
		㉘		差備官 (李主簿)		7	銅間鍋, 銅小炙子, 銅中卸		紋紙	六寸唐鉢, 別傘, 二寸眞針
		㉙		差備官 (韓主簿)		7	銅間鍋, 銅小炙子, 銅中卸		紋紙	六寸唐鉢, 別傘, 二寸眞針
		㉚		回答書契 差備官		6	銅小炙子	春慶大吉野重, 春慶小吉野重		小眞針, 眼鏡, 扇子
5	歲暮	㉛	弔禮使	東萊府使	1865.1.	8	赤銅酒南飛, 小炙網	中層匣, 小層匣		別雨傘, 眼鏡, 二寸輪圖, 仁風
		㉜	弔禮使	釜山僉使	1865.1.	5	小炙網	中層匣		小輪圖, 眼鏡, 仁風
6	自分	㉝		接慰官		8	赤銅累參南飛, 中藥罐, 中姜板, 中炙網	大層匣	紋紙	別雨傘, 眼鏡
		㉞		東萊府使		10	赤銅累參南飛, 中藥罐, 中姜板, 小炙網	大層匣, 小層匣		別雨傘, 大平, 眼鏡, 中輪圖
		㉟		釜山僉使		5	小藥罐	小層匣		眼鏡, 小輪圖, 仁風
		㊱		訓導		8	銅五ッ入子口附鍋, 銅間鍋, 銅中藥罐, 銅小炙子	蒔繪七寸重		二寸眞針, 眼鏡, 扇子
		㊲	正官	別差		8	銅三ッ入子貝燒鍋, 銅小藥罐, 銅中炙子	春慶中吉野重		別傘, 眼鏡, 小眞針, 扇子
		㊳		差備官 (大有)		8	鐵梅形五ッ入子鍋, 銅間鍋, 銅小炙子	春慶中吉野重		六寸唐鉢, 別傘, 眼鏡, 小眞針
		㊴		差備官 (敬汝)		8	銅五ッ入子口附鍋, 銅小炙子, 銅中卸	春慶中吉野重		別傘, 眼鏡, 小眞針, 扇子

주: 원문에는 '音物'로 적었는데, 이것은 조선에서 말하는 '私禮單'에 해당함.

자료: 『弔禮使記錄(1864년)』(국사편찬위원회 DK3554).

1864년부터 1865년 사이에 조선 측이 일본의 조문 사절에게 회답한 외교 선물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 <표 5-2>이다. 마찬가지로 『조례사기록』에는 절기와(中元, 重陽, 歲暮), 일본 사절의 입출항(入船, 出船), 그리고 개인 형편을(自分) 기준으로 외교 선물의 교환 시기를 6가지로 구분해 놓았다.<sup>85)</sup> 품목을 살펴보면 크게 5가지 부류로 나뉜다. 즉 ① 약재(인삼), ② 직물(正木, 三升, 綿紬, 白綿紬, 貴州紬, 西洋木, 西洋佳只, 西洋緞, 亢羅布 등), ③ 문방구(白紙, 平白紙, 別白紙, 雪花紙, 平壯紙, 草注紙, 厚油紙, 色筆 등), ④ 식재료(淸蜜, 眞油, 眞苳(瓜), 粘米, 小豆, 白餅, 乾柿, 乾柿紅柿, 柏子, 大口魚, 乾大口魚, 文魚, 廣魚, 軟鷄, 鴨子, 脯肉, 乾雉, 胡桃, 石茸 등), ⑤ 기타(唐扇, 色圓扇, 書本, 畫本, 假花, 柱聯, 玉佩, 扇香, 萬壽香 등)가 그것이다.

<표 5-2> 조선 측이 일본의 조문 사절에게 준 외교 선물(1864~65년)

No	구분	지급인	수취인	시기	種	품목				
						약재	직물	문방구	식재료	기타
1	中元	① 東萊府使	正官	1864.7.	12				淸蜜, 大口魚, 脯肉, 眞苳(瓜) 등	
		② 釜山僉使				正官	5		白紙	軟鷄 등
2	重陽	① 東萊府使	正官	1864.7.	10		正木 등	平壯紙 등	粘米 등	
		② 釜山僉使				正官	5		白紙	粘米, 紅柿
3	入船	① 接慰官	正官		10			草注紙 등	柏子 등	
		② 東萊府使				9	綿紬 등	別白紙 등	文魚 등	
		③ 釜山僉使				6		白紙	粘米 등	
		④ 訓導				11	西洋木 등			萬壽香 등
		⑤ 別差				9	西洋加只 등			萬壽香 등
		⑥ 差備官(大有)				8	亢羅布 등			萬壽香 등
		⑦ 差備官(敬汝)				7	西洋木 등			萬壽香 등
4	出船	① 接慰官	正官		10					
		② 東萊府使				9				
		③ 釜山僉使				6				
		④ 訓導				11	西洋木 등			萬壽香 등
		⑤ 別差				9	西洋加只 등			萬壽香 등
		⑥ 差備官(大有)				8	亢羅布 등			萬壽香 등
		⑦ 差備官(敬汝)				7	西洋木 등			萬壽香 등
		⑧ 回答書契差備官	正官	7	三升 등	色筆 등		萬壽香 등		
5	歲暮	① 東萊府使	正官	1864.12	11				眞油, 廣魚, 脯肉, 乾雉, 胡桃 등	
		② 釜山僉使				5		白紙	粘米, 小豆, 乾大口魚, 乾柿	

85) 『弔禮使記錄(1864년)』(국사편찬위원회 DK3554)

6	自分	③	訓導	正官	7	白綿紬 등		白餅, 乾柿, 鴨子 등	
		④	別差		7	白綿紬 등		白餅, 乾柿, 鴨子 등	
		①	接慰官		10		厚油紙 등	石茸 등	唐扇
		②	東萊府使		11	綿紬 등	平白紙 등	粘米, 文魚 등	
		③	釜山僉使		6		白紙, 黃筆	粘米, 小豆, 大口魚, 乾柿	
		④	訓導		11	貴州紬, 西洋緞 등			畫本, 萬壽香 등
		⑤	別差		10	西洋加只, 九羅布 등			畫本, 萬壽香 등
		⑥	差備官 (大有)		8	三升 등	色筆 등		萬壽香 등
		⑦	差備官 (敬汝)		7	西洋木 등			萬壽香 등

주: 원문에는 '音物'로 적었는데, 이것은 조선에서 말하는 '私禮單'에 해당함.

자료: 『弔禮使記錄(1864년)』(국사편찬위원회 DK3554).

나. 축하 사절의 경우

1864년부터 1865년 사이에 조선 측이 일본의 축하 사절에게 전달한 외교 선물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 <표 6-1>이다. 『진하대차기록』에는 일본 사절의 입출항(入船, 出船), 절기(歲暮), 왜관 공사(監董), 그리고 개인 형편을(自分) 기준으로 외교 선물의 교환 시기를 5가지로 구분해 놓았다.<sup>86)</sup> 품목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 부류로 나뉜다. 즉 ① 구리 등 금속을 이용하여 만든 제품(盃盤, 南飛, 有口南飛, 貝形南飛, 手洗, 鍋, 口附鍋, 鐵間鍋, 貝燒鍋 등), ② 일본의 독특한 마키에(蒔繪, 이를 彩畫로 기록하기도 함) 기법으로 제작한 공예품(層匣, 菓子器, 菓子鉢, 重, 手提重, 嗜器, 金皮文庫, 大平 등), ③ 문방구(紋紙), ④ 기타(別雨傘, 別傘, 剪子, 唐剪子, 唐鋏, 片扇防蠅, 輪圖, 眞針, 扇子, 宣德火鉢, 輪圖, 琉璃酒盞, 刻多葉粉, 仁風, 眼鏡, 海黃 등)가 그것이다.

<표 6-1> 일본의 축하 사절이 조선 측에 준 외교 선물(1864~65년)

No	구분	지급인	수취인	시기	種	품목				
						동철 제품	채화 목공	문방구	기타	
1	入船		接慰官		18	赤銅累五盃盤, 鐵累五梅紋南飛, 小灸網 등	彩畫八寸層匣, 彩畫菓子器 등	紋紙	別雨傘, 六寸唐剪子, 眼鏡 등	
			東萊府使			20	赤銅累五有口南飛, 鐵累參貝形南飛, 小姜板 등	彩畫七寸層匣, 彩畫嗜器 등	紋紙	別雨傘, 琉璃酒盞, 眼鏡, 仁風 등
			釜山僉使			10		彩畫木色五寸層		片扇防蠅,

86) 『陳賀大差記錄(1864년)』(국사편찬위원회 DK3547)

		④	陳賀使	堂上差備官	1864.12.	19	銅五入子手洗, 鐵五入子梅形鍋 등	黑蒔繪八寸重, 木地蒔繪五寸重 등		別雨傘, 五寸唐剪子, 眼鏡, 仁風 등	
				訓導		19	銅五入子口附鍋, 鐵貳入子古婦鍋 등	黑蒔繪八寸重, 木地蒔繪五寸重 등		兩開蠅帳, 宣德火鉢, 三寸真針, 眼鏡, 扇子 등	
				堂下差備官		14	銅五入子口附鍋, 鐵間鍋 등	木地蒔繪五寸重, 蒔繪菓子鉢 등		五寸唐鉢, 扇子, 三寸真針, 眼鏡, 扇子 등	
				別差		14	銅五入子口附鍋, 鐵間鍋 등	木地蒔繪五寸重, 蒔繪菓子鉢 등		五寸唐鉢, 扇子, 三寸真針, 眼鏡, 扇子 등	
2	出船	②	陳賀使	接慰官	1864.12.	20	赤銅累五盃盤, 鐵累五梅紋南飛, 小灸網 등	彩畫八寸層匣, 彩畫菓子器 등	紋紙	兩扇防蠅, 別雨傘, 六寸唐剪子, 眼鏡, 仁風 등	
				東萊府使		20	赤銅累五有口南飛, 鐵累參貝形南飛, 小姜板 등	彩畫七寸層匣, 彩畫嗜器 등	紋紙	兩扇防蠅, 別雨傘, 琉璃酒盞, 眼鏡, 仁風 등	
				釜山僉使		10		彩畫木色五寸層匣, 中層匣 등		片扇防蠅, 別雨傘, 五寸唐剪子, 眼鏡, 仁風 등	
		④	(一行)	回答書契差備官		12	鐵貳入子古婦鍋 등	木地蒔繪五寸重, 蒔繪菓子鉢 등		片開蠅帳, 別傘, 刻多葉粉, 眼鏡, 扇子 등	
3	自分	①	正官	接慰官	1864.12.	14	赤銅累五盃盤, 赤銅累三有口南飛 등	彩畫八寸層匣, 彩畫菓子器 등	紋紙	兩扇防蠅, 三寸輪圖, 琉璃酒盞, 眼鏡, 仁風 등	
				東萊府使		14	赤銅累五盃盤, 赤銅累三有口南飛 등	彩畫七寸層匣, 五寸木色層匣 등	紋紙	兩扇防蠅, 三寸輪圖, 琉璃酒盞, 眼鏡, 仁風 등	
		③		釜山僉使			9	鐵累貳笠骨南飛 등	五寸木色層匣 등		片扇防蠅, 別雨傘, 五寸唐剪子, 眼鏡, 仁風 등
		④		堂上差備官			16	鐵累貳笠骨南飛 등	五寸木色層匣 등		片扇防蠅, 別雨傘, 五寸唐剪子, 眼鏡 등
		⑤		訓導			16	鐵累貳笠骨南飛 등	五寸木色層匣 등		片扇防蠅, 別雨傘, 五寸唐剪子, 眼鏡 등
		⑥		堂下差備官			12	鐵累貳笠骨南飛 등	五寸木色層匣 등		片扇防蠅, 別雨傘, 五寸唐剪子, 眼鏡 등

	⑦	別差		12	鐵累貳筮骨南飛 등	五寸木色層匣 등	片扇防蠅, 別雨傘, 五寸唐剪子, 眼鏡 등		
		講定官 (誠始)		14	銅五入子口附鍋, 鐵三入子貝燒鍋 등	朱八寸重, 黑蒔繪七寸重 등	別傘, 三寸眞針, 眼鏡, 扇子 등		
		義哉		8	銅五入子手洗, 銅五入子口附鍋 등	靑貝入七寸重, 金皮大文庫 등	海黃 등		
	4	歲暮	⑩ (一行)	講定官 (誠始)	(1864.12)	16	銅五入子口附鍋, 鐵三入子貝燒鍋 등	木地蒔繪五寸重, 蒔繪菓子鉢 등	五寸唐鉢, 三寸眞針, 扇子 등
			⑪ 都船主	堂上差備 官	1864.12.	12	銅三入子手洗, 鐵三入子貝燒鍋 등	金皮小文庫, 木地五寸重 등	別傘, 三寸眞針, 扇子 등
			⑫ 封進	堂上差備 官	1864.12.	12	銅三入子手洗, 鐵三入子貝燒鍋 등	金皮小文庫, 木地五寸重 등	別傘, 三寸眞針, 扇子 등
			⑬ 都船主	訓導	1864.12.	12	銅三入子手洗, 鐵三入子貝燒鍋 등	金皮小文庫, 木地五寸重 등	別傘, 三寸眞針, 扇子 등
			⑭ 封進	訓導	1864.12.	12	銅三入子手洗, 鐵三入子貝燒鍋 등	金皮小文庫, 木地五寸重 등	別傘, 三寸眞針, 扇子 등
			⑮ 都船主	堂下差備 官	1864.12.	12	銅三入子手洗, 鐵三入子貝燒鍋 등	五色手提重, 蒔繪菓子鉢 등	五寸唐鉢, 別傘, 三寸眞針, 眼鏡, 扇子 등
			⑯ 封進	堂下差備 官	1864.12.	12	銅三入子手洗, 鐵三入子貝燒鍋 등	五色手提重, 蒔繪菓子鉢 등	五寸唐鉢, 別傘, 三寸眞針, 眼鏡, 扇子 등
			⑰ 都船主	別差	1864.12.	12	銅三入子口附鍋, 鐵貳入子古婦鍋 등	五色手提重, 朱蒔繪大平 등	五寸唐鉢, 片開蠅帳, 二寸眞針, 眼鏡, 扇子 등
			⑱ 封進	別差	1864.12.	12	銅三入子口附鍋, 鐵貳入子古婦鍋 등	五色手提重, 朱蒔繪大平 등	五寸唐鉢, 片開蠅帳, 二寸眞針, 眼鏡, 扇子 등
①			陳賀使	東萊府使	1864.12.	11	鐵累貳筮骨南飛	五寸木色層匣, 彩畫菓子器 등	別雨傘, 五寸唐剪子, 眼鏡, 仁風 등
②	陳賀使	釜山僉使	1864.12.	5		大層匣, 中層匣, 小層匣	眼鏡, 仁風		

주: 원문에는 '音物'로 적었는데, 이것은 조선에서 말하는 '私禮單'에 해당함.

자료: 『陳賀大差記錄(1864년)』(국사편찬위원회 DK3547)

1864년부터 1865년 사이에 조선 측이 일본의 축하 사절에게 회답한 외교 선물에 대하여 정리한 것이 <표 6-2>이다. 마찬가지로 『진하대차기록』에는 일본 사절의 입출항(入船, 出船), 절기(歲暮), 왜관 공사(監董), 그리고 개인 형편을(自分) 기준으로 외교 선물의 교환 시기를 5가지 구분해 놓았다.<sup>87)</sup> 품목을 살펴보면 크게 5가지 부류로 나뉜다. 즉 ① 약재(인삼), ② 직물(細木, 中木, 三升, 綿紬, 表紬, 貴州紬, 英綃

緞, 西洋木, 西洋佳只, 西洋緞, 亢羅布 등), ③ 문방구(白紙, 別白紙, 平白紙, 平壯紙, 壯紙, 桃花紙, 雪花紙, 雲晴紙, 黃菊紙, 草注紙, 厚油紙, 黃筆, 唐筆, 色筆, 眞墨, 唐墨 등), ④ 식재료(淸蜜, 眞油, 眞菘(瓜), 粘米, 小豆, 白餅, 乾柿, 乾柿紅柿, 柏子, 大口魚, 乾大口魚, 文魚, 廣魚, 軟鷄, 鴨子, 脯肉, 乾雉, 胡桃, 石茸 등), ⑤ 기타(唐扇, 色尾扇, 象牙扇, 美人圖, 書柱聯, 畫柱聯, 書本, 畫本, 色絲, 玉佩, 扇香, 十八香, 萬壽香 등)가 그것이다.

〈표 6-2〉 조선 측이 일본의 측하 사절에게 준 외교 선물(1864~65년)

No	구분	지급인	수취인	시기	種	품목				
						약재	식물	문방구	식재료	기타
1	入船	① 接慰官	正官	1865.?	21	人蔘	貴州紬, 綿紬 등	雪花紙, 雲暗紙 등	乾柿, 胡桃 등	唐扇 등
		② 東萊府使		1865.2.	22	人蔘	貴州紬, 綿紬 등	平壯紙, 黃筆 등	粘米, 小豆 등	
		③ 釜山僉使		1865.1.	10		細木	厚白紙, 黃筆 등	粘米, 小豆 등	
		④ 堂上差備官		1865.2.	16		英絹緞, 貴州紬 등	唐筆		唐扇, 萬壽香 등
		⑤ 堂下差備官		1865.3.	13		西洋木 등	色筆 등		書本, 玉佩, 萬壽香 등
		⑥ 訓導		1865.2.	15		賞緞, 西洋緞 등			美人圖, 萬壽香 등
		⑦ 別差		1865.3.	13		表紬, 洋緞 등	色筆 등		畫本, 扇香, 萬壽香 등
2	出船	① 接慰官	正官	1865.2.	20	人蔘	禾紬	草注紙 등	乾柿, 栝子	唐扇 등
		② 東萊府使		1865.2.	22	人蔘	貴州紬, 綿紬 등	平壯紙, 厚白紙 등	粘米, 胡桃 등	
		③ 釜山僉使		1865.1.	10		細木	厚白紙, 黃筆 등	粘米, 小豆 등	
		④ 堂上差備官		1865.2.	17		英絹緞, 貴州紬 등	唐筆, 唐墨 등		色尾扇, 萬壽香 등
		⑤ 堂下差備官		1865.3.	13		西洋加只 등	色筆, 大眞墨 등		唐扇, 萬壽香 등
		⑥ 訓導		1865.2.	15		賞緞, 西洋緞 등			美人圖, 玉佩, 萬壽香 등
		⑦ 別差		1865.3.	13		表紬, 西洋緞 등			細行書本, 畫本, 唐扇, 萬壽香 등
		⑧ 回答書契差備官	(일행중)	1865.2.	12		西洋木, 亢羅布 등			書本, 畫本, 繡囊, 萬壽香 등
3	歲暮	① 東萊府使	(正官)	1864.12.	11				眞油, 淸蜜, 脯肉, 乾雉, 沙魚, 胡桃 등	
		② 釜山僉使	(正官)	1864.12.	5			白紙	粘米, 小豆, 乾大口魚, 乾柿	

87) 『陳賀大差記錄(1864년)』(국사편찬위원회 DK3547)

4	監董	① 監董官	正官	1865.2.	14		貴州紬, 唐筆, 唐 表紬 등, 唐墨 등		色絲, 萬壽 香 등	
		② 監董官	一行	1865.2.	14		貴州紬, 唐筆, 唐 表紬 등, 唐墨 등		色絲, 萬壽 香 등	
5	自分	① 接慰官	正官	1865.2.	15	人蔘	??	??	胡桃, 黃栗 등	唐扇 등
		② 東萊府使		1865.2.	17	人蔘	貴州紬, 平壯紙, 粘米, 小豆 粉紬 등, 厚白紙 등			
		③ 釜山僉使		1865.1.	10		細木, 中白厚紙, 粘米, 眞鷄 木	黃筆 등		
		④ 堂上差備官		1865.2.	15		英綃緞, 唐筆, 唐 貴州紬 등, 唐墨 등		繡囊, 萬壽 香 등	
		⑤ 堂下差備官		1865.3.	15		西洋佳只, 色筆, 大 西洋木 등, 眞墨 등		玉佩, 萬壽 香 등	
		⑥ 訓導		1865.2.	15		英綃緞, 唐筆, 唐 貴州紬 등, 唐墨 등		繡囊, 萬壽 香 등	
		⑦ 別差		1865.3.	15		表紬, 西色筆, 海 洋緞 등, 墨 등		假花, 萬壽 香 등	
		⑧ 堂上差備官	都船主	1865.2.	15		貴州紬, 粉紬 등			書本, 畫本, 萬壽 色絲, 香 등
		⑨ 堂下差備官		1865.3.	12		三升, 亢 羅布 등			書本, 畫本, 萬壽 色尾扇, 香 등
		⑩ 訓導		1865.2.	13		貴州紬, 唐筆 등 西洋木 등		美人圖, 玉 佩, 萬壽香 등	
		⑪ 別差		1865.3.	12		表紬, 西色筆, 海 洋緞 등, 墨 등		色尾扇, 萬壽 香 등	
		⑫ 堂上差備官		1865.3.	15		貴州紬, 西 洋緞 등			書本, 畫本, 萬壽 色絲, 香 등
		⑬ 堂下差備官	封進	1865.3.	12		三升, 亢 羅布 등			書本, 畫本, 萬壽 色尾扇, 香 등
		⑭ 訓導		1865.2.	13		貴州紬, 唐筆 등 西洋木 등		美人圖, 玉 佩, 萬壽香 등	
		⑮ 別差		1865.3.	12		表紬, 西 洋緞 등			書本, 畫本, 萬壽 色尾扇, 香 등

주: 원문에는 '音物'로 적었는데, 이것은 조선에서 말하는 '私禮單'에 해당함.

자료: 『陳賀大差記錄(1864년)』(국사편찬위원회 DK3546)

지금까지 외교 선물의 교환에 대하여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 번째는 외교문서에 딸린 별폭을 통한 선물 교환인데(別幅과 回賜別幅), 이 경우는 몇 차례 변화가 있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품목과 수량이 비탄력적이며 정형화된 형태로 이루어졌다(품목, 수량 모두 거의 고정). 두 번째는 세 차례의 공식 연석(三度宴)을 통한 선물 교환인데(조선 조정의 公禮單과 접위관 등에 의한 私禮單), 첫 번째(별폭)보다는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되어 품목과 수량에서 다양성이 엿보인다. 여기까지는 조선 측 기록에도 상세한 내용이 적혀 있다. 세 번째는 외교 업무와 관련된 개인 차원의 선물 교환이었는데(이것을 조선은 私禮單, 일본은 音物로 표기함), 품목이 다양하고 유동적이었다(이에 대해서는 일본 측 기록만 현존함). 그

가운데서도 서양 면직물로 보이는 품목이 외교 선물로 교환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貴州紬, 英綉緞, 西洋木, 西洋佳只, 西洋緞, 亢羅布 등).

#### 4. 외교 선물과 주문품의 관련성

##### (1) 대화진주(大和眞朱)의 사례

앞에서 제시한 <표 3-1>(연번 21)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국왕의 즉위를 축하하러 온 일본 사절이 예조참의에게 전달한 외교 선물 속에 대화진주(大和眞朱)가 5근씩 포함되어 있었다(1720년, 1724년, 1776년, 1800년, 1835년, 1850년, 1864년).<sup>88)</sup> 그런데 대마도주가 동래부사나 부산첨사에게 보낸 외교 선물 속에는 이 물품은 포함된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위의 외교 선물과는 별개로 대마도주가 매년 정기적으로 조선에 파견한 연례송사(年例送使) 중에서 세견(歲遣) 제1선과 특송(特送) 제1~3선에 의한 공무역(公貿易)을 통해서 각각 2근씩 총 8근이 해마다 조선으로 수입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서계별 폭(書契別幅)에 대화진주(大和眞朱)라고 표기되던 것이 『증정교린지』에서는 주홍(朱紅)으로 명칭이 바뀌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더구나 『만기요람』(재용편 3 호조 공물)에는 그것이 왜주홍(倭朱紅)이란 물품명으로 적혀 있다. 즉 대화진주(大和眞朱), 일본주(日本朱), 진주(眞朱), 또는 주(朱)가 조선으로 수입된 이후부터는 주홍(朱紅) 또는 왜주홍(倭朱紅)으로 불렸지만, 이들이 모두 동일 물품이라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조선이 왜주홍(대화진주)을 언제부터 일본에서 수입하기 시작하여 그것을 어떻게 이용했는지는 선행 연구가 참고가 된다.<sup>89)</sup> 이에 따르면 조선 왕실에서 왕과 왕비일 경우 붉은 칠을 쓰고, 왕세자 이하일 경우는 검은 칠을 사용하였는데,<sup>90)</sup> 왜주홍(대화진주)은 옷칠과 섞였을 때 색이 더욱 선명하고 화려하여 조선에서 호평을 받았다. 그래서 왜주홍의 국내 가격이 중국에서 수입한 당주홍보다 2~3배 더 비쌌다고 한다.<sup>91)</sup>

왜주홍(대화진주)의 수입 가격과 관련하여 1751년 1월 22일 『관수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조선이 공무역을 통해 수입하는 호초(胡椒), 단목(丹木), 주(朱)의 가격을 둘러싸고 조선 역관(敬甫 黃僉知)과 왜관의 이대관(二代官) 사이에서 협상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호초(胡椒)는 1,000근에 10목(目), 단목(丹木)은 1근에 12문(文), 주(朱)는 1근에 160문(文)으로 쳐서 값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왜관 내부의 방침이었던 것으로

88) 『국역 증정교린지』 76쪽에 소개된 ‘예조참의에게 보내는 서계(『동문회고』 진하편을 볼 것)의 별 폭’이 “① 통감강목 전부 2상자, ② 흥백우견 20필, ③ 자명종 1좌, ④ 원경병가 2면, ⑤ 혁과대부 갑 1비, ⑥ 포목지 200편, ⑦ 대화진주 5근, ⑧ 용원 30근, ⑨ 견절 200편”이라고 적었는데, 이를 앞에 소개한 <표 3-1>과 비교해보면 1724년, 1776년 사례와 일치한다. 따라서 『국역 증정교린지』에 대한 사료비판(史料批判)을 생략한 채 이를 진하차왜(진하대차사)의 전 시기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역사 사실을 왜곡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89) 김미라, 「조선후기 왜주홍의 수입과 활용」, 『석당논총』 85, 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23.

90) 김미라, 「조선후기 왜주홍의 수입과 활용」, 85쪽.

91) 김미라, 「조선후기 왜주홍의 수입과 활용」, 91-92쪽.

보인다.<sup>92)</sup>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왜주홍(대화진주)의 수입 원가가 단목의 그것보다 13배 이상 더 고가(高價)였다고 보아도 될 듯하다. 다만 하루 전 기록을 보면, “이때 봉진물(封進物)을 실은 배가 파선(破船)되어 봉진 연석(封進宴席)도 마치지 못하여 (敬甫 黃僉知가) 동래부사 앞에 나서지도 못할 정도”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호소하는 내용이 있다(一特送使 封進宴席은 동년 1월 26일<sup>93)</sup> 개최됨).<sup>94)</sup>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물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등귀(騰貴)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여 당시 왜주홍(대화진주) 등의 수입 원가가 여느 때보다는 더 높아졌던 것도 여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무튼 조선은 1480년대부터 일본에서 주홍을 수입해 오는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것은 조선 왕실에서 주홍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 뒤 1609년 기유약조(己酉約條)가 체결되면서 그때부터 연례송사에 의한 진상(進上)으로 ‘왜주홍(대화진주) 8근’의 수량이 정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무역(私貿易)을 통해서 조선에 수입된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sup>95)</sup>

## (2) 용안(龍眼)의 사례

앞에서 제시한 <표 3-1>(연번 22)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국왕의 즉위를 축하하러 온 일본 사절이 예조참의에게 전달한 외교 선물 속에 용원(龍圓) 30근이 포함되어 있었다(1720년, 1724년, 1776년, 1800년, 1835년, 1850년, 1864년). 그것이 『양국왕복서등』에는 용안육(龍眼肉)으로 적혀 있으며,<sup>96)</sup> 다른 기록에서는 용안(龍眼)으로 기재한 사례도 발견된다.<sup>97)</sup> 그런데 대마도주가 동래부사나 부산첨사에게 보낸 외교 선물 속에는 이 물품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무튼 용안육은 무환자나무과에 속하는 식물인 용안의 가종피(假種皮)를 말한다.<sup>98)</sup>

용안의 첫 번째 사례(1720년)보다 약 20년 전에 해당하는 1701년의 『관수일기』를 살펴보면, 조선 측이 왜관에 용안을 조달해 달라고 주문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이

92) 今日二代官方へ敬甫相招胡椒丹木朱之直段申談見候處、胡椒ハ千斤ニ付拾メ目ハより内ニ入候而ハ聞而不相成、丹木ハ一斤ニ付十二匁カへ、朱ハ一斤ニ付百六拾匁カへニ可致由 … (이하 생략). 『館守日記』 寬延 4년(1751) 1월 22일.

93) 一特送使封進宴席有之候ニ付宴席門開閉共ニ御簾善ハ勤之. 『館守日記』 寬延 4년(1751) 1월 26일.

94) 通詞阿比留後三郎杉原四郎兵衛罷出申聞候は、兼而胡椒丹木朱之儀相賴置候敬甫黃僉知唯今急ニ入館仕申聞候は、一特送使定日モ今日迄ニ而相滿候ニ付、兩譯より封進物積居候船致破船候ニ付達方及延引由之趣を以致手本候處東萊甚被致立腹、兼而ハ正官病氣ト申、今又封進物積居候船致破船候坏ト日本人より之欺既及日外候迄封進宴席も不相濟其方共不屈千万ニ候、依之明日ハ日明候故急度致啟聞其方共ニモ叱度罪科ニ被申付候様ニ可申越ト被申候而東萊目前へ罷出候義被差留候由申聞候 … (이하 생략). 『館守日記』 寬延 4년(1751) 1월 21일.

95) 김미라, 「조선후기 왜주홍의 수입과 활용」, 103-105쪽.

96) 『兩國往復書牘』 174(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97) 『館守日記』 元祿 14년(1701) 9월 27일.

98) 여름과 겨울에 과실이 성숙할 때 채취하여 과일의 껍질을 제거하고 가종피(假種皮)만 취하여 햇볕에 건조하여 사용한다(대한한의학회, 『표준한의학용어집 2.1』, 2021).

에 따르면 임시 별차(假別差) 정판사(鄭判事)가 왜관으로 들어가 관수(嶋雄八左衛門)에게 용안 등을 주문하면서 그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왕후—인현왕후(仁顯王后), 인용자주—가 서거(逝去)함에 따라 곧 제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그때 ‘구넨보’(久年母), 밀감(蜜柑), 여지(荔枝), 용안(龍眼)을 제례(祭禮) 용도로 마련해야 하므로, 비선(飛船)을 대마도(對州)로 보내서라도 조속히 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그것이다.<sup>99)</sup> 『분류기사대강』에도 1701년(元祿 14) 11월 5일 작성되어 관수에게 전달된 서장(書狀)이 실려 있는데, 이를 통해서 조선 정부가 용안 등을 주문한 것에 대하여 대마도 측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서장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훈도와 별차가 왜관으로 들어와서 왕후 제례 때 쓸 여지(荔枝), 용안(龍眼), 밀감(蜜柑), 구넨보(久年母)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면서, 부디 비선(飛船)이라도 (대마도에) 급히 보내서, 위의 4종을 구해주도록 하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위의 4종이) 조달되는 대로 빠르게 (대마도에서 왜관으로) 보내겠다.”는 내용이 그것이다.<sup>100)</sup>

그런데 이보다 30년 뒤인 1730년에도 조선 정부가 용안육(龍眼肉)과 구넨보(久年母) 등을 주문하였다. 이때는 대비(大妃) 제례용으로 용안(龍眼) 6근과 구넨보(久年母) 800개를 조달해 줄 것을 동래부사의 지시를 받은 두 역관(훈도, 별차)이 왜관 측에(古館守) 주문하였다. 이에 대마도에서는 비선(飛船)을 띄워서 조선 측의 주문(요청)에 따랐다. 동년 9월 20일 두 역관에게 ‘용안(龍眼) 6근, 구넨보(久年母) 800개’를 전달하였으며, 그 뒤 동래부사가 감사의 인사를 왜관 측에 전했다고 한다.<sup>101)</sup>

조선이 일본 측에 주문하여 조달에 성공한 용안 등 제수용 과일이 왕실 제사에서 실제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 주로 다루었던 외교 선물과는 별개로 이루어진 이른바 ‘주문’을 통한 물품 조달에 대해서 앞으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99) ○ 今日假別差鄭判事致入館申聞候は、后逝去追付祭■候、其節久年母蜜柑荔枝(?)龍眼祭禮■不申候而難叶儀=御座候間、飛船を以對州へ被仰越早々御取寄被下候様=と申聞 … (이하 생략).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100) 一 訓導別差入館仕り、先比逝去被致后祭禮之節荔枝龍眼蜜柑久年母備不申候而難叶義=候間相調申度候、何とそ飛船を以成りとも急便=被仰越、右之四色御取寄被下候様=申候二付、今度一特送使便=御代官方より御勘定所へ申越候由、委細被申越承届、則御勘定所へ早々相調候様=申度候間、相調急便=差越可申候。

右 元祿十四年 十一月五日 嶋雄八左衛門方へ申遣ス

(「朝鮮より所望物集書」, 『分類紀事大綱 29』,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101) 『館守日記』享保 15년(1730) 9월 5일, 동 20일, 동 26일, 동 29일(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分類紀事大綱』 1, 「分類紀事大綱 四」, 大妃薨去之事, 享保 15년(1730) 9월 4일, 동 5일, 동 14일, 동 23일(국사편찬위원회, 2005); 「分類紀事大綱 四」(大妃薨去之事)의 국사편찬위원회 원본 자료의 등록번호는 DK4523)

### (3) 자명종(自鳴鐘)의 사례

앞에서 제시한 <표 3-1>(연번 17)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 국왕의 즉위를 축하하러 온 일본 사절이 예조참의에게 전달한 외교 선물 속에 자명종(自鳴鐘) 1좌(坐)가 포함되어 있었다(1720년, 1724년, 1776년, 1800년, 1835년, 1850년, 1864년). 자명종을 시계(時計)로 적은 기록 있다.<sup>102)</sup> 그런데 대마도주가 동래부사나 부산첨사에게 보낸 외교 선물 속에는 이 물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명종의 첫 번째 사례(1720년)보다 30년 전인 1691년에<sup>103)</sup> 조선 국왕이 사용할 시계(時計)를 일본 측에 주문할 일이 있었음이 『분류사고』를 통해 확인된다.<sup>104)</sup> 『관수일기』(1691.1.20.)에는 이보다 더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다. “훈도(朴僉知)가 조선 국왕의 주문이라고 하면서 시계를 빨리 조달해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관수 쪽에 주문을 넣었다. 그러자 관수가 (사무역을 전담하는) 쇼바이가카리(商賣掛) 세키노 진베에(關野甚兵衛), 아리타 고베에(有田五兵衛), 가케하시 소베에(梯惣兵衛) 쪽으로 위의 주문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위 3인이 대마도의 쇼바이가카리 쪽으로 (시계를) 구해서 (왜관으로) 보내주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관수는 시하이(御支配) 다지마 쥬로베에 님(田嶋十郎兵衛殿) 쪽으로도 이 사실을 알려서, 대마도의 쇼바이가카리에게 시계 주문에 관하여 지시해 주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 그것이다.<sup>105)</sup>

그 뒤로도 시계 주문은 이어졌다. 1704년 11월 5일에는 역관을 통해서 ‘조선 국왕이 시계 2통(通)을 소망(所望)한다’는 내용이 일본 측에 전달되었다.<sup>106)</sup> 『분류사고』에서는 시계의 주문 기록이 세 차례 더 발견된다(1707.12.16, 1708.1.30, 1708.12.16). 그런데 이 모두가 ‘국용(國用)’으로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조선 조정에서 사용할 시계를 일본에 주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sup>107)</sup>

이러한 움직임이 그 뒤로도 이어져서 1720년부터 조선 국왕 즉위를 축하하러 오는 일본

102) 「御註文之事 外向共」, 『分類事考 10』(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 「朝鮮より所望物集書」, 『分類紀事大綱 29』, 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

103) 자명종(自鳴鐘)의 존재를 조선에 처음 알린 것은 이수광(李睟光)이었지만, 자명종의 실물이 조선으로 건너온 것은 1631년 정두원(鄭斗源)에 의해서라고 한다(강명관, 『조선에 온 서양 물건들』, 휴머니스트, 2017, 206-210쪽).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1691년에 조선 국왕이 시계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104) 朝鮮公義より時計詔之事 元祿四年未正月廿日(「御註文之事 外向共」, 『分類事考 10』, 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

105) 訓導朴僉知より公儀詔之由ニ而時計至急相調度由此方へ註文差出置候間、御商賣掛關野甚兵衛有田五兵衛梯惣兵衛方へ右之註文相渡シ御國元御商賣掛方へ右三人より申遣相調被差渡候様ニ申渡ス。尤御支配田嶋十郎兵衛殿方ニも於御國元御商賣掛中ニ時計之儀被仰付早々相調差渡シ候様ニ被仰付候様ニ申遣ス。『館守日記』元祿 4년(1691) 1월 20일(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

106) 「朝鮮より所望物集書」, 『分類紀事大綱 29』(일본 국립국회도서관 소장)

107) 「御註文之事 外向共」, 『分類事考 10』, 일본 國立國會圖書館 소장)

사절이 가져오는 외교 선물(書契別幅) 속에 자명종 즉 시계가 포함되기에 이른 것일지도 모른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 추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IV. 맺음말

외교 선물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의례나 연회(연석)를 통해서 교환되기도 했지만, 개인 차원에서 교환되는 일도 있었다. 예를 들어서 1864년 (철종 승하) 조문 사절이 중원(中元)을 맞이하여 조선의 동래부사(東萊府使)에게 보낸 외교 선물 속에는 다양한 물품이 들어 있었다. 즉 별우산(別雨傘), 토층갑(土層匣), 소토층갑(小土層匣), 중자망(中炙網), 오촌전자(五寸剪子), 중윤도(中輪圖), 대남초(代南艸), 인풍(仁風) 등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서 비를 가리는 우산, 고기 굽는 석쇠, 물건을 자르는 가위, 위치와 방향을 측정하는 나침반, 그리고 당시 최대의 기호품이었던 담배 등, 이른바 생활용품이나 기호품 등이 일본에서 유입되어 조선의 관리에게 외교 선물로 전달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1864년 (고종 즉위) 축하 사절이 조선으로 입항한 뒤에 동래부사(東萊府使)에게 보낸 외교 선물은 일본에서 제작하거나 조달하여 조선으로 가져온 물품들이다. 즉 적동누오관반(赤銅累五盥盤), 적동누오유구남비(赤銅累五有口南飛), 채화팔촌층갑(彩畫八寸層匣), 문지(紋紙), 소자망(小炙網), 소강판(小姜板), 유리주잔(琉璃酒盞), 삼촌윤도(三寸輪圖), 안경(眼鏡) 등이 그것이다. 이 사례를 통해서 구리로 만든 대야와 남비, 문양을 넣은 문갑, 무늬가 들어간 종이, 석쇠, 강판, 유리로 만든 술잔, 안경 등이 조선의 관리들에게 외교 선물로 전달되었음이 확인된다.

이렇듯 일본의 조문 사절이나 축하 사절이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에 양측의 외교 관계자가 개인 차원에서 주고받은 외교 선물을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종류의 다양함’이 눈에 띈다. 공식 외교문서(書契)와 함께 교환했던 별폭의 예물이 ‘정형화’되어 있었던 것과 이것은 크게 차이가 난다.

앞으로 연구에서는 외교 선물의 교환을 상품 교환 또는 주문품 교환과 서로 비교해가면서, 물품 교환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각각 차지하고 있었던 역사적 의미를 밝혀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이 그 길로 나아가는 데 하나의 기초 자료로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 『同文彙考』(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78)  
 『邊例集要』(국사편찬위원회, 1984)  
 『吊慰差倭臆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陳賀差倭臆錄』(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역 증정교린지』, 김건서 저, 하우봉·홍성덕 역, 민족문화추진회, 1998.  
 『국역 통문관지』 1, 세종대왕기념사업회, 1998.  
 『신편 국역 예조 전객사 변례집요』, 민족문화추진회, 한국학술정보, 2006.  
 『本邦朝鮮往復書』(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 2928, 2929, 2938, 국사편찬위원회)  
 『(御內用御內密綴)』(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 4016 MF 0668, 국사편찬위원회)  
 『弔禮使記錄』(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 3554 MF 0614, 국사편찬위원회)  
 『陳賀大差記錄』(대마도종가문서 기록류 No. 3541 MF 0613, 국사편찬위원회)  
 『(一代官)每日記』(일본 長崎縣立對馬歷史民俗資料館)  
 『館守日記』『兩國往復書臆』(이상 일본 國立國會圖書館)

## 2. 논저

- 강명관, 『조선에 온 서양 물건들』, 휴머니스트, 2017.  
 김강일, 『조선후기 왜관의 운영실태 연구』, 경인문화사, 2020.  
 다시로 가즈이 지음, 정성일 옮김, 『왜관—조선은 왜 일본사람들을 가두었을까?—』, 논형, 2005.  
 부산광역시 중구, 『우리의 삶터 중구 부산을 담다』(부산 중구지 증보판 상), 2018.  
 심민정, 『조선후기 일본사신 왕래와 접대』, 경인문화사, 2022.  
 이훈, 『외교문서로 본 조선과 일본의 의사소통』, 경인문화사, 2011.  
 이훈, 『조선의 통신사외교와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2020.  
 정성일, 「부산 왜관에 살았던 대마도 사람들」(한일문화교류기금 편, 『한반도의 일본인, 일본 열도의 한국인』, 경인문화사), 2023.  
 정성일, 「일본 사절의 조선 국왕 조문과 대마도주의 별폭—1864년 철종 승하 조문 사절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83, 2023.  
 정성일, 「일본 사신의 조선 국왕 즉위 축하와 가쓰오부시[鯉節]—1864년 고종 즉위 축하 사절을 중심으로—」, 『조선통신사연구』 34, 조선통신사학회, 2022.  
 정성일, 『조선후기 대일무역』, 신서원, 2000.  
 田代和生, 『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文春新書 281), 文藝春秋, 2002.  
 田代和生, 『新.倭館—鎖國時代の日本人町—』(ゆまに学芸選書 ULULA2), ゆまに書房, 2011.  
 池内敏, 『絶海の碩學—近世日朝外交史研究—』, 名古屋大学出版會, 2017.  
 池内敏, 『徳川幕府朝鮮外交史研究序説』, 清文堂, 2024.

# 朝鮮国王と対馬島主との外交上の贈物の交換 —1864年の日本の弔問使節と祝賀使節の事例—

鄭成一(光州女子大学)

外交上の贈物は政府レベルの公式的な儀礼や宴会（宴席）を通じて交換されることが多かったが、個人レベルで交換されることもあった。例えば、1864年(哲宗の崩御)、弔問使節が中元を迎えて朝鮮の東萊府使に送った外交上の贈物の中には様々な物品が入っていた。すなわち、別雨傘、土層匣、小土層匣、中灸網、五寸剪子、中輪圖、代南艸、仁風などがそれである。これにより、雨を覆う「傘」、肉を焼く「焼き網」、物を切る「はさみ」、位置と方向を測定する「羅針盤」と、当時最大の嗜好品だった「タバコ」など、いわゆる生活用品や嗜好品などが日本から輸入され、朝鮮の官吏に外交上の贈物として渡されたといえるだろう。

もう一つの例を挙げると、1864年(高宗の即位)の祝賀使節が朝鮮に入港した後、東萊府使に送った外交上の贈物は、日本で製作または調達し、朝鮮に持ってきた物である。すなわち、赤銅累五盃盤、赤銅累五有口南飛、彩畫八寸層匣、紋紙、小灸網、小姜板、琉璃酒盞、三寸輪圖、眼鏡などがそれである。この事例を見ると、銅で作ったタライと鍋、模様を入れた文箱、模様の入った紙、焼き網、鋼板、ガラスで作った杯、眼鏡などが朝鮮の官吏に外交上の贈物として伝えられたことが確認できる。

このように、日本の弔問使節や祝賀使節が朝鮮に滞在する間、双方の外交関係者が個人レベルでやり取りした外交上の贈物を見ると、何よりも「種類の多様さ」が目立つ。公式の外交文書（書契）とともにやり取りした別幅の礼物が「定型化」されていたことと、個人レベルで贈り物は大きく異なる。

今後の研究では、外交上の贈物の交換を商品の交換、または注文品の交換と比較しながら、品物の交換という大きな枠組みの中で、それぞれの占める歴史的意義を明らかにする作業が行われるべきである。この論文がその方向に進むための基礎資料として提供されることを期待する。

# 정성일, 「조선국왕과 대마도주의 외교 선물 교환 - 1864년 일본의 조문 사절과 축하 사절 사례-」에 대한 토론문

허지은(서강대)

‘외교 선물(外交膳物)’은 국가 간의 지속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의사 표현 수단이며, 한일 관계사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선 후기 조일(朝日) 양국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 외교 선물 교환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외교·무역 관계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고찰한 본 발표는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표문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1. 논문 제목

논문의 제목은 "조선 국왕과 대마도주의 외교 선물 교환"입니다. 그러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일본의 조문 사절과 축하 사절이 지참한 서계는 예조와 동래부사·부산첨사에게 전달되었고, 회답 서계의 발신인 역시 예조참의, 동래부사, 부산첨사입니다. 일본의 조문 사절과 축하 사절이 쓰시마도주로부터의 외교 선물을 지참하고 왔지만 그 대상을 조선 국왕으로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제목은 조선 국왕과 대마도주가 서로 직접 선물을 주고받은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외교 업무와 관련된 개인 차원의 선물 교환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목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2. 서계별폭의 정례화 과정

PP. 7~8 발표문에서, 일본의 조문 사절의 경우 대마도주의 서계 별폭과 조선 예조참의 회답 서계에 딸린 회사별폭이 1649년과 1659~60년의 변화를 거친 뒤, 1674~75년부터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이 정례화되었고, 1864년까지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반면 일본의 축하 사절의 경우, 대마도주가 예조참의에게 보낸 서계 별폭이 1650년, 1660년, 1675년의 변화를 거쳐 1720년부터 정례화되었으며, 1800년에 다시

변화를 겪고 1864년까지 지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래부사와 부산첨사 앞으로 보낸 서계의 별폭은 1650년부터 1776년까지는 대체로 동일했으나 1800년 이후 변화가 있었고, 그 뒤 1864년까지 그대로 이어졌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기적으로 대마도주의 서계 별폭이 정례화된 이유와 변화하게 된 계기에 대해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교 선물이 특정 물품으로 변경된 경우에 대해서도 언급하셨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3. 삼도연과 관련된 선물 교환

P. 12 3장 2절의 제목은 ‘삼도연을 통한 선물 교환’입니다. 그러나 발표문 내용에 따르면, 삼도연(三度宴) 개최 시 조선 조정과 접위관(接慰官)·당상차비관이 일본 사절에게 준 외교 선물(私禮單)만 조선과 일본 측의 기록을 바탕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조례사기록』을 바탕으로 하행(下行)에 대해 언급하면서 “양측이 다양한 선물을 주고받았음은 물론이다”와 “상선연(출선연) 때 지급할 선물의 교환은 관례대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셨는데, 일본 사절이 조선 측에 준 외교 선물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4. 일본 측 기록과 조선 측 기록의 차이

P. 15,~16 <표 4-1>(조선의 삼도연 예단 지급 규정) <표 4-2>(일본 측사 사절이 기록한 삼도연 외교 선물)에서 조선 측 기록에 삼도연 때 조선 조정의 외교 선물에 대한 수취자는 상위 직급부터 하위 직급까지 명시되어 있는 반면, 접위관·당상차비관의 외교 선물에 대한 일본 사절의 수취자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유와 일본 측 기록에서 당상차비관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5. 외교 선물 기록 관련

P. 17 삼도연 때의 외교 선물에 대해, "조선 조정이 정관과 도선주에게 지급한 예단의 품목과 수량에서는 두 기록이 일치하지만, 그 외에는 차이가 많다. 특히 접위관 등이 지급한 것을 기록한 내용에서 일본 측 기록이 상대적으로 더 자세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외교 선물을 받는 쪽에서 선례를 중요하게 여겨 그 내용을 더 자세히 기록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제시되었는데, 외교 선물을 받는 쪽에서 선례를

더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쓰시마번의 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혹은 조선 측에서 일본 사절에게 받은 선물의 내용을 더 자세히 기록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6. ‘외교 선물’ 용어, 선물 마련 및 수취 이후

‘외교 선물(外交贈物)’이라는 학술 용어는 발표자 선생님께서 『한국문화사』 12(2007)에서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선물과 증여는 엄밀히 말하면 개념에 차이가 있으며, 증여(gift)란 걸보기에는 의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답례(答禮)나 회례(回禮)를 의무적으로 전제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물(present) 개념과 다르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한일 관계에서는 ‘증여’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발표자께서 ‘선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물’을 사용하는 대신 ‘교환’이라는 용어를 넣는 것이 의미를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외교 업무와 관련된 개인 차원의 선물 교환의 경우, 각각 어떻게 선물을 마련하는지, 그리고 선물을 받은 후 그 선물을 개인이 소비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